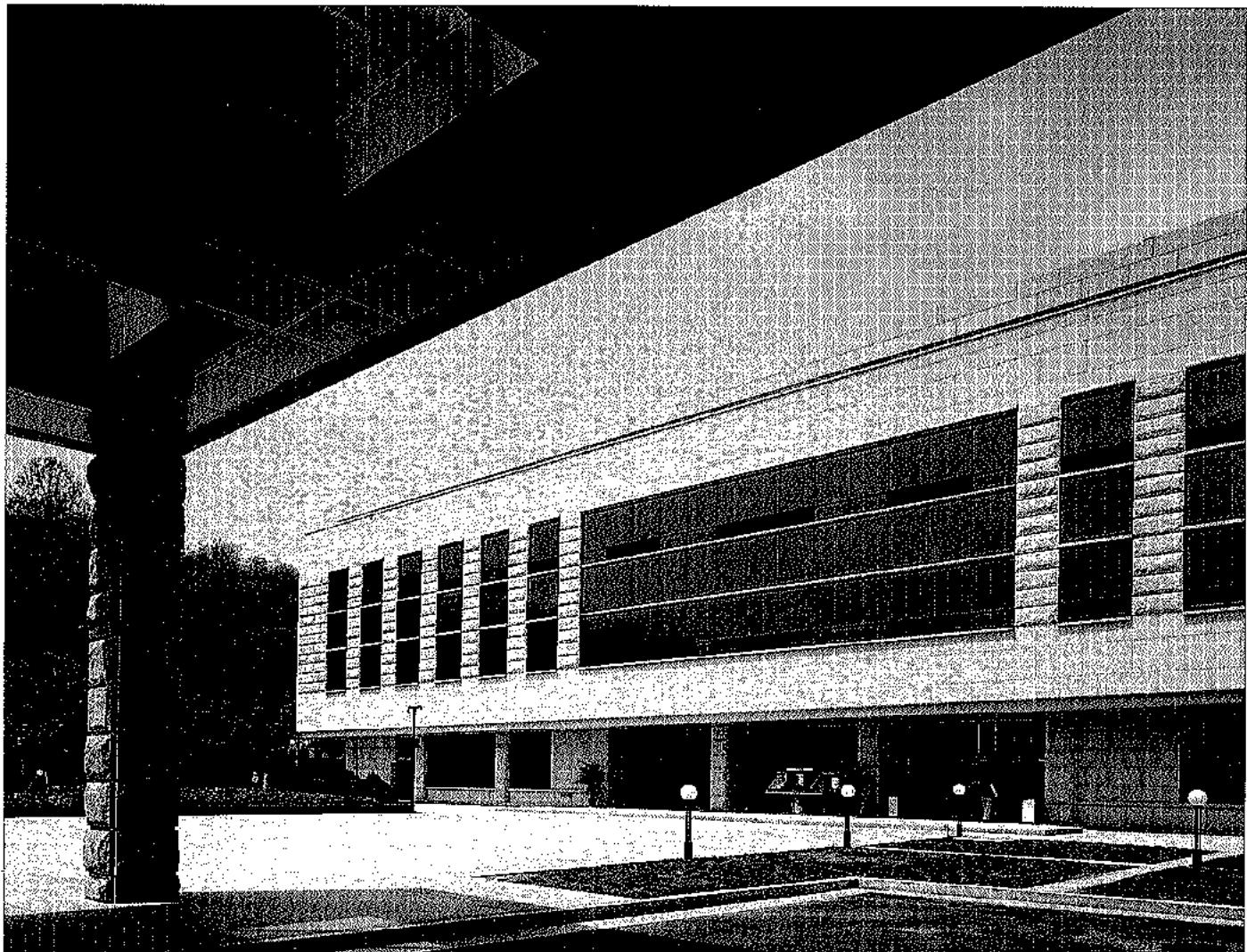


建筑十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 6월호 통권314호



월간 건축사 1995년 6월호 통권 314호(매월 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서)라 - 26 1985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니)급인가

June
6

칼럼
『환경보전』 이대로 좋은가 / 송민구

의원작품

선경도서관 / 오성근+홍기택

과천등기소 / 류준수

월광교화 / 정낙규

대각빌딩 / 정림건축

주택전시관 / 강철희+강건희

건축기행

인도 여행 스케치 / 죄동호

작품노트

건축가가 만든 상징조형물 / 죄영집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김정수(1) / 이호진

전통건축

한국 유교 건축의 재조명(2) / 김지민

연구

송『영조법식』〈대목작제도〉주해(7) / 김도경+주남철

기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윤혁경

해외건축

프랑스 성당 및 수도원 건축(4) / 박효순

현상설계경기

봉천지구 아파트,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

입고는 즉시 출고는 38초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에 대기로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년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 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벤茬스를 맴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삼성 주차설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수직순환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아동
시키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엘리베이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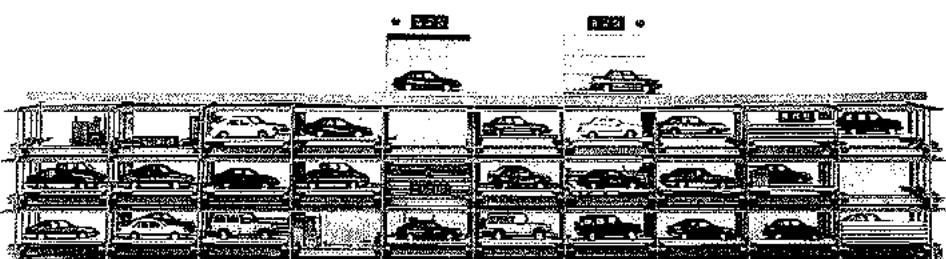
 엘리베이터에 차를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다층순환방식

 콘베이어 원리를 이용 팔레트를
상, 하층으로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시스템.

수평순환방식

 주차공간에 팔레트를 평면으로
배열하고 간단히 평면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세계 1등품질에 도전한다



삼성중공업



(주)중앙창호

본사·공장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문제사업부 (032) 571-7771 Fax 575-6655
경기구사업부 (032) 582-7771 Fax 571-7744
시스템창호사업부 (032) 583-7771 Fax 571-7744
서울점시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9
기린건축자재백화점 102호
(02) 548-8033 Fax 549-9234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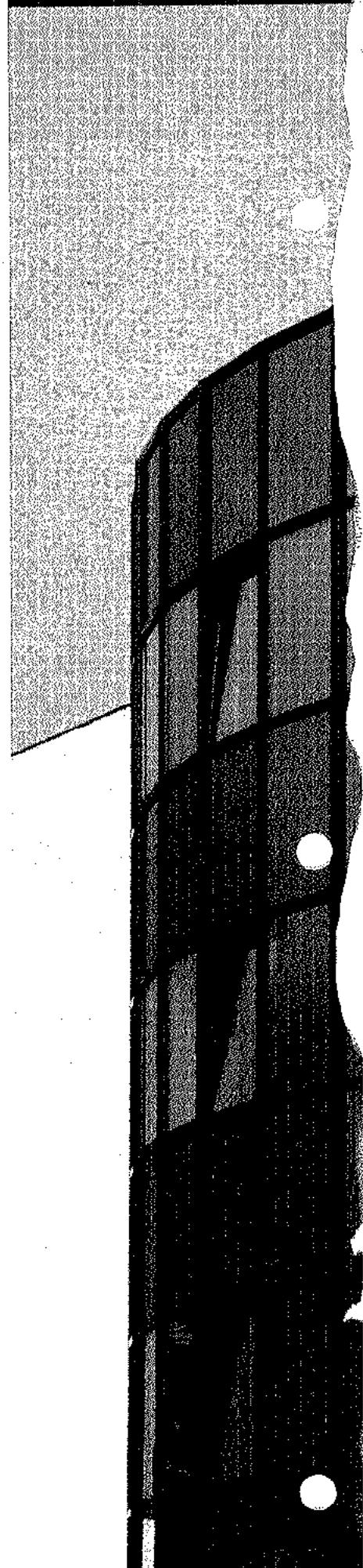
독일 HARTMANN 社의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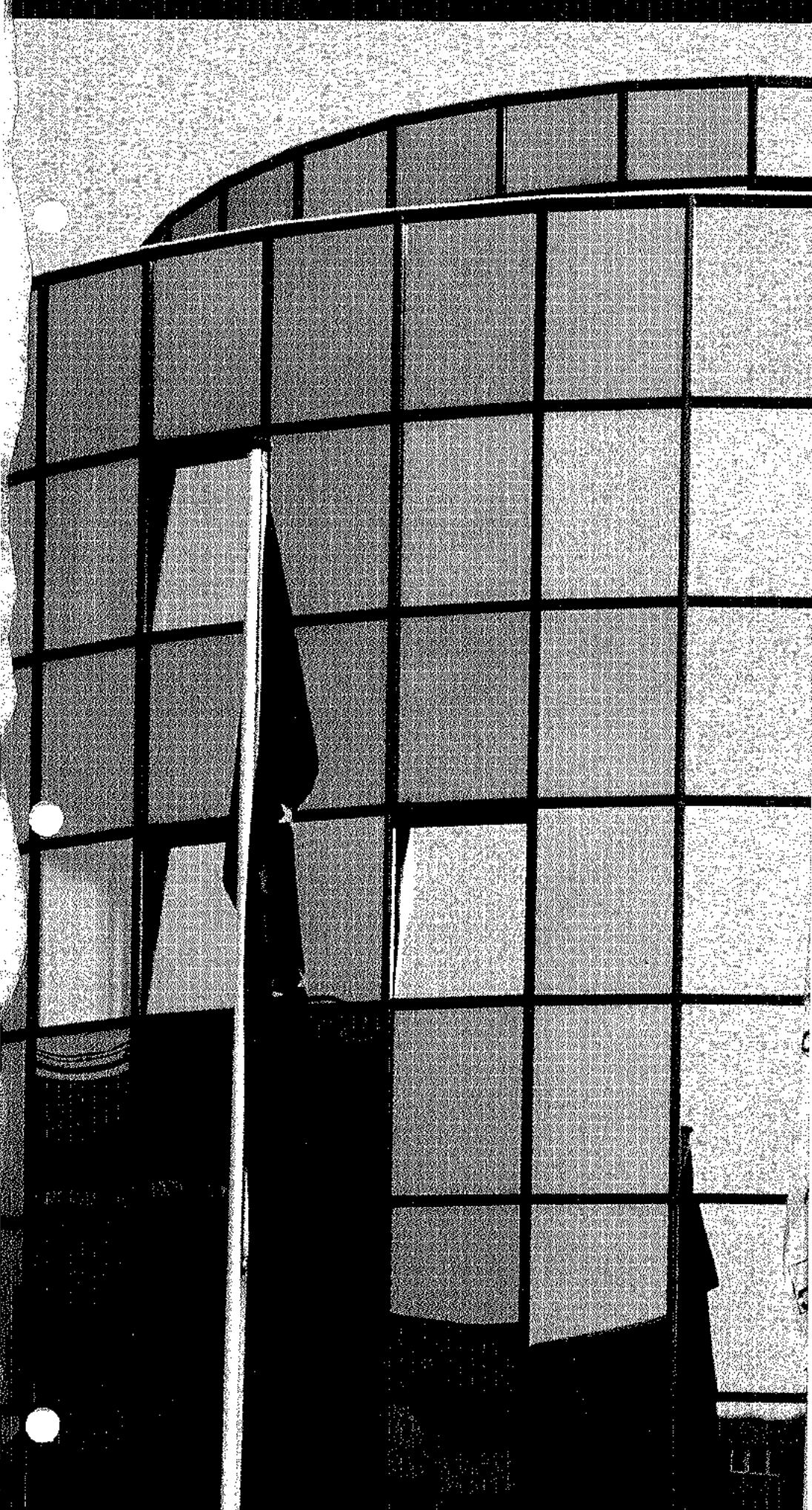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 . .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신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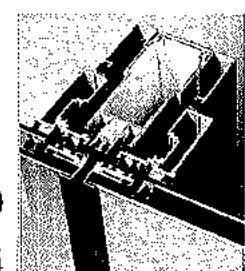
신공간

신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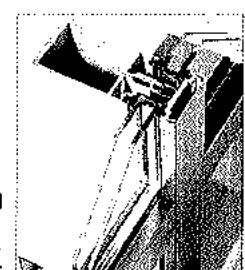
기술이 다르면

가치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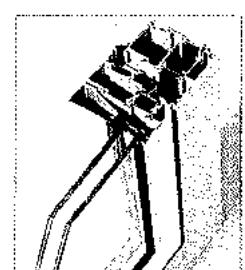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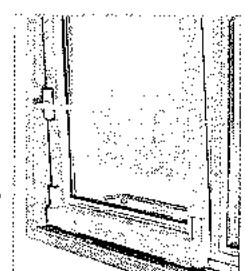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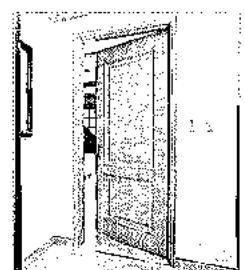
S-3000
단열창호T/T
(알루미늄+단열바, Tilt Turn)



알루우드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목재



원목DOOR
목재창호, 건구,
기구, 시스템키친도
생산합니다.



이일 전기 온돌판넬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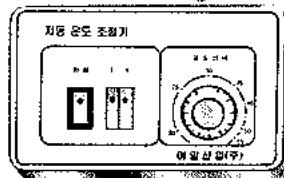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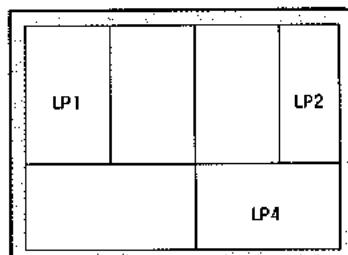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폐적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콘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아주 좋습니다.



■ 설치프랜
例



공진창 청식승인 ☎ 3-7-4527
실용신안권출원 제91-11674호
실용신안권 출원 제92-18466호
의장권 출원 제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면적 10.2㎡/난방면적 7.5㎡/부설율 73.5%
- 소요지자
 - 온돌판넬 LP1 (220V/240W) ×4장
 - 온돌판넬 LP2 (220V/120W) ×1장
 - 온돌판넬 LP4 (220V/180W) ×1장
 - 온도조절기(중형) ×1대
 - 전기용량소요 1.26kw
 - 전기요금예상
 $1.26kw \times 104r/\text{일} \times 0.7 \times 59\text{원}/\text{kwh} = 520\text{원}/\text{일}$
 $520\text{원} \times 30\text{일}/\text{월} = 15,600\text{원}/\text{월}$
 - 1일 10시간 사용, 통전률 70%, 전기요금
(전기)단가 59원/kwh의 월간전기요금임.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암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롯트

TEL. (032)813-5407 812-8798

지방지역 총판

대전 : (042)628-2845 강원 : (0392)33-0917

부산 : (051)248-9933 광주 : (062)225-0064

대구 : (053)753-4848 제주 : (064)44-4520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제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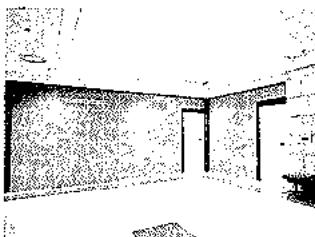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절대안전·인체성·편의성
을兼비한 시기미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미도과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동점
- 강남필 프리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명동 SS 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어트호텔
- 조선호텔
- 워커힐호텔
- 속초아름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시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시가전시회 출품

- '93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허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會社

본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 838-4545 (代)

FAX : 838-0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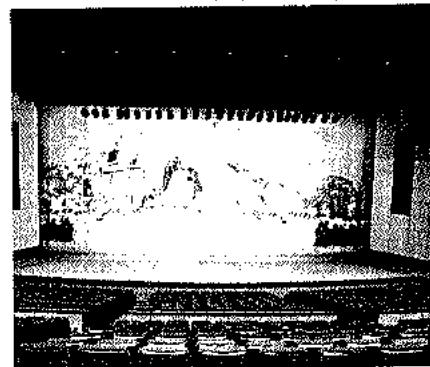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제조원 : 아주셔터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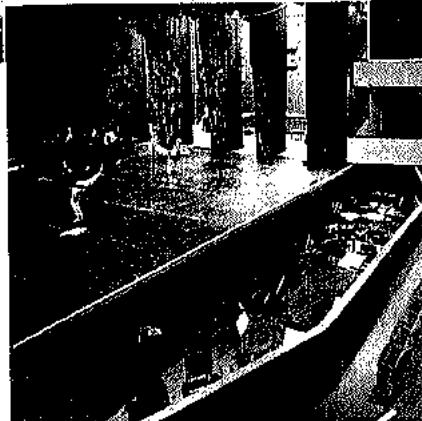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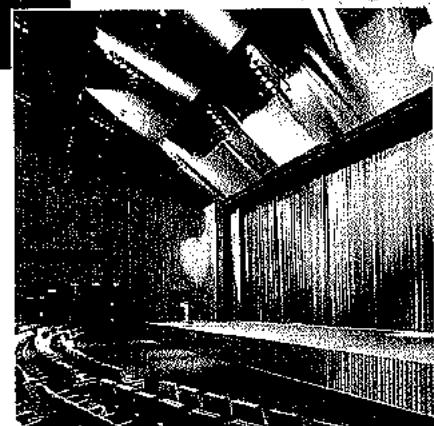
무대기계



무대조명



영상설비



기획 · 설계 · 시공



(주)성스테이지엔지ニア링
SUNG STAGE ENGINEERING CO., LTD.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8
(시화공단 2나 209)

TEL:(02)855-5373,(0345)499-8100~4
FAX:(0345)499-8105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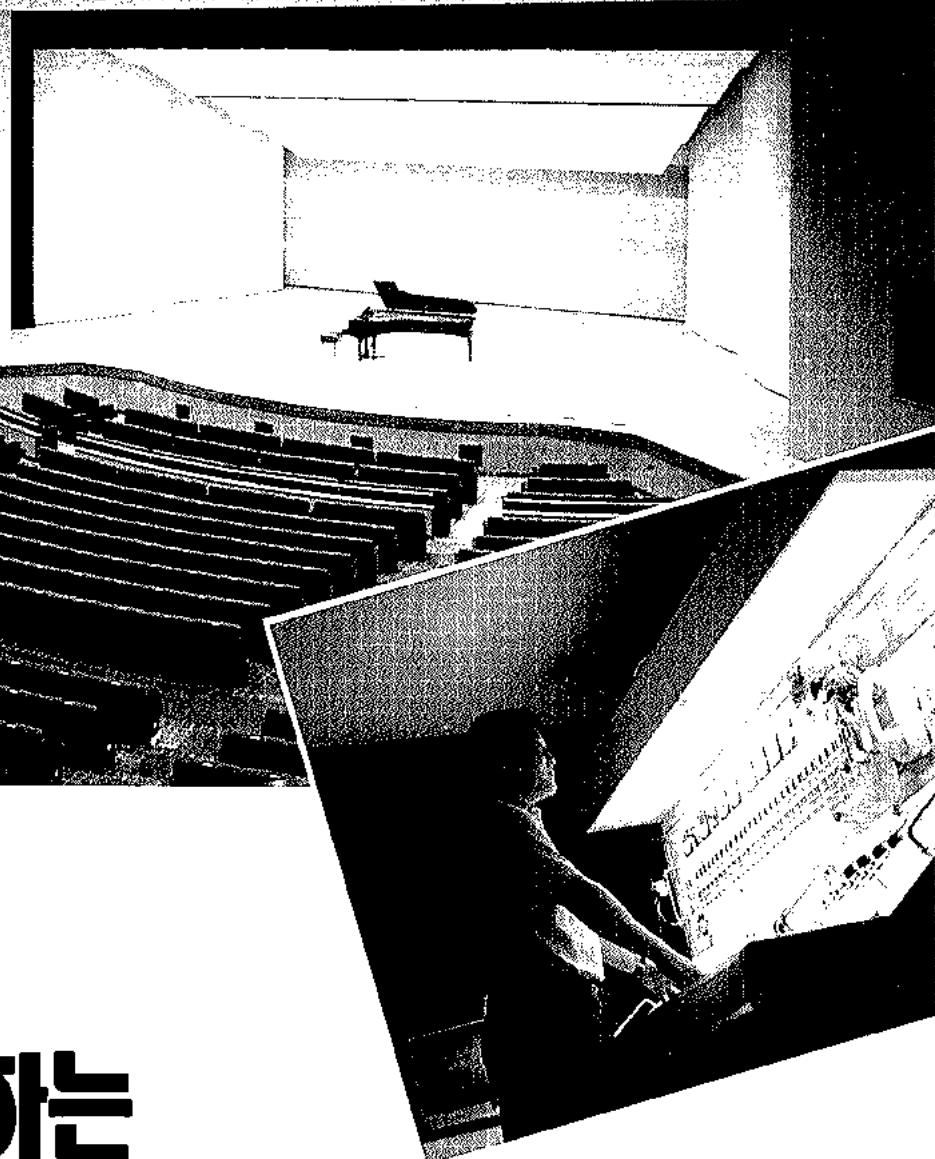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유관순기념관
- 국립극장
- 충현교회 본당
- 쇼라톤워커힐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롯데호텔
- 리틀엔젤스 선용공연장
- 부산문화예술회관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이화여대강당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몽센터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3-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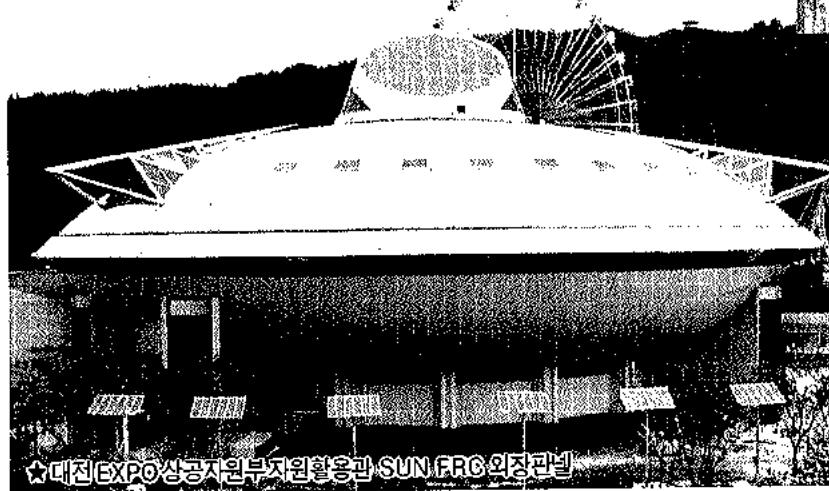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 937-4184, (02) 632-0216



하이테크 첨단 파인세라믹스 SUN FRC

SUN F.R.C 장기시험

장기시험 결과	
내연성(aA법)	불연성
인장강도 (kg/cm ²)	254
압축강도 (kg/cm ²)	663
휨강도 (kg/cm ²)	407
충격강도 (kg cm/cm, Charpy)	9.0
밀도 (g/cm ³)	1.762
흡수율 (%)	0.01
경도 (Durometer, H _D)	93
내열성 (100°C, 2hr)	이상없음
내 약 품 성	• 10% 황산 이상없음
	• 10% 염산 이상없음
	• 10% 질산 이상없음
	• 10% 수산화나트륨 이상없음
	• 95% 메틸 알콜 이상없음



★ 한국통신
궤도전시관
세라믹
SUN FRC
고건축

1. SUN F.R.C 기술설명서

1. SUN FRC는 조형성이 뛰어나고 어떤 꼬면이나 크기형태(디자인)의 제작이 자유로우며 1m/m~200m/m 두께로 제작이 가능한 파인 세라믹스입니다.

2. SUN FRC는 콘크리트에 비해 낮은 물의 계수에서 인장강도와 휨강도가 10배나 높습니다. 경화는 낮은 온도에서도 뛰어난 유연성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인장강도 시험결과 오랜 시간에도 일정성을 유지하고 100년에 준하는 가속실험 결과 외부노출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용력도가 뛰어나 어떤 형태의 변화에도 다양성있게 사용할 수 있고 가볍고 강도가 높아 300m/m~300m/m~3m/m의 평균무게가 450g 정도이어서 대략 FRP와 비슷합니다.

3. 온도 팽창계수는 강철과 비슷하게 낮은 F에서 inch당 7~10⁻⁶입니다. 충격에 강하며 하중에 의한 손상은 그 부분뿐이고 균열이 없어 보수가 용이합니다. 일반마모에는 물론 연마기에 의한 기계적 마모에도 저항성이 강하고 필요에 따라 페인트 등을 표면에 처리할 수 있고 판넬자체에 원하는 색상을 넣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4. SUN FRC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완전 불연성이며 시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없는 고신장력을 갖고 있는 무공해 첨단 신소재인 것입니다. 또한 현장 접합 시공이 전기용접, 볼트 등으로 작업이 용이하고 보온, 방수, 방음, 방사선 차폐, 낙뢰부진도 등에 효과가 커서 일반 건물내외 장재와 고건축 문화재 복원 등 조형물제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적 : 물자자료 75쪽 참조



株式會社大陸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366-13 (大陸B/D)
TEL:(02)5555-056 (代) FAX:(02)538-3236

“적산업무 전산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풀실적

조달청, 총무처(시설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체신부조달사업부, 법무부,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육군본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데이콤 현대건설(주), 공영토건(주), (주)기산, (주)대명건설,
 신동아종합건설(주), (주)대동주택, (주)우양건설, (주)삼환기업, (주)삼환끼류, 성일건설(주), 경향건설(주) 등국산업(주)
 신화건설(주), 라이프종합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주)대륙건설, 그랜드종합건설(주), 한주개발(주), (주)씨엠기업, (주)한솔건설
 삼안기술공사(주), 동보건설(주), (주)한국종합건축, 승도종합건축, 한강종합건축, 서울주택개발(주), 미주실업(주), (주)법한
 거양개발(주), 부성건설(주), 진로건설(주), 두산건설(주), 삼경건설(주), (주)창조종합건축, (주)신한, 서울건축(주)
 업이건축(주), 유일종합건축(주), (주)세마종합건축, 토당건축, 보람종합건축, 한국조형건축, 진화건축
 (주)이공건축, 미래건축(주), 동명기술공단(주), 가천종합건축, 도화종합기술공사(주)
 한양적산연구소, (주)세원엔지니어링, (주)한국산업경영연구소, 성진건축
 삼안건설기술공사(주), 서인적산연구소, 외 500개 업체.

견적비가 설계비의 5%도 안된다고 신경을 끼쳤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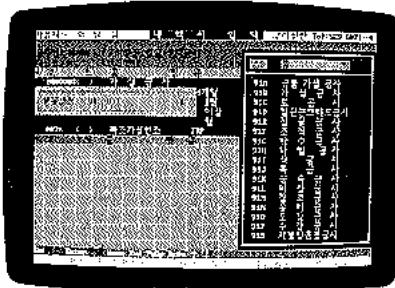
시장개방을 맞아 머지않아 기획에서 설계, 견적, 시공에 이르는 전문 분야를 연계하는
 CIC구축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전 적산업무를 외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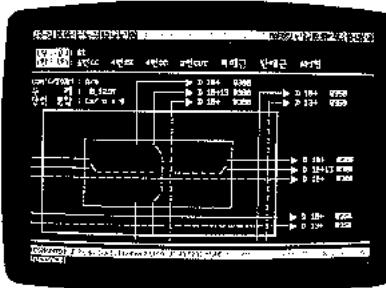
고려전산의 견적관리 프로그램이 **설계사무소** **판공서** **시공회사** 에서 많이
 사용하고, 평가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설계예산 내역서에서부터 발주처 시공회사까지 DATA가 연계처리
 되며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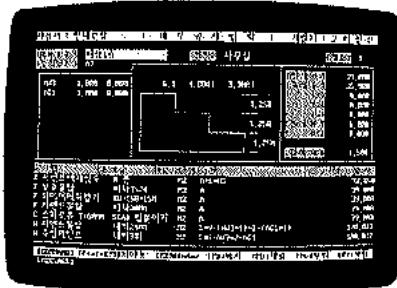
EMS-I(내역관리)



R.C(골조물량산출)



K-FIN(마감물량산출)



효과: ① 외주비 절감 ② 신뢰도 증가 ③ 다양한 분석 및 기술축적

S/W 목록

- EMS - I 내 역 관 리 SYSTEM
- EMS - II 전기내역관리 SYSTEM
- EMS - III 설비내역관리 SYSTEM
- EMS - IV 토 목 내 역 SYSTEM
- R.C 골조물량산출 SYSTEM
- K-FINISH 마감물량산출 SYSTEM
- M.M.S 자 재 관 리 SYSTEM
- P.M.S 공 사 관 리 SYSTEM
- A.M.S 건설회계관리 SYSTEM
- P-PMS 인사/급여관리 SYSTEM

특징: ① 사용하기 편리하다(도움말/화면메뉴/팝업메뉴방식)

- ② 최소의 입력으로 최대의 출력과 집계분석
- ③ 물량산출시 내역으로 자동연결됨
- ④ 자재코드, 일위대가 제공
- ⑤ 설계변경/기성내역 작성이 용이하다.
- ⑥ 관공서(발주처) 전산내역 입찰과 연결
- ⑦ 통신을 이용한 완벽한 아프티 서비스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안전과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無支保 逆打設 (N.S.T.D) 工法



무지보 역타설공법 전시세미나 (대한건설협회주최)

건축 지하구조물의 설계, 감리, 시공은 안전제일주의 무지보 역타설 공법

건축기술인과 함께하는 기업

(주) 정답

TEL: (02) 594-8100/9
FAX: (02) 533-9187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가설 H-형강 토류벽을 이용하여 건축 지하구조물을 역타설 축조하므로서

1.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원기상승없는 구조보강으로 안전성 증대
2. HANGING 장치에 의한 거푸집으로 상, 하향 자유자재로 이동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양생 중에도 그 하부 지하굴로 작업의 연속성 보장으로 획기적인 공기단축

종래 개착식 굴토후 구조물 축조공법과 비교하면

30%의 공기단축과 15%의 공사비절감

1. 동비리 사용 불필요
2. 중장비 작업대기 불필요
3. 거푸집 설치, 해체에 따른 소운반 불필요
4. 지하층수 증가할 수록 원기절감 효과 상승

무지보 역타설공법 안전진단결과

1. 홀막이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각 부재의 휨, 전단, 압축에 대한 작용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나타나 모두 안전함
2. 인접건물 기초 침하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전체 침하와 부등침하 모두 허용치 이내이므로 안전함
3. 암반층이 높은 도심지 현장에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면에서 매우 유리함

-한국 건설 안전 기술협회 -
- 대한 산업 안전 협회 -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공시비, 공사기간절감과, 지하굴토공사 주변피해 민원을 억제하는 안전제일주의 공법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건축기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300만원대 컬러잉크젯플로터 – CADJET™



1. 값싸고 좋은가? YES!
2. 컬러출력이 되는가? YES!
3. 600dpi 출력이 되는가? YES!
4. 툴용지를 사용하는가? YES!
5. 자동커팅이 되는가? YES!
6. 스탠드와巴斯켓이 기본제공인가? YES!



20" Color Monitor- CADmate 2077E

- 해상도: 1280x1024, Flicker Free
- Dot Pitch: 0.28mm
- Dynamic Focus
- Micro Processor Control
- Green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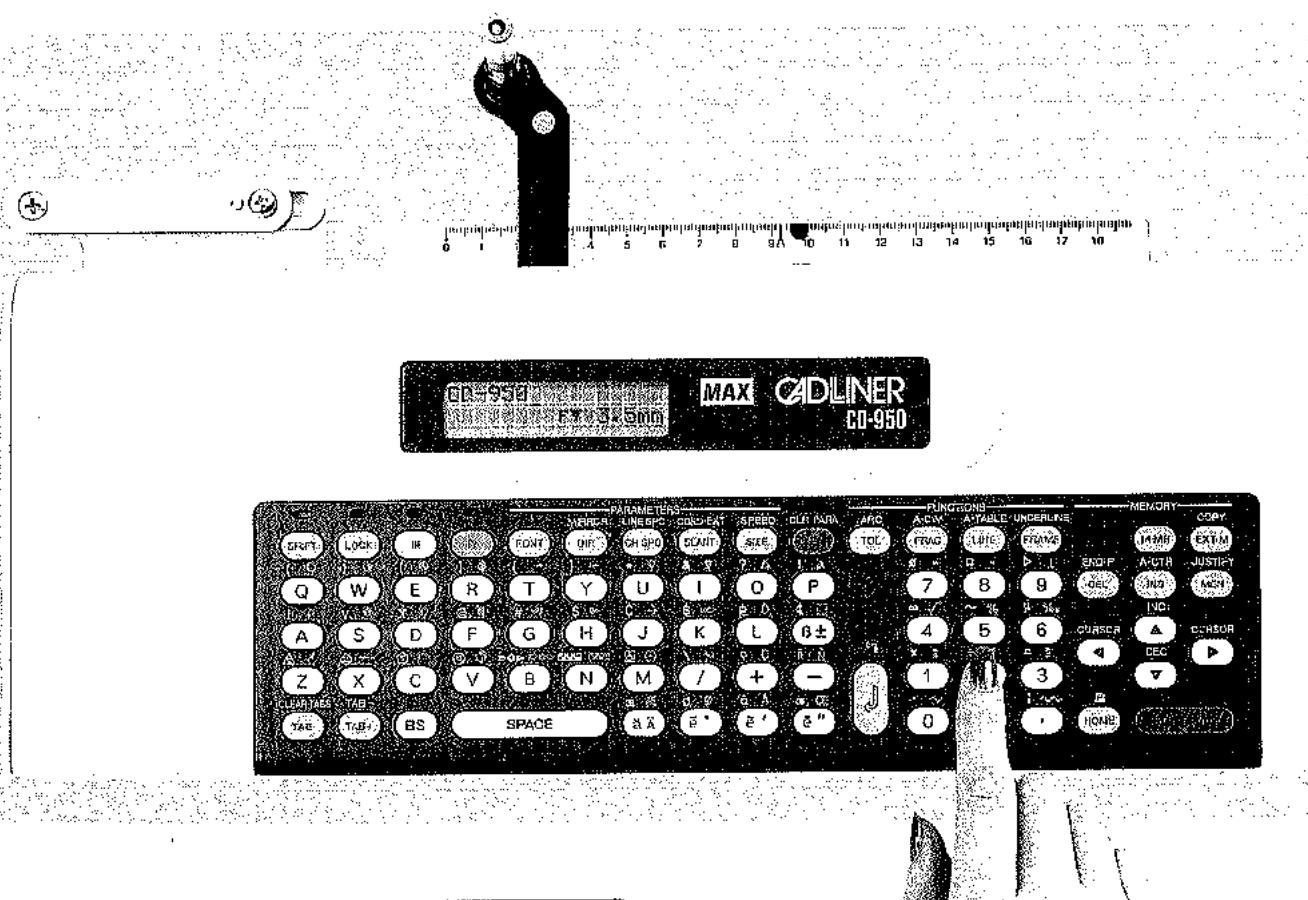
**이걸 도면이라고 뽑았어?
세계화시대에 말이야!
CADJET으로 다시해!**

“깨끗한 도면, 살아있는 글자체”(한글·영문)

세계최초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

아직도 글씨를 손으로 쓰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및 레터링 작업시 빠르고 깨끗하게 쓸수있는 레터링 프로터.
자, 이제는 맡기십시오!



CAD LINER CD - 950

■ 특 징

- 세계최초로 개발된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로 정전시에나 현장등 어느곳에서나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가지 영문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도면 사양에도 적합합니다.
- 더욱 깨끗하고 새로워진 한글체도 기본으로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 기존제품 보다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진 컴퓨터식 보턴.

■ 용 도

- 기계 도면 제도, 건축 도면 제도, 전기 도면 제도, 전자 도면 제도, 토목 도면 제도, 측량 도면 제도, 설비 도면 제도, 연구 논문 작성, OHP 필름작성, CAD 원도작성, 기타 서류 작성 등.
- 각종 설계도면의 내용 표기, 글자, 기호등 표기.
- 정확하고 깨끗한 글씨는 설계도면의 품위와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CADLINER
CD-950

MAX

수입원 : 유미교역
서울 중구 북창동 93-3
(삼옥빌딩 603호)
TEL (02) 776-2252
FAX (02) 776-2253
H.P. 011-272-1929

이태리풍의 미래형 건축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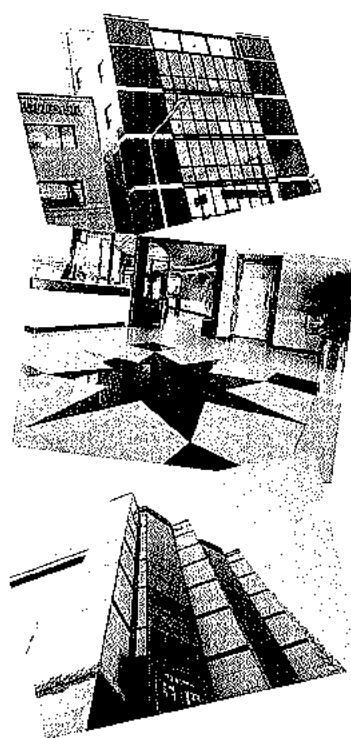


ACCESS FLOOR 시공 가능

고객신뢰의 대림이 국내 최초로
ITALY BRETON사의
세계특허공정으로 만든 미래형
첨단건축 FASHION 내외장재—
아름답고 한자원 높은 품격을 요구하는
건축물에는 미라톤을 꼭 사용하세요.

대림 미라톤의 특장점

- 천연석이 표출 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 충격이나 마모, 화학물질에 강합니다.
- 공극이 없는 미라톤은 흡수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동결融解에 의한 “해”가 없습니다.
- 두께; 8mm~30mm, 크기; 3m×1.2m 범위 내
- 건축물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 (싱크대,
세면대, 탁자등)에도 좋습니다.



대림 미라톤 상설전시장 OPEN

~역삼역	고속터미널
유공 가스 충전소	1 고속터미널
동화 건축자재	논현 4거리
백화점 내	동호대교
미라톤전시장	
비로크기구	
전시장	



대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본사: TEL (02) 277-9011~6 공장: TEL (0415) 62-8101~4

겉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던 것들이 사실 우리네 가슴을 내려앉게 했던 몇 차례 일들을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건 파사드 시스템은 능숙한 시공 솜씨를 지닌 만큼 일에서도 철저한 공정을 지킵니다. 공정에서의 진지함은 언제나 결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시공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몇년에 걸쳐 지은 대형 건물이 결로수나 누수 방지 기능이 원벽하지 못한 커튼월 사용으로 수령이 단축되거나 다시 짓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파사드 시스템은 폴리 앤드 계통의 단열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난방효율도 높아 사용자나 건축업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며, 시공전 원벽한 모크업 테스트와 컴퓨터 처리에 의한 구조 계산으로 완성되므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실합니다. 이건 파사드 시스템은 색상 및 소재가 다양하며, 유리의 아름부에 외부의 프레임이 노출되지 않아 외관에 독특한 청결함이 돌보입니다. 더욱이 여러가지 색상의 반사유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만드는데도 순색이 없습니다.

시공상의 모든 난점을 앞에서 대부분의 설계자나 건축업자들이 내린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건창호의 이건 파사드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FACADE

이건창호는 항상 고객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전시장에 오시면 창호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상담과 시스템 선정, 설계서비스 그리고 건착서비스를 자세히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사영업부, 상설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
전화 563-2071 팩스 563-5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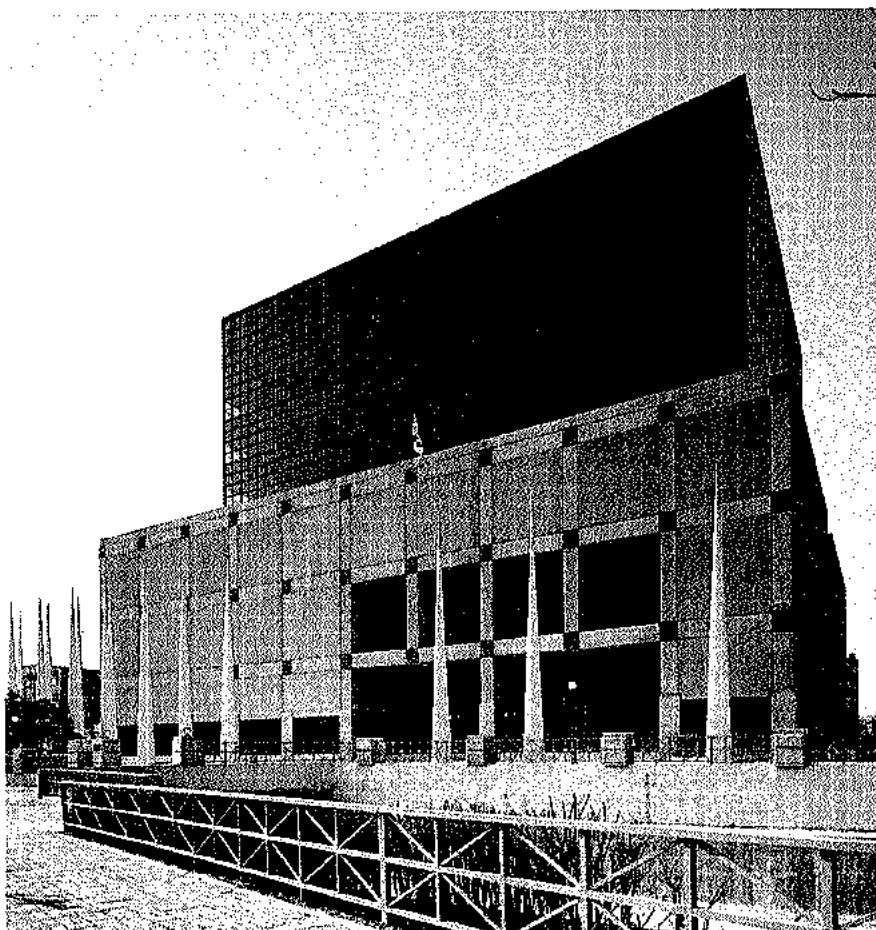
논현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540-2071 팩스 540-2080

부산전시장
부산시 동래구 온천 2동 1434-10 서봉빌딩 2층
전화 051-557-2071 팩스 051-557-2077

대구전시장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61-2
전화 053-553-0916 팩스 053-553-0917

창원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팔룡동 18-2
영남 건축자재 백화점내
전화 0551-88-1197 팩스 0551-89-1192

제주전시장
제주시 노형동 928-8 골드 건축자재 백화점 2층
전화 064-41-4301 팩스 064-42-3486



이건 Facade FW50으로 시공된 제2기 지하철 종합사령실

“쓰면 쓸수록 좋은 창호, 이건창호”

이건창호



건축설계의 토탈솔루션제공

.... 무한 경쟁시대의 동반자 선언 !....

최첨단의 하드웨어와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로 건축설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젊고 창의적인 캐드전문업체인 청우시스템 —
정우가 여는 새로운 세계 — 다이나시리즈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Dyna CAD — AutoCAD 3rd Party S/W

설계 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건축설계지원 프로그램.

- 한글 도움말
- 풍부한 심볼 제공
- 사용자 심볼 등록 기능
- 편리한 좌도와 편집기능
- 한글 변환
- 철저한 교육지원



QE-Quick Estimate

건축물의 골조물량인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의 소요량을
내장된 수식과 사용자 정의 수식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물량을 산출하여주는 새로운 차원의 골조물량 산출 프로그램.



QUE

입찰견적에서 도급, 설계변경, 실행, 기성청구, 정산에 이르기까지
처리하여주는 공사내역작성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역서라도
작성할 수 있는 융통성과 모든 메뉴에 대한 도움말 기능,
보고서 출력형식의 변경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Dyna P5 / Dyna 486

3차원 및 그래픽 작업이 요구되는 설계업무에 적합한
Dyna PS 시스템과 희상의 흐름과 경제성을 지닌
Dyna 486 시스템

모델명 : Dyna P560 / P566, Dyna 433 / 450 / 466V

Young Fellows System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980-29
TEL : (02) 587-5168 / 9
FAX : (02) 588-4156



587-5168/9

ARRIS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ARRIS는 오로지
건축전문으로
태어났습니다.

ARRIS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건축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기능에 인상을 받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기능이 많고 다양해서 사용하기 복잡해 보인다는 경우입니다.
또한, ARRIS의 뛰어난 기능의 일부가 우리나라 실무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거나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
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러한 혼동된 인식은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ARRIS는 강력하고 우리나라 실무환경에 맞으며 사용하기 쉽고 저렴하다."
시그마디자인코리아는 정립건축의 새로운 3RD PARTY 소프트웨어 보급을
시작합니다.
정립건축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풍부한 CAD사용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대규모 건축설계회사입니다.
건축전문으로 태어났던 ARRIS,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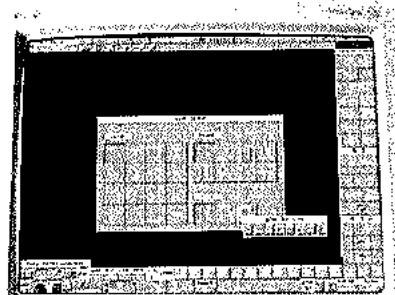
**정립 3RD PARTY v3.0 발표
기념 특별 할인 판매**

- ARRIS (BD&D)
- 정립 3RD PARTY v3.0
- ACER Pentium PC
- RAM 16MB / HDD 540MB / CD-ROM Drive (4배속)/
Sound Card 한글DOS 6.2 / 한글 WINDOWS 3.1
- 20인치 칼리모니터
- => 가격 570만원(렌탈 이용 시 월 22만원)

- S/W만 구입시
- 1) ARRIS(BD&D) => 150만원
정립 3RD PARTY v3.0 => 70만원
- 2) ARRIS (BD&D)+정립 3RD PARTY v3.0
=> 195만원

* 모든 가격 부가세 별도

- ARRIS 교육기관안내
- 대백컴퓨터아카데미 TEL: 511-9400
- 토바디자인학원 TEL: 563-5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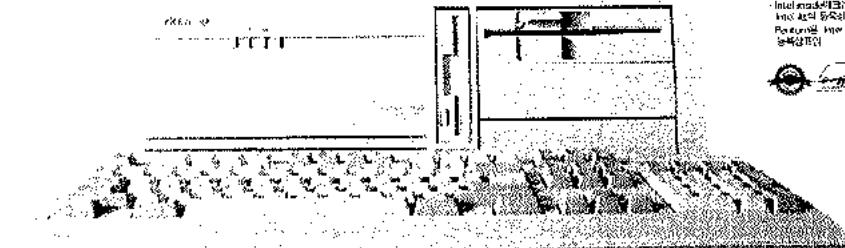
The Acer Group

- 전세계 Top 5의 컴퓨터 판권회사
- 세계 10위권 사무용 컴퓨터 판매
- APAC 전역에서 시장점유율 1위
- 세계 125개국에서 판매
- 세계 최초 에너지 Class Up™ 인증을 획득
- 전세계를 헤아리는 본래 네트워크
- 세계 200개 이상의 판매 신장



pentium

Intel Inside® Logo
Intel Core™ Processor
Processor Inside™
Processor Inside®



정림 3RD PARTY의 새로운 출발

정림건축은 1984년 부터 이제까지 촉적된 CAD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ARRIS용 3RD PARTY 소프트웨어를 v3.0으로 발표합니다. 근 30년의 역사와 250명의 전문가들을 보유한 믿을만한 건축설계 전문회사가 오피스, 병원으로부터 영종도신국제공항에 이르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그점만으로도 이미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정림건축의 모든 경험과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이미지의 신뢰도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고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림은 건축설계 소프트웨어라는 전문영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합니다.
정림을 협력자로 선택하십시오.
정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CAD기술을 함께 공유하십시오.



ARRIS는 그 자체가 정식구입없이 evaluation 사용이 가능하며 본 소프트웨어도 evaluation mode 사용을 제공합니다. evaluation mode는 기능의 일부만 작동하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evaluation mode만으로도 계단평면, 구적표 자동작성등 여러가지 기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6월호 통권314호

發 行 人 : 金圭泰
 編 輯 企 劃 : 編纂委員會
 委 員 長 : 李俊憲
 委 員 : 吳龍大,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頤, 金宗植
 編輯・取材 : 弘報部/梁元錫, 鄭孝祖,
 趙漢國, 李善模, 尹泰日
 發 行 處 :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 1965년 10월 23일)
 住 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 便 番 號 : 137-070
 電 話 :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 시 밀 리 : (02)586-8823
 登 錄 番 號 : 서울 라-26(月刊)
 登 錄 : 1967년 3월 23일
 U. D. C : 697.2(054.2) : 0612(519)
 印 刷 人 : 李鳳秀/正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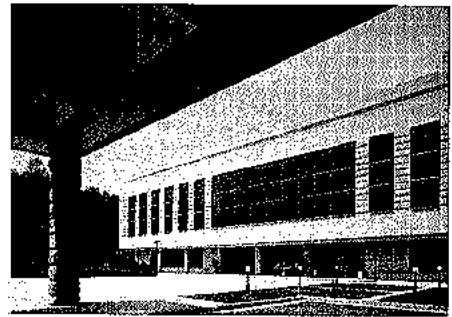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Lee Joo-Hoon/
 Yang Hae-Yoon/Choi Tae-Yong
 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Registered Number : Seoul P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월간 “건축사”는 한국인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
 는 금합니다.

차례

1995년 6월호 통권 314호

칼럼	
「환경보전」 이대로 좋은가 / 宋政求	22
회원작품	
선경도서관 / 吳星根 + 洪琦澤	24
과천등기소 / 柳春秀	32
월광교회 / 鄭洛圭	38
대각빌딩 / 정림건축	44
주택전시관 / 姜哲熙 + 姜健熙	50
제작작품	
서초 1576 Top Point / 文聖雲	56
도곡동 우성 캐릭터·199 / 韓玄鎬	58
회원갤러리	
장닭(40호F) / 李相澈	60
육이오 / 韓得鉉	61
일하던 생각하여	
계획설계 / 鄭基澤	64
건축노트	
건축가가 만든 상징조형물 / 崔英集	66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 김정수 (1) / 李好璣	72
건축가인생	
인도 여행 스케치 / 崔東僕	76
전통건축	
한국 유교 건축의 재조명 (2) / 金知民	82
기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어떻게 만들것인가 / 尹赫敬	88
연구	
송「영조법식」〈대목작제도〉주해 (7) / 金度慶 + 朱南哲	94
해외건축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4) / 朴孝洵	104
현상설계경기	
봉천지구 아파트	114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	120
동계	
1995년도 4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24
협회소식	
	126



포지사진 / 선경도서관 (설계: 오성근+홍기택)

CONTENTS

VOL 314. JUNE 1995

COLUMN

Environmental Conservation / Song Min-Koo	22
---	----

WORKS

Sunkyong Library / Oh Seong-Keun & Hong Ki-Taik	24
---	----

Kwacheon Registration Office / Ryu Choon-Soo	32
--	----

Wolkwang Church / Cheong Nak-kyu	38
----------------------------------	----

Daegak Building / Junglim Architect & Engineers	44
---	----

Housing Exhibition Hall / Kang Cheol-Hee & Kang Keon-Hee	50
--	----

PROCESS WORK

Seocho 1576 Top Point / Moon Sung-Un	56
--------------------------------------	----

Togok-dong Woosung Character · 199 / Han Hyun-Ho	58
--	----

GALLERY

Rooster(40F) / Lee Sang-Eun	60
-----------------------------	----

The Korean War / Han Deuk-Hyeon	61
---------------------------------	----

ESSAY

Schematic Design / Chung Ki-Taeg	64
----------------------------------	----

WORK NOTE

A Monument by Architect / Choi Young-Jeep	66
---	----

SERIAL

Korean Architect, Kim Cheong-Soo(1) / Lee Ho-Jin	72
--	----

ARCHITECTURE TRAVEL

India Tour Sketch / Choi Dong-Ho	76
----------------------------------	----

TRADITIONAL ARCHITECTURE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2) / Kim Chi-Min	82
---	----

FEATURE

The Mediation Committee on Architectural Dispute /	
--	--

Yoon Hyeok-Kyeong	88
-------------------	----

REPORT

Translation of Chinese Architecture Documentary Records(7) /	
--	--

Kim Do-Kyoung & Joo Nam-Chull	94
-------------------------------	----

OVERSEAS ARCHITECTURE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4) /	
---	--

Park Hyo-Soo	104
--------------	-----

COMPETITION

Pongcheon Apartment	114
---------------------	-----

Department Stor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120
--	-----

STATISTICS	124
------------	-----

KIRA NEWS	126
-----------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분회/33-6411 · 관악분회/882-6744 · 드봉분회/903-3425 · 영등포분회/632-2143 · 강동분회/484-6840 · 강서분회/604-7168 · 성동분회/446-5244 · 동대문분회/923-0158 · 종로분회/735-0905 · 미포분회/333-5251 · 송파분회/423-9158 · 중구분회/279-1415 · 용산분회/717-6607 · 서초분회/582-8468 · 은평분회/388-1486 · 동작분회/815-3026 · 강남분회/517-3071 · 노원분회/933-8076 · 양천분회/653-2802 · 중랑분회/407-7356 · 성북분회/922-5117 · 구로분회/852-2275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4-4973~80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66-9350~4

■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작할분회/(031)43-6662 · 안양분회/(034)49-2698 · 부천분회/(032)664-1554 · 성남분회/(034)2755-5445 · 의정부분회/(035)878-0458 · 송탄분회/(033)666-6153 · 고양분회/(034)63-8802 · 구리분회/(034)63-2337 · 이천분회/(036)635-0545 · 광명분회/(02)684-5845 · 양산분회/(034)80-9130 · 시흥분회/(032)604-4121

■ 강원도건축사회/(036)54-2442

원주분회/(031)43-7290 · 강릉분회/(039)41-7371 · 속초분회/(039)23-5081 · 삼척분회/(0394)31-8708 · 영월분회/(0373)374-2659

■ 충청북도건축사회/(043)56-2752 · 53-7342

충주분회/(044)1847-3062 · 세종분회/(0443)43-6253 · 음성분회/(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분회/(0417)551-4551 · 쟁성분회/(0541)32-2755 · 부여분회/(0463)835-2217 · 대전분회/(045)34-3367 · 서산/(0455)64-8500

■ 전라북도건축사회/(065)87-6007~8

이리분회/(0653)52-3796 · 군산분회/(0654)43-3816 · 능원분회/(0671)32-5000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46-7567 · 33-9944

목포분회/(0631)72-3349 · 순천분회/(0661)743-2457 · 여수분회/(0662)32-5000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2-8317~8

포항분회/(0562)44-8029 · 경주분회/(0561)772-4710 · 구미분회/(0546)51-1537~8 · 안동분회/(051)54-4832 · 김천분회/(0547)434-2541 · 영주분회/(052)34-5560 · 청송분회/(0581)53-6677 · 상주분회/(0532)32-5868 · 경산분회/(053)812-6721 · 달성분회/(053)634-6336 · 영천분회/(0536)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055)46-4530~1

울산분회/(0522)74-8836 · 진주분회/(0591)745-6403 · 충무분회/(0557)645-7420 · 김해분회/(0625)35-5692 · 밀양분회/(0527)365-4848 · 거창분회/(0588)43-6090 · 양산분회/(0523)84-3050 · 거제분회/(0558)605-3432 · 삼천포분회/(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분회/(064)62-2233

194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은 4대문안에서만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으며, 장충동 1가, 동소문밖 즉 돈암동쪽으로 주거지가 팽창해 나갔을 뿐이었다. 그나마도 당시 돈암동쪽은 공동묘지를 개발했으며, 장충동 1가쪽도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광희문(光熙門 또는 屍軀門) 밖으로 시체를 운구했거나 버렸기 때문에 성곽근처에는 때때로 인골이 나오곤 한 곳을 개발한 것이다.

동대문에서 뚝섬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들의 중요한 부식인 김치, 깍두기를 담글 무, 배추를 재배하는 밭이여서 개발은 엄두도 못내었다. 청량리역은 장작의 집산지였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면 가정마다 가장 들은 청량리로 장작을 사랴 또 동대문밖으로 김장감을 사랴 바쁘게 뛰어야 했다. 아낙네들은 일가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김장을 담궈주면서 남편험담에 정신이 나가버린다.

이태원쪽은 남산기슭에서 한강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의 군사훈련에 쓰이는 연병장, 사격장들이 있어 개발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차츰 일본인들의 한국이주가 증가하자 개발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대중교통수단이라고는 전차와 버스 뿐이였기 때문에 서울이 비대해질 수는 없었다. 인구가 100만이 넘었을 때 일본인들은 불꽃을 터트리고 축제를 벌였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1922년 Le Corbusier 가 '300만인의 도시'를 계획하고 Salon d'automne에 전시한 것이 많은 것을 시사하였지 않았겠는가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한강건너는 야산들이 능선을 이어 뻗어나가 관악산, 우면산, 구룡산, 청량산에서 맞닿게 되고 자연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다. 시내도 도로가 포장이 안된 곳이 많아 비가오면 지렁이가 땅위로 나와 헤맸으며, 포플라나무에는 매미들이 모여서 우는 소리가 가득 쌌었다. 가을에는 고추잠자리가 집마당 양지에 날아들며,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 양상한 나무가지에서 까치가 서로를 찾느라 울어대곤 하였다.

겨울 어느날 학교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지금의 방배동부근의 눈이 덮인 야산에서 토끼풀이를 하였다. 각학년, 각과 모두 합쳐서 400명도 안되는 학생수로 야산 능선에 쳐놓은 그물에 토끼를 모는 것이다. 얼빠진 토끼 한마리가 어디에선가 뛰쳐나와 능선으로 도망치다 그물에 걸리고 말았으나 우리가 얻어먹은 토끼탕은 토끼가

「환경 보전」 이대로 좋은가!

Environmental Conservation

宋旼求 / 건축사사무소 송건죽
by Song Min-Koo

아니라 돼지고기로 끓인 된장국이였다. 말하자면 서울은 그당시 그런대로 환경은 보전(保全)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던 서울이 해방되자 급속히 변해갔다. 일본인들이 철수해 간 이태원 일대는 월남민들에 의해 판자집들이 우후죽순으로 서서 이른바 '해방촌'이라고 불리는 Slum이 형성되었다. 그밖에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나 6·25동란이 빌발하자 서울은 마치 폐허와 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들은 역경을 이겨냈다. 잇따른 정치적 불안정도 우리는 참고 넘겼다. 전화위복이라고나 할까 뜻밖에도 중동 산유국들에서 많은 건설사업을 수주하게 되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게 되고 주요 간선도로에 따라 높은 빌딩들이 난립해 서게 된 것이다. 그 후로는 비오는날 길에 지렁이를 볼 수 없게 되고, 매미, 쓰르라미 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으며 변화한 거리에 까치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환경파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필자가 설계한 숙명여고가 1980년 봄에 준공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숙명여고 앞을 지나가는 남부순환로는 착공되지도 않아 학교 앞에서 남쪽 구룡산기슭까지는 논과 밭들만이 있었다. 그러하였던 것이 지금은 빈 땅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건물들이 들어서 버렸다.

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대규모 녹지대를 조성하지 못하였던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아쉽기만 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본받을 점이 많아 Chicago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Chicago는 Michigan호반에 접해서 시의 중심부가 형성되고 초고층빌딩이 밀집해 있어, 현지에서는 그 지역을 Metropolis라고 부른다. 초고층빌딩이 밀집해 있다고 하여 업무시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호반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도로를 Lake Shore Drive라고 하는데, Mies van der Rohe가 설계한 860 Lake

Shore Drive Apart. 가 그 도로에 면해서 26층 높이로 서 있다. 또 그 근처에는 학비가 비싼 것으로 이름난 North Western대학의 캠퍼스도 있다.

그리하여 Metropolis 서쪽에 O'hare국제공항이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행기가 이착륙한다. 공항과 Metropolis 외곽에 각종 용도의 건물들이 둘러싸 있으며, 그 밖으로 주거전용지역들이 산재해 있다. 주거전용지역 곳곳에 보존임야, 공원, 초·중고등교육 시설, 교회들이 있어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이 주거전용 지역에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뜰에 새집을 세워놓는데, 150cm 높이의 철파이프 위에 나무로 만든 새집을 옮겨놓고 모이를 한포대식 샤와 새집에 모이를 넣어준다. 그래서 아마도 보존림에 서식하고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이름모를 새들이 날아든다.

뜰은 어느집이든 잔디를 심어 나대지(裸垈地)를 남기지 않으며, 주택에 면한 인도 역시 사람이 걸어다닐 폭 90cm정도만 포장이 되어있을 뿐 잔디를 심는다. 인도의 잔디를 깎는 것은 인도에 면한 집주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도로에 심은 가로수는 도토리나무가 주며 가을에는 도토리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지않고 새집에 올라가 야조들의 사료를 먹어치운다. 그러므로 도토리는 미국에 이민한 한국할머니가 몰래 굽어모아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는다.

야조를 보호하기 위해 쥐틀로 다람쥐를 잡는데, 다람쥐를 죽여서는 안된다. 잡아서 멀리 보호림으로 버리려 자동차로 실어날라야 한다. 그렇게 하여 미국은 각 가정마다 환경보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Mies의 860 Lake Shore Drive Apart와 같이 층수를 더 높이고 더많은 녹지를 확보할 수는 없을까.

다시 말하여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야만 되지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부질없는 생각 일련지….

194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은 4대문안에서만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으며, 장충동 1가, 동소문밖 즉 돈암동쪽으로 주거지가 팽창해 나갔을 뿐이었다. 그나마도 당시 돈암동쪽은 공동묘지를 개발했으며, 장충동 1가쪽도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광희문(光熙門 또는 屍軀門) 밖으로 시체를 운구했거나 버렸기 때문에 성곽근처에는 때때로 인골이 나오곤 한 곳을 개발한 것이다.

동대문에서 뚝섬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들의 중요한 부식인 김치, 깍두기를 담글 무, 배추를 재배하는 밭이여서 개발은 엄두도 못내었다. 청량리역은 장작의 집산지였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면 가정마다 가장 들은 청량리로 장작을 사랴 또 동대문밖으로 김장감을 사랴 바쁘게 뛰어야 했다. 아낙네들은 일가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김장을 담궈주면서 남편험담에 정신이 나가버린다.

이태원쪽은 남산기슭에서 한강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의 군사훈련에 쓰이는 연병장, 사격장들이 있어 개발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차츰 일본인들의 한국이주가 증가하자 개발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대중교통수단이라고는 전차와 버스 뿐이였기 때문에 서울이 비대해질 수는 없었다. 인구가 100만이 넘었을 때 일본인들은 불꽃을 터트리고 축제를 벌였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1922년 Le Corbusier 가 '300만인의 도시'를 계획하고 Salon d'automne에 전시한 것이 많은 것을 시사하였지 않았겠는가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한강건너는 야산들이 능선을 이어 뻗어나가 관악산, 우면산, 구룡산, 청량산에서 맞닿게 되고 자연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다. 시내도 도로가 포장이 안된 곳이 많아 비가오면 지렁이가 땅위로 나와 헤맸으며, 포플라나무에는 매미들이 모여서 우는 소리가 가득 쌌었다. 가을에는 고추잠자리가 집마당 양지에 날아들며,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 양상한 나무가지에서 까치가 서로를 찾느라 울어대곤 하였다.

겨울 어느날 학교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지금의 방배동부근의 눈이 덮인 야산에서 토끼풀이를 하였다. 각학년, 각과 모두 합쳐서 400명도 안되는 학생수로 야산 능선에 쳐놓은 그물에 토끼를 모는 것이다. 얼빠진 토끼 한마리가 어디에선가 뛰쳐나와 능선으로 도망치다 그물에 걸리고 말았으나 우리가 얻어먹은 토끼탕은 토끼가

「환경 보전」 이대로 좋은가!

Environmental Conservation

宋旼求 / 건축사사무소 송건죽
by Song Min-Koo

아니라 돼지고기로 끓인 된장국이였다. 말하자면 서울은 그당시 그런대로 환경은 보전(保全)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던 서울이 해방되자 급속히 변해갔다. 일본인들이 철수해 간 이태원 일대는 월남민들에 의해 판자집들이 우후죽순으로 서서 이른바 '해방촌'이라고 불리는 Slum이 형성되었다. 그밖에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나 6·25동란이 빌발하자 서울은 마치 폐허와 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들은 역경을 이겨냈다. 잇따른 정치적 불안정도 우리는 참고 넘겼다. 전화위복이라고나 할까 뜻밖에도 중동 산유국들에서 많은 건설사업을 수주하게 되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게 되고 주요 간선도로에 따라 높은 빌딩들이 난립해 서게 된 것이다. 그 후로는 비오는날 길에 지렁이를 볼 수 없게 되고, 매미, 쓰르라미 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으며 변화한 거리에 까치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환경파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필자가 설계한 숙명여고가 1980년 봄에 준공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숙명여고 앞을 지나가는 남부순환로는 착공되지도 않아 학교 앞에서 남쪽 구룡산기슭까지는 논과 밭들만이 있었다. 그러하였던 것이 지금은 빈 땅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건물들이 들어서 버렸다.

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대규모 녹지대를 조성하지 못하였던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아쉽기만 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본받을 점이 많아 Chicago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Chicago는 Michigan호반에 접해서 시의 중심부가 형성되고 초고층빌딩이 밀집해 있어, 현지에서는 그 지역을 Metropolis라고 부른다. 초고층빌딩이 밀집해 있다고 하여 업무시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호반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도로를 Lake Shore Drive라고 하는데, Mies van der Rohe가 설계한 860 Lake

Shore Drive Apart. 가 그 도로에 면해서 26층 높이로 서 있다. 또 그 근처에는 학비가 비싼 것으로 이름난 North Western대학의 캠퍼스도 있다.

그리하여 Metropolis 서쪽에 O'hare국제공항이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행기가 이착륙한다. 공항과 Metropolis 외곽에 각종 용도의 건물들이 둘러싸 있으며, 그 밖으로 주거전용지역들이 산재해 있다. 주거전용지역 곳곳에 보존임야, 공원, 초·중고등교육 시설, 교회들이 있어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이 주거전용 지역에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뜰에 새집을 세워놓는데, 150cm 높이의 철파이프 위에 나무로 만든 새집을 옮겨놓고 모이를 한포대식 샤와 새집에 모이를 넣어준다. 그래서 아마도 보존림에 서식하고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이름모를 새들이 날아든다.

뜰은 어느집이든 잔디를 심어 나대지(裸垈地)를 남기지 않으며, 주택에 면한 인도 역시 사람이 걸어다닐 폭 90cm정도만 포장이 되어있을 뿐 잔디를 심는다. 인도의 잔디를 깎는 것은 인도에 면한 집주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도로에 심은 가로수는 도토리나무가 주며 가을에는 도토리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지않고 새집에 올라가 야조들의 사료를 먹어치운다. 그러므로 도토리는 미국에 이민한 한국할머니가 몰래 굽어모아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는다.

야조를 보호하기 위해 쥐틀로 다람쥐를 잡는데, 다람쥐를 죽여서는 안된다. 잡아서 멀리 보호림으로 버리려 자동차로 실어날라야 한다. 그렇게 하여 미국은 각 가정마다 환경보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Mies의 860 Lake Shore Drive Apart와 같이 층수를 더 높이고 더많은 녹지를 확보할 수는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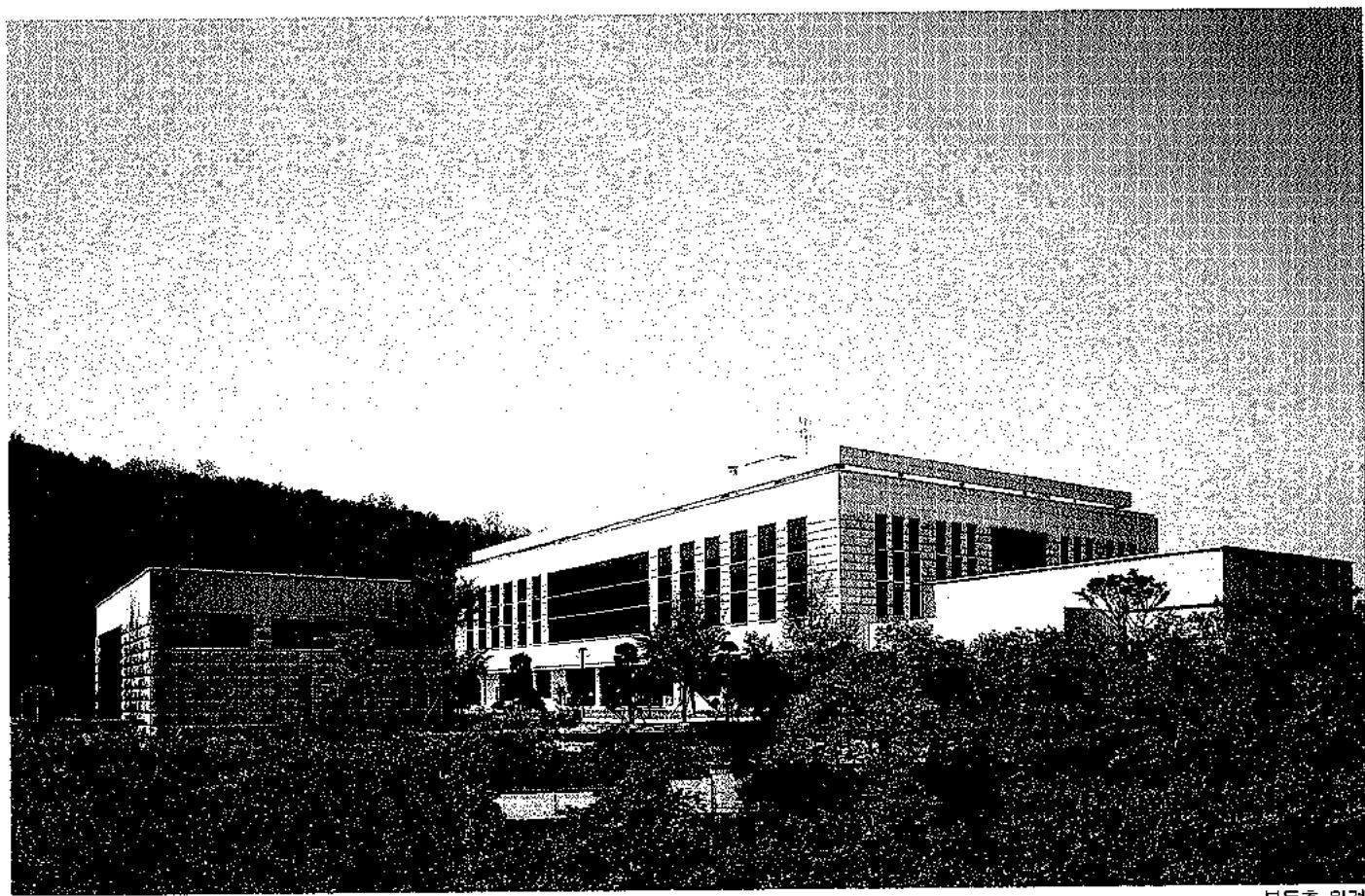
다시 말하여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야만 되지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부질없는 생각 일련지….

여민작품

선경도서관

Sunkyong Library

吳星根 + 洪琦澤 /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Designed by Oh Seong-Keun & Hong Ki-Taik



북동측 원경

대지위치 /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123-69

대지면적 / 11,570.2m²

건축면적 / 3,105.35m²

연면적 / 8,316.89m²

건폐율 / 26.84%

용적률 / 59.64%

구조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 회강석 베니 및 흑두기+THK 18 칼라 복층유리

설계담당 / 이재근

전기 / 한양전선

설비 / 목원엔지ニア링

구조 / 하나구조

시공 / (주)선경건설

Location / 123-69, Shinpung-dong, Changan-gu, Suwon-shi

Site Area / 11,570.2m²

Bldg. Area / 3,105.35m²

Gross Floor Area / 8,316.89m²

Bldg. Coverage Ratio / 26.84%

Gross Floor Ratio / 59.64%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Double Graz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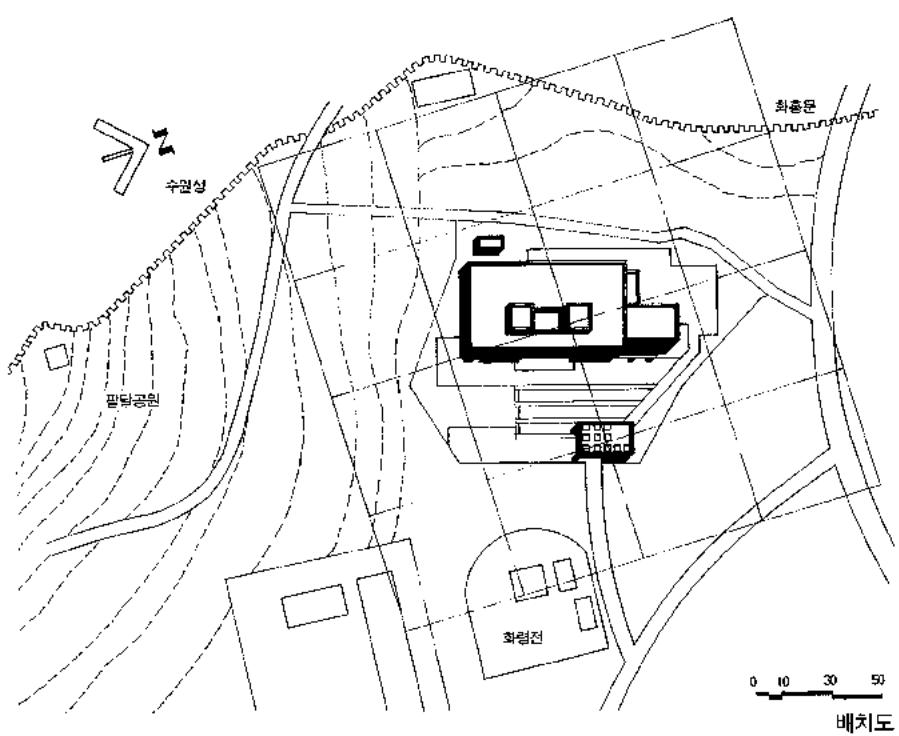
Supervision / Lee Jae-K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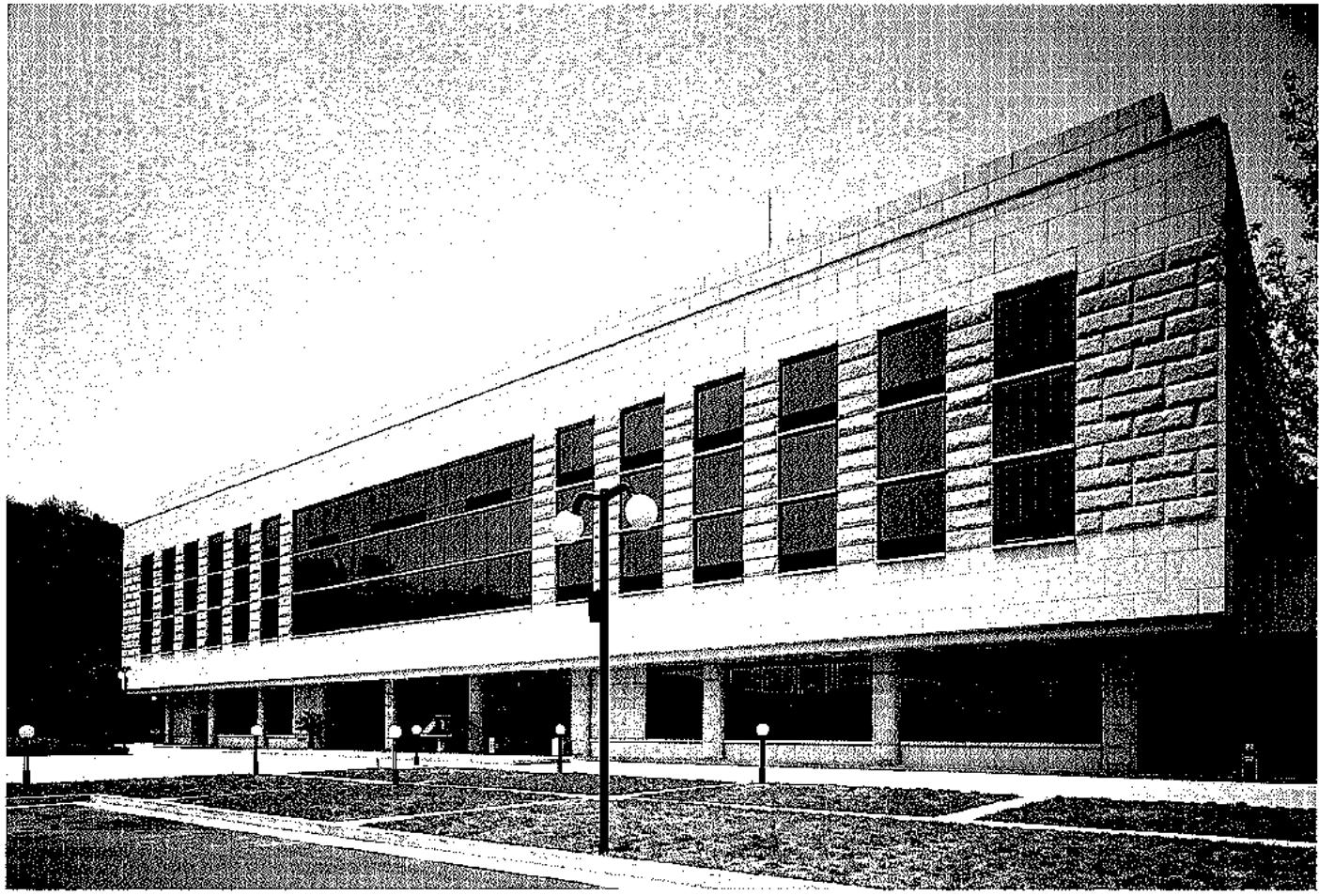
Electric Installation / Hanyang Electric Co.

Mechanical Services / Mokwon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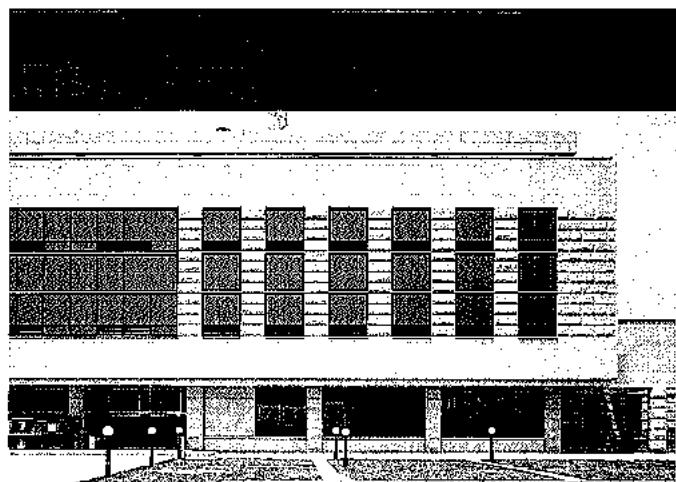
Structural Design / Hana

Constructor / Sunkyong Construction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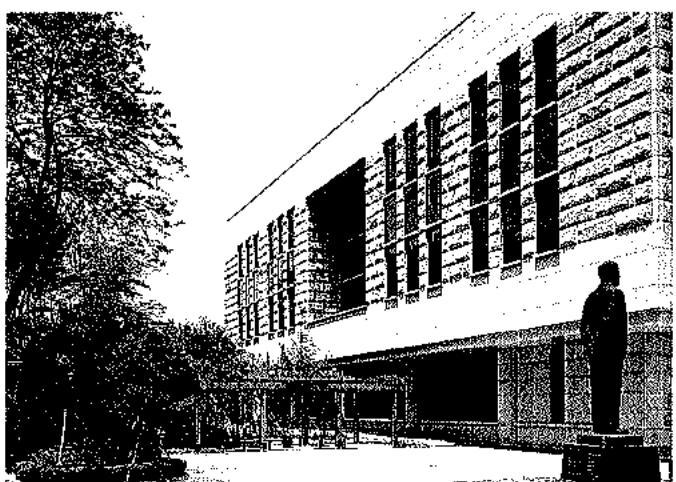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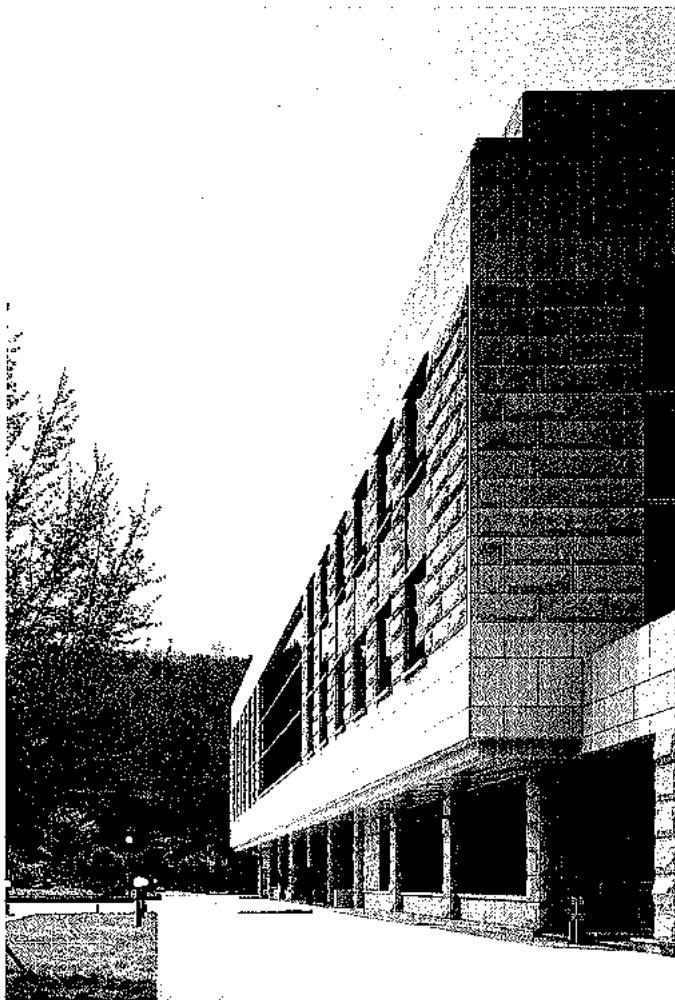
동측 전경



안내동에서 본 본관



남측 입면과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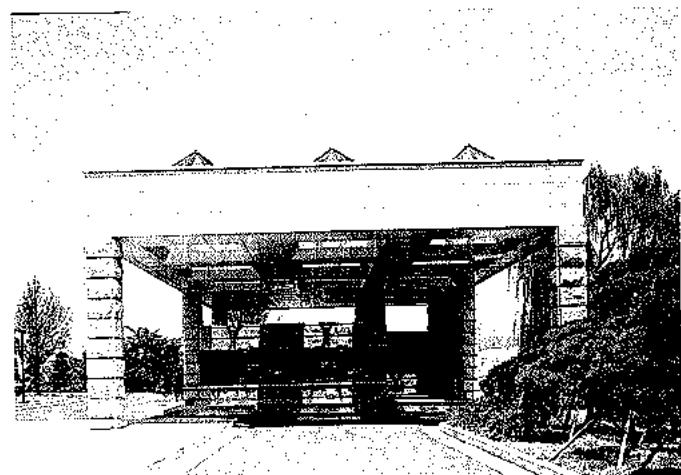
북서측에서 본 본관 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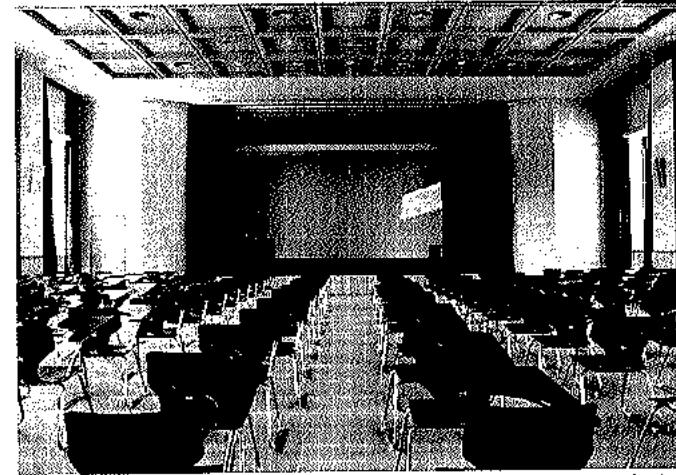
어린이 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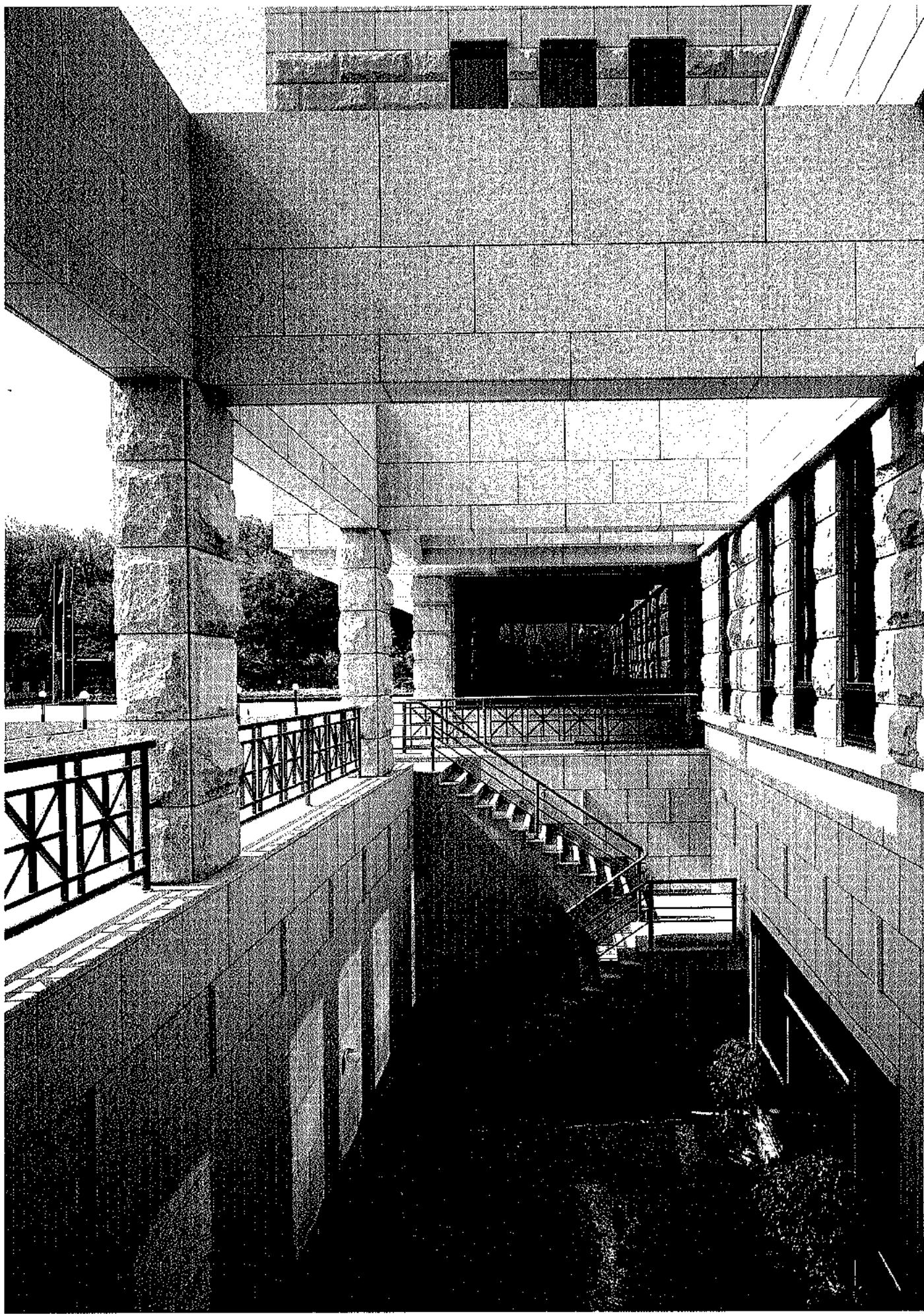
사회과학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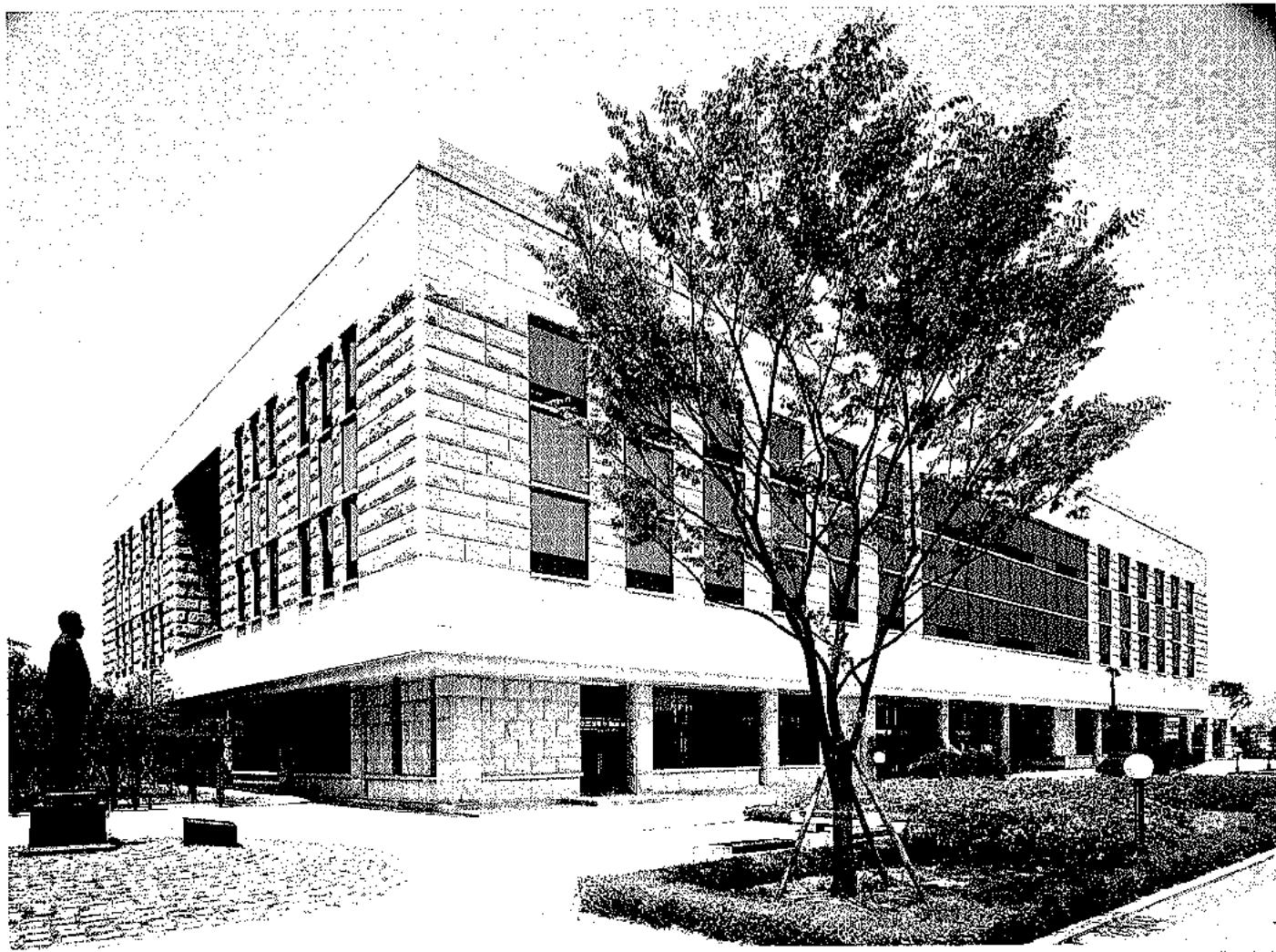
안내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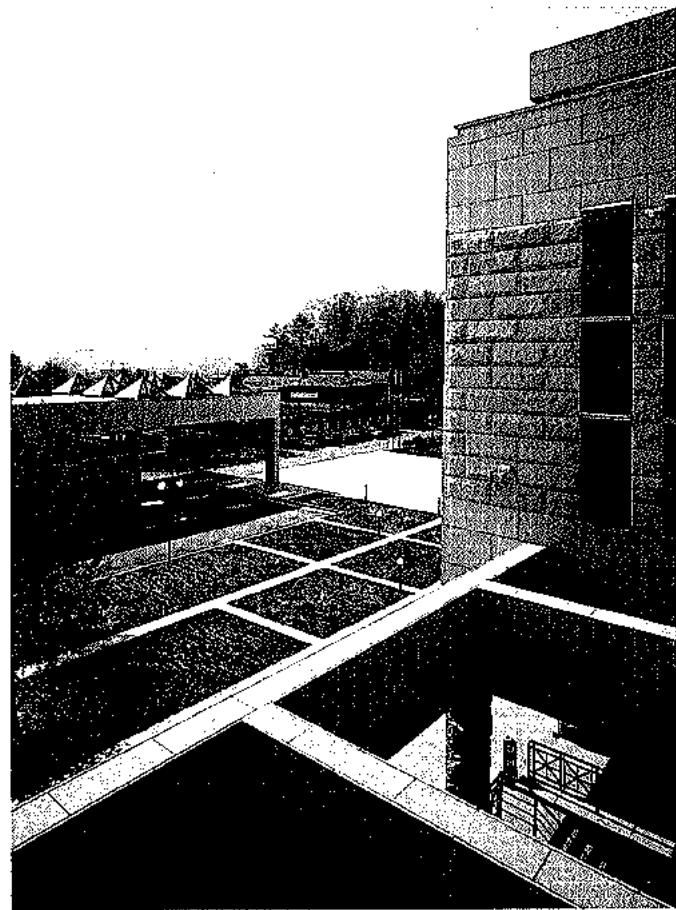
다목적 강당



신큰 가든



남동측 전경



선릉가든 상부에서 본 안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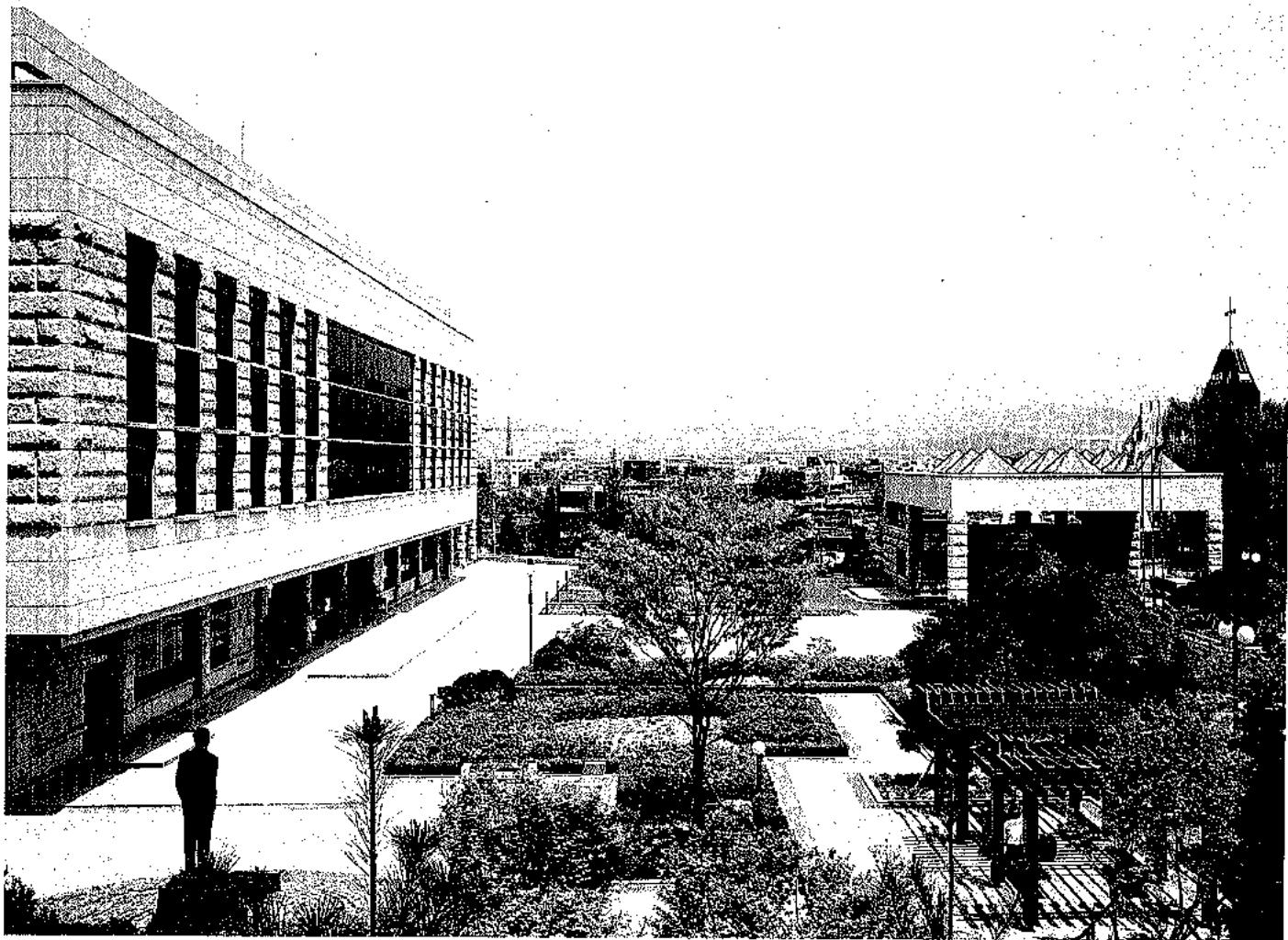


남측에서 본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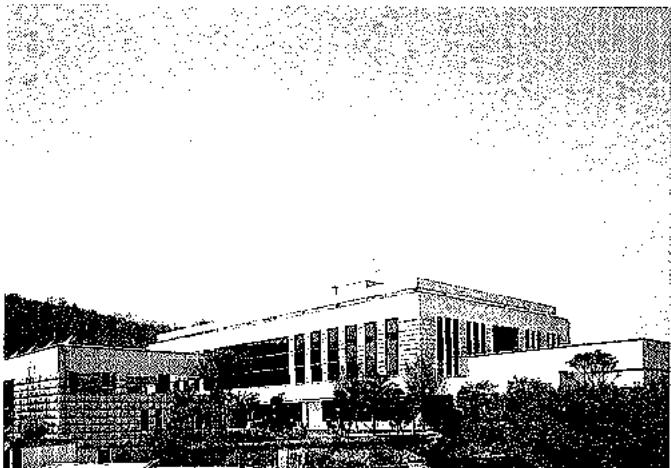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재벌그룹이 지역사회에 사회문화적 시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존의 공공도서관들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공부방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오던 것을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의 제공 및 전문화된 지식의 전달 그리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시설로서 문화행사의 장으로 제공할 것을 계획의 목표로 하였다.

예로부터 교육도시이면서도 변변한 도서관 하나 갖지 못했던 수원시에 첨단시설을 갖춘 공공도서관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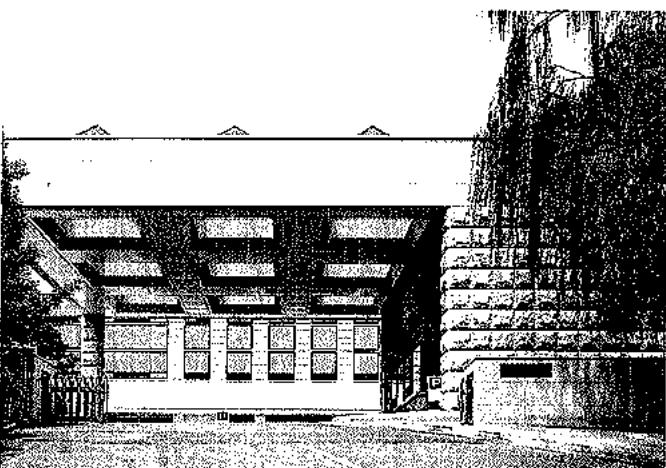
수원 팔달공원의 중심인 서장대에서 흐르는 지세 위에 수원성이 감싸듯 자리잡은 본 대지는 장안문을 중심으로 한 동수원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입지적 요건을 갖고 있어 주변경관(수원성)과 순응할 수 있는 배치와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건물상징적 표현 및 이미지 전달을 요구하였다.



남측에서 본 본관과 휴게공간



동측 원경



주출입구에서 본 안내동

배치계획

건물의 배치는 진입 방향에서 대지의 후면에 배치하여 축상에 다양한 외부 공간을 구성하였다. 단순한 녹지 공간을 활동적 생동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해 조경과 포장도로를 조화있게 연출하여 오픈 스페이스에 최대한의 특성을 부여하였고, 공간 질서의 확립을 위해 진입 광장, 옥외 휴게실, 조경부분을 잠정적으로 구획시켰다.

평면계획

공공 도서관이라는 측면하에 합리적인 기능의 수용 및 배분을 위해 관련 기능간의 인접도 증진을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강당 및 이벤트실), 채광, 조망으로 최적의 열람실 환경 제공 및 평면의 시스템화 즉 관리와 사용의 편의 및 향후 점진적 개가화를 위해 모듈화하고 내부 동선을 극히 단순화 하였다.

이 프로젝트가 기념비적인 사업인 관계로 인상적인 내부공간 구성을 위해 중점을 두어 자연 채광의 도입 및 독특한 실내 공간의 장소성을 연출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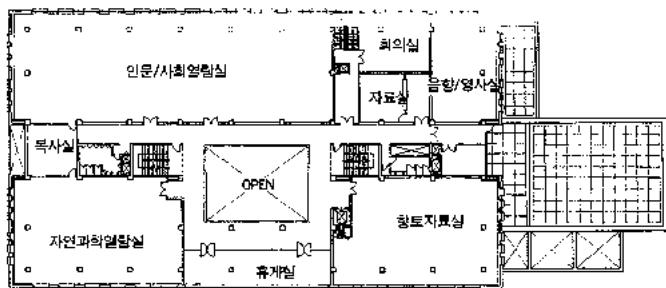
수원의 전통적인 이미지인 성곽의 텍스처 즉 측조된 들에서 주는 친근감과 시각적 지표로서

의 이미지 전달 수행을 위해 진입 광장을 거쳐 대지축에서 있는 면에 강한 정면성을 부여하고, 다른 3면의 구성은 일관성을 갖고 질제, 단순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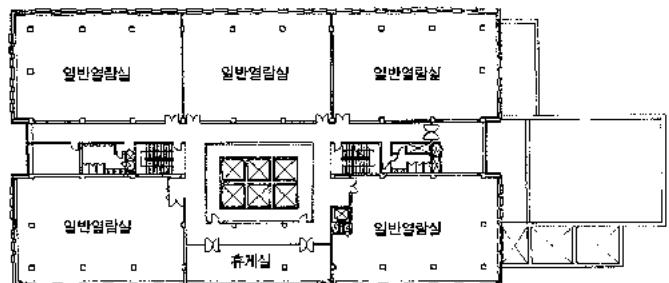
평면 기능에서 주어진 형태를 단순하게 수용 하되 파사드의 단조로움을 회강식의 강한 흑두기와 베니구이, 물갈기를 대비시켜 수평성을 강조하고 커튼월을 통해 면의 분절과 주출입구의 방향 제시를 꾀하였다. 프레임을 이용하여 본 건물과 강당 등을 연결시켜 단순함 속에서 시각적으로 다양함을 이루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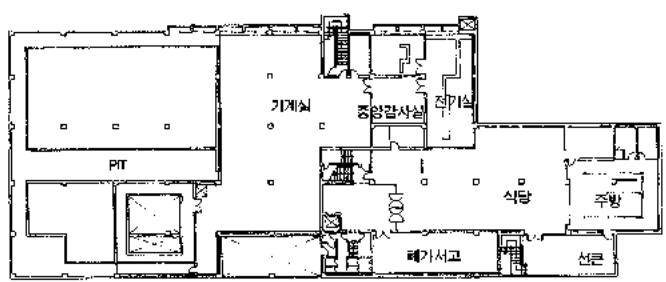
2층에서 본 Void된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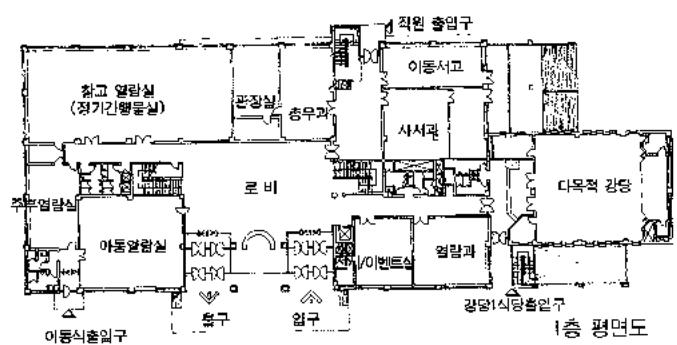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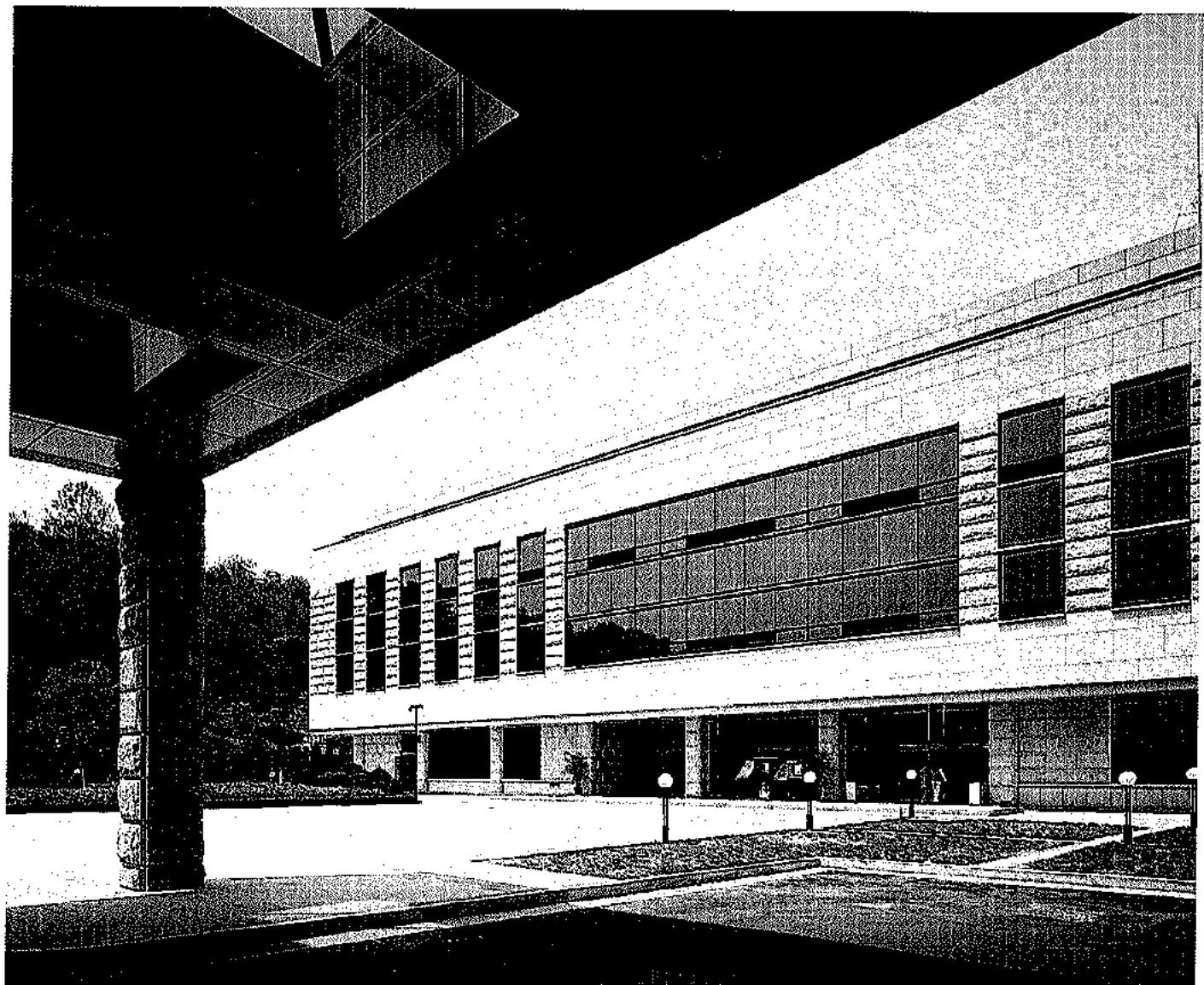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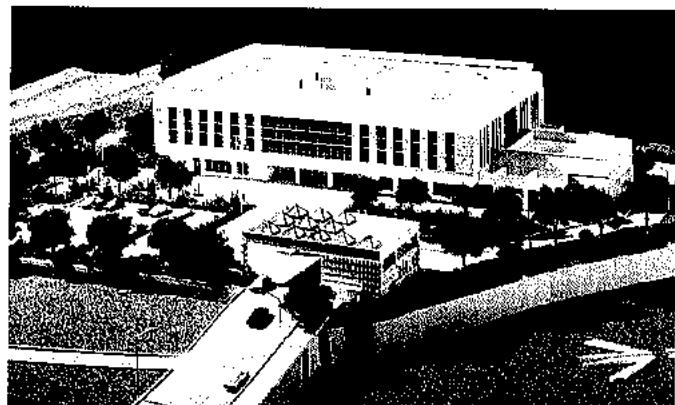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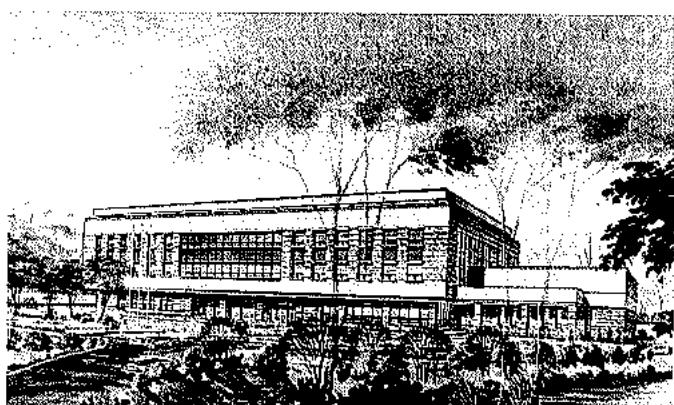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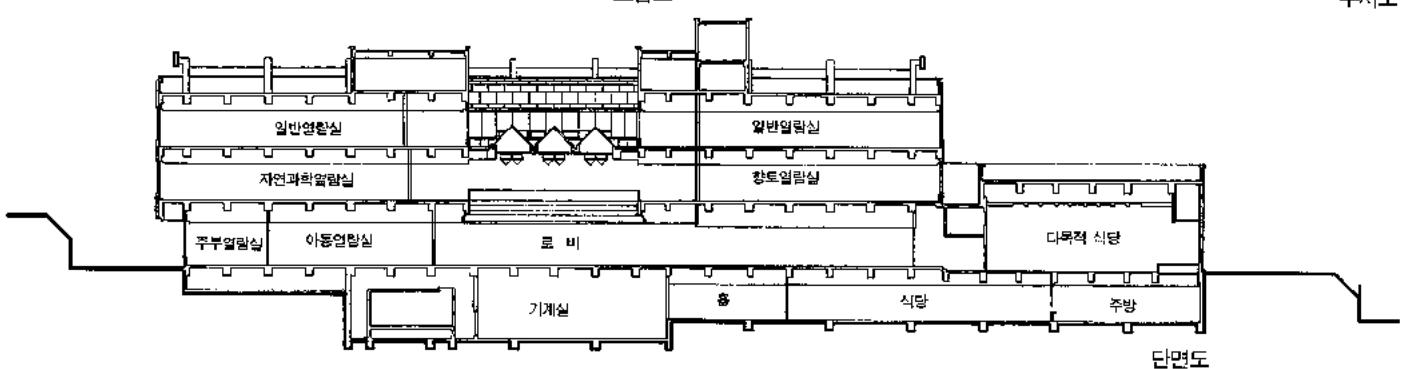
안내동에서 본 전경



조감도



루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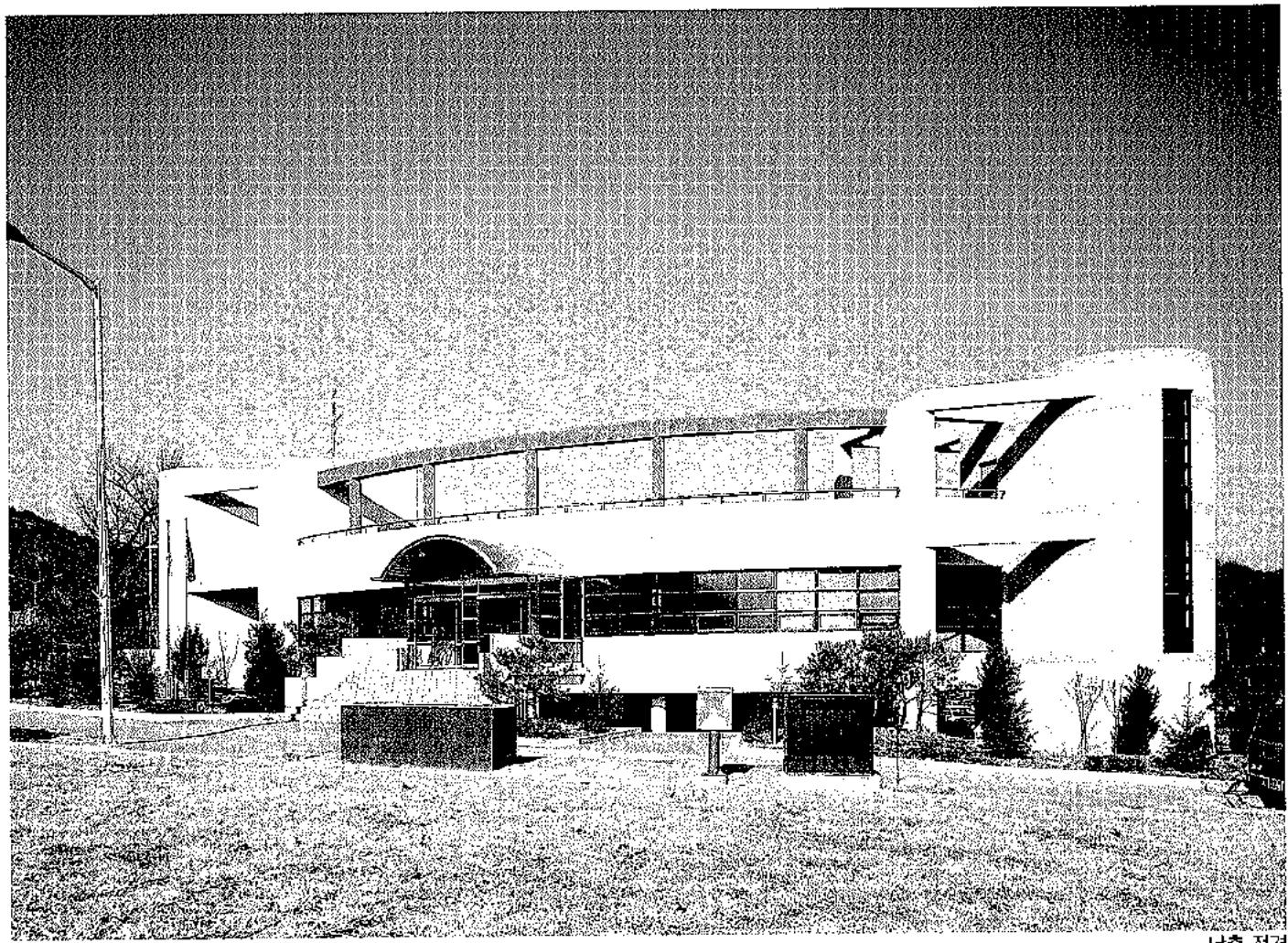
단면도

과천등기소

Kwacheon Registration Office

柳春秀 / 이공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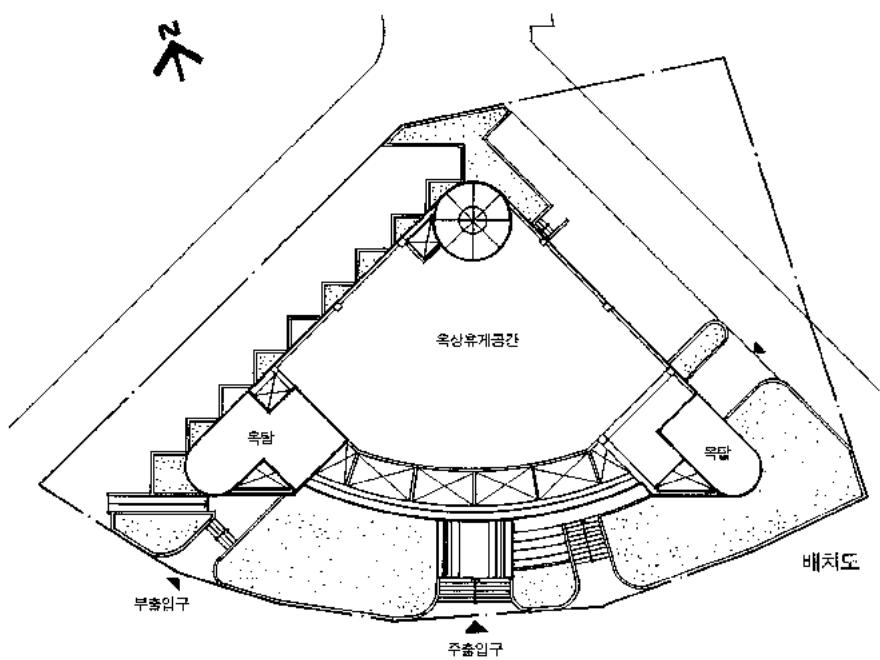
Designed by Ryu Choon-Soo



남측 전경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대지면적 / 1,323.00m²
건축면적 / 463.10m²
연면적 / 685.53m²
건폐율 / 35%
용적률 / 34.5%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리먼조
외부마감 / EPS워 수지마감
설계담당 / 박인동
전기 / 청송전기
설비 / 오리엔트설비
구조 / 태경건축
시공 / (주)신구

Location / Kwacheon-dong, Kwacheon-shi, Kyeonggi-do
Site Area / 1,323.00m²
Bldg. Area / 463.10m²
Gross Floor Area / 685.53m²
Bldg. Coverage Ratio / 35%
Gross Floor Ratio / 34.5%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Project Team / Park In-Dong
Electric Installation / Chong Song Electric Co.
Mechanical Services / Orient Facility Co.
Structural Design / Tae Kyong Architecture Co.
Constructor / Shin Ku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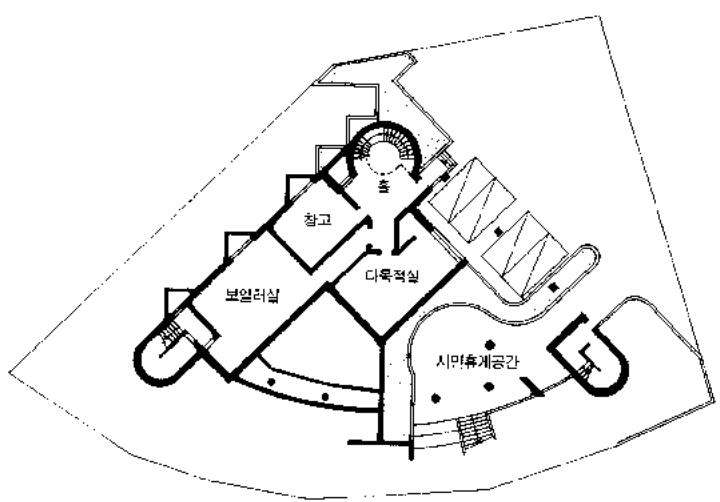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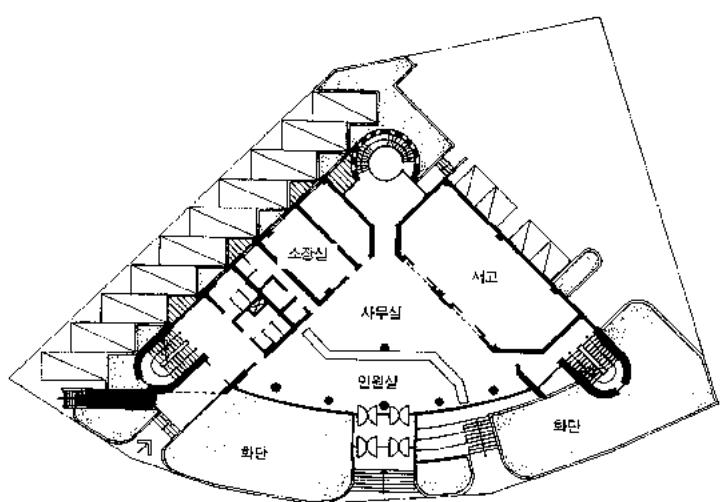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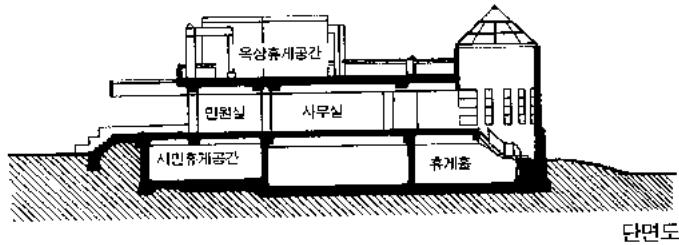
1층 민원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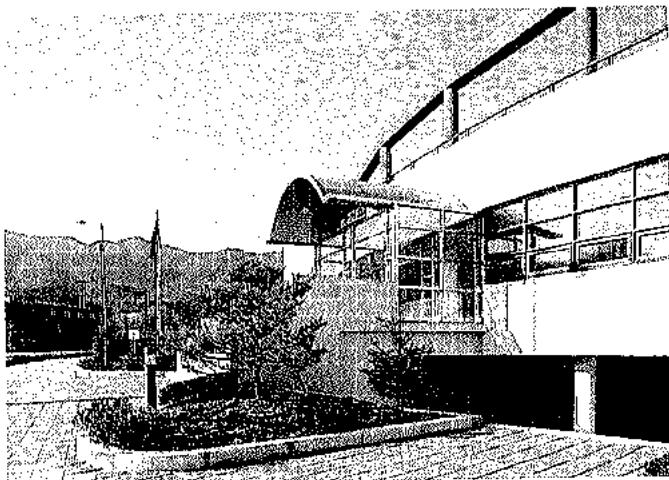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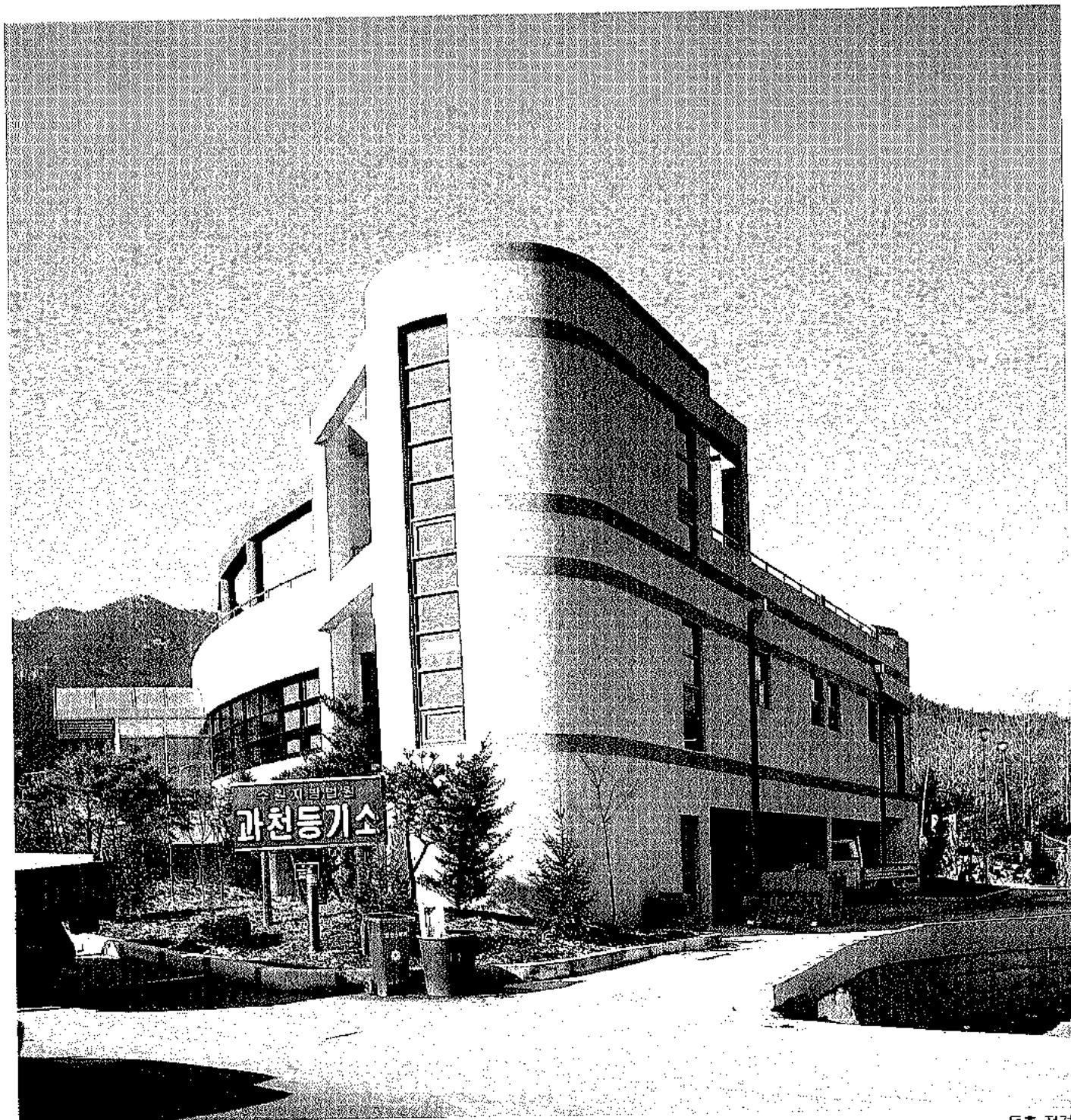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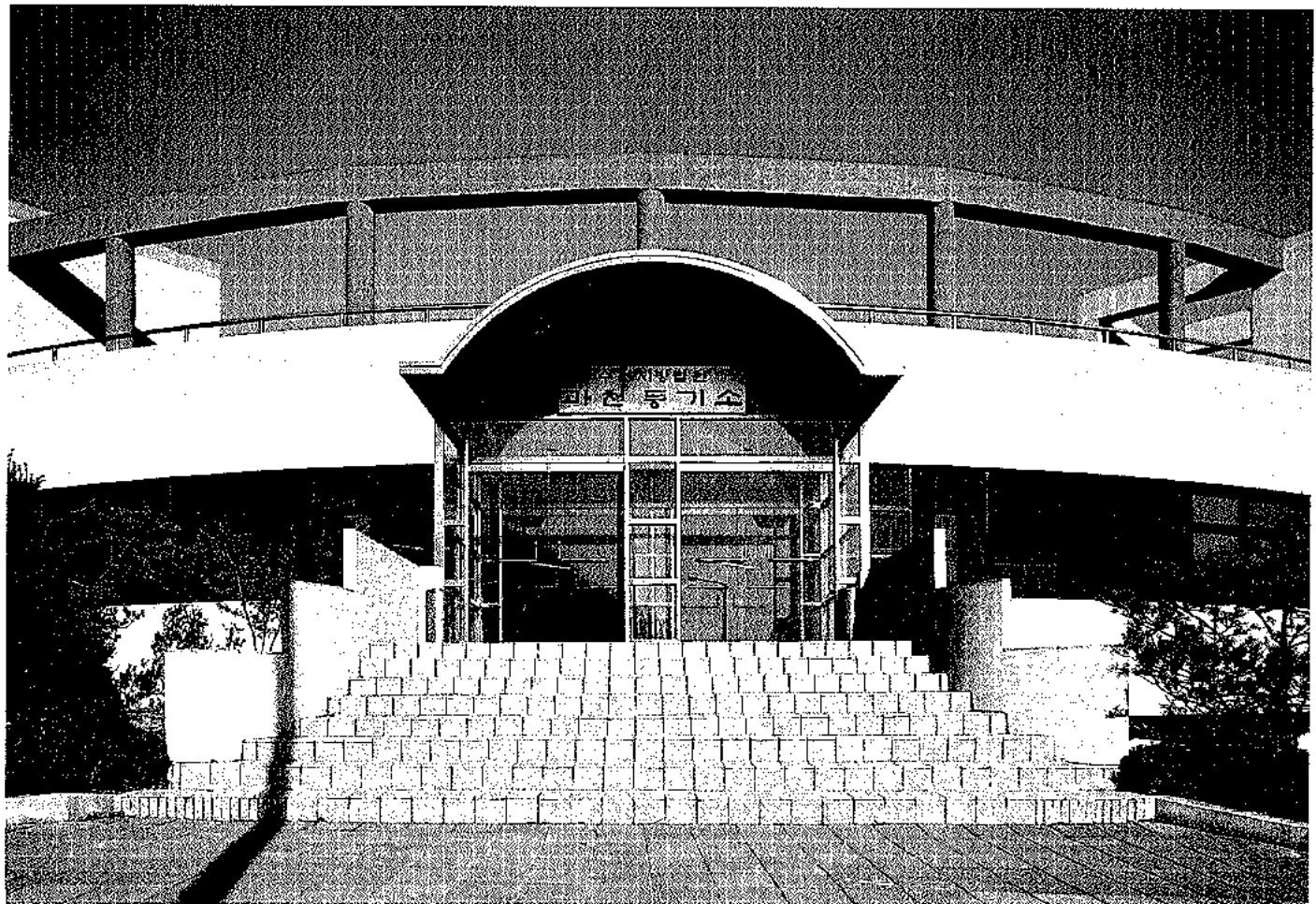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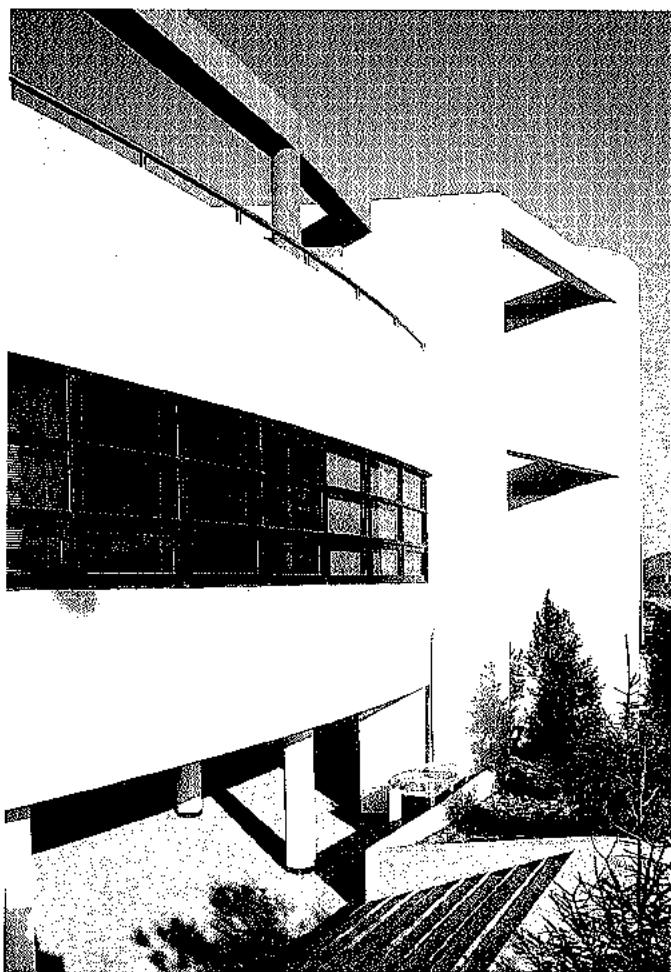
남동측에서 본 주출입구 및 캐노피



동측 전경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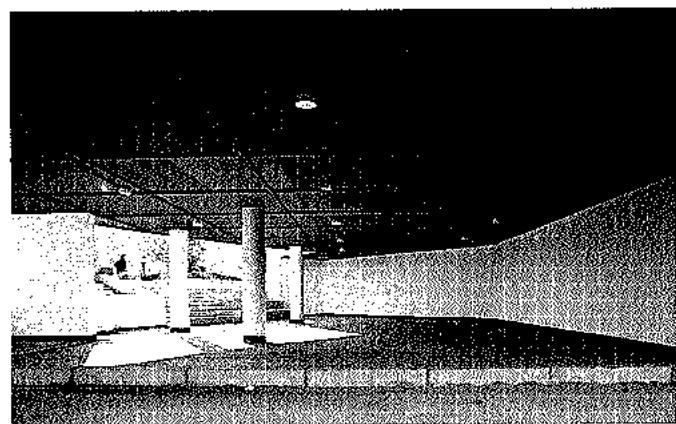
주출입구에서 본 시민휴게공간 입구 및 외벽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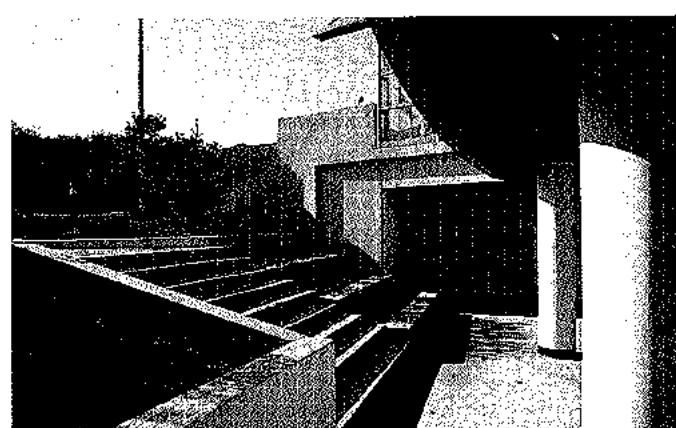
시민휴게공간에서 올려다 본 외벽상부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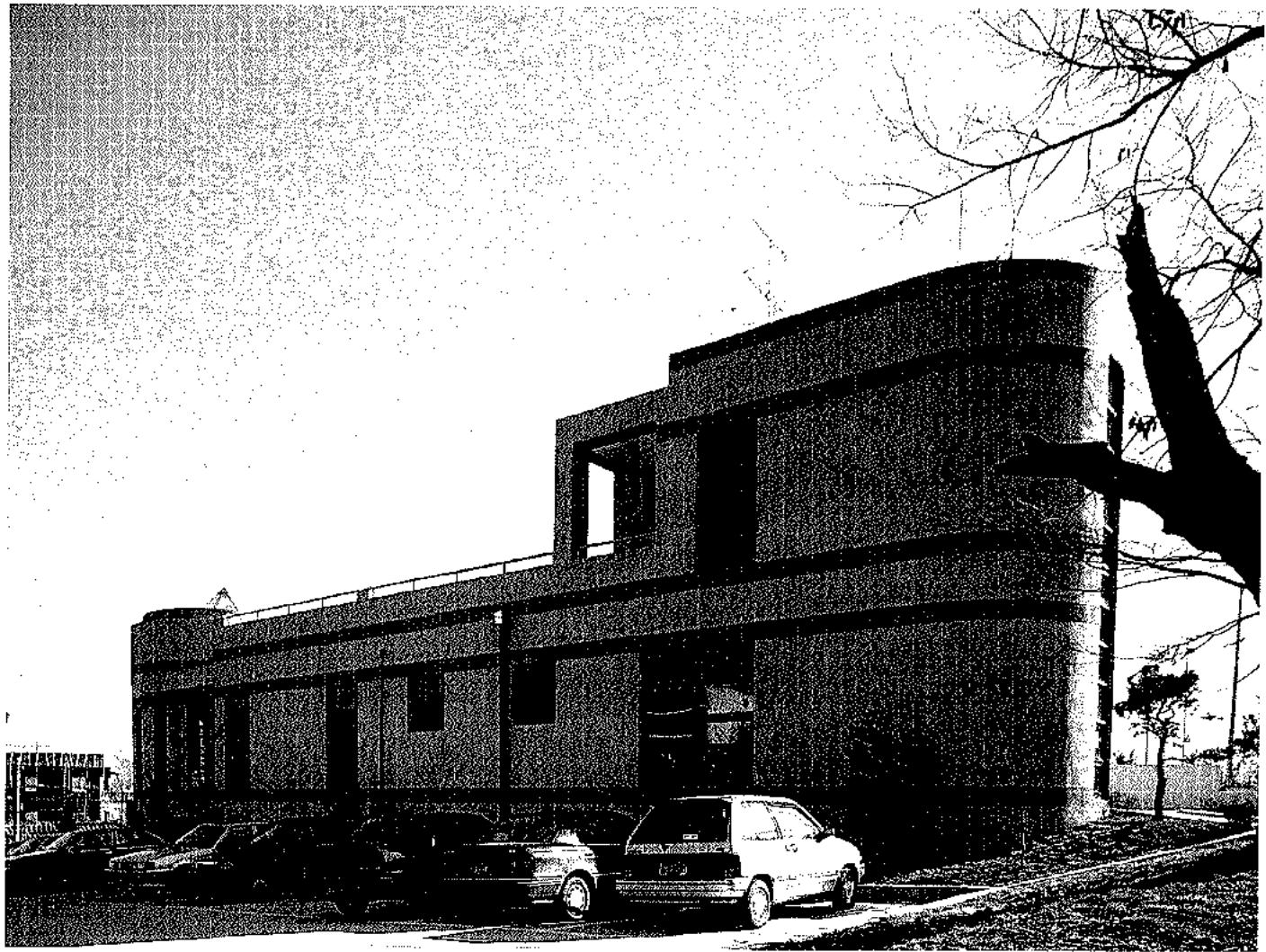
시민휴게공간



지하층 출입구



부출입구 및 외벽상세



북서측 전경



계단실

기존 관공서의 보편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친밀한 조형성”을 강조하는 것과 도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위치의 중요성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가 이 Project의 관건이었다.

대지의 전면도로는 과천에서 서울로 들어서는 갈목의 35m 대지로서 건물 전면에 7m 이상의 녹지대 및 관문광장을 형성하여 원충공간을 두고 건물을 Set Back하여 상대적으로 건물의 정면성과 인자성이 높아지게 유도하였다.

또한 대지 북쪽으로 낮아지는 지형의 특성을 이용, 피로티로 처리하여 시민휴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직접적 등기소기능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공공건물의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도록 대지를 해석하였다.

평면의 개념은 등기소이용자와 직원과의 관계 및 그 활동반도 등을 고려해 부채꼴 형태로 전개되었고 그 부채꼴의 구심점에 Top light를 두어 자연스럽게 자연채광의 부드러운 맛을 느끼게 유도하였다. 한편 입면은 전체적으로 극선을 이용하여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가운데 대칭 및 강한 수평성을 강조해 최소한의 규범이 있음을 보여주고 옥상 층에 기둥과 보를 살려 증축고려 및 성장성을 암시하였다.

화원작품

월광교회

Wolkwang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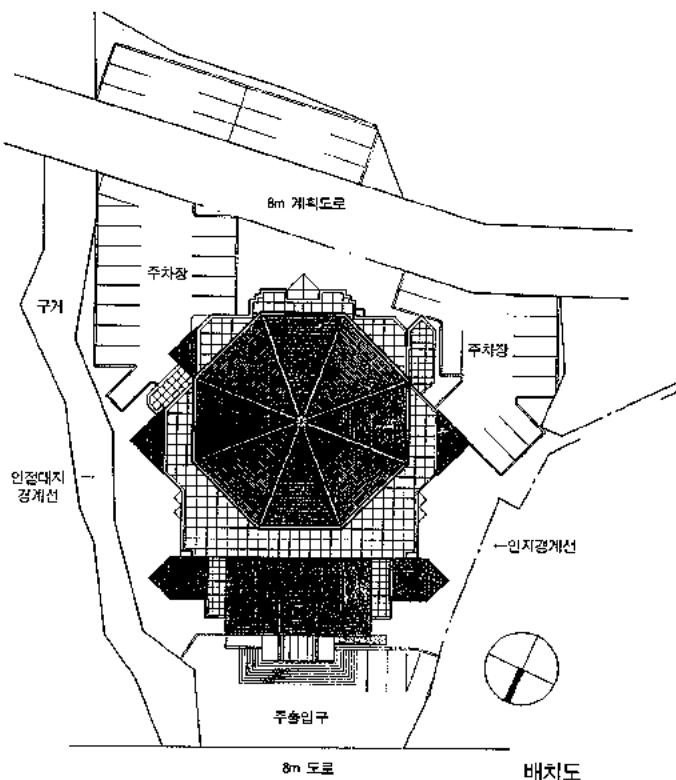
鄭洛圭 / 예종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eong Nak-Kyu



정면



강단 전경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417

대지면적 / 3,119㎡

건축면적 / 1,108.4㎡

연면적 / 4,158㎡

건폐율 / 44.5%

용적률 / 123.5%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붉은 벽돌 치장쌓기, 희강석 바너구이, 복층반사유리

전기/태양전기

설비/냉탕설비

시공/청도건설

Location / 417, Hwajeong-dong, Seo-gu, Kwangju-shi

Site Area / 3,119㎡

Bldg. Area / 1,108.4㎡

Gross Floor Area / 4,158㎡

Bldg. Coverage Ratio / 44.5%

Gross Floor Ratio / 123.5%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5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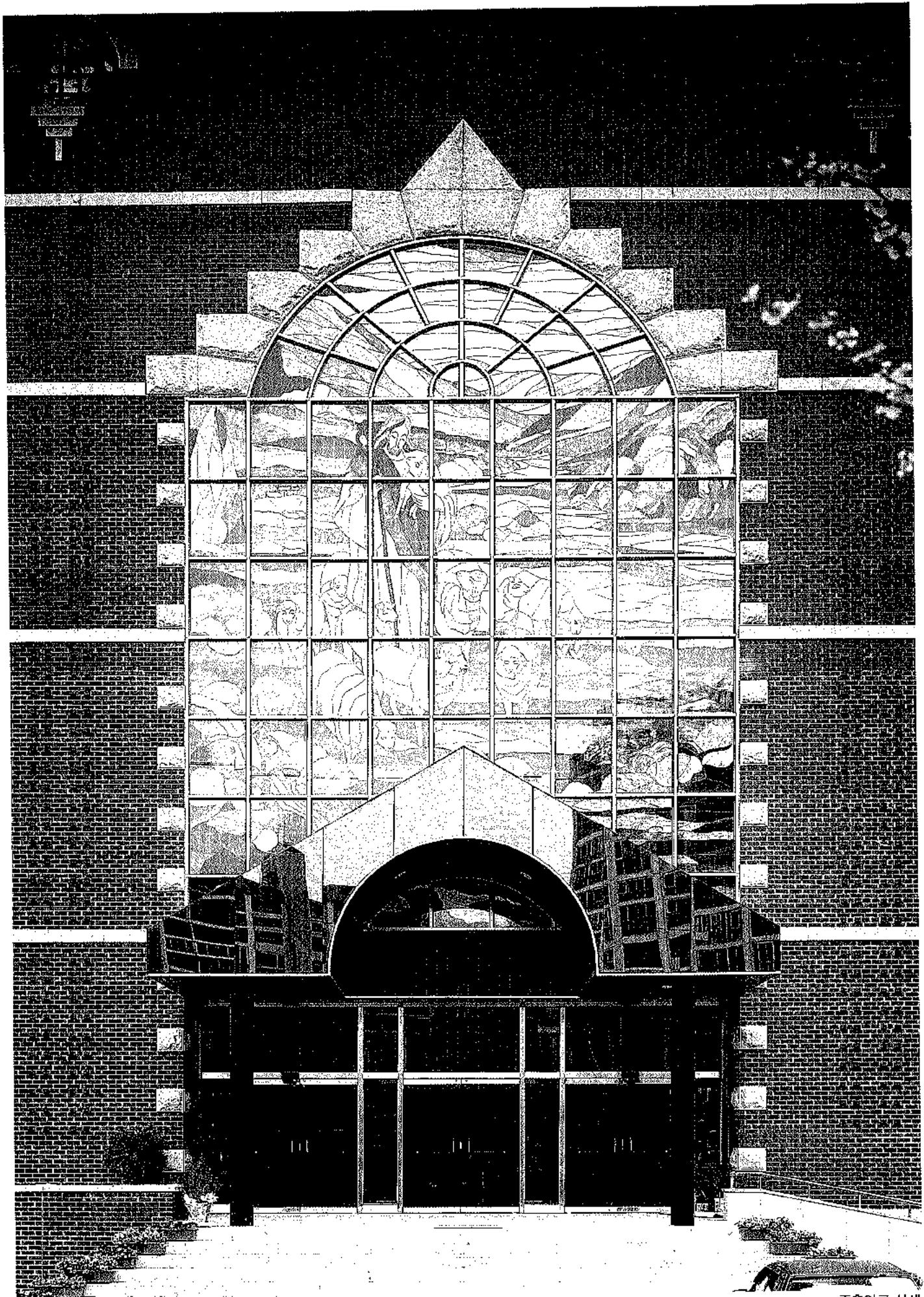
Exterior Finish / Red Fair-faced Brickwork,

Granite, Double Reflect Graz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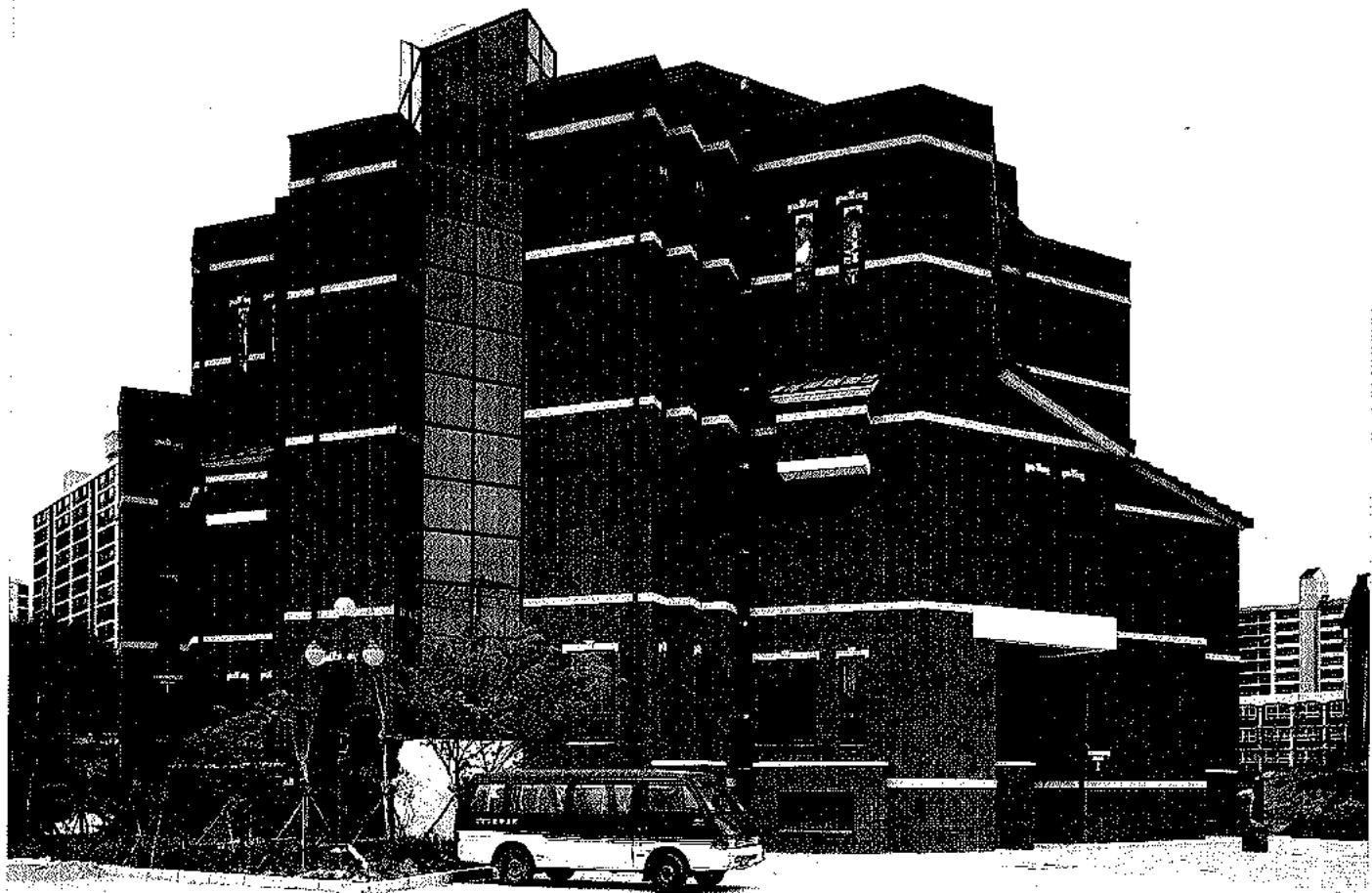
Electric Installation / Taeyang Electric Co.

Mechanical Services / Kwandeok Facility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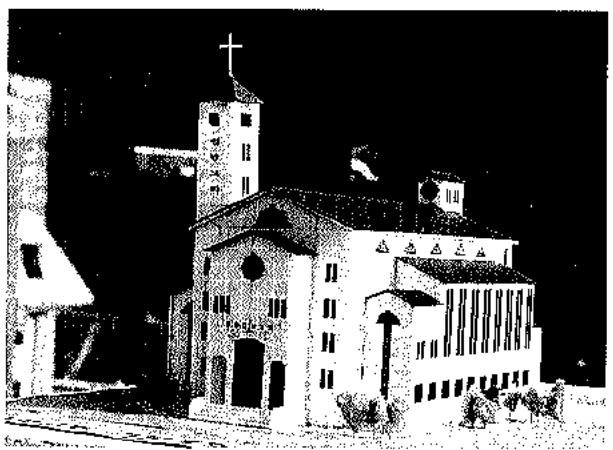
Constructor / Cheongdo Construction Co.



주출입구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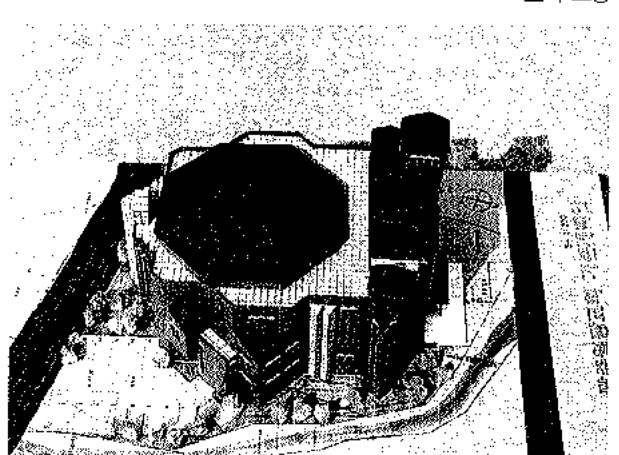
남동측 후면 전경



초기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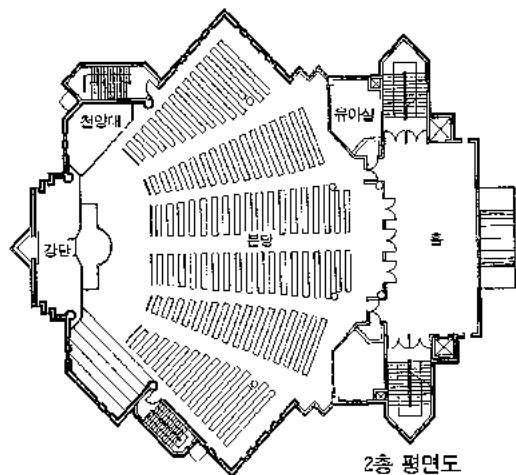
북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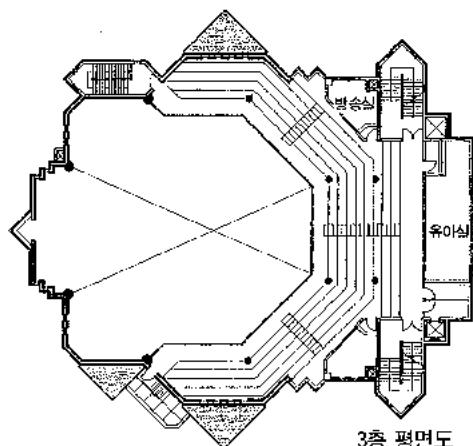
최종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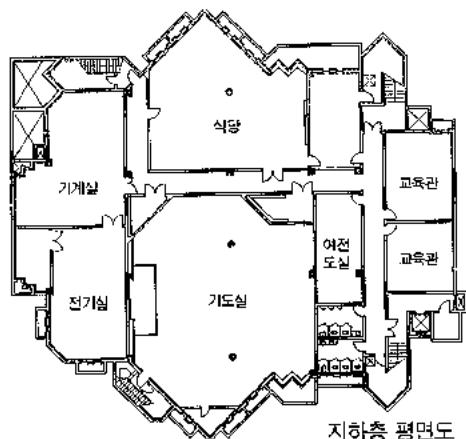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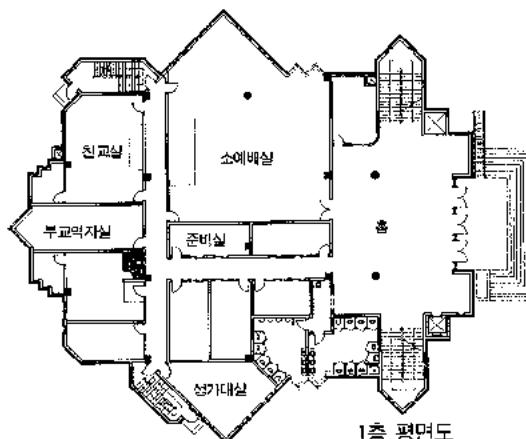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성가대석에서 본 예배실

계속되는 교회 부흥으로 인하여 기존의 시설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를 완료하고 설계를 위하여 안내된 곳은 도시의 개발과 확장에 따른 주거지역의 끝부분으로서 경관이 수려한 얕으막한 야산 밀의 부지였다. 주변은 오래된 기존주택들이 산재해 있으나 다행히 전면도로 건너편에 어린이 공원과 국민학교가 있어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위치였다.

장자 교회의 발전계획에 따라 1,500~1,8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본당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도 및 친교 사무 공간 등을 수용해야 하는 본 건물은 부지규모에 비해 매스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내부의 필요한 기능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외부 형태에도 변화를 주어 아름다운 조형물을 이루기 위하여 8각형을 기본으로 하여 형태와 기능에 따라 작은 매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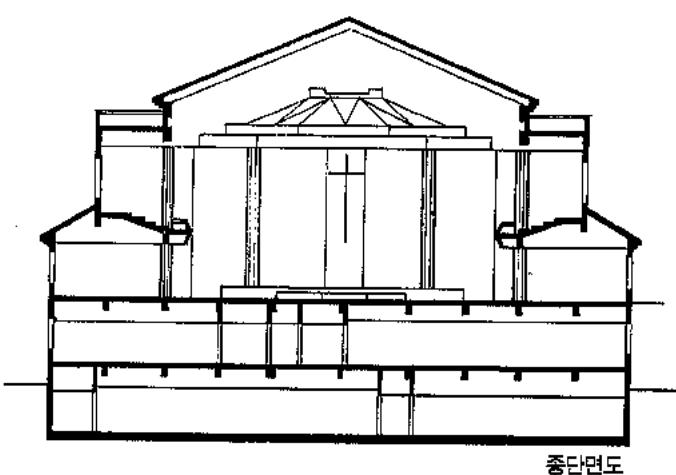
전면의 주출입구와 주계단 기능을 합하여 옆으로 벌려서 기본 8각형 매스보다 돌출되게 함으로서 건물의 전면이 더 커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본 8각형 매스를 제외하고는 그 높이를 건물의 조화와 기능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외관에 변화를 주도록 하였다. 경사진 각 부분의 지붕에는 벽면에서 돌출된 처마를 설치함으로써 흘러내리는 빗물을 등에 의하여 벽면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붉은 벽돌 차장 쌓기로 마감한 외벽면에는 각 층을 구분하는 위치에 화강석띠를 설치하여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벽면에 변화와 활기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정면 캐노피는 당초 반원형으로 계획하였으나 경사 지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삼각형의 경사진 형태를 취하였으며 벽돌과 대조되는 반사유리를 사용함으로서 정면현관부분의 식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평면구성은 1층 주현관 출을 통하여 지하와 지상의 본당과 층에 이르게 된다. 주계단을 양측에 배치하고 성가대와 설교자를 위한 별도의 계단을 강단쪽에 2개소 배치하여 비상시에는 2 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당 내부는 부채꼴 형상으로서 설교자와 회중 간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였다. 본당 2층에는 후면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발코니를 설치하여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수용인원의 증가를 꾀했다.

1층은 중고등부 및 아동부의 예배에 필요한 소예배실과 사무실, 당회장실, 성가대연습실, 교육관 등이 있으며 지하층에는 각종 실내행사와 새벽 및 금요기도회 등을 할 수 있는 기도실과 주방식당, 기계전기실, 교육관 등이 있으며, 주방과 식당에는 채광과 환기를 충분히 하고 지하층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큰가든을 설치하였다. 기도실에는 직접 지층과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기계실 출입은 후면 계단을 이용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대각 빌딩

Daegak Building

(주)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 & Engineers



원경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9-5, 6, 8

대지면적 / 1,044.60m²

건축면적 / 631.55m²

연면적 / 14431.73m²

거제율 / 60.46%

용접률 / 1037.80%

글무 / 지하 5층 지사 1

구조 / 척골 콩크리트조 척골조

주요도 / 어민시선

의본디자인 / THK 30-회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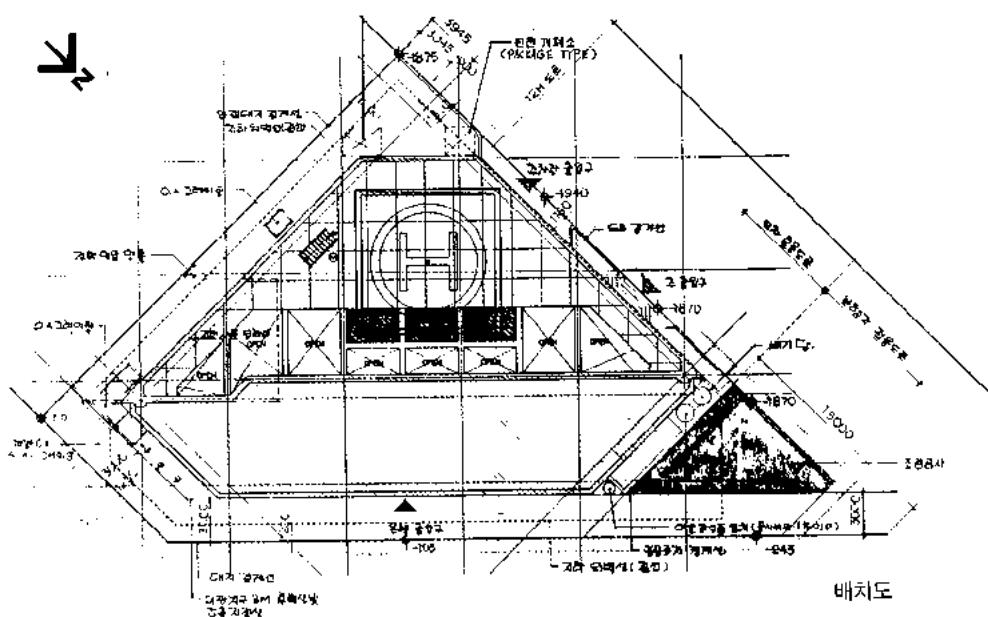
THE END

11

구조 / 배운정
선비 / 양인선비

질비 / 행할질비

전기 / 세진기연
나고 / 대리기선





올려다 본 북측 벽면 상세

Location / 1319-5, 6, 8 Seocho-dong, Seocho-gu, Seoul

Site Area / 1,044.60m²

Bldg. Area / 631.55m²

Gross Floor Area / 14,431.73m²

Bldg. Coverage Ratio / 60.46%

Gross Floor Ratio / 1,037.80%

Bldg. Scale / 5 Stories Below Ground,

18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eel

Use / Business

Exterior Finish / THK 30mm Granite,

TH 24mm Color Double Grazing

Structural Design / Ma choon-kyoung

Mechanical Services / Young II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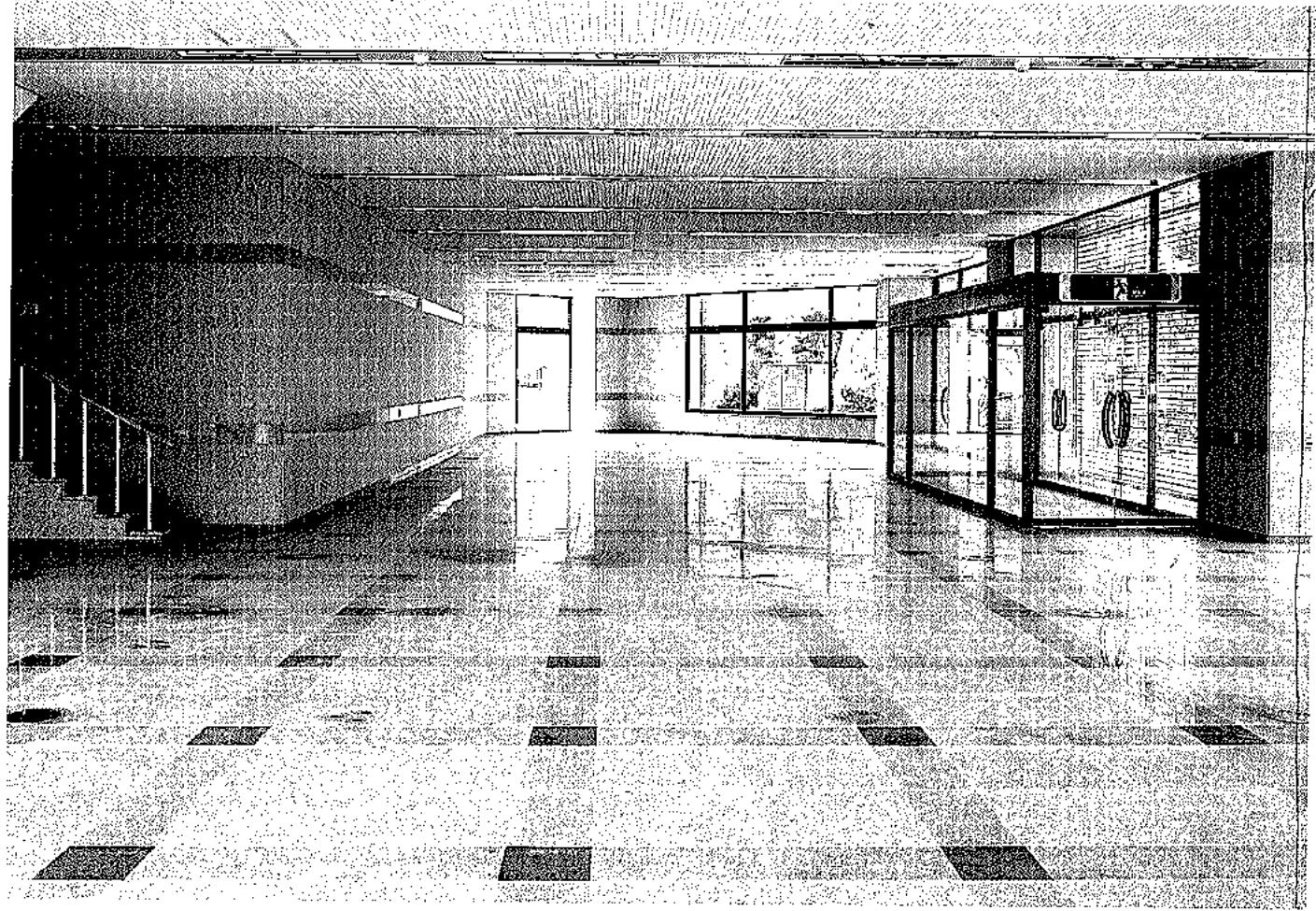
Electric Installation / Sejin Electrical Engineering

Constructor / Daerim Construction Co.



로비에서 본 2층 연결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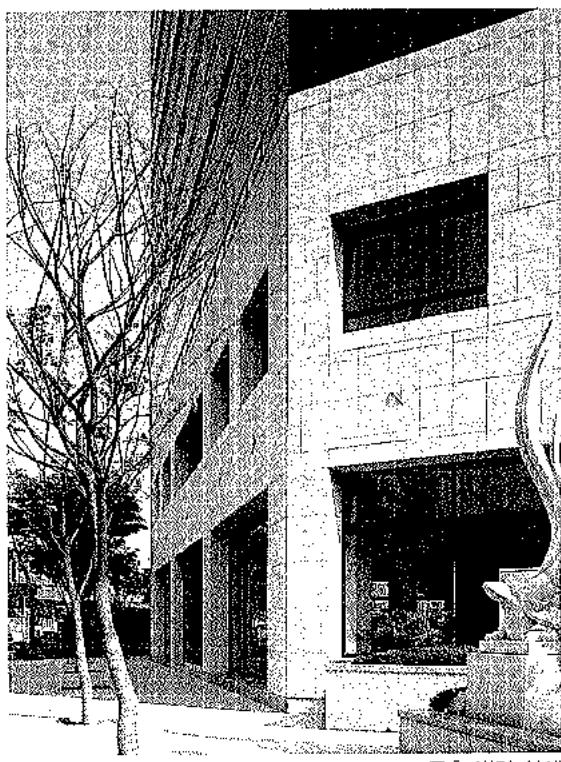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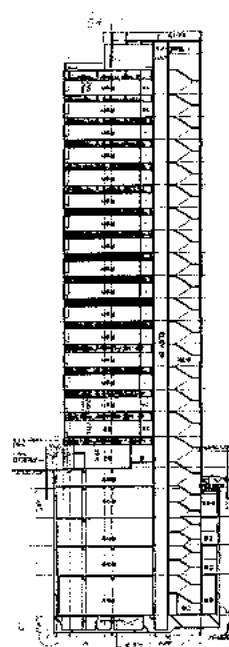
부족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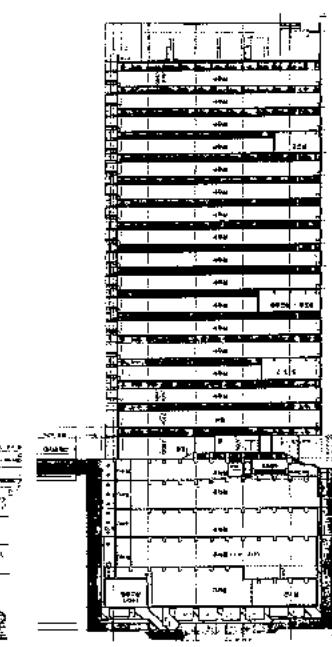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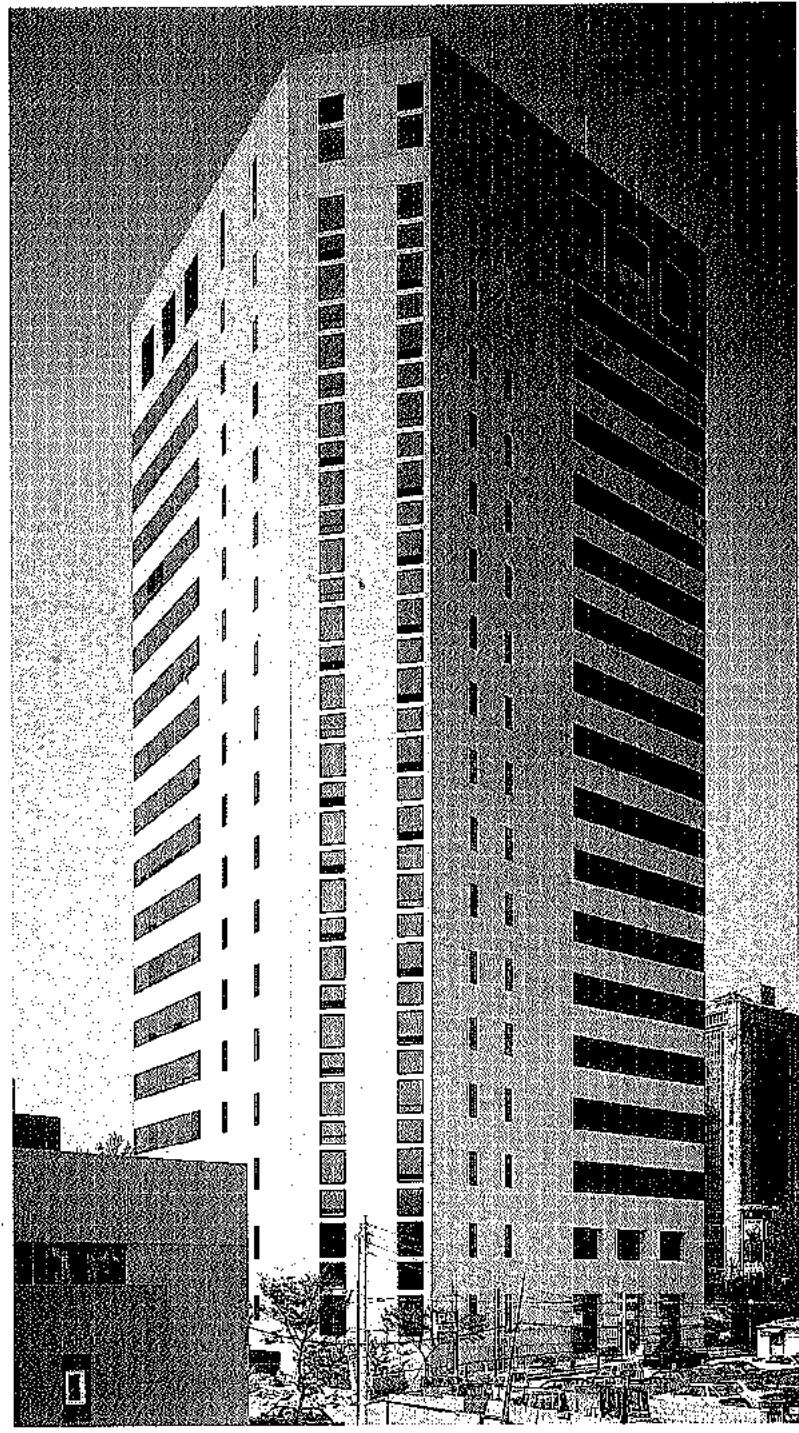
동측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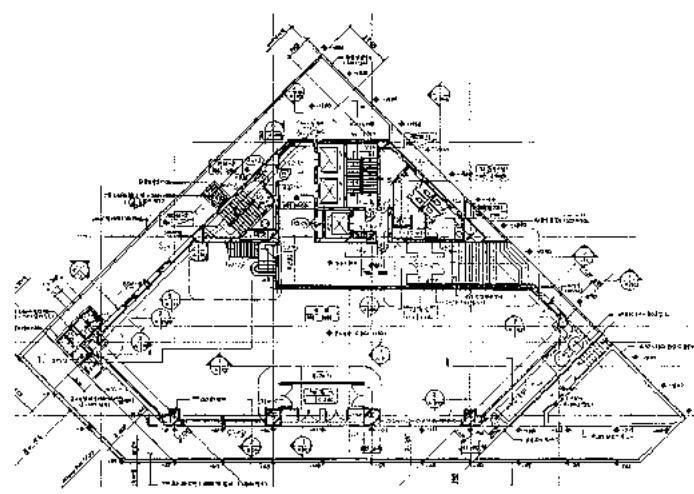
주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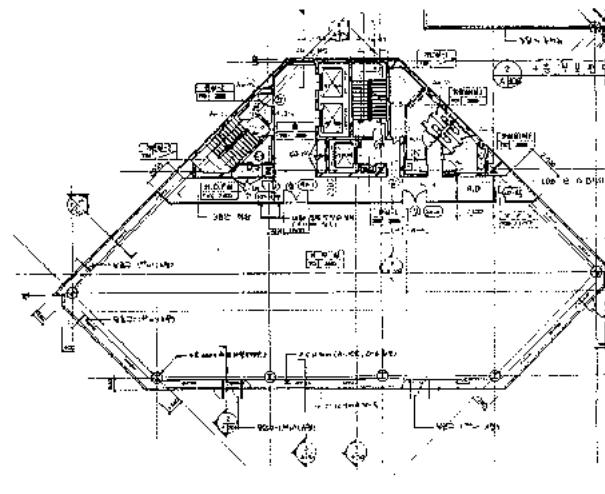
주단면도 2



남서측 전경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북동측 전경

서초동 대각빌딩이 위치한 대지는 강남지역의 동매과도 같은 50m 폭의 테헤란로(동서방향)와 강남대로(남북방향)가 교차하는 강남역 사거리의 서남측 코너부분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대지로서 강남역 사거리 교통광장에 면하고 있다.

대지의 주변은 이미 강남지역의 중심적 위치로 부각된 지역이라 고층 건물로 숲을 이루지만 대지가 위치한 강남역 사거리의 서남측은 테헤란로 도시설계상 특수 개발지역이라 아직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지의 입지로 봐서는 도시의 결절점에 위치한 랜드마크로서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졌다.

이러한 도시적 맥락에서의 대지 상황을 살펴

볼 때 입지여건은 상당한 잠재력이 있으나 대지가 대하고 있는 강남역 사거리 교통광장의 스케일에 비해 대지의 면적이 협소한 편이라 다양한 배치 대안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더구나 도시 설계 지침으로 공공 공간을 할애하고나니 자연스럽게 강남역 사거리를 향한 디어몬드형의 건물형태가 가능하게 되었다. 코어의 위치는 인접건물의 차단이 예상되는 남측으로 계획하게 되었으며 주용도의 사무공간은 시작적으로 열려 있는 광장쪽으로 향하게 하였다. 저층부의 출입구는 광장쪽에서 은행 출입을 유도하고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12m 폭의 후면 도로측에 주출입구 하부로 주차 출입 램프를 두어 어려운 대지여건 속에서 동선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도심의 고층 오피스빌딩에서의 비중높은 ISSUE가 접근성이라고 볼때 강남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입주자들을 유입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주차 문제를 비롯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사무실이 주용도가 될 고층부의 평면을 고려하여 사무실의 효율적 공간 확보와 융통성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해 무주공간을 형성하도록 구조적 뒷받침을 해 주었다. 대지형태에 따라 주차를 위한 지하층 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지하층의 주차(대기주차 포함) 외에는 기계식 주차로 해결했지만 대형 승용차의 Parking이 여유롭지 못해 아쉬우며 주차 해결문제로 시공중에 한차례 설계변경까지 있었다.

회원작품

주택전시관

Housing Exhibition Hall

姜哲熙 / 이상건축+姜健熙

Designed by Kang Cheol-Hee & Kang Keon-Hee



정면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지역 · 지구 / 도시근현대원

대지면적 / 235,437m²

건축면적 / 12,668.40m²

연면적 / 27,486.27m²

건폐율 / 5.38%

용적률 / 11.67%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강당 : 800석)

구조 / 철골조+Fabric 구조

외부마감 / 밖 : 금속단열페널

지붕 : Fabric(태프론 막구조)

전기 / 유압기공

설비 / 보온설비

구조 / 신간축

조경 / 힐링조형

감리 / 이상건축

시공 / 주간영

Location / Cheongja-dong, Pundang-gu,
Seongnam-shi, Kyonggi-do

District / Park

Site Area / 235,437m²

Bldg. Area / 12,668.40m²

Gross Floor Area / 27,486.27m²

Bldg. Coverage Ratio /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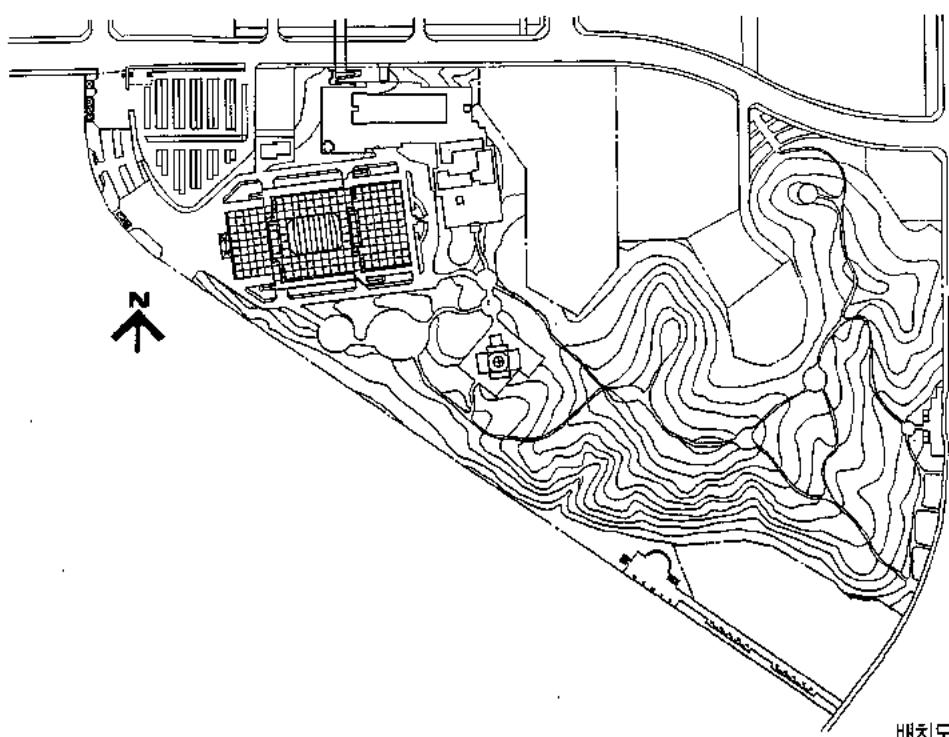
Gross Floor Ratio / 11.67%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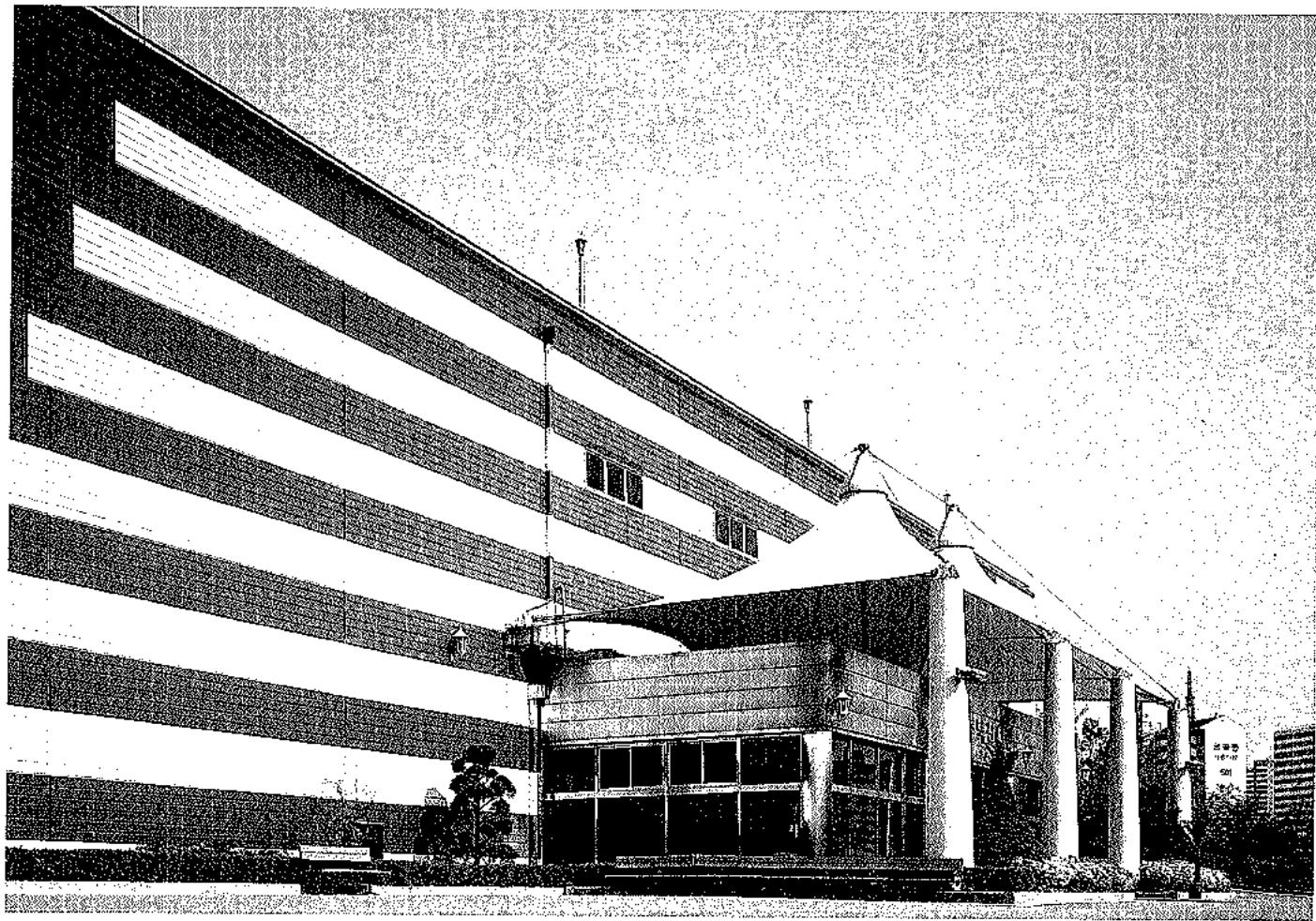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Fabric

Exterior / Wall-Metal Heat Insulation Panel, Roof - Fab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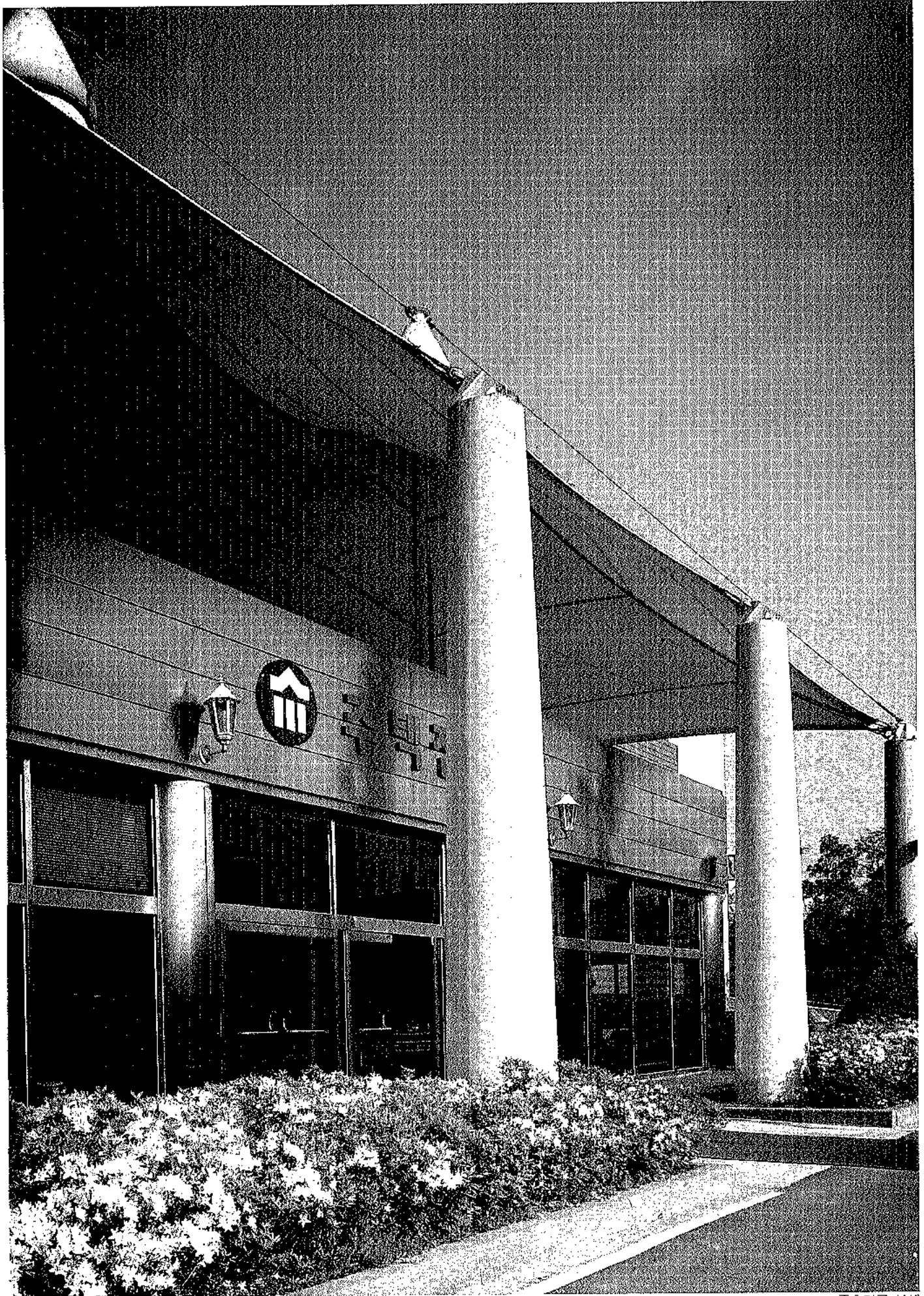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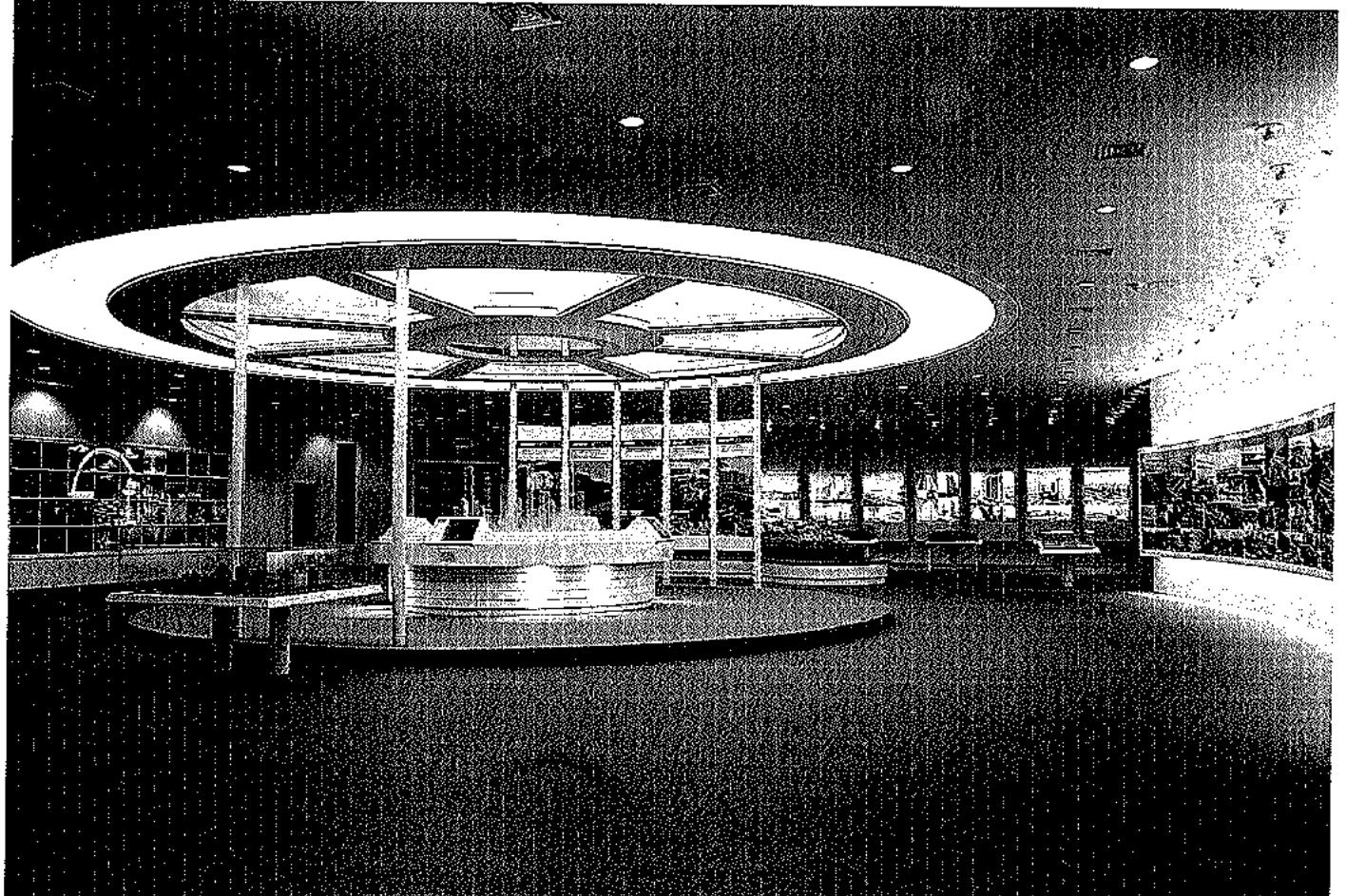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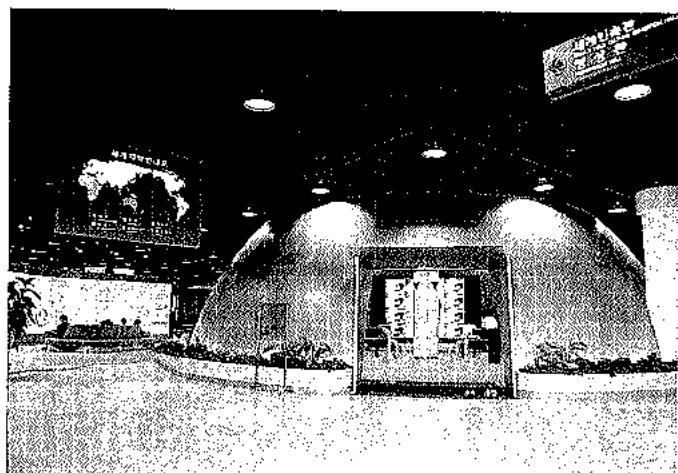
남측 외부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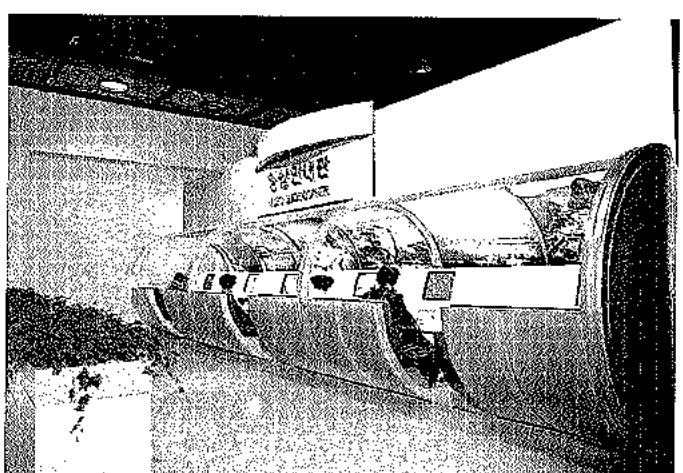
주출입구 실세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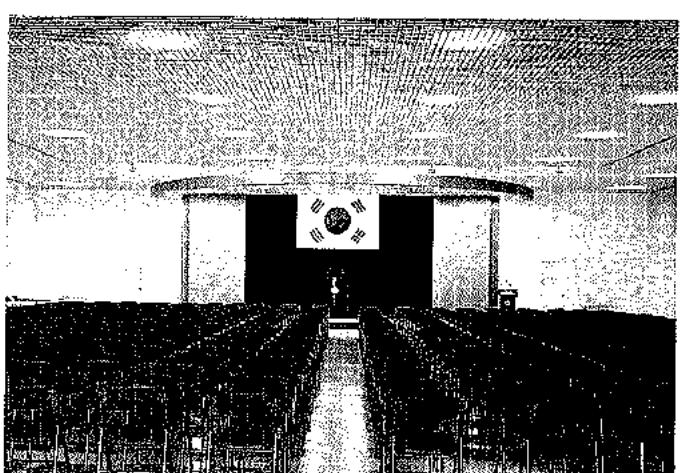
민속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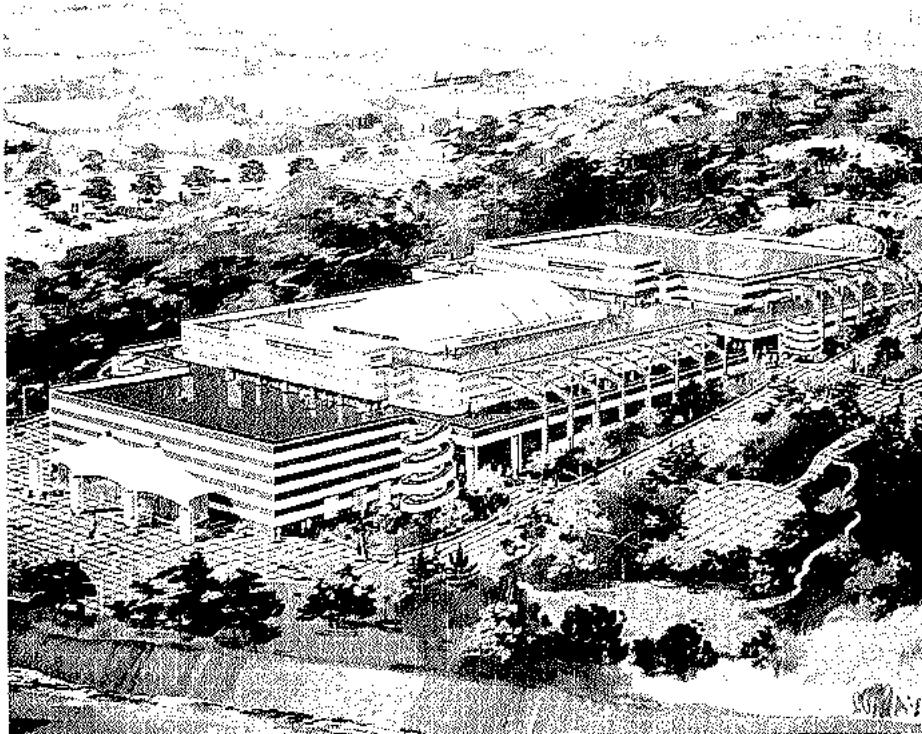
영상안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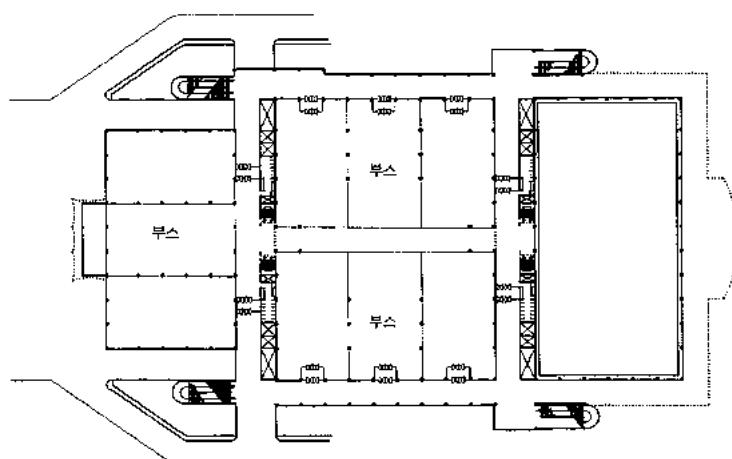
남서측 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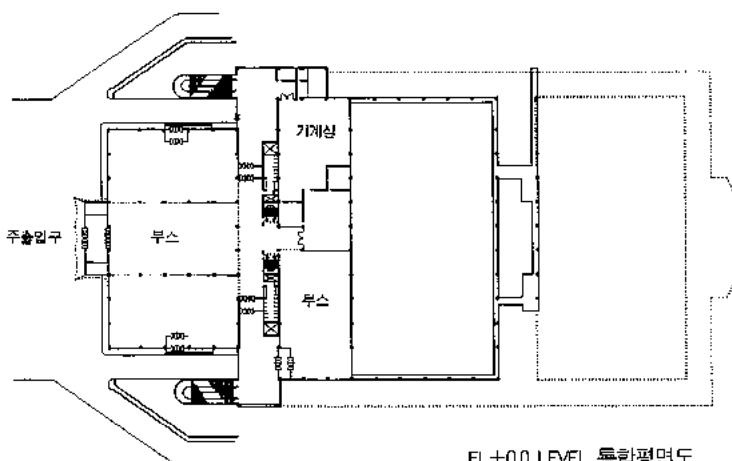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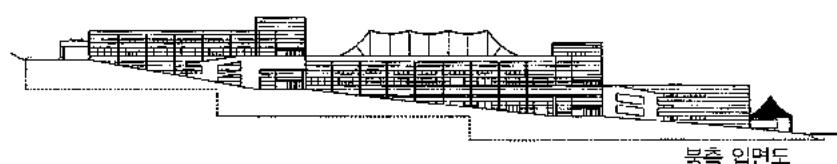
조감도



EL+6.0 LEVEL 통합평면도



EL+0.0 LEVEL 통합평면도



북측 입면도

이 전시관은 분당시 정자동에 있는 주택공원 내에 입지해 있다.

분당 신도시 계획의 수립에 따라 균린공원으로 지정된 주택공원은 총 면적이 236,610m² (71,574.5평)으로서 신도시 남쪽의, 녹지핵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 공원은 균린공원으로서의 일반적 의미와 함께 대규모 주거단지인 신도시 개발에 따라 주거리는 Theme를 가진 “주택공원”으로 제안하였으며 Theme 공원으로서의 기능부여를 위한 시설제한 및 행사계획이 구상됨으로써 지역 특성화 및 이에 따른 이용률 제고가 기대되어 지역공원의 이용영역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신도시 개발의 주체인 토지개발공사의 본사가 본 공원 Block내에 입지함에 따라 지역적 상징성의 의미가 한층 강화되었다.

주택공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의 제1단계로서 이 주택전시관의 건립이 시행되었으며 장차 공원전체의 개발과 함께 전통문화관, 만국정원, 주거사 박물관 등의 시설들이 입지함으로써 주거를 주제로 하는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며 이의 완성과 함께 신도시 주거단지의 조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된 주거문화의 집합적 명소화는 물론 미래 주거문화 창출의 정보교환 장소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주택전시관의 건립배경은 시설자체의 성격부에는 물론, 공간계획, 동선계획에 주요한 지침이 되었다. 즉, 신도시 개발에 즐음하여 견본주택전시관(Model House)의 건립이 활발하게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시설의 난립에 따른 관련업체간 과열경쟁 및 한시적 운영에 따른 재원낭비 등 건립운영의 문제가 심화되고 도심내의 용지난이 유발되게 되었으며 특히 각사별 분산건립으로 입주희망자들이 비교 선택함에 있어 불편함이 심각하게 노출되었다.

그 해결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통합전시관의 건립운영안이었다. 이를 주관하여 추진한 한국주택협회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참여업체, 관계기관등과의 협의를 거쳐 1990년도 후반기에 착공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Model House에 대한 조사 및 각 참여업체의 요구에 따른 적정규모의 산정결과 공용부분을 제외하고 각 업체별로 250평을 1Unit로 한 Booth를 기준으로 공간분할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공용간과 Event 행사공간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Unit의 규모 및 공간융통성의 확보, 구조의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대 공간을 위한 長Span(21.6m) 철골구조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각 Unit은 7.2m의 module을 기준으로 21.6m × 38.1m의 규모로써, 총 24unit와 부대기능을 적용한 Space Program의 결과 8,300여평의 수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체공원의 개발비율을 낮춰 녹지환경을 보전하고 기존지형의 흐름에 순응하는 단면계획의 결과 4개의 Level로 구분한 수직분합계획이 수립되었고 각 Level에 입주할 업체 각각에 공평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위해 각 Level로 차량 및 사람이 캠프를 통해 외부에서 직접 출입하는 동선을 배려하였으며, 전시관 전체의 순환동선을 위한 내부순환체계를 별도

로 보완하였다.

각 층의 층고는 Model의 설치와 추후 종합 전시관으로써의 기능전환을 고려하여 6.5~8.0m로 하였고, 바닥 미감은 하드너 천정은 설비 및 구조체의 방청 그리고 방음을 위한 최소한의 처리로 부스별 Model House 설치에 따른 종복시공에 대비하였다.

최상부층 중앙부에는 Fabric 구조의 도입으로 장차 종합 Event를 위한 대공간 활용을 고려하였는데 이 시도는 자연채광의 유입과 공간의 융적확대로 극적인 공간분위기의 조성을 기대한 것이다. 최상부 옥상면은 실내공간과 함께 종합적인 행사장으로서의 활용을 고려하였다.

외관은 주변의 자연 경관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내부기능의 융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진 바 단순도형의 도입에 의한 외관이 창출되었고, 양 측면에 골조체의 노출배열에 의한 Void 요소의 연결로 투시도적 시각효과에 따른 단조로움의 완화와 Solid한 부체 Mass의 중량감을 분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단조로운 건물선과 배경 환경과의 완충역할을 부여하고 앞서 언급한 실내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최상부층 중앙에 50.4m×36m(약 549평)과 전면입구에 24.2m×10.45m(느 76.5평) 크기의 막(Fabric)구조를 채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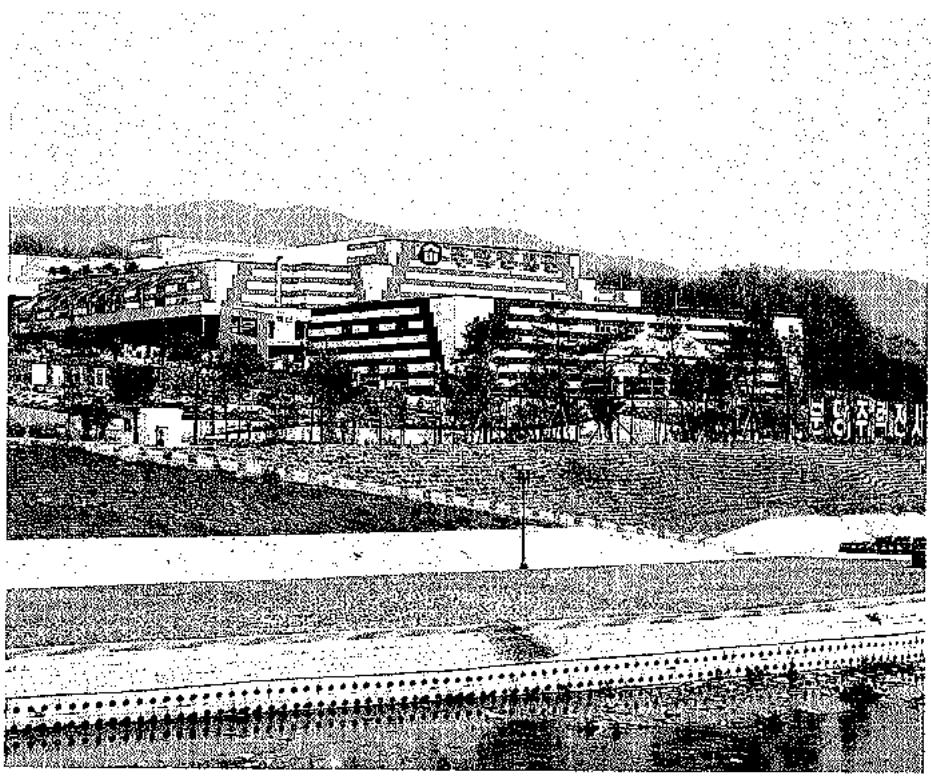
본 시설에 도입한 막(Fabric) 구조는 전면부는 입장 Cable을 이용한 구조방식이 사용되었고 중앙부에는 Steel Pipe Truss의 Frame 위에 Wire로 형상을 지지한 구조가 채용되었으며, 막 재료는 국내에서 최초로 쓰여진 Teflon Coated Fiberglass Membrane로서 과거에 사용되어진 막재료인 Silicone Coated membrane의 단점(방오염성 부족에 의한 채광효과 격감, 세척곤란, 짧은수명등)을 보완한 재료로서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시설은 물론 현재 세계 각국의 막구조 지붕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초기 투자비가 비교적 높은 것이 국내에서의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나, 앞서의 단점이 보완되어 채광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방오염성이 우수하며,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절약되는 점등을 감안하고 특히 외관의 미적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실내공간의 효율 등 직접적인 경비와의 효과까지를 고려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재료로서 앞으로 꾸준한 사용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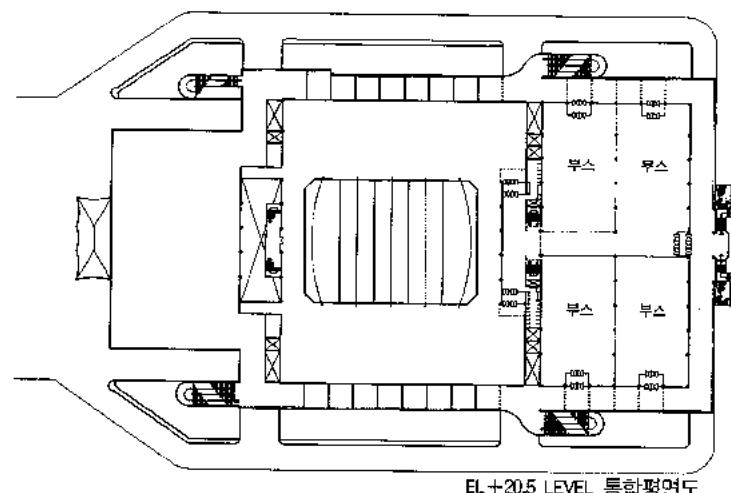
이 방식의 사용은 주관업체인 협회관계자분들의 넓은 안목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과거 올림픽 편성경기장 막구조지붕에서의 설계·감리경험으로 Teflon의 사용을 강력히 제안 할 수 있었다.

주택공원의 건립은 현재 추진중인 전통문화관 및 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만국정원, 주거사 박물관 등이 추가됨으로서 그 장소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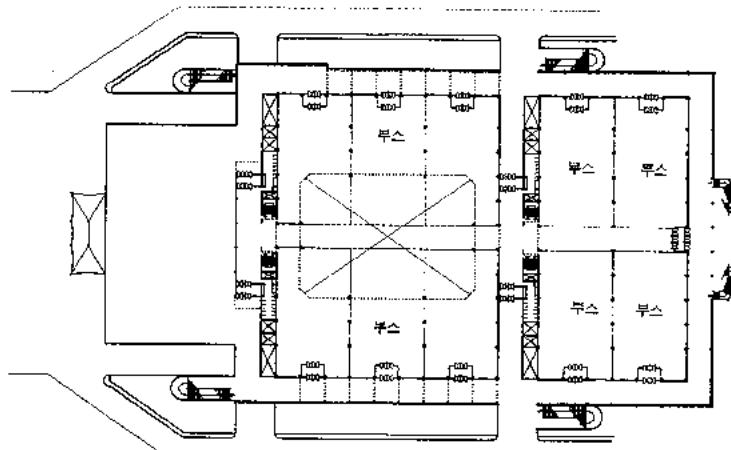
그 첫단계로 시행된 본 전시관도 전체 주택공원의 중심 구조물로서 장차 주거문화를 알리고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다하기를 희망하며 주택공원의 추진과 건립에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주택협회 회장님 및 관계자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북서측 전경



EL +20.5 LEVEL 통합평면도



EL +13.0 LEVEL 통합평면도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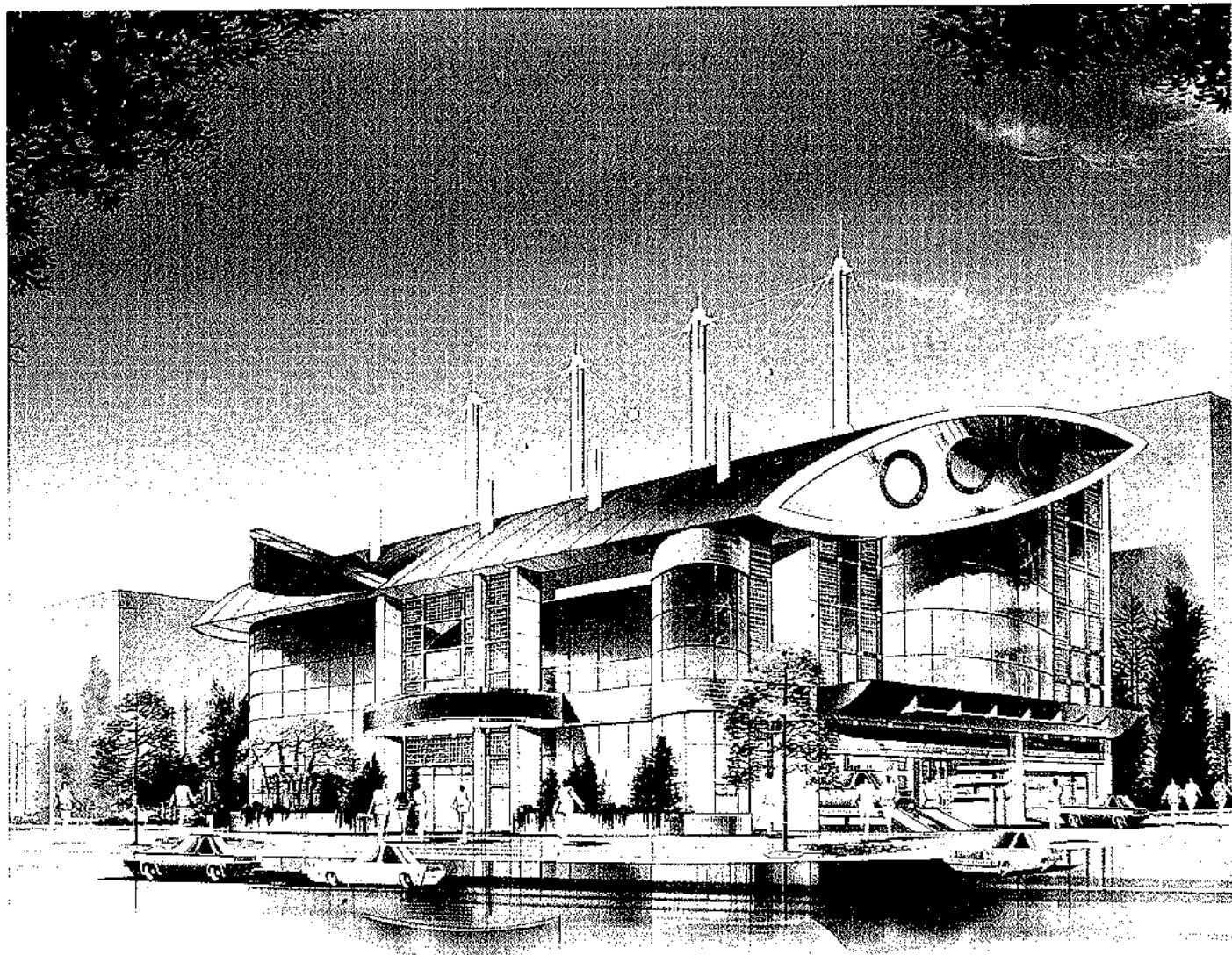


서초 1576 Top Point

Seoho 1576 Top Point

文聖雲 / 건축사사무소 이상 도시

Designed by Moon Sung-Un



투시도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6-10호

대지면적 / 518.30 m²

연면적 / 823.24 m²

구조 / 철골조

외장재료 / 알미늄 앤 보상복합재널 및 파스텔복층유리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주요시설 / 근린생활시설

설계담당 / 김영호, 이은경, 이종찬

Location / 1576-10, Seoho-dong, Seocho-gu,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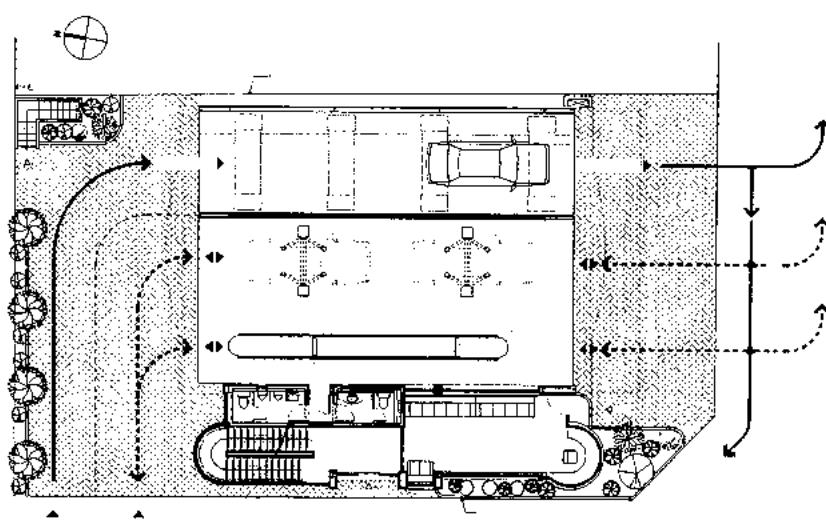
Site Area / 518.30 m²

Gross Floor Area / 823.24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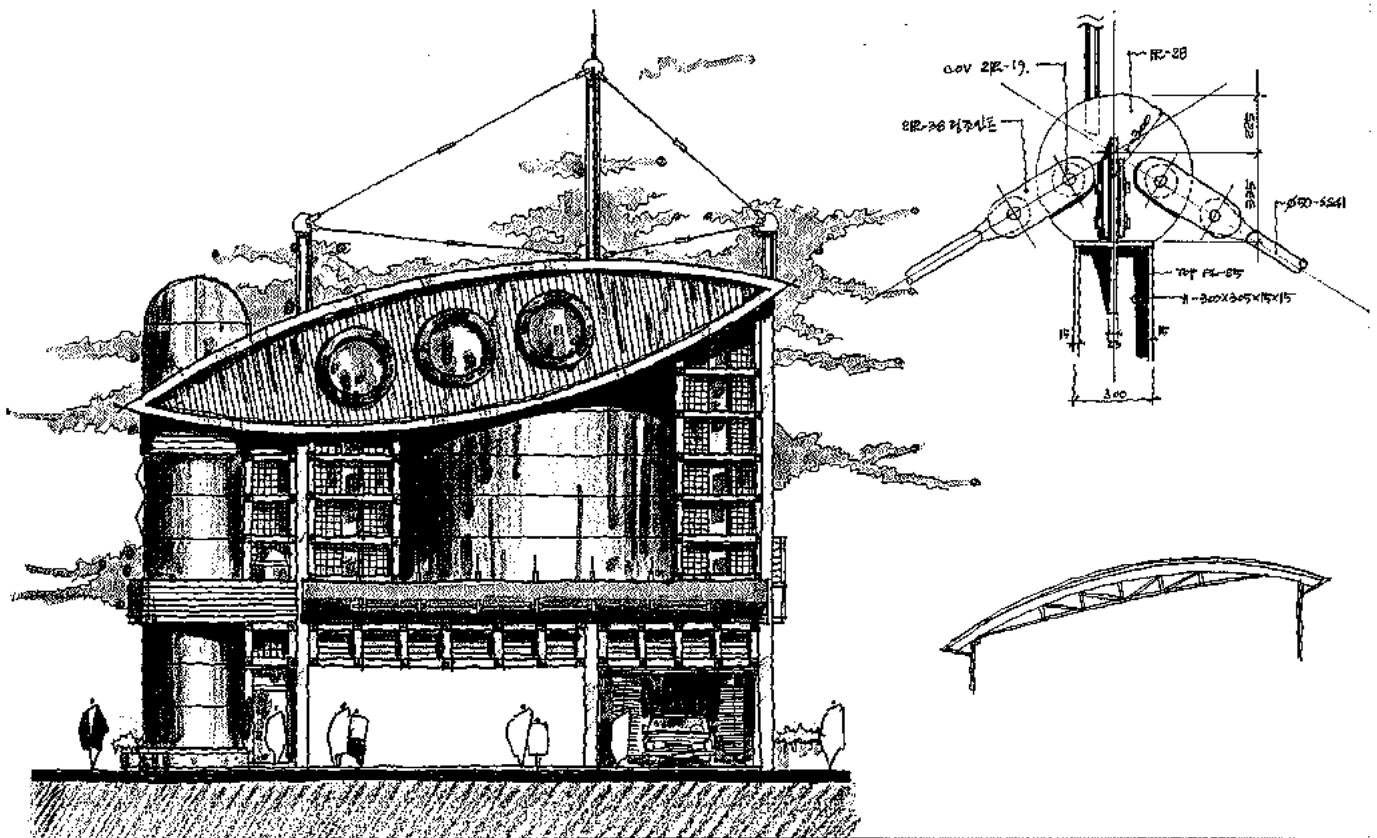
Structure / Steel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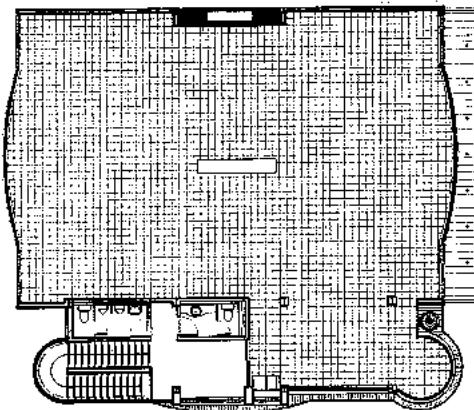
Project Team / Kim Young-Ho, Lee Eun-Kyeong, Lee
Chong-C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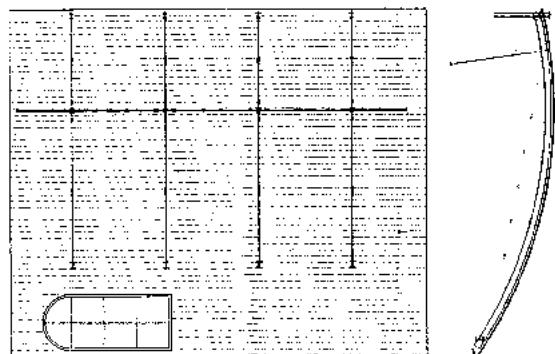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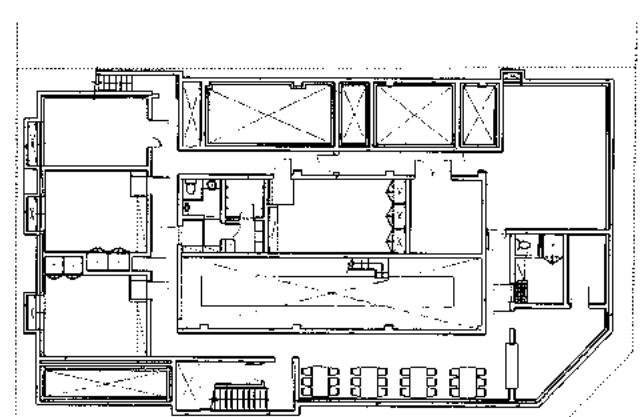
스케치



2층 평면도



지붕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이 작품은 보기 드물게 건축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추진되어진 일이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그만큼 부담도 커던 작업이었다. 30m 간선 도로의 이면 부지로서 상업성과 주거성의 지역적 교차점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가장 먼저 세심한 주의를 요한 것은 이들 지역성의 가교 역할부터 찾아야 했다. 우선 일조권 및 사선 제한 등 법규적 제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의외로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었다.

당초에는 7, 8층 규모를 의도하였으나 저층규모로 하기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계획 부지는 차량 및 유동 인구가 의외로 많은 곳으로서 저층이지만 작고 꾸밈이 조금 있는 표정있는 건물을 놓아 보고 싶었다. 건축주의 의도는 1층은 자동 세차장과 경정비 센터를 운영하고 2층은 POP-RESTAURANT를 운영하고자 했으므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세차 및 경정비차량의 동선과 2층 이용객의 동선을 분리, 조절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면 도로에서 올 수 있는 소규모 저층건물들의 약간은 무질서한 모습들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형태를 추구하였다.

일련의 먼저 계획되어지고 지어진 건물들보다 이번 작업에 대한 작가의 기대는 미처 장난감을 구입하러 가는 어린아이 마냥 기습이 설레여지는 작품이다. 6월말 준공을 예정으로 시공 중인 현장에 타 현장보다 자주 찾게 되는 이유는 규모는 작지만 다 그런 연유에서 일계다.

제작 작품

도곡동 우성 캐릭터 · 199

Togok-dong WooSung Character. 199

韓玄鎬 / (주) 건운국제건축사 사무소

Designed by Han Hyun-Ho



투시도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24의 2필지

지역 · 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10,690.50 m²

건축면적 / 5,956.28 m²

연면적 / 100,496.73 m²

건폐율 / 55.7%

용적률 / 620.37%

규모 / 지하 4층, 지상 31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시공 / (주)우성건설

Location / 467-24, Togok-dong, Gangnam-gu, Seoul

District / Commercial, Parking

Site Area / 10,690.50 m²

Bldg. Area / 5,956.28 m²

Gross Floor Area / 100,496.73 m²

Bldg. Coverage Ratio /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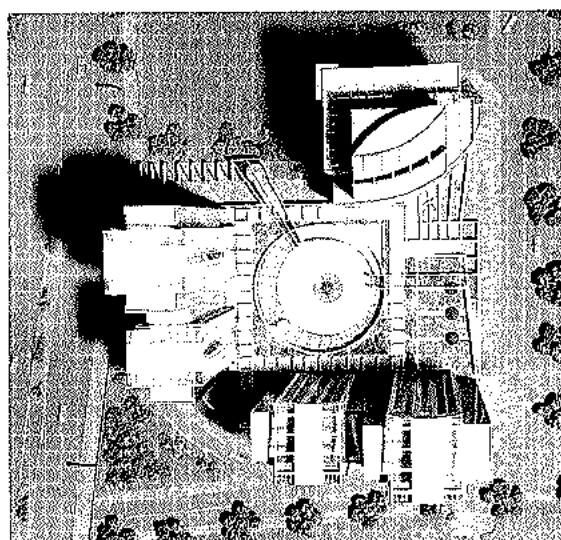
Gross Floor Ratio / 620.37%

Bldg. Scale / 4 Stories Below Ground, 31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eel

Construction / Woosung construction company



모형 1



모형 2

언주로를 따라 매봉터널을 지나면 양재천을 면하고 있는 계획지에 이른다. 양재천을 넘는 구룡·대모산의 푸르름과 멀리 남서쪽 청계산의 맑고 시원한 바람자락이 매봉앞에 아르르, 서울에서 보기드문 출렁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 주상복합시설이 적합하리라 생각되었고, 계획하는 동안에 수많은 논의와 대안속에서도 일반화된 주거와는 다른 몇몇의 시도는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첫째, 기존 집합주거에 대한 일반해를 바탕으로 엄밀하게 분석된 입주 예상자들에 대한 특수해를 찾아, 새로운 형식의 주거를 제안하려는 시도이다. 도심의 주상복합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일반 집합주거의 입주자성향과는 다른 성향과 상이한 주거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문화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새로운 주거형식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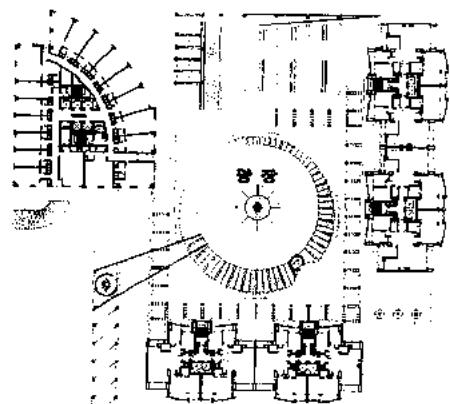
둘째, 높은 밀도를 유지하면서 주거와 상업시설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복합시켜야 하는 문제인데, 기존의 상하수직으로 복합시키는 방식보다는 Zoning을 수평으로 하므로써 상업시설로 부터 거주자들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고, 대지와 거주공간과의 연결에 의미를 두었다.

셋째로는 단지에 대한 Identity부여와 주거에 대한 기억의 유지이다. 보행동선의 수평수직의 기능적 연결 고리가 되면서 가로와 주거사이의 전이 공간이 형성되도록 Innercourt를 형성하여 도심주거에서 상실되기 쉬운 거주자들의 영역성을 확보해 주면서 주거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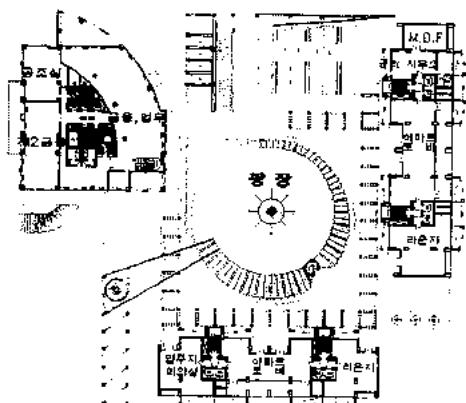
넷째, 높은 밀도는 해결 해야할 문제인 동시에 다른 주거와 차별화되는 하나의 계획동기(Motive)가 되었고, 높은 밀도의 용적률 요구하는 도심주거에서는 보다 밀도가 적어 보이는 고층탑상형 Mass(mass)의 선택이 요구되어지는데, 이는 일률적인 향에 따른 배치보다는 전망을 중요시하는 거주자들의 추세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도심지 주거에서의 향에 대한 개념(일조에서 전망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층Mass의 선택은 계획지의 입지적 상황에서 중요한 도시 경관 요소가 되도록 계획되었고 단지전체 Mass를 구성하는데 있어 양재천과 언주로가 교차하는 코너부분이 가지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체단지 Mass를 구성하였으며, 주거와 상업시설의 Mass를 각각의 성격이 표현되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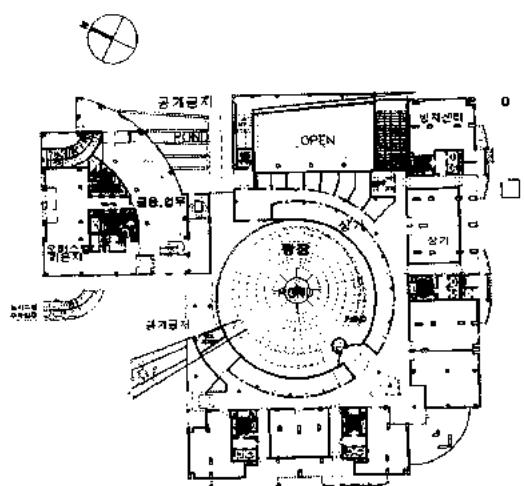
이러한 시도들이 건축적인 개념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 만들 어가는 도심속에 기억될 장소가 되길 바란다.



기준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알아며 생각하며

계획설계

Schematic Design

鄭基澤 / 종합건축사사무소 나우건축
by Chung Ki-Taeg

모든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협회에 계획설계 등록청 구를 신설하여 의뢰받는 모든 설계 내용을 등록하게 한 후 충 복되는 경우는 즉각 단체회원에게 통보하고 협회차원에서 의뢰인에게 Penalty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으며 건 축사업부 보수기준에 확실히 계 획설계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설계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사 각자의 힘보다는 모두가 적극적 으로 협회에 동참하여 응집된 한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상황 -1

오늘도 사무실에 Developer라 자칭하는 몇몇 손님들이 찾아와 도시 계획확인원 등 서류를 내보이며 계획설계를 부탁한다.

건물의 기능과 성능을 얘기하기 전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건폐율, 용적률을 요구하며 장황하게 사업의 전망, 계획들을 설명하면서 설계안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최대한 빨리해 주도록 요구한다.

상황 -2

몇년전 설계를 해주었던 건축주의 소개라며 서류를 들고 찾아와 자신의 건물설계를 의뢰하려고 하니 자신이 요구사항을 수용한 계획안을 언제까지 제안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황 -3

모 회사에서 사옥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계획설계안 공모에 참여하여 주었으면 하며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건축 계획내용에 대해 협의하자고 한다.

사무소를 개설하여 일해오는 동안 서두의 세가지 상황말고도 수많은 상황들이 전개 되겠으나 그중 일반적인 상황들을 접하고 설계를 추진하며 발생된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려고 한다.

모든 회원들이 항상 대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이 닥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데 …

계획설계는 모든 건축설계의 시작이며 또한 이 과정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의 성격이나 기능, 성능 등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계획안의 협의과정에서 한두차례의 협의로 최종안이 결정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는데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설계의 과정이 아니던가.

계획과정에서 직원들과의 협의시간은 간단하게 캠맥주라도 마시며 서로의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며 지난일들에 대한 평가와 자성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계획설계는 사무소 수주의 기본이 되고 또한 직원들의 건축을 향한 열정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소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는데 …

물론 각 사무소마다 계획설계에 대처하는 원칙들이 있기는 하겠으나 많은 회원들이 계획설계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아닌가?

우선 계획은 시작하기전 현장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 (때론 비디오로 촬영하기도 하고) 또 제반법규를 검토하고 Space Program을 작성하여 스케치를 하느라 밤늦게 불을 밝히기도 한다.

계획내용에 차이는 있겠으나 어느것 하나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이런저런 대안을 거친후에야 한두가지 안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나는 시간들은 결코 적은 시간들이 아닌 것이다.

일차 정리된 안을 의뢰인에게 제안한다고 해도 그안들 이 건축주의 요구나 의도에 호흡일치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

때로는 의뢰인의 요구와 상관없는 건축사 자신의 독자적인 의지정리가 의뢰인에게 강요되는 것은 아닐까도 모르겠고 … 그야 건축사 각자의 건축언어 표현방법이기도 하겠으나, 정작 이런 모든과정을 겪은 후 설계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채 계획안 자체가 여러가지 이유로 Paper Work으로 끝나게 되면 어찌하겠는지 …

당연히 의뢰인은 자신의 요구가 충족된 좋은 설계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런 방편으로 설계경기가 이루어 지기도 한다.

계획설계는 건축의 시작이다.

사무소는 설계를 하므로써 자신의 건축언어를 현실화 시키게 되며 또한 그 수입을 가지고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

우리의 업무보수에는 계획설계비 항목이 없다.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 제8조의 기본설계조항을 계획설계로 보는 것이라면 과연 그 보수기준을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설계비를 받는 사무실이 몇이나 되겠는가.

회원들이 모여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각

사무소의 대응방안을 얘기하곤 하지만 아직은 별다른 대책이 없이 계획안만 열심히 하다가 지친 경우가 주변에 많으니 큰일이다.

각 사무소가 이런 계획설계양산 현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니 결국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나름대로 대처하는 요령을 티득하는 것이 정녕 사무소를 꾸려나가는 과정인가?

물론 열심히 하지않아서 설계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예외이겠으나 나름대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해결점을 찾아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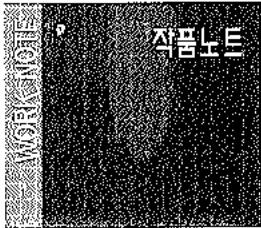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접수부터 받고 진료비를 계산하며 변호사들 또한 상담접수를 받아 상담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동안 협회차원에서 여러차례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도 뚜렷한 대책없이 각 사무소의 경험치에 의해 각자 대처하고 있으니 이제 확고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요즈음 부실시공, 부실설계 얘기가 자주 거론되는것은 그 모두가 정상을 벗어난 상태의 무리한 사업추진, 혐평 등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정상적인 상태로 설계에 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선결과제라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모든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협회에 계획설계 등록창구를 신설하여 의뢰받는 모든 설계내용을 등록하게 한 후 중복되는 경우는 즉각 단체회원에게 통보하고 협회차원에서 의뢰인에게 Penalty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으며 건축사업부 보수기준에 확실히 계획설계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설계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사 각자의 힘보다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회에 동참하여 응집된 한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작품노트

1990년대를 열며

1990년 2월 14일 아침 주요 일간지에는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초대형 상징탑 건립에 관한 기사를 나루고 있었다. 6·25등의 국난을 이겨낸 호국의지와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는 민족적 상징탑을 세우기 위한 설계경기의 당선작 발표를 겸한 기사는 높이 330m나 되는 거대한 스케일에 놀라고 있었고 전쟁기념탑이라는데 대해 미묘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다. 가칭 「평화의 탑」이라 명명하였는데도 건립 주체가 국방부

라서 그런지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선거에 의해 당당히 수립된 정부라 하더라도 오랜 군사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던 당시 상황때문에 전쟁기념사업회라는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일이 그렇게 탑탁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쨌든 89년 8월 15일 설계경

기 공고가 난 이래 마음 줄이며 혼신의 힘을 다해 매달렸던 6개월간의 전투가 영광스러운 승리로 힘들게 결판나는 날이었다. 전화인사가 쇄도하고 「탑」현상에서 「탑」이 TOP이 되었다고 매스컴에서 떠들어 댔다. 혼하지 않은 대형 조형물의 설계경기였고 건축가, 조각가, 환경미술가 등 모든 장르를 초월하여 응모자격을 준 열린 경기로서 더군다나 1차, 2차에 걸친 진을 빼는 시합이었기 때문에 나는 거의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그저 명한 환각의 세계로 접어드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6·25 40주년과 함께 나의 40년도 흘러가고 있었다. 경기공고후 2달만인 10월 14일, 1차 응모안을 제출하고 머리를 식히려고 1박 2일의 사무실 수련회를 다녀온 내게 아내가 내빈 신문쪽지에 1차 입선작 공고가 눈에 들어왔고 반사적으로 나는 기성을 지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조각가 3인, 건축가 4인이 예선에 든 것이다. 1차의 고비는 넘겼다. 7인의 선수는 다시 스타트 라인에 서고 다음해 2월 2일까지 최종작품을 제출하게 된다. 어떻게 그 겨울 년말년시를 보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왜 그렇게 그 탑의 설계에 집착했었는지도 기억할 수 없다. 단지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싶다는 소년같은 꿈을 현실화해보고 싶었을 뿐이다. 90년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는 날 아끼고 사랑하던 참모 박차현과 나는 한강유람선을 타고 건립예정지인 한강 중지도를 뻥뻥돌며 결전을 다짐했고 공교롭게도 2월 2일 내 생일에 미역국도 못먹고 최종안을 제출하였다. 용산 육군본부 자리엔 아직도 병영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잿빛 겨울의 올씨년스러움이 돌아오는 나를 얼마나 춥게하였던지….

절정과 좌절

건축과 조각이 한 주제를 놓고 한미당에서 결승을 한다는 것이 애초

에 무리이긴 하였지만 이 프로젝트는 이미 조각적인 스케일은 아니었기에 건축적인 조형물로 풀어나가면서 조각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입지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강의 명물로 영원히 남을 수 있게 한다. 에펠탑도 세느강을 통해 보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에도 우리의 전통적 비감을 나타내는 멋진 상징조형물을 만들어 서울의 발전하는 모습과 함께 새로운 상징성을 높여보자 최종발표날까지 그 초조함은 입술을 바짝바짝 마르게 한다. 왜 그렇게 그 탑을 하고 싶었는지. 사무실 이름이 탑이라 숙명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인가? 단지 건축이 아니라 건축적 대형 상징조형물이라는데 더욱 하고 싶은 의욕이 넘쳤던 것 같다.

신문에 대대적으로 최종 당선작이 발표되고 작가이름이 나오고 탑의 건립의의가 났지만 웬지 끝까지 잘 완성될까하는 일 말의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은 곧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규모가 너무 크다는 논란으로 시끄럽더니 건립예정지인 한강 중지도 부지 매입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어렸을 때 데이트도 하며 보트 타던 그 중지도가 언제 민간기업에 넘어갔는지 그 섬이 매수해야 할 땅이라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곧 정리 되겠지 하며 오히려 구체적 작품구상에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내심 기뻐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먹구름은 가실 줄 모르고 그때부터 나의 생활리듬을 영망으로 만들며 그로키 상태로 몰아부칠 줄이야. 90년, 91년 만 2년을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규모를 줄여서 다시 계획하고 장소를 옮겨 임진각에도 세워보고 토지매입에 부지정지계획 굴토 성토 계획 안해 본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탑을 살펴보려고 앙간힘을 썼다. 전쟁기념사업회 관계관들의 노고는 눈물겨운 것이었고 민족의 도약을 위해 전쟁사와 전쟁의 의미를 되새겨야한다는 투철한 철학을 가진 이병형 회장의 집념은 끈질겼다. 그러나 백의종군 하였던 나의 노력도 허사였다. 1991년 12월 결국 “평화의 탑” 건립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만다. 정부에서 큰 뜻을 품고 국민 계몽과 민족 도약의 차원에서 건립하고자 했던 상징탑은 결국 이렇게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92년을 걸친 겨울은 좌절의 쓰라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울분이 치밀고 분노가 터져 나온다. 아 대한민국이여!

심기일전(心機一轉)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심기일전 적극적인 공격으로 정면돌파하여 무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까짓 일에 좌절하여 주저 앉을 수는 없다. 그 무렵 나의 한쪽 마음은 새로운 생명력을 썩틔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급기야는 오랫동안 염원하며 준비해오던 일, 거의 버려진 땅에 사옥



전경



조형을 이미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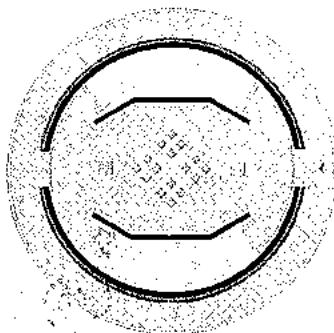


형체의 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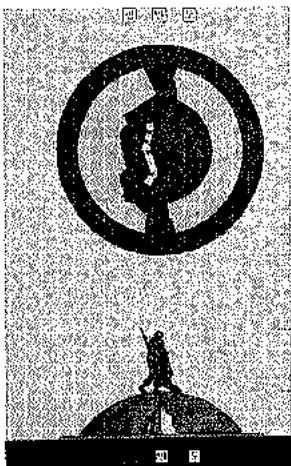


주물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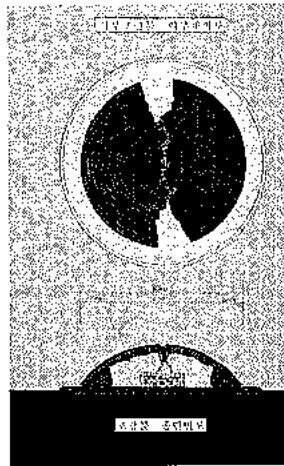
부조기념관



도면1



도면2



도면3

을 짓기로 한다. 10년이 걸린다해도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평화의 탑은 사라졌지만 탑의 탑은 만들고 싶었다. 저질려보자. 어린애같은 믿음이 태산을 옮긴다. 좌절의 겨울은 그렇게 해서 다시 희망의 온기를

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미친듯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안되면 되게 하고 힘들면 쉬었다가고….

그러는 동안 대안을 모색하던 전쟁기념사업회는 방향을 선회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92년 3월 새롭게 대통령 재가를 받게된다. 내용인즉 대형기념탑 사업을 변경하여 작더라도 그동안 모금된 국민성금 범위내에서 순수한 6·25 상징 조형물을 전립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획기적인 대안이었다. 동년 6월, 착하게도 한마디 불평도 못하고 추이를 관망하는 나에게 다시 변경안을 통보하게 된다. 새롭게 시작을 다시 해? 만 3년을 시달리며 아직 힘이 남아있나? 회의적인 생각속에 빠지면서도 벌써 마음을 달구어지고 야릇한 흥분에 싸이며 나도 모르게 6·25 상징조형물을 구상하고 있었다. 92년의 6·25는 또 그렇게 운명처럼 내게 자리잡아 갔다. 미국에선 전국적인 지지속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을 만든다는 데 정작 낭사자인 우리는 더 뜻깊은 상징물을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해야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한다. 내가 해야한다. 이미 나는 몸과 마음을 몽땅 그일에 빼았기고 있었다.

새로운 의욕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와 포용, 조국수호의지와 통일염원, 민족의 화합과 번영, 기슴설레는 주제를 탑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순수예술적인 상징조형물로 만들어내야 한다. 발상을 180° 전환하자. 건축적인 경직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샘솟는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자.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갈까. 하나님 제게 번득이는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제 손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만들어 내고 말겠습니다. 6·25는 우리의 아픔이었지만 우리의 도약을 위한 위대한 작품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워싱턴의 한국전쟁참전기념탑 보다 더욱 절실한 명작을 낳게 해 주소서.

사업회에서는 다시 또 다각적으로 「6·25 상징조형물」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3년간의 고통스러웠던 과정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당선자가에게 제작권을 주는 방향으로 압축되어갔다. 길고 지루한 여름이 다시 지나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끝없는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한쪽으로는 지치지 않고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고 다시 또 이번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폭염을 잊고 수없이 그리고 만들고 하던 작품의 윤곽은 찬바람이 나자 서서히 가닥을 잡기 시작했고 가을이 깊은 어느날 밤 불현듯 떠오른 영감속에 작품의 모든 아이디어가 명쾌하게 정리되었다. 그 밤을 잊을수 없다. 영감은 공연히 아무때나 생기는 것이 아니다. 끝없는 장고와 진통속에서 섬광처럼 비추인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그 밤. 나는 감동으로 범벅이 되어 알 수 없는 힘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작품은 실현되어야 한다. 나의 능력 밖의 일이지만 웬지 이 조형물은 정말 꼭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든다.

가을은 나시 계획안을 브리핑하고 협동작가들을 겸토하고 선정하고 보고하고 승인받고 하는 일로 분주히 지나갔다. 확신

이 있었는데도 그 과정들이 왜 그리 불안하고 초조했는지, 맹들고 놀란 가슴을 태연을 가장하고는 있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결론이 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국방부장관을 거쳐 드디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날은 92년이 저물어가는 12월8일, 대통령의 싸인이 그렇게 눈물나도록 고맙고 감격스러울 줄이야… 이제는 정말 되겠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작품실현을 위해 노심초사 동분서주해준 존경스러운 저희관 이병형회장, 이해영 사무총장, 박우영 차장 외 모든 관계관들에게 그간의 진통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다 셋어버리고 새로운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29일 감격의 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는다. 그런 와중에 사옥은 엎치락 뒤치락 마무리 되어가고…, 정말 오래간만에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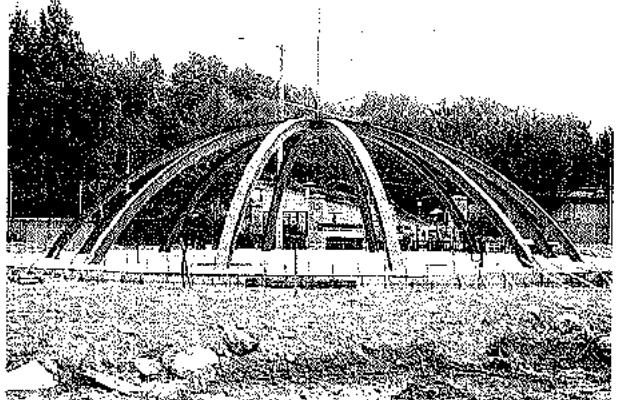
6·25의 상징성

6·25는 이념의 대립으로 국토가 분열되고 동족이 서로 총을 겨눴던 우리나라의 역사적 진통과정이다. 그 아픈 전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국가와 민족, 국토를 지키기 위하여 민관군이 일치단결 국난을 극복했던 잊을 수 없는 과거이다. 힘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모두에게 절실히 깨우쳐준 희생적 제물이었다. 6·25를 통해 국가와 민족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고 도약의 틀을 잡을 수 있었다. 어찌 6·25를 동족상잔의 상처로만 기억하겠는가. 그렇다. 6·25는 자주·자립·자유·민주를 바탕으로 승리를 통해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하고 도약하며 통일의지를 다져야하는 역사적 교훈으로 되새겨야되고 상징화하여야 한다.

전체 작품구성은 구상화시킨 상부조형과 추상화시킨 하부조형으로 2원화하여 조합시키기로 한다. 상부에는 6·25를 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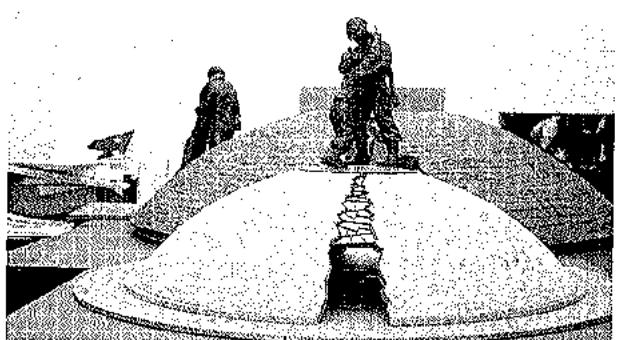


조형물 이미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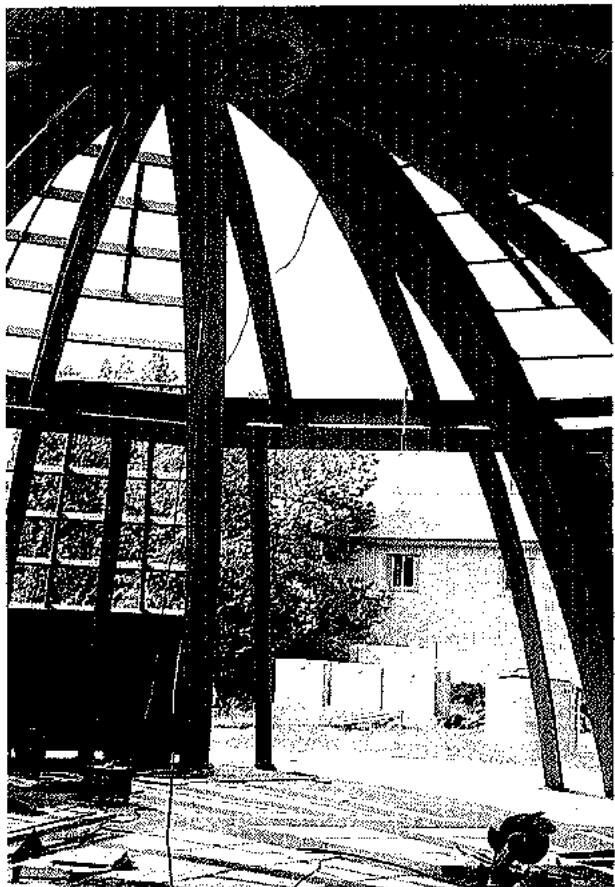


철골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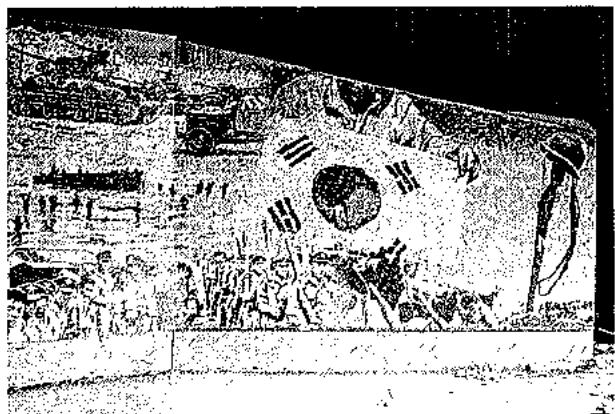
6·25 상징 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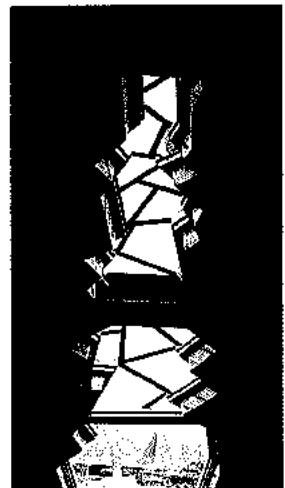
모델스터디



철골구조물



벽화



스테인드글라스의 갈라진 틈

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응변해 줄 조각을 세운다. 절실하게 표현될 테마는 참전용사들의 기억속에서 고집어 낼 수 있었고 이 병형회장과의 대화 속에서 아이디어가 정리되어 버렸다. 그렇다 동족은 형제이다. 6·25 전쟁터에서 형은 국군장교가 되고 북에 두고 온 아우는 인민군 병사가 되어 서로 충부리를 겨누고 싸우다가 극적으로 만나 운명적으로 열싸안는 장면, 그것을 작품화 하자. 그것을 상징화하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와 포용을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기슭깊이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생명있는 작품을 만든다. 술품과 분노를 삽이고 넋을 잃은 아우를 부둥켜 안는 형, 6·25를 경험한 세대라면 어찌 눈물없이 볼 수 있을까. 상부조형물이 시각적인 감성에 즉각 호소하면서 6·25를 상징하게 한다면 하부조형물은 추상적이며 이성에 호소하는 사유적 상징체계를 보여준다. 무덤같은 반구의 둑은 국토와 민족을 상징하며 깨어지고 갈라진 모습은 분단의 아픔을 나타낸다. 갈라진 틈은 점차 아물어 가고 있는데 「피와 땀」으로 명명된 스테인드글라스작품이 그 상처를 메꾸고 있다. 분열의 시대에서 화합의 시대로 변화되어 통일을 향해 전진코자하는 의지를 강렬하게 보여준다. 무덤을 딛고 부활하는 민족의 정기를 느낄 수 있으리라. 부활! 6·25를 상기하고 6·25를 되새겨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작품의 실현

조각은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한창 왕성하게 활동중인 40대 조각가 윤성진 교수에게 맡기기로 한다. 평소 토속적이고 후덕한 인품으로 구상과 바구상조각에

두루 탁월한 능력을 보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교유하던 터라 믿을 수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90년 2월 14일 제일 먼저 축하전화를 해준 사람이었다. 인연은 그렇게 맺어지니 보다. 3년 만에 다시 그 일을 가지고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일하게 되었으니…, 조각은 한 작업실을 빌려 1/10 모델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국방부 자료실, 영화사 등을 뒤져 실수가 없도록 고증에 철저를 기한다. 습작을 만들고 참전용사들을 모셔와 지문을 구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정성을 다했다. 행여 순국선열들께 누를 끼치거나 나라를 위해 짊음을 바쳤던 용사들은 욕되게 하지 않도록… 박정암장군같은 분은 조각의 모델을 보는 순간 눈시울을 붉히며 잠시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신도 전쟁당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부둥켜 안은 형제의 모습을 어루만지며 감격해 했다. 만감이 교차하는 그를 보면서 이 일의 사명감을 다시 다짐한다.

건립현장에는 하부조형물의 골조공사를 진행시켰다. 지하철 공사나 차량운행 진동 등에도 영향받지 않고 의연히 굳건하게 서있을 수 있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했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철골을 세워 둠의 형태를 만들고 덮개를 덮으며 계속 내외부 형태와 공간을 확인하고 검토하며 계획을 발전시켜 나갔다.

둠의 내부는 추념과 각오의 장으로 계획하고 찢어진 둠으로 출입하게 한다. 양쪽에 고구려 무덤처럼 벽화를 만들기로 한다. 한쪽에는 6·25 당시 온 국민이 총화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장면과 자유민주를 찾아 월남하는 유명한 대동강철교 피난장면을 넣고 또 한쪽에는 민족의 얼과 혼을 살려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용지를 비구상으로 표현해보자. 벽화의 내구성을 위해 비잔틴글라스 모자이크를 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모자이크 재료를 수입하고 전문가를 초빙하게 된다. 벽화는 오랫동안 민족의 일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는 장혜용교수를 위촉하기로 하고 대형 벽화를 구상하게 한다.

모든 일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숙명처럼 내게 받아들여졌다. 상부조형물-조각, 하부조형물, 내부 벽화가 3위일체가 되어 이 작품을 총체적으로 완성해줄 것이고 보고 또 보고 음미할 수 있는 작품으로 승화시킬 것이다.

내부 바닥에는 참전 16개국을 새기고 천정은 힘차게 골격을 노출하고 굵은 와이어를 사용 분열된 모습을 둑어 준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떨어지는 빛이 벽화를 보여준다. 각본과 연출, 구상과 제작이 진행됨에 따라 작품은 점점 생명체처럼 살았다고 있었다.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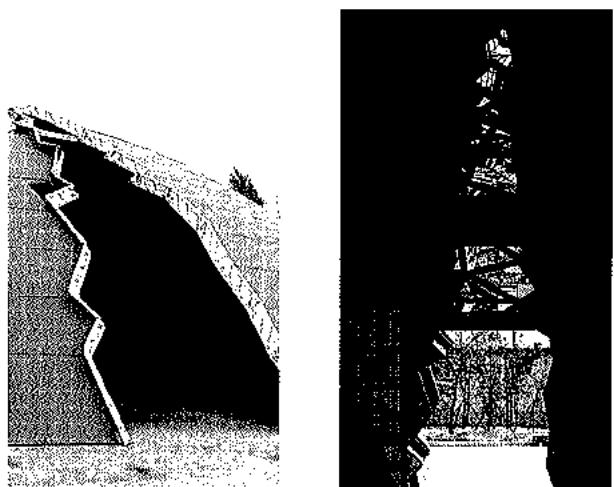
전쟁기념탑이라는 테마에 사로잡혀 만5년이 지난 94년 6월 10일, 김영삼 대통령과 대표작가인 나는 6·25 상징조형물 「형제의 상」을 드디어 제막하게 된다. 실로 얼마만의 일인가. 대통령이 비쁘고 기념탑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가슴을 뚫어주는 열정으로 보람있는 작업에 몰두한 것이다. 후회는 없다. 다시 제막후 뒷처리를 하며 1년을 지낸 지금 그 자리에 다시 가 보며 작품후기를 소리내어 읽어본다.



상부조각 고정작업



벽화 2



하부조형물 입구

천정스테인드글라스

1. 한국건축 태동의 주역



1967년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설계때

한국 건축가들이 뜻을 모아서 건축 전문단체를 시작한지도 벌써 반세기가 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건축인들이 한국에서 건축분야의 시발과 발전과정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 시발의 시기에는 박길용(1899~1980)을 시작으로 하여 김정수(1919~1984)도 그 일원으로 많은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다. 일제 치하에 있던 당시의 건축인들은 대부분 공무원으로 일본인들의 감시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김정수도 조선총독부 토목부 건축과에 입사하여 몇명의 선배 건축인들과 함께 건축일을 하게 된다.

그후 해방이 되어서 미군정청이 이를 이어 받게 되자 김정수가 설계 책임자로서 건축을 관리하게 되나 일정시대에 한국 건축인들이 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할 직원들이 거의 없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김정수 언) 열악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도 6·25동란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져서 이 당시 한국의 건축이 거의 끊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건축의 사발은 몇몇 건축인들에 의한 관청조직과 그

한국의 건축가 - 김정수 (1)

Korean Architect, Kim Cheong-Soo

李好璉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Ho-Jin



여의도 국회의사당



1979년초 필자(좌)와 함께 회갑기념 논문집 편집을 상의하는 생존의 선생모습

와 관련된 업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박길용 건축사사무소와 토건회사들이 있었지만)

한국건축 태동의 주역중의 한사람으로서 김정수의 역할과 위상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는 인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전문성보다는 건축전반을 모두 알고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건축 만능인이 되어야했다고 본다. 김정수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토건회사도 잠시 운영하였다. 그러나 건축의 종합적인 능력을 지닌 김정수는 시공분야보다는 설계분야에 더 큰 능력과 열망을 지니고 있어서 1953년 9월 이천승과 함께 '종합건축 연구소'를 서울 종로의 중심부(영보빌딩)에 설립하게 된다. 이 당시의 설계사무소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우수한 건축과 졸업생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 그동안 설계사무소를 거쳐간 건축인들은 현재 한국 건축계의 우수한 건축작가로, 건축교육가로, 그리고 건축시공인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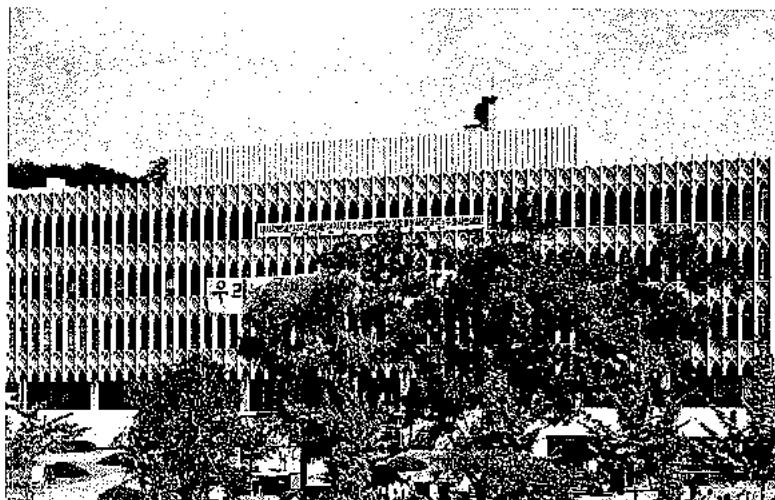
김정수의 경우 건축작품의 우수성보다는 어떤 면에서 그를 통해 배출된 건축가들의 활약이 더욱 더 그의 가치를 한국 건축계에서 인정하게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1세대의 건축인으로서 2세대, 3세대의 건축인들에 영향을 주었고 이들이 현재 한국 건

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건축계는 1세대의 김정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종합건축 연구소는 오늘날까지 김정수의 건축사상을 이어받은 이들이 그 때의 사무소 명칭과 정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된다. 이것은 한국 건축계에 찾아보기 힘든 현상으로 김정수의 강한 작품열과 그의 인품, 그리고 그의 사상이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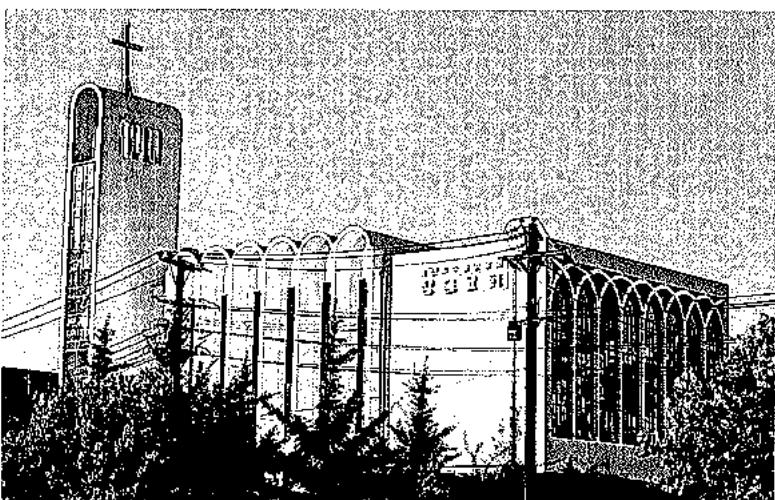
그리고 1953년부터 운영하였던 설계사무소의 작품들은 한국 건축계에 새로운 기운을 가져오게 된다. 그 당시 많은 건축물들이 신고전주의와 철종주의를 발전시킨 작품들로 세워지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에 모더니즘 경향의 작품 사상에 의하여 설계된 신선백화점은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은 다른 많은 한국의 건축물에 영향을 주게 된다. 더욱이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의 수학(1957) 이후에는 한국에 새로운 건축 신기술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즉, 국내 최초의 커튼월로 외벽을 디자인한 성모병원은 그 당시 한국 건축계에 큰 획을 긋게 그었으며, 이밖에 장스판을 해결한 장충체육관의 철골구조(구조최종원)라던지 한국 최초의 PC공법으로 설계된 동교동 자가사무소 건물, 그외에도 풍문여고 과학동, 연세대학 교 학생회관 등은 한국 건축의 시공기술이 열악한 가운데



연대 학생회관



1950년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



장충장로교회 외관

데서도 김정수의 고집스런 열정으로 이뤄낸 건축물로 오늘날 귀범이 되고 있다.

2. 건축교육자

김정수는 작품에만 뜻을 둔 것이 아니고 한국 건축 전반에 대하여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한국의 건축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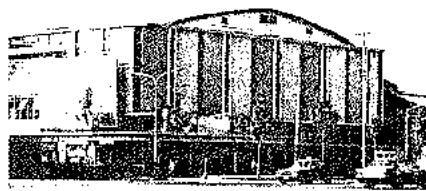
이것은 건축 작품을 통해 그의 건축사상을 알리는 것 보다 우수한 건축인을 키움으로써 이들이 시대가 변화 할수록 더욱 큰 가능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정수는 1961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로 그 뜻을 펴기 위해 교수로 재임하게 된다. 그 당시에 연대 건축공학과는 새로 생긴지 얼마 안되어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한국건축계의 거목이신 분이 오신다'는 소문으로 학생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타고난 열정과 끈기와 인품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학생들과 작품을 가지고 토론과 지도를 하였으며, 모든 일을 손수하시는 그의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된다. 김정수는 건축공학과가 다른 과와 같이 있어서는 안되며, 독립된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연대 뒷산 기슭에 단층의 건물을 갖게 되었다. 이 건물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본인이 직접 실행하여 완성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아담한 생활의 터를 독립적으로 갖게 됨으로써 훌륭한 건축과 전용공간을 만끽하게 되었다. 더욱이 전시장과 연결된 뒷뜰에 학생들과 함께 돌을 쌓아 분수와 연못을 만드는 실기적인 작업과정은 그 당시 학생들이면 가장 추억에 남는 일들일 것이다.

그는 이렇게 사고와 감성과 실제를 연계하여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건축교육의 방침으로 후학들을 가르쳤다. 현재 이러한 사상으로 배운 제자들이 50대 후반으로 부터 30대 중반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국건축의 교육분야, 건축설계분야, 시공분야, 기업, 그리고 관 등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건축인을 창출하려는 것이 그 당시 김정수선생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는 건축교육은 과학기술의 이론분야가 아니고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내세웠으며, 이러한 사상을 기본으로 건축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사상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더욱 열악한 건축 교육현황이 되고 말았다. 김정수의 이러한 기본적인 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축과가 기존과 같이 다른 대학의 부가 되어 그 대학의 운영방침을 따르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며, 운영과 조직이 독립된 체제로 갖춰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극장 외관



서강대학교 과학관 외관



연대종합교실 외관



연대중앙도서관 외관

건축 교육자들 역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당한 실무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 교수의 초청은 아무리 빨라야 40대에 가까워야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라도 실무를(작품활동)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축과 학생들의 선발방법도 현체제를 벗어나 적성과 인성위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김정수 선생의 한국 건축 교육에 대한 방향성 제시는 현재 아주 급박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 인품과 건축사상

과묵한 성품과 항상 무엇인가 사고를 하는 듯한 표정 가운데의 미소가 아마도 김정수 선생의 인상일 것이다.

'건축가, 교수다운 표정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평소 그의 생활철학이 밖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가 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부탁중에는 '남을 뒤에서 비방하지 말라.' 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그 말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의 대화중에는 남을 비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으며 일반인들이 대화중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좋지않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그와의 대화내용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반대로 그는 항상 미래에 대한 건축을 즐겨 말하였으며, 그러한 대화는 끝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빈틈을 포착해서 일어서서야만 대화가 끝나곤 하였다. 이처럼 건축작품이나 건축교육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사고는 김정수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므로 그의 표정은 무엇인가 사고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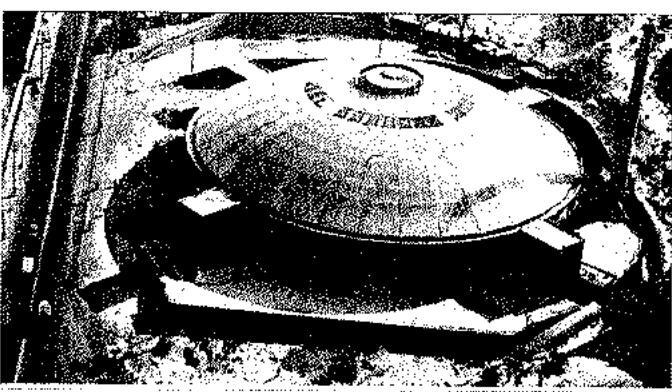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건축작품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아 창의적인 새로운 모습의 작품을 내놓기에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 당시 교수가 설계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는 세간의 경향에 대항하여서 김정수의 이름으로 몇몇 하게 작품을 만들면서 모든 건축인들이 그의 이러한 열정에 놀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건축사조로 설계된 연세대 도서관건물 등에서 한국의 합리주의적 모더니즘의 틀을 이룩한 점은 건축적 사상의 시발적인 건축가로서 자리를 매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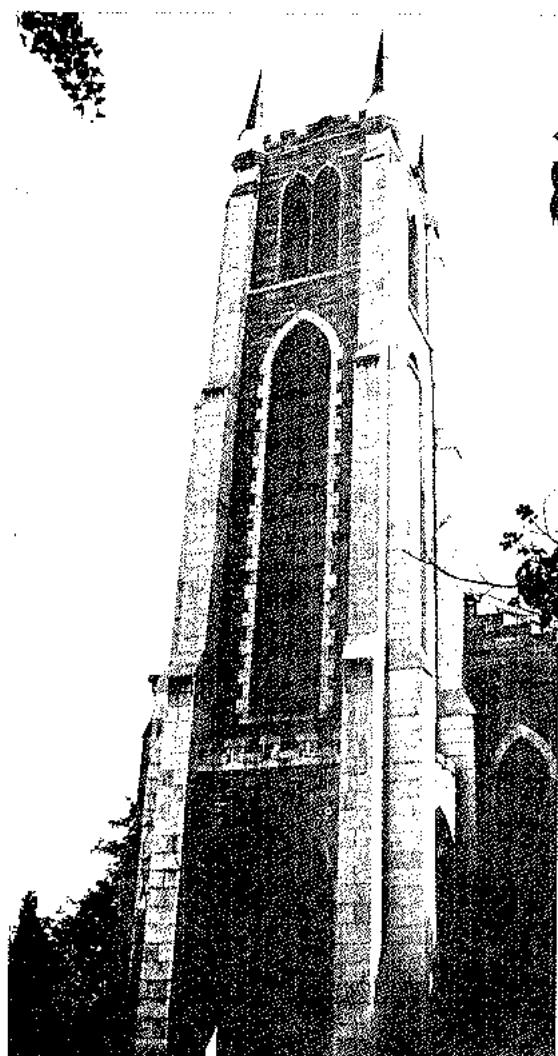
이렇게 한국 건축의 장래를 향한 일념으로 건축교육이나 건축 작품세계에서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던 모습은 건축계의 대인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 건축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한일빌딩 외관



시립장충체육관 전경(1960)



감리교 신학대학교 외관 (부분)

인도 여행 스케치

India Tour Sketch

崔東豪 / 예전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ho

인도에서는 건축보다 더 커다란 뜻으로 다가오는 생(生)의 미학(美學)을 보아야 할 것 같다. 따뜻한 표정과 여유로운 자세와 신께 향하여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들의 열려진 자부심과, 많은 색채의 스케치를 보여주는 나라!

스케줄에는 여러 지방의 유적과 건축물, 아울러 코르뷔제, 루이스칸 및 인도의 현대 건축가 도쉬와 코레아의 작품을 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내가 기록한 메모는 다음과 같다.
“코르뷔제는 에세이적으로, 루이스칸은 詩적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인도는 하나의 장편소설로서 읽고 싶다.”

일정은 봄베이를 출발하여 암다바드, 오랑가바ード를 거쳐 찬디가르, 멜리, 자이푸르아그라, 바라나시, 사르트로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그들의 작품 속에서 자이푸르에 있는 앰버산성(Amber Fort)은 인도의 보배라고 생각했다. 그 곳에는 공간이 있었다. 스케치 중에는 그 속의 빛과, 비어 있으나 채워진 공간의 모습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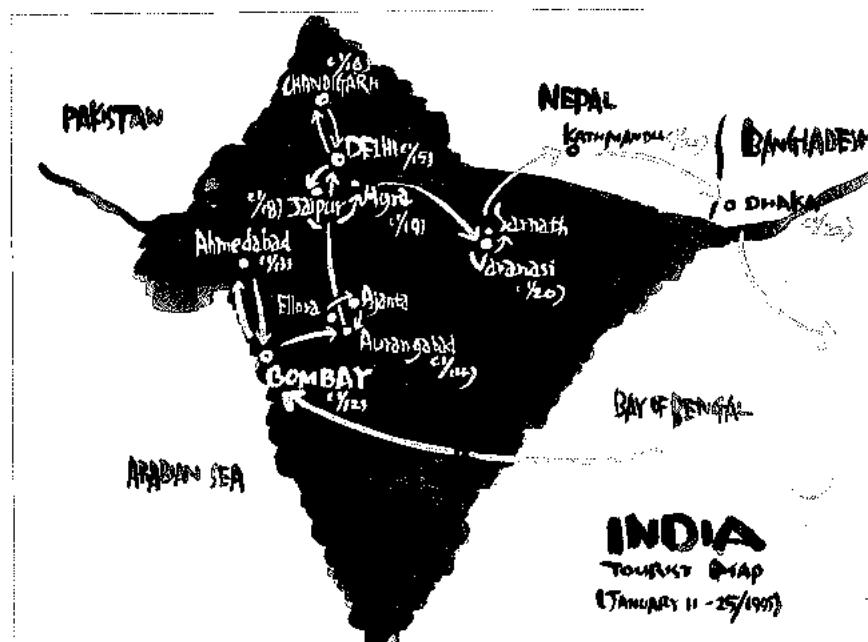
다녀온 후 나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이제는 인도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느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다음 천천히 가슴으로 찾아 오도록 해야한다.”

01. Ganga강에서 보다

Varanasi에 가면 인생과 만나게 된다.

Ganga강에 서면 모든것이 녹아져 버린다. 갠지즈강에서 보면 건축



은 아주 작은(?)의미로 쓸쓸히 흘러가 버리고 그 대신 매우 큰 덩치를 갖는 “영혼”과 만나게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가치의 편린은 강물이 되어 다시 가슴속으로 되돌아 온다. 허무와 희망이 하나가 되어서….

02. Museum of Arts & Crafts 의 열린 공간

Charles Correa는 1991년 자이푸르에 이 박물관(Jawahar Kala Kendra)을 설계하였다. 설계 개념은 Mandala정신이며, 자이푸르의 古都에 기초한다. (A version of the nine square mandala, which was the original basis of the historic city of jaipur)

평면의 개념은 중앙이 비어있도록 하여 9개의 전시실을 3×3 로 펼쳐놓은 정방형으로 되어있다. 전시실의 내용은 좌측 상단부터 square(Venus), bow(Mercury), snake(Ketu), triangle(Mars), lotus(the Sun, at the center)-비어있는 열린 공간), sword(Rahn), crescent(the Moon), circle(Jupiter), man(Saturn)으로 각실의 심볼을 정하여 놓았다.

만다라는 넓이를 갖는 공간으로서 전시실과 전시실은 막힘이 없고 문틀은 닫혀진 곳이 없다.

코레아의 時가 펼쳐져 있는 박물관이다. 이 건물의 중정은 하나의 핵이다. 중정의 공간은 단순하게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실을 집중시키면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열려져 있는 중심이다. 그리고 이 비어있는 부분은 끊임없이 태양의 찬란한 햇빛을 받고 있는 성장의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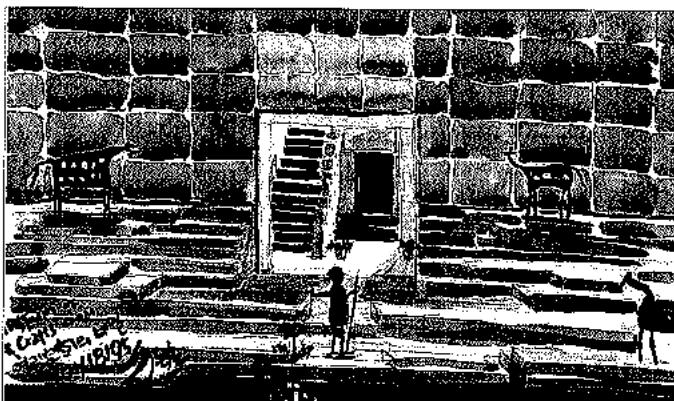
03. 하나의 圓속으로

인도의 赤은城들 중에는 매력적인 것이 많다. 성은 반드시 망루가 있어서 적의 등태를 지켜 보아야 한다. 그리고 塙字를 만들어서 침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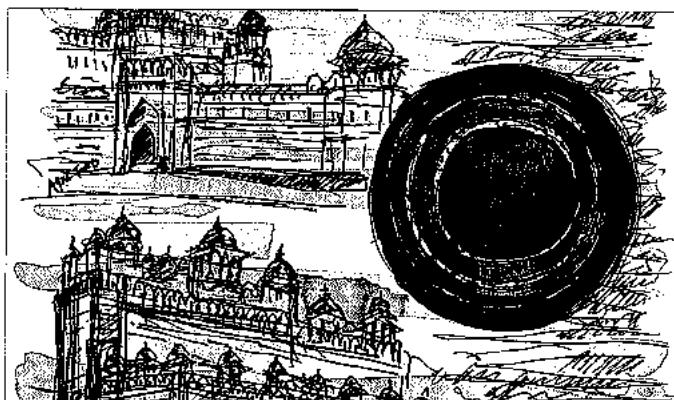
樓는 이제 낭만적인 쉼터가 되었고, 성벽은 시대를 뛰어넘어 이제는 싸움이 있는 곳이 아닌 먼 옛날과 만나는 장소로 변하였다. 과거의 그 시절은 하나의 원이 되어 지금의 우리와 일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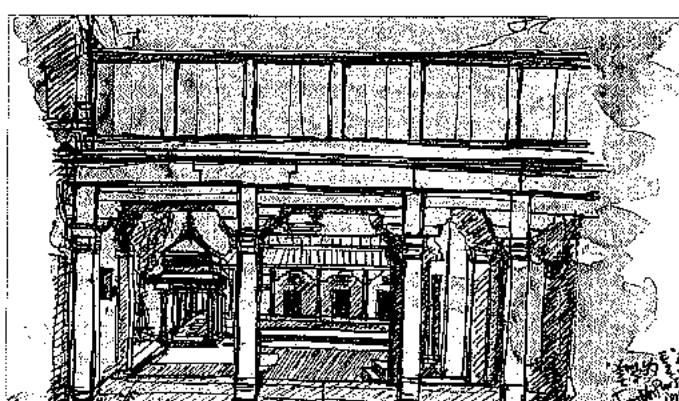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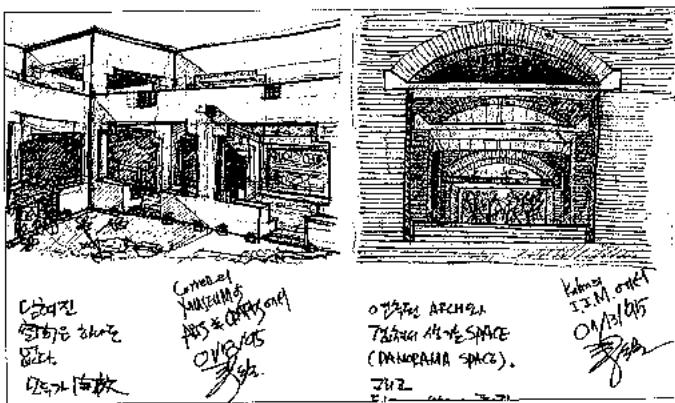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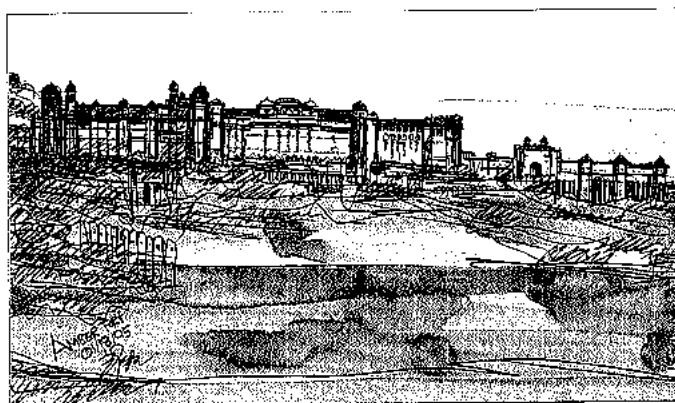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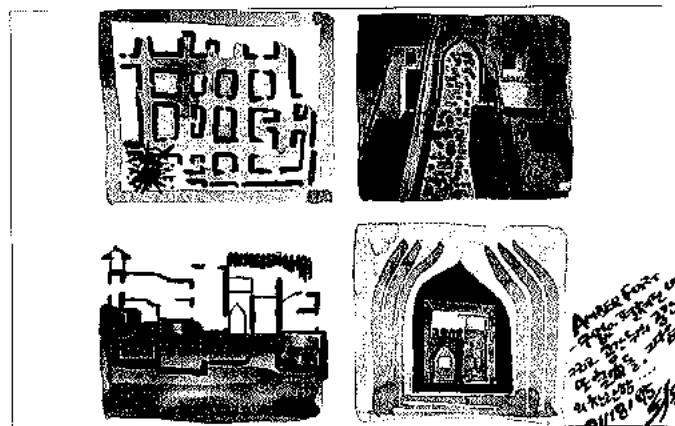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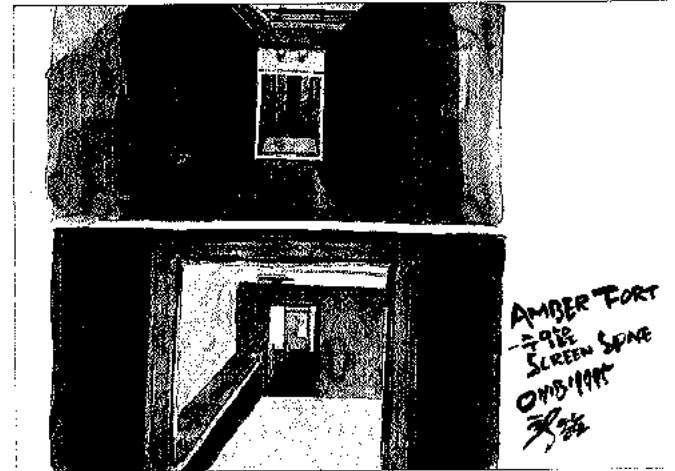
05



06



07



08

04. “미학적 틀”로 본 Fatehpur Sikri

샌드스톤과 아치로 이루어진 이곳은 틀로 구획된 광경이 많다. 미학적인 후레임의 구성은 공간의 위계 질서는 물론 깊은 공간의 비법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현대 건축에서 많이 차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05. Correa의 Museum 과 Kahn의 I. I. M.

이 두 건축가는 공간의 마술사와 같다.

Correa는 인도의 전통을 진하게 펼치는 건축가로서 작지만 그러나 작지 않은 열린구성의 空間性을 전개하고 있고, Kahn은 깊은 공간속에 精神性을 부여하였다.

인도의 보배중 하나는 자이푸르이다.

자이푸르는 분홍빛의 도시이다.

이곳에서 Amber fort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앰버산성은 감동적인 공간을 많이 갖고 있는 빛의 성이며, 좁은길이 있는 아름다운 성이다. 스케치 no.6에서 10까지가 이런 空間 연출에 관한 것이다.

06. Amber Fort

앰버산성은 코끼리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따로 되어있다. 지금으로 보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다. 물론 사람이 걸어서 오르는 곳과의 구분은 보도블럭으로 분명하게 구별 되어져 있다.

꽤 오래전에 이런 합리적인 설계를 했다는 의도는 산성을 오르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높은 곳에 쌓은 산성은 그속에 필요한 실들을 구획하여 방을 만들지만 그 모습으로서도 존재한다. 성벽은 그 자체 만으로서도 너무 아름답다.

이 산성은 자이푸르의 기쁨이리라

07. 공간뒤의 또 공간

자이푸르에 있는 앰버산성에는 엄청난 방들이

존재한다.

정말 방들이 많다. 그것들은 공간이다. 전부가 비어있다. 사람은 없으나 활기가 있다. 죽은 공간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빈 공간이면서 무언가 꽉 차있다. 살아있는 공간이다.

방들은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찬란한 빛으로 연속되기도 하고, 밖의 전망으로서 결합되기도 한다.

건물은 크지만 방들은 협소하다. 너무 작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하트마간디의 생가에서 보았던 그 방과 닮았고 Dash 설계사무실의 스튜디오에서 본 일미터가 될까 말까한 계단(1층에서 2층으로의 주계단)의 작은 스케일의 크기와 비슷 하며, 꼬레아가 설계한 델리에 있는 공예박물관의 앙증맞은 다락방 전시실과도 흡사하다.

인도인들은 왜 이렇게 크지 않은 규모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정말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아주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기분좋음"일 것이다.

이 산성은 이어지고 합쳐지는 공간이 보는 이들에게 흥분을 자아내게 한다. 수없이 많은 미로가 보를 찾기로 만들기도 한다.

휴먼 스케일에서 받는 감동은 신의 또하나의 축복일 것이다. 방들은 항상 그뒤에 또 다른 작은 공간을 갖고 있다.

08. Screen Space

깊은 공간이 있다.

속이 깊다는 것은 입체적이다. 그리고 그 속에 인도인의 색채가 꽉 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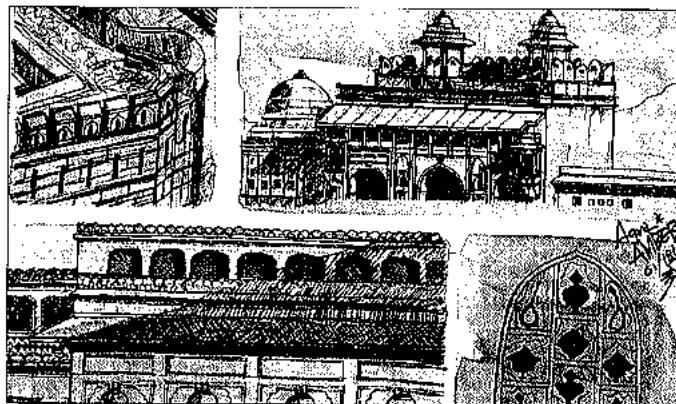
좁은 골목은 왜 이렇게 많은가. 이 골목길의 분위기는 우리와 비슷하다. 작은 방들의 집합과 그것의 연결은 길로서 이루어졌고 좁은 길은 과거가 새겨져 있다.

그 길은 매우 적당한 폭을 소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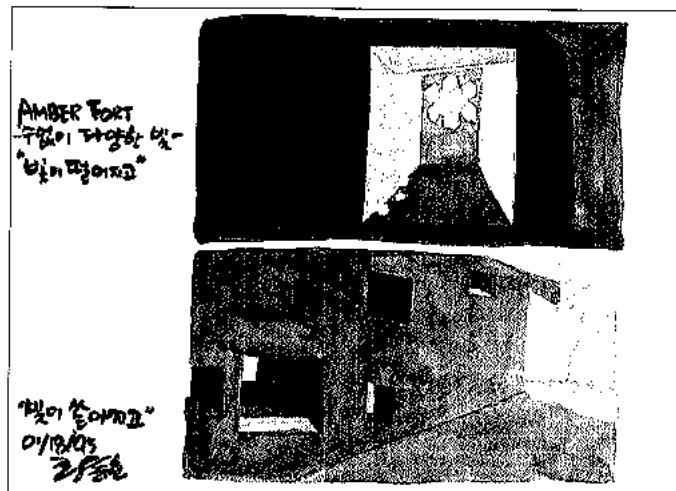
앰버산성의 길을 따라가 보면 담채화로 그려보면 좋을 듯한 퇴색한 색채의 연속이다. 이렇게 빛 바랜 벽들의 질감을 전통 한옥의 土壁같은 느낌으로 정감을 주며 어떤 동질성을 느끼게 한다.

09. Amber산성의 단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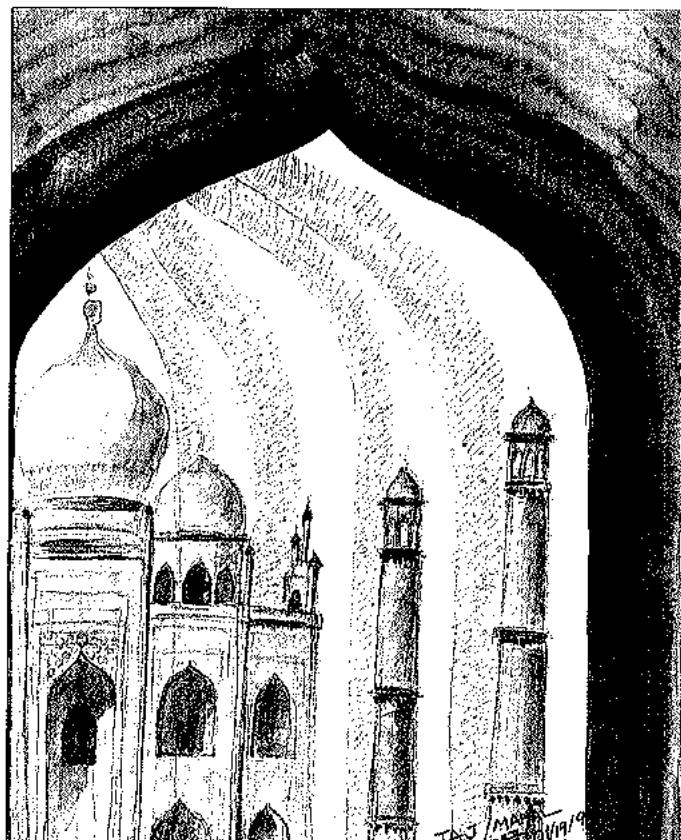
석판으로 된 지붕은 매우 잘 짜맞추었다. 각 부위의 디테일은 목구조보다 더욱 치밀하다.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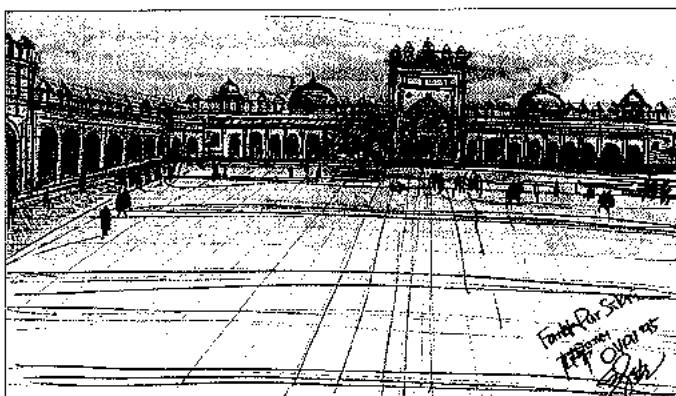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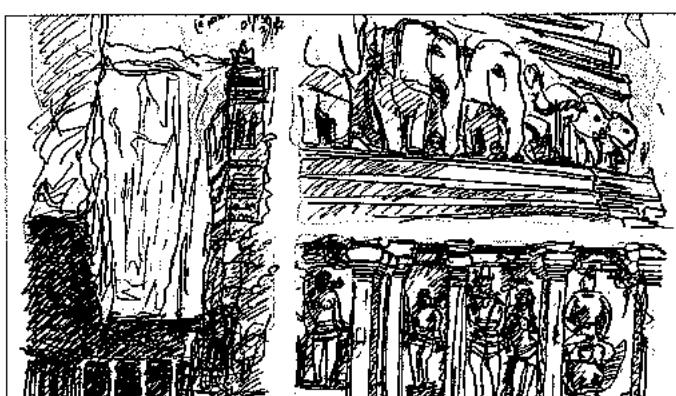
11



13



14



15

기둥과 보의 맞춤 또한 전혀 대리석의 물성을
삭제하여 버렸다. 모든 부분의 공법은 세밀히 보
면 거칠지만 정교하며 따뜻하다.

10. 빛의 떨어짐, 쏟아짐

Amber Fort는 빛의 성이다.

빛은 내려와 아무 말이 없고, 침묵하지만 감동을
준다. 빛은 각도에 따라서 떨어지고 쏟아지며 떨리
고 흔들린다.

하늘 빛을 놓칠 수는 없다. 그 찬란함은 경사면
천정에 굴절되어 친천히 흐른다.

엠버 산성은 빛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 없다. 그
것은 여러형태로 감홍을 준다. 어느 계단의 중앙
부는 벽으로 되어 있어 뚫어진 벽의 개구부 모양
은 내부가 외부보다 크게 되어 있다. 바깥으로부
터 많은 양의 빛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1. 타지마할이 보이는 Agra城에서

아그라 성에는 샤 자한 (Shah Jahan)이 유폐되
어 지내는 동안 그의 왕비를 그리워하며 지냈던 탑
이 있다.

안동 병산서원의 晚對樓에서 바라보면 낙동강
의 물줄기와 병산의 풍치가 만나듯이, 아그라 성
에 있는 樓에 오르면 아무나(Yamuna)강 건너 타
지마할과 마주치게 된다.

기둥과 기둥 사이로 보이는 틀속에 루이스 칸과
꼬르뷔제 그리고 꼬레아의 작품들을 대비시켜 보
았다. 시대의 구분과 건축문화의 경계선을 어느곳
에 설정해야 하는 것인가?

12. 타지마할의 Angle

타지마할은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아
야 한다. 특히 입구 아치의 후레임을 배경으로 보
면 일품이다.

타지마할은 수십 가지의 미학적 앵글을 가지고
있다. 어떤 각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타지마할의
기쁨은 다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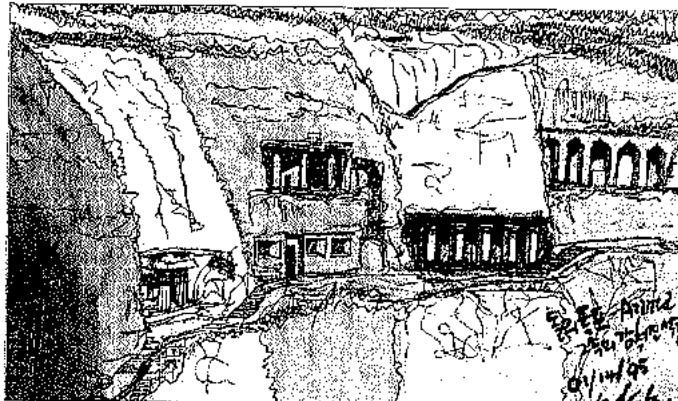
13. Fatehpur Sikri 광장에서

회랑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광장이다.
왼편으로 거대한 스케일의 victory gate가 보인다.

14. Daulatabad^城의 소들

도로옆에 쌓여진 성벽이 수원성과 비슷하여 우선 그 분위기에 놀란다. 옹성의 모양도 그렇고 부드러움이 성답지 않게 포근하다. 그 안에는 공간의 질서도 있다.

성 밖에서 놀고 있는 소들의 모습이 여유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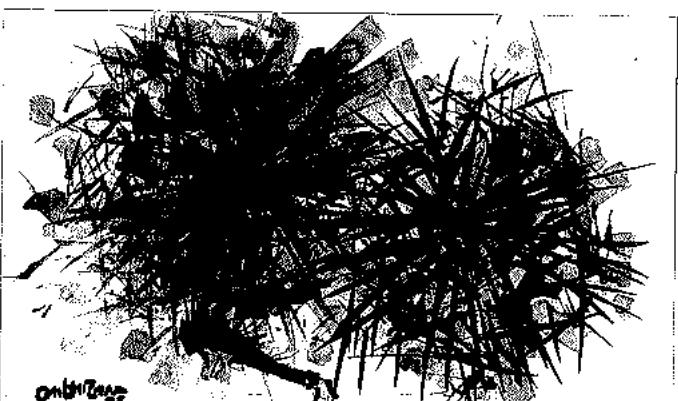
16

15. Ellora Cave의 Kailasa 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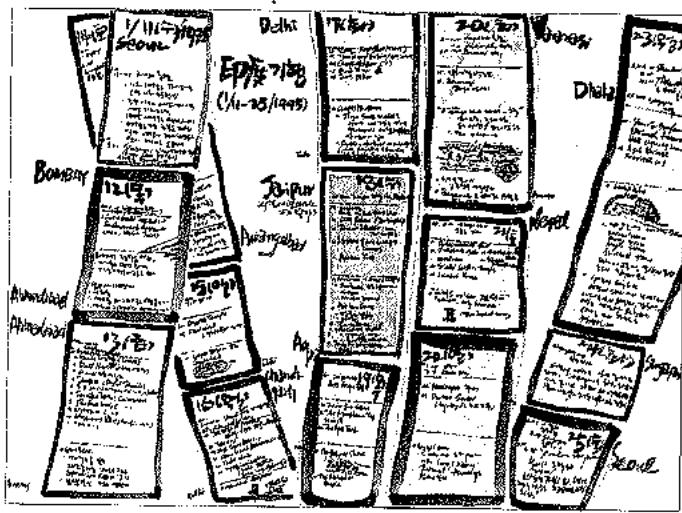
16번째 엘로라 석굴의 Kailasa Temple은 신이 빚은 작품이다.

하나로 된 엄청난 돌산을 “ㄷ”자 형태로 깨어 들어낸 후 중앙에 남은 바위산을 조각하여 힌두신을 모셨다. 그 조각의 형태들은 매우 섬세하다. 둘레에 통로를 만들고 회랑을 두었으며 바닥으로부터 위의 돌산의 높이는 무려 20m 이상이다. 뒷부분 돌의 계곡에 서면 하늘위로 빨려들 것만 같다.

건축미학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엄청난 시간과 인력의 투입과 인내의 과정은 물론이지만, 신들로 가득찬 석굴의 조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곳은 神이 살고 있는 집이다.



17



기행일지

16. 둘의 폭포 Ajanta Cave

아잔타는 바위폭포가 쏟아져 내린 것 같다. 석굴은 흐르는 물밑으로 고요히 잠자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과 손길은 끊없이 이어지는 데 고요함 속의 부처는 누워서 (reclining Buddha) 중생을 만나고 있다.

17. 예비레스

정상 주변을 하늘에서 보면 마치 금박지를 구겨 놓은 듯한 형상이다.

장관이다. 환상적이다.

그위를 날고 있다. 인도인은 정말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듯 하다.

한국유교건축의 재조명(2)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金知民/목포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by Kim Chi-Min

2. 향교건축

800여 년의 역사

鄉校는 주로 조선시대에 있어 지방의 儒風을 진작시키고 아울러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전국의 크고 작은 고을에 설치했던 官學을 의미 한다. 때문에 현존하는 향교의 분포 경향도 전국적이며 그 수도 남한만 231개소¹⁾에 달한다. 북한지역도 조선시대 지방행정 체제와 여러 문헌에 나타난 사실로 볼 때 상당수의 향교 설립이 있었으나, 현존하는 향교의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아직까지도 전국의 모든 향교에서는 춘추로 釋奠大祭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또한 전국 유림조직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유교이념이 우리 민족의 정신사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는지 짐작케 해준다.

우리나라에 있어 향교의 최초 설립은 고려 중기로 올라간다. 고려 중기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의 발전을 보이다가 고려 말기에 이르러 병란을 위시한 각종 내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諸道의 향교가 크게 쇠퇴하였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되어 있으나, 향교가 언제 어디에 최초로 설치되었는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高麗史」에

“仁宗五年三月 詔諸州立學 以廣教導”²⁾

라는 기록이 있어 고려 仁宗 5년(1127)에 처음 향교가 설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의 향교제도는 중국의 향교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중국은 隋, 唐, 宋, 明朝를 통하여 지방 교육기관인 州學, 府學, 縣學의 어느 곳이나 先聖, 先師를 奉祀하면서 교육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유교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대성전 나주향교

1) 조선시대에 건립된 향교수다. 1965년에도 경남 협천읍에 새로 강양향교가 창건되어 이제는 총 232개소가 된다. 협천읍 소재의 본래 협천향교는 1891년 수재로 치노연으로 옮겨져 있다.

2) 고려사 권 74 지권 第 28 선거고 학교조 고려사설요 卷 9 인종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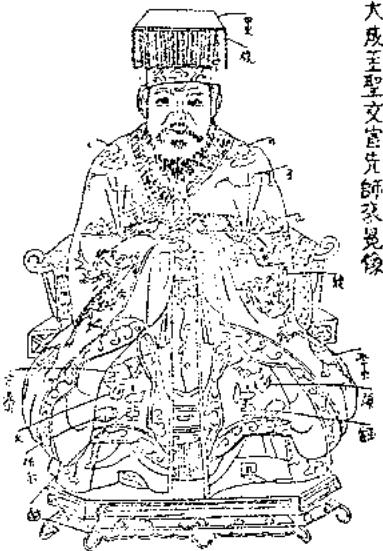


그림1. 文成王(공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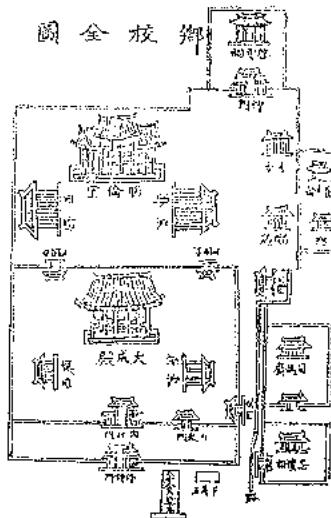


그림2. 조선시대 雜州향교 모습.
자료 : 雜州향교지

하고 學校를 일으키는 뜻을 보였다.”⁴⁾

라고 되어 있어 유교이념의 보급을 위해 향교설립을 왕이 직접 명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수령의 직무로서 제시되는 “守令七事”에 “學校興”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리하여 적어도 「東國輿地勝覽」이 나온 성종 17년(1488)

도입할 때 고려는 孔子를 先聖으로 配祀하였다.³⁾ 이러한 제도는 계속해서 조선시대의 향교에도 계승됐다.

조선시대 유교의 기본정신을 배우고 익히며 점검하는 곳이 바로 지방의 향교였다. 사회교화의 이념이 다름 아닌 유교이념이었고 또한 유교정신, 유교윤리는 국가가 설립한 향교를 중심으로 실천시키려는 면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초기부터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太祖實錄」에

“農桑은 干政의 근본이요 學校는 風化의 근원이다. 卽位이래 여러번 教書를 내려 農桑을 勸獎

하고

학교를 일으키는 뜻을 보였다.”⁴⁾



나주향교 명륜당, 성균관과 같이 양측에 翼舎를 두었다.



忠孝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김제향교 명륜당



下馬碑 · 윙도 향교앞을 행차할 때는 말에서 내렸다.

까지는 전국에 “一邑 校”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8개도에 모두 328개소의 향교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지방관제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모든 읍에 향교가 설립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조선 초기에 향교 설립이 정책적으로 확산된 이유는 조선의 통치이념이 바로 유교사상이었고 왕권은 이를 통해 그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향교는 조선 중기이후 서원의 등장 등 사회적 여건으로 교육적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건립은 꾸준히 지속되었고, 특히 임란시에 소실된 향교는 중건, 또는 새 터를 찾아 창건 비슷하게 건축이 이루어졌다.

발전과 쇠퇴를 거듭해 오면서 조선시대 한반도에 마지막으로 설립된 향교는 충남의 鷺川향교⁵⁾(1905년)이다. 따라서 향교의 역사는 고려 중기이후 근 800여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향교는 건축적으로도 한국의 대표적인 유교건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에 대한 건축적 관심도 최근에 들어 높아지고 있다.

유교의 상징 - 文廟

유교제도가 철저히 扶植되었던 조선왕조에는 여러 형식의 종교화한 祭祀制度가 존재했고 그를 위해 중앙 및 지방에 여러 유형의 壇廟가 설치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宗廟, 文廟, 家廟, 社稷壇, 城隍壇, 屬壇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宗廟나 文廟, 그리고 家廟는 封建的인 禮의 가르침 등을 견고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며 나머지는 神을 모신다는 의미의 것들이다.

文廟은 지방에 설치한 祭祀建築으로서 鄉校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世宗實錄」에

“各道州府郡縣皆置文廟 謂之鄉校”⁶⁾

이라고 하여 문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지방에 설립되어 있던 교육기관이라 하여도 문묘가 없으면 향교의 개념에 들지 않았다. 즉 향교는 지방민을 교육하고 교화하는 학교 이전에 “文廟”라고 하는 祭祀領域를 갖추고 있어 그 존재 의미가 있다.

이 구역은 전통적인 유학의 정신적 지주로 그 존재 가치가 커 만큼 향교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격식을 갖춘 大成殿을 중심으로 東·西廡가 함께 자리하여 형성

3) 한동일, 조선시대 향교교육 제도의 연구 · 성태 역사학회논문집, pp. 1~10

4) 태조실록 권 8 太祖 4年 10月 음비조 교서 上若以 本農桑王致之本學校風化地脈禮副院以來 樓下教書 示以勸農桑興學校之意.

되어진 구역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輿地圖書」 등 조선시대의 모든 지지류에는 이곳을 “文廟”라고 하여 學校條에 표기된 향교와 구분하여 祀廟條에 별도로 표기하였는데 이로 보아 문묘의 인식은 상당히 독립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존하는 문묘의 성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이 구역의 출입구인 내삼문 좌우로부터 일곽의 정방형 내지 장방형의 담을 둘러 그 내부를 신성하고 엄숙한 참례의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동·서무가 건립된 향교에서는 폐쇄적인 중정이 형성되어져 더 한층 아득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공간의 구성요소 중 석물로는 墓洗臺(제향시 제장 및 암원이 손을 씻기 위하여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석물)과 望燎臺(축문을 태우는 곳)가 대성전 전면과 측면에 각각 놓여져 있으며, 수목과 화초류는 역시 근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향교에서 식재되지 않았으나 곳에 따라 은행나무가 정대칭으로 식재된 곳도 있다.

문묘는 유학의 상징이었다. 문묘 앞에는 신성한 구역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홍살문이 있고 또한 그 옆에는 下馬碑가 있다. 왕도 향교 앞을 행차할 경우에는 下馬하거나 下駕해야 했으며, 監司가 군현을 巡歷할 때, 守令이到任할 때에는 반드시 행하여야 할 儀禮과 문묘에서의 講聖이었다. 이는 다음의 기사로 확인할 수 있다.

① 出官한 다음 날 향교에 講聖한다. 春秋의 釋奠과 향교의 일은 주의 깊게 해야 한다. 釋奠祭는 반드시 몸소 참석해야 한다.”

② 부임 초에 마땅히 엄숙하게 社稷과 향교에 배일하고 체임하여 돌아올 때도 작별의 拜禮을 한다.”

또한 문과나 무과에 급제한 사람은 고향에 돌아와 家廟에 告由하기 전에 먼저 文廟에 들러 告由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것들은 文廟가 孔子와 先賢에 대한 제례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유학의 상징이었고 지방민에게는 유교이념을 보급하는 교화의 중심지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조선 후기 대실학자 정약용의 「教民心書」 제사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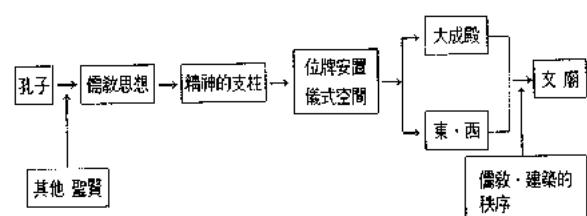


그림3. 文廟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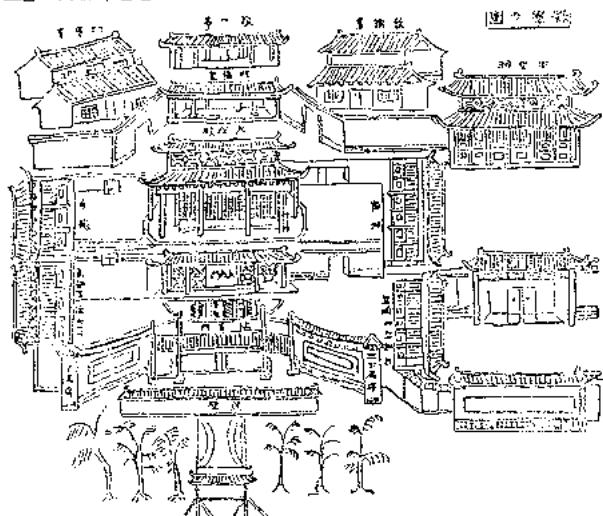


그림4. 중국 漢代의 穩學모습

“문묘의 제사는 수령이 몸소 행하되, 경건하고 지성스럽게 목욕 재개하여 많은 선비들의 선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묘의 건물이 퇴락했거나, 祭服이 좋지 못하거나, 祭器가 깨끗하지 못하면 모두 수리를 해서 신에게 모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지방 문묘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또한 山淸鄕校 「大成殿重修記」에

“學宮을 세우는 것은 先師를 尊祀하기 위해서요. 先師를 尊祀하는 것은 多士를 진홍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 하여 향교의 존속의미를 문묘에서 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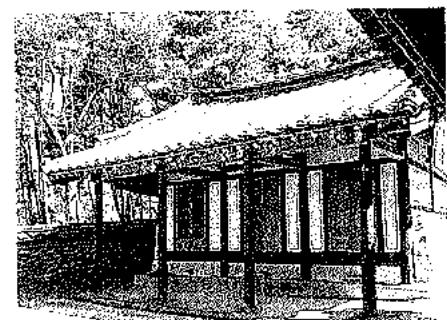
祭禮는 春秋仲月上丁에 2차 시행하는 釋奠祭가 향교의 가장 큰 행사이고 이외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거행하는 朔望焚香祭도 향교의 정기적인 행사이다. 부정기적



첨동학교 전경. 1893년 충주암 건설로 수몰지구가 되어 1908년 창건 당시의 위치인 청풍면 물태리로 다시 옮겼다.



조선조 마지막 장간 향교인 충남의 오천향교



초현관의 제례 모습. 나주향교

5) 1895년(고종24년)이 이 지역의 수사청이 폐지되고 동시에 경천군이設罷으로써 향교설립의 논의가 시작되어 1905년에 창건된 향교다. 명륜당은 없고 邇廟규모의 대성전만이 있다.

6) 세종실록 卷 148 새종지리지 경기 광주조.

인 것으로는 향교의 건물을 수리할 때 위폐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전후로 거행하는 移安祭와 還安祭, 文廟가 불시에 재난(盜難, 火災, 雷雨 등)을 입었을 때의 慰安祭, 文廟에 位牌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때의 禮成祭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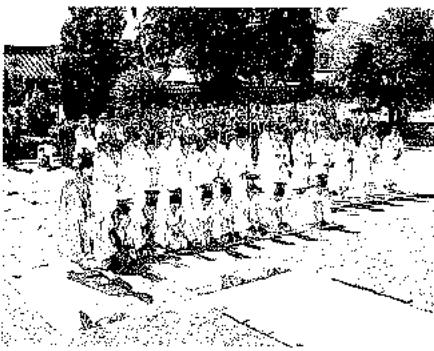
유학교육의 場 - 明倫堂

유교의 이념이 공자에 의해서 정립되었다고 할 때 그 기본내용은 教學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곧 공자는 好學을 언제나 자부하였고 論語도 “學”자로 시작하고 있으며孔子의 생애는 교육으로 결실을 이루었고 자신의 사명을 삼았던 것이다. 즉 유교가 계승되고 구현되는 과정은 곧 교학의 실현이라 할 수 있고 유교사의 출발은 유학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이렇듯 교학의 실현을 위해 설립된 것이 지방의 향교였고 그의 교육적 시설이 바로 향교건축이다.

향교의 제도는 成均館의 모든 형을 따랐다. 강당은 “明倫堂”이라 명명하여 경전학업의 중심으로, 문묘는 “大成殿”으로 공자와 중국 및 우리나라의 선현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聖殿으로서 두 부분을 기본구성으로 하는 학교로서의 향교건물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독교적 기반으로 설립한 현대의 서구식 학교의 경우 우선 경내에 교회를 건립하고 다음으로 교육시설을 계획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존하는 향교의 시설물들은 한국의 전통적 학교건축으로 그 존재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강학구역은 공자의 教學思想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학교로서 “鄉校”라는 의미와 가장 가깝게 부합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明倫堂을 중심으로 東齋와 西齋가 주 건물로 들어서는데 중앙으로 명륜당을 배치하고 그 전면 좌·우측으로는 보통 동·서재를 둔다. 이러한 모습은 중앙과 측면이라는 사제간의 禮的規範이 배치의 내적 요인으로 자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명륜당은 공자의 사상과 이념을 교생들에게 강론하고 한편으로는 향학을 관장하는 教官의 거처이기도 했다. 따라서 명륜당의 건축형태는 강학을 위한 공간과 함께 거주의 공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넓은 대청과 온돌방이 적절히 꾸며졌다. 동·서재는 교생들의 숙식과 학문연마를 하던 곳으로 보통 명륜당 전면에 대칭으로 각별히 건립되었다. 조선시대 교생은 功臣의 제자로 부터 평민



대성전 경내에 배열해 있는 유생들, 나주향교



釋尊祭 준비로 북적대는 향교 경내, 나주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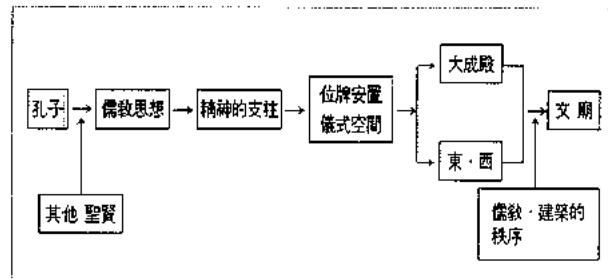


그림5. 講學區域의 形成

에 이르기까지 입학이 허락되었으나 신분에 따라 南班은 領內校生이 되었고, 평민, 서얼은 領外校生이 되어 서로 구별되어 있었다. 仁祖代에 校生考講이 시행되자 양반들은 領內校生으로서의 입학을 회피하였다. 양반들은 考講이 면제되는 중앙의 成均館, 四學을 모방하여 東齋儒生(青衿儒生)이라 이름하고 별도로 青衿錄을 작성하여 校生과 구별하려 하였다.

이에 평민, 서얼들이 양반대신 領內校生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이들은 東齋儒生과 구별하여 西齋校生이라고 호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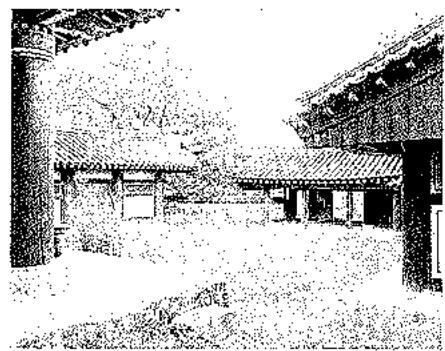
東·西齋는 교생들의 기숙처였던 관계로 교생수에 따라 건축 규모가 다르게 나타난다. 조선시대 90명의 정원이었던 羅州鄉校 경우 현재는 4間규모로 축소되어 있으나 본래는 11間(1930년대 까지)이었고 경주, 안동향교의 경우는 5間으로 현재 남아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향교는 현재 3間 내지 4間규모가 일반적인 모습이다. 평면 형식은 전퇴를 두어 그 안쪽으로는 온돌방을 드렸다.

명륜당 구역의 성격은 생활공간으로서 개방적이다. 이곳에서의 강학하는 모습을 「永喜誌」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매일 교관이 강당에 앉고 생도는 捐禮를 행한다. 북이 한번 울리면 생도가 동서재로부터 차례로 입장하는데, 동은 西上北向하고, 서는 東上北向한다. 읍례를 마치면 각기 齋로 가기 전에 상대하여 읍하고 재로 돌아간

표1. 조선시대 향교 교생정원

官府	定員	단위: 명	
	舊 定員(太宗 때)	新 定員(成宗 때)	
府·大道護府·牧 道護府	50	90	
郡	40	70	
縣	30	50	
	15	30	



조개향교 문묘구역

7)『조선민성자료』, 선학 중학교

8)『임관장보』, 교회장

다. 다음으로 동서재 有司 각 일인이 교관 앞에 이로러 日講을 행하기를 청한다. 동서재에서 각기 1.2인을 뽑아서 독서한 바를 강하게 하여 判과 不通한 자는 차등 있게 嘲楚하고, 통한 자는 치부한다.

(2) 북이 두번 울리면 생도들은 각기 독서한 것을 가지고 교관 앞에 나아가서 먼저 앞서 배운 것의 어려운 것에 대해 논하고, 뒤에 새로 들은 바를 질의한다. 많은 것에 대해 힘쓰려 하지 말고, 모름지기 성실히 연구해야 한다. 혹 책을 대해서 잠을 자서 기르침에 유의하지 않는 자는 별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교관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개인별로 독서한 것을 교관 앞에서 讲하고 의문 나는 것을 질의하는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그 곳에서 생활한 교생의 정원은 「經國大典」을 통해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향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약해지고 단순히 제례를 지내는 것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정설로 되어 있다. 이때 상당수의 향교에서는 수령의 주선으로 혹은 유지의 발의로 점차 향교 내에 혹은 향교와 떨어져서 유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養士齋가 마련되었다. 향교가 관립인데 비해서 양사재는 사립이었고 따로 齋田과 재산을 갖고 있었다.

三嘉鄉校 興學堂重修記에

“학교를 폐하게 된지 오래인데 堂의 이름은 왜 이렇게 하였는가. 폐한 것을 다시 일으키려 함이다.

- 중략 - 지난 丙戌年 여름 太子廟를 이 터에 지으면서 이 興學堂을 校官 담 동쪽에 옮김으로써 鄉校의 선비들이 이 거처하는 東齋와 가까이 상접하게 되었다.”⁹⁾

라고 하여 비교적 養士齋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順天府에서는 蕭宗代에 부사 黃翼이 香林寺傍에 養士齋를 충진하여 “邑儒從學之所”로 하였는데 學長 供貸를 위한 전답도 劍給하였다 한다.

양사재는 특히 호남지역에 많이 건립되었으며, 명청은 양사재 외에 興學齋, 四教齋, 育英齋, 待英齋 등으로도 불렸다. 양사재 외에 司馬齋란 건물도 향교 내에 건립되어 향교건축의 한 구성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사마재에는 司馬試 及第者 즉 生員 進士가 居齋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들은 교생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로 사마재를 마련했던 모양이다.

지리적 環境體系로 본 향교의 場所性

조선시대 書院이 한적한 邑治 멀리에서 宗家, 亭(精舍) 등과 함께 鄉村의 뚜렷한 유교문화권을 형성시켜 왔던 반면에 향교는 그 반대로 邑圈城내에서 독특한 제도적인 교육문화권을 이끌어 왔다. 즉 향교는 주로 城밖의 한적하고도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하여 지방의 가장 권위있는 象徵機關으로 존재해 왔다. 그것은 한나라의 국가나 사회관념이 유교에 의해서 정립되었던 당시의 사회구조 속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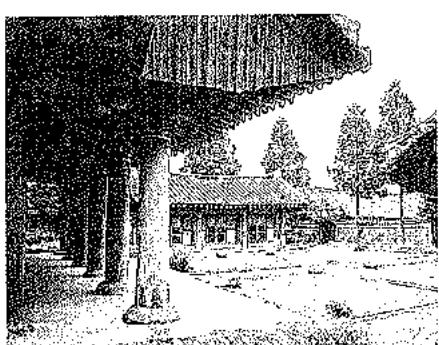
향교가 전국적으로 330여 곳에 설립되었던 조선전기의 상황자료인 「新增東國與地勝覽」에 의하면 이북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향교가 邑治에서 가까운 4里이내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1-2里:70.9%, 3-4里:19.6%) 한편 후기자료인 「輿地圖書」에는 「新增東國與地勝覽」에 의한 거리보다 다소 차이가 보이는데(1-2里:56.2%, 3-4里:23.9%) 이는 창건 이후 移建에 의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향교는 邑의 중심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는데 이는 향교가 중앙의 조직에 의한 官學이었으며 또한 講學의 場으로서만이 아니라 지방민의 教化事業에도 큰 몫을 담당하였던 곳이기에 都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邑城 내에 위치한 향교도 있는데 특히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돌보인다. 현장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구체적인



그림6. 충청도 洪州牧지도(자료:與地圖書)
城 밖 北門우측에 향교가 있다.



그림7. 평안도 三和府 지도(자료:與地圖書)
邑城이 없고 향교는 邑治의 북쪽에 있다.



순천향교 문묘구역. 동·서우와 함께 공간의 염속화와 정연성이 잘 드러나 있다.



내삼문에서 바라본 충주향교 대성전



홍덕향교 전경

9) 삼기향교 송학당 중수기문(1826년)

이유는 실필 수 없다.

향교 위치의 方位 개념은 전국적인 통계상(자료:新增東國與地勝覽, 與地圖書)으로는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순으로 나타나 있으나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주목 된다. 즉 전라·경상도 지역에서는 북쪽 방위가 전체 향교의 40% 이상으로 동쪽보다 많은 수로 나타나나 북쪽 지역인 강원·함경·평안도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중부지역인 경기·충청지역은 중간 위치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風水地理와 동양의 고대 都市계획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상당수의 都邑이 북쪽에 鎮山을 두고 있기 때문에 文廟의 남향 배치 원칙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左廟右社”라는 원칙인데 좌측이 동쪽이므로 한성의 경우 좌측에 宗廟, 우측의 社稷壇 배치원리가 지방 향교에서도 적용됐던 것으로 여겨진다.

향교의 장소적 특징중 또하나는 창건 이후 본래의 위치에서 수차례의 移建을 통해 정착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표 2에서 보듯이 移建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향교는 1회부터 많게는 5회 이상까지 옮긴 곳도 있다. 移建시기는 17~18C가 가장 많은데 이는 임란을 통해 상당수의 향교가 파괴 내지는 全燒가 되어 새로 좋은 장소를

표2. 향교 이건상황

지역	향교수	창건 당시 위치	移 建 回 數					연혁 클러스터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남	29 (100%)	11 (37.9)	5 (17.2)	7 (24.1)	3 (10.4)	·	1 (3.5)	2 (6.9)
경북	43 (100%)	8 (18.6)	11 (25.6)	2 (20.9)	6 (14.0)	·	2 (23)	8 (18.6)
강원	15 (100%)	5 (33.3)	3 (20.0)	2 (13.3)	4 (26.7)	·	·	1 (7.7)
계	87	24	19	18	13	·	2	11

* 자료: 「전남의 향교」·1987, 「경북 향교」·1991, 「강원도 향교·서원·사찰지」·1992

표3. 향교 이건시기

지역	이건향교수	移 建 时 期						
		14C	15C	16C	17C	18C	19C	20C
전남	16 (100)	·	2 (12.5)	1 (6.2)	7 (43.8)	5 (31.3)	1 (6.2)	·
경북	27 (100)	·	3 (11.1)	2 (7.5)	4 (14.8)	11 (40.7)	4 (14.8)	3 (11.1)
강원	9 (100)	·	1 (11.1)	·	2 (22.2)	1 (11.1)	1 (11.1)	4 (44.4)
계	52	·	6	3	13	17	6	7

* 자료: 표1. 과 같음

선택하여 옮겼기 때문이다. 이외 풍수지리적 사유, 즉 향교의 위치(서쪽)와, 立地形局이 안좋아 선비가 나오지 않는 등의 이유도 있었고 현실적인 측면으로 물난리, 호랑이 출몰 등도 이런 사유가 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상당수의 향교가 6·25 당시에 파괴되어 그 후에 새로 중건하면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20C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다.

향교는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향교가 자리한 곳은 그 都邑의 주변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나고 한적한 곳이 되고 있다. 즉 배면으로는 그리 높지 않은 산들이 중첩되어져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鄉校村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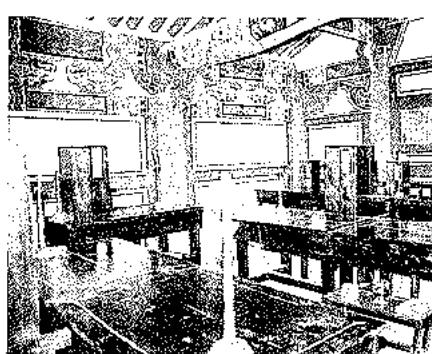
향교가 들어선 곳의 주변환경은 거의 대부분 향교가 비슷하나 입지한 지형은 크게 평지와 경사지형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소수의 향교에서는 구릉성 지형도 나타난다. 이러한 지형성 문제는 건물의 배치체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평탄한 지형에 조영된 향교는 그리 많지 않다. 전국의 231개 향교중 평지 향교는 20여곳 정도이고 이중 완전히 평탄한 지형에 조영된 향교는 15곳 정도에 불과하다. 지역적으로는 전라·경상도 등 주로 남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중부지방 위로는 경기도의 廣州鄉校, 강원도의 寧越향교 등 극히 일부에서만 보인다. 전라도에서는 全州·井邑·羅州·咸平·靈光·突山·樂安金構鄉校 등이고 경상도는 慶州·慶山·統營·彥陽·狹川·居濟·安義鄉校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조영시기는 조선초기부터 후기(突山향교: 1897~8年, 統營향교: 1901年)까지 고루 나타나며 설립 당시의 邑의 규모, 즉 府·牧·郡·縣의 행정체계와도 관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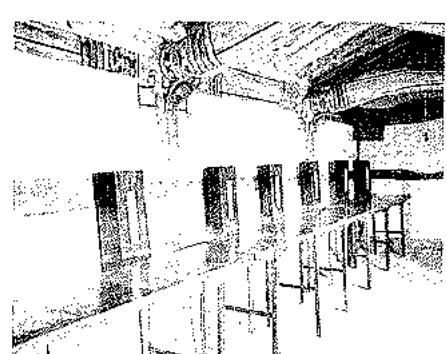
경사지에 입지한 향교는 전체 향교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야산 또는 구릉성 산지의 하단부에 향교가 들어선 경우인데 대개 지형을 2~3段으로 정지한 후에 개개의 건물을 배치하였다. 급경사지인 경우에 4~5단으로 정지된 곳도 있다. 대부분의 향교가 원경사지형에 입지했는데 곳에 따라서는 급경사지형을 택한 향교도 있다. (咸陽·山淸·草溪·晋州·染山·機長·河東·淸州·利川·高陽鄉校 등). 이상과 같은 경사지형의 입지는 전국토의 70% 정도가 산지인 한국의 지형 조건을 적절히 이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결과는 文廟와 講學區域이 배치체계에서 上下라는 空間的位階秩序를 갖고 등장한다.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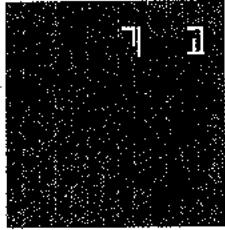
전주향교 전경



초계향교 대성전. 上·下 형식의 위패진열 역시 자극 히 위계적이다.



돌·서문에 모셔진 우리나라 성현의 위폐모습. 함양향교



1. 글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회는 경쟁으로부터 발전과 성장을 이룩해간다. 경쟁의 원리는 생물체 모두에게 적용되며, 특히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 자체가 바로 경쟁이다. 어떤 형태이든지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존재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경쟁은 긍정적인 경쟁과 부정적인 경쟁으로 나눌 수 있다. 부정적인 경쟁은 부정적인 사회를 만들고 긍정적인 경쟁은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 진정은 부정적인 경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진정, 투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일 수 없다. 진정은 그 지역을 봉괴시키고 이웃을 분열시키며 또한 인간심성을 황폐화시킨다.

우리민족의 장점은 지역 공동체 즉 “이웃사촌”的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레, 품앗이, 헧 등이 좋은 실례이다.

서로 돋고, 특히 어려운 일에 있어서는 집단의 힘을 어김없이 발휘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도 자연, 학연, 혈연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편협된 “이웃사촌”으로 변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민원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일까, 어쩌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것보다도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여기서 1994년도의 민원사례를 분석해보고 개정된 건축법에서 1996년 1월에 시행을 하도록 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기로 하자. 건축관련민원은 뛰는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털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2. 민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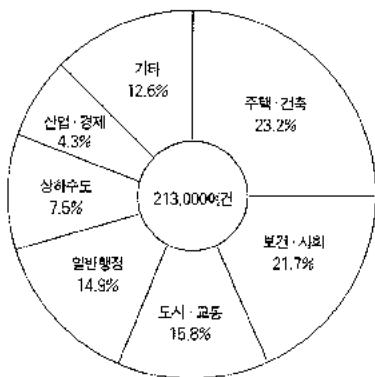
가. 민원의 접수현황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1994년4월 중앙정부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김광일위원장)를 설치하였다. 1년동안에 총 3,803건의 고충처리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그 중에 건축·도시분야가 35.9%나 차지하고 있다.

〈그림 1〉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현황 (1994.4.9~1995.1.30)



〈그림 2〉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실 민원접수현황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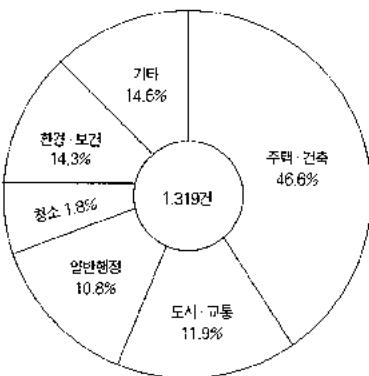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 민원담당관실에 접수된 1994년도 민원도 총 213,000여건으로 그중 서신으로 제기된 것이 7,800건, “120민원전화”로 205,200여건이 접수되었다.

주택·건축분야의 민원은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민원의 1/4인 23.2%나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선 구청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S지구의 주택·건축분야민원은 전체민원의 46.6%나 차지한다. S지구는 타지역보다 비교적 안정된 도시로 대지의 지형은 평坦하고 구릉지가 없으며,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적이 반듯하여 경계에 따른 분쟁이 거의 없는 등 지역적인 여건이 좋아 경제적으로도 상위 그룹에 속하는 자치구이므로 그나마 주택·건축분야의 민원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나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에서 전체민원의 60~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다.

〈그림 3〉 서울특별시 S구의 민원접수현황 (1994년)



나. 민원의 해결현황

이처럼 주택·건축분야의 민원이 타분야 보다 많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첫째가 민원을 유발시키는 시공자나 건축주 등의 부주의한 시공과 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자세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는 법규나 제도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의 팽배와 과대한 피해의식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민원에 대한 원인분석보다는 건축민원분쟁조정위원회

의 설치운영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을 거주의 공간, 즉 삶의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단순히 재화가치로 인식함으로 재화가치의 하락시 과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주택·건축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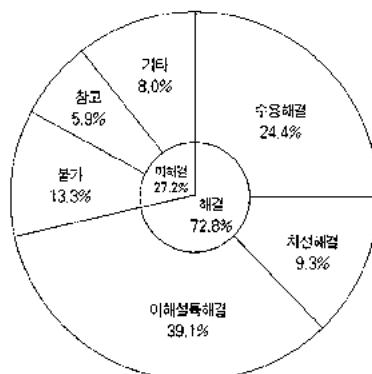
〈표 1〉 1994년 종결민원의 해결순서 (서울특별시민원담당관)

순서	민원분야	해결률	순서	민원분야	해결률
1	환경·공해	97.4%	7	청소	94.7%
2	도시·교통	95.5%	8	도시계획	94.2%
3	일반행정	95.4%	9	주택·건축	94.1%
4	민생치안	95.2%	10	공공시설	93.7%
5	보건·사회	95.1%	11	재무행정	92.9%
6	산업·경제	94.8%	12	상·하수도	90.2%

야의 민원은 다른 분야의 민원보다 그 해결이 더딜 수밖에 없다. 그만큼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불만과 공무원 등에 대한 불신의 폭은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청의 '94년도 접수민원중 해결순서를 보아도 9위에 머물만큼 주택·건축분야는 어려운 문제다.

또한 민원의 처리 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의사를 수용하여 민원이 해소된 경우가 24.4%이며, 그 다음으로 차선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가 9.3%이다. 나머지는 민원인을 이해설득(39.1%)을 시키거나, 현재 민원을 처리중이거나 미해결된 경우도 27.2%나 되고 있다.

〈그림 4〉 서신민원의 해결정도 (1994 서울특별시)



이들 민원의 해결정도를 보아도 민원인의 요구가 어느 정도 타당성·정당성을 갖춘경우가 35.7%인 반면 억지성 또는 과잉반응을 보인 민원이 64.3%인 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1년간(1994.4~1995.3)접수 민원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더라도 민원을 받아들여 시정토록 조치한 경우가 34.6%이고, 나머지 65.4%는 부당한 민원으로 기각되거나, 민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하 또는 철회처리되었다. 이처럼 대부분 민원이 정당성을 갖지못하는 억지성민원들로서 이를 민원이 해결을 위한 행정력 낭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

청나다. 그렇다고 정당한 민원을 소홀히 다룬다거나, 이러한 민원을 유발케 한 정책을 잘못 수립한 책임을 회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 주택·건축분야의 민원은 이해 당사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들간의 침예한 대립은 재산상의 다툼에서 감정대립으로 얹히게 되면 더욱 복잡해진다. 건축민원은 건축허가 1건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20배이상이 필요로 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건축사가 피해자와 가해자간을 오가며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정당한 방법과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은 공무원이 불신의 대상이 된다. 대부분 주택·건축민원이 금전으로 해결되는 추세인데 건축주(가해자)는 많이 주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민원인(피해자)은 불리하게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을 한번 해본 사람이라면 야당이 안되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건축민원처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러한 이중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형태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풍토속에서는 이러한 불신의 벽은 깨칠 수가 없다.

1993년 6월경 서울시의 16개구청 건축직공무원 190명에 대한 건축관련 설문을 한 결과 대부분의 건축민원이 금전으로 해결되어진다고 답하고 있다.

(표 2) 공무원 재직중 금전으로 해결되어진 민원의 경험정도
(190명중 180명 응답)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전혀 없음
23.3% (42명)	32.2% (58명)	22.2% (40명)	15.6% (28명)	6.7% (12명)

이들 공무원중 금전으로 민원을 해결한 경험이 없는 공무원은 180명중 12명에 불과하나 이들도 근무경력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언젠가는 금전으로 해결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될 것이다. 금전으로 해결한 민원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되돌려주지 않으면 안될 역민원을 받게 되어 있다.

필자의 오랜 공무원 생활중 그런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 왔었다. 민원해결을 위한 금액도 점차 고액화하는 추세이며 심지어는 1억원이상으로 민원해결을 경험한 공무원도 27명이나 되었으며, 3천만원 이상으로 해결한 경험을 한 공무원도 전체의 60.2%인 95명이 응답을 하였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계속적으로 방치할 때 더 큰 부작용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하고 파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3. 집단 민원의 종류와 특성

가. 집단민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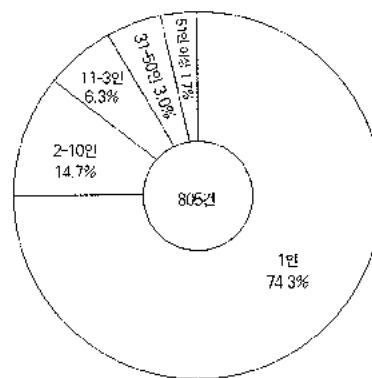
어떤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몇 사람이 주동이 되어 군중을 동원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

(표 3) 20인 이상의 집단 행동화한 민원 (1994년 서울특별시)

발생			종결			추진 중				
계	'92 이월	'93 발생	'94 발생	계	요구 수용	차선 해결	이해 설득	계 주택 건축	기타	
273	45	150	78	249	90	20	139	24	13	11

다. 대부분의 군중들은 충동성이 높다. 책임감이 없고 무비판적인 거짓말을 잘 믿는다. 또한 특정목적에 대한 암시에 걸리기 쉬운 심리적인 특성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집단난동, 폭동, 파괴의 행동을 동반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은 집단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성을 느끼지 않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을 나누어진다는 생각에 더욱 격렬한 행동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서울 K구의 쓰레기소각장 설치반대, 서울 G구의 장애자병원 설치 반대의 민원은 집단시위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서울의 또 다른 K구의 경우에는 노점상 단속에 따른 폭력사태로 비화한 경우도 있었다. 20인 이상의 집단행동으로 서울특별시청에 제기한 민원도 1993년도에는 150건, 1994년도에는 78건에 이르고 있다.

(그림 5) 진정인수별 현황 (1993~1994, 서울특별시 S구)



이들 집단 시위 민원중 84%를 종결처리하였다고 하니 사실상 만원인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40.3%인 110건(계획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요구를 수용한 것이 90건, 일부계획을 수정하는 등 차선의 해결을 한 것이 20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을 이해설득시켜 당초계획대로 이행하거나(139건) 현재 미해결되어 추진중인 것(24건)이 전체의 59.7%나 됨을 볼 때 억지성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민원의 해결은 일반민원의 해결보다 수십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며, 그 해결 또한 쉽지가 않다.

이들 집단민원을 하는 개인들을 면담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들 집단에 소속되기를 싫어 하면서도 그 집단에서 탈락되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답하였다.

서울 S구의 1993년과 1994년도에 건축과에 제출된 진정서('93:491건, '94:314건, 계805건)를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인 명의로 제출한 진정이 74.3%이나 2인이상의 연명또는 공동으로 제기

한 진정은 전체의 1/4이상(25.7%)이 되고 있다.

나. 집단민원의 사례

필자가 경험했었던 집단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기건립된 A아파트의 주민들은 유치원부지로 지정된 나대지상에 3층 규모의 유치원건축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459명이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C아파트주민 216명은 도로건너편에 건축중인 업무용빌딩의 투명유리를 불투명 재질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15층으로 건립된 K아파트 주민들도 아파트에서 50m나 떨어진 전면 공자에 건축하는 7층의 건축물의 높이를 낮추어달라는 진정서에 109명이 날인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법과 규정에 관계없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며 집단적인 시위를 하였으며 그들의 의견 일부를 수용하는 선에서 해결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 과정에서 건축주와 아파트주민들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음은 물론 공무원이나 건축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할지 생각해볼 문제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선한 방향으로의 공동체적 결집이 필요로 할 때도 그 반대의 현상이 더 많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해 폐기물 처리장의 건립반대, 한국전력의 전력공급시설 건립반대, 고가도로 설치반대 등으로 국가 인프라의 건립자체가 자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납골당 설치반대, 정신병동 및 영안실 설치반대, 쓰레기 소각장 또는 자체장애자 수용시설 설치반대는 물론이고 주택가의 주유소, 교회, 사찰,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설치반대까지 집단민원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양도 절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자기가 살곳에 설치하는 것만은 반대하는 낌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이 만연된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을 뿐더러 후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민사조정위원회

건축분쟁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러므로 그 해결의 방법도 각기 다를 수 밖에 없다. 시공잘못으로 인한 규열 등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다툼과 인접지 보다 높거나 창호나 발코니 등의 설치로 인한 내부투시 등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분쟁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외에도 건축주와 시공자,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감리자간의 분쟁도 있을 것이며, 시공자와 감리자의 시공잘못과 감리 잘못 등에 대한 다툼도 예상이 된다.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건축주와의 책임관계 등 복잡한 분쟁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1996년 1월의 시행을 목표로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음성적이고 비공개적인 민원해결방법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게 된은 그동안 공무원이나 건축사들이 민

원해결사 노릇을 함으로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잘못된 관행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관련 민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민사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민사소송에 의해 처리를 하여야함에도 행정부서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사적인 사항까지 다룬다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사사건을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부서에서 처리토록한 지금 까지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위원회의 운영에서 이 문제를 적절히 조절하겠지만 우려는 금할 수가 없다. 민사소송으로 가기까지는 당사자간의 감정의 대립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고 또한 비용과 절차가 큰 부담이 되므로 결국에는 이해당사자간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표 4〉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민사조정위원회의 비교

구 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민사조정위원회
근 거	건축법 제76조의 2~제76조의 8 (법률 제4919호 96.1.5)	민사조정법(법률 제4505호, 92.11.30) 민사조정규칙(대법원규칙 제1275호 93.12.28)
업 무	분쟁조정업무 1. 건축관계자와 달리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2.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함께 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실호간의 분쟁 5. 인근 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 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 -당사자사이의 상호이해를 통하여 -조정을 비방·이용 -상정이 맞게 조정
취 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원 13인 이내	조정담당공사 조정장 1인 조정의원 2인 이상
위원회 서 직	1. 대화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3. 등록한 건축사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영업 대립 차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1. 조정장 겸할 법원의 선시중에서 지정 2. 조정위원-학식과 직업이 있는자
조정신청	• 시·군·구의 조정위원회에 서면제출	• 서면 또는 구술로 관할 법원에 제출 • 구술인 경우는 법원 서기장·사무관 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함.
조정의 서적절차		
조치 및 의견장부	(1) 관계서류의 열람 (2) 관계사장의 충돌조사 (3) 당시 드는 경고문으로 하이금 조정위원회 유통·의견 전송	(1) 이해관계자의 위원회 참가 (2) 시장·증거조사 (3)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조정의 체 래	재판장의 최재 + 분쟁조정의 신청서심사으로 공사증 증지하여사람은 아니됨	재판장의 최재 + 소송기간에 조정에 허락될때에는 그정 기간 불교집까지는 소송집사가 품단된다
조정의 거부 및 종 지	1. 분쟁의 신청신고 조정신청에 부적합한 경우 2. 부당한 유통의 조정신청 3. 조정의 일정 낭비자기·소(訴)공 제기한 경우	1. 사건의 성질상 조정에 부적합한 경우 2. 부당한 유통의 조정신청
조정부결 회의 (부결준수)		• 조정서 일개원 합의체결, 조정위원의 의견들을 누설한 경우(30만원이하의 벌금) 30만원이하의 벌금 • 조정서 일개원 티민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조정비용 부담	1. 감정·진단·서류의 비용은 담사자간 합의하여 부담 2. 협의 분기시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축축 전환	1. 시설조사 증거조사·소원 고지 기타 조정절차의 비용은 당사자 각자의 부담 2. 조정이 실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 부담
조정신청 수수료	영드 계획없음	있음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재판으로 가기전에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화해를 시키는 제도가 있다. 민사조정법에서 민사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하고 여기서 당사자간에 의견을 조정하며, 원만히 타협이 될 경우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절차나 효력면에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도 민사조정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일본의 동경도에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아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의 동경도에 설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그것이다. 동경도의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분쟁조정의 범위를 극히 제한시켜 중, 고층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고 있다. 중, 고층건축으로 인한 일조, 통풍, 채광을 저해받거나 풍해, 전파장애, 공사중 소음, 진동 등 주변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분쟁의 예방과 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인근주민의 범위도 건축할 대지의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2배이내의 수평거리에 있는 대지주, 건축주및 거주자나 전파장애의 영향을 받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즉 직접적인 피해당사만이 분쟁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있다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다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여 지역사회를 분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통념상 견딜만한 정도의 피해는 서로가 견뎌야 한다. 민원분쟁의 조정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되는 반면 일본의 동경도는 지사(知事)가 되며, 조정위원회는 지사의 부속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할뿐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하여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동경도의 경우는 필요시에 한하여 공사의 착수중지, 연기 또는 공사의 중지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동경도의 분쟁의 조정은 단순히 당사자간 협의 알선 또는 조정권고 등의 방법만 제시할 뿐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일본동경도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일선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와 거의 흡사하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주택·건축분야의 민원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민원을 다루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담운영할 부서가 없으며, 또 일반인들이 동위원회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홍보 또한 부진한 편이다. 설령 동위원회를 이용하여 민원을 조정한다하더라도 조정에 만족하지 못하여 민원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기때문이다.

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바람직한 구성방안

그렇다면 세로이 생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첫째, 분쟁조정위원회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권위리함은 계급적인 권리가 아니라 분쟁당사자가 모두가 수긍할 정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판결, 조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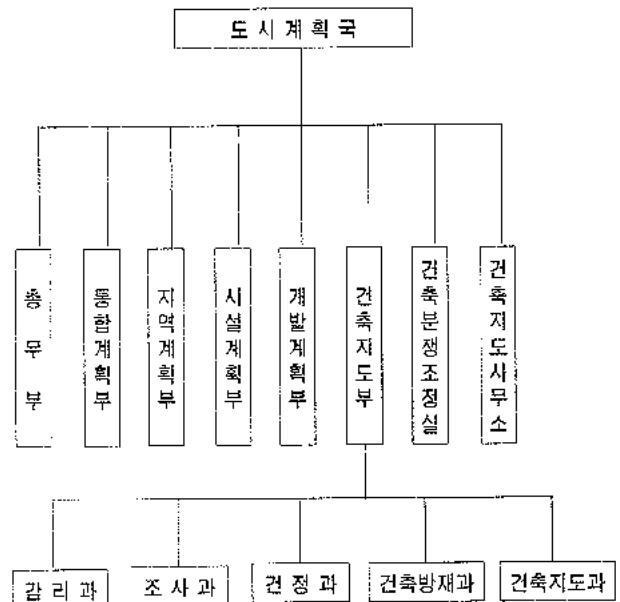
내용이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판사, 변호사 등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을 위한 법조계인사, 건축사, 시공자, 기술사 등 전문적인 감정이 가능한 건설관계자, 그리고 목사, 교사, 경실련관계자, 소비자보호관계자 등 사회통념상 일반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지도층 그리고 행정을 다루는 행정관료 등 각계 인사를 충망하여 적어도 이들이 판단하여 조정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설기구화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 운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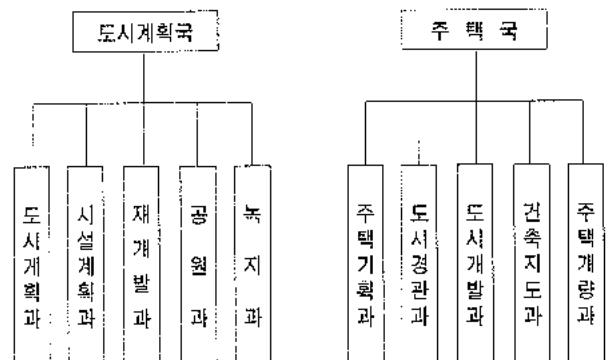
대부분의 민원은 조기에 해결하여야 한다. 민원이 장기화되어 감정싸움으로 대립되었을때는 쉽게 해결될것도 어렵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2주에 1번이상의 회의를 하여야 할것이다.

셋째, 건축분쟁조정은 당사자간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당하고 억지성민원인

〈표5〉 동경도의 도시계획국 기구표



〈표6〉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의 기구표



경우는 행정부서에서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부당한 민원에 필요이상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경우 그만큼 다른 정당한 민원처리에 대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억지성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분쟁조정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동경도의 경우는 건축분쟁조정실(建築紛爭調整室)을 두고 실장을 포함하여 7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두 도시를 비교해보면 건축과 직접관련된 부서는 우리가 주택국의 5개과인 반면 동경도는 건축지도부의 5개과와 별도의 건축분쟁조정실, 건축지도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건축분쟁조정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과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설치하여야만 동 업무가 적극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것이다.

다섯째, 운영의 범위를 민사사항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 제외시키고,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국한하여야 할것이다. 물론 중재와 조정의 목적으로 민사부분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느부분까지 조정을 해야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분쟁조정의 결과를 승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거부했을 때 민원은 계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에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동위원회의 조정마저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법률적인 보완을 해서라도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의 결과를 최소한 지방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고 이에 불복 시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5. 글을 마치면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 보완되었다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동 제도의 처음시작을 신중히 연구 검토하지 않아서 생길 문제점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원고모집

「건축사」지는 건축사 여러분의 대화의 “場”입니다.

월간 「건축사」지는 회원 여러분의 대변자이며, 모든 건축인을 위한 잡지로 항상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에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참여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모집내용〉

- ☆ 시, 수필, 수상, 건축기행문
- ☆ 건축관련 연구논문 또는 기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의 글
- ☆ 회원작품(최근 1년이내 준공된 작품)
- ☆ 계획작품(현재 계획중이거나 계획으로만 끝난 미실현작품)
- ☆ 작품스케치(작품과 관련된 개념스케치)
- ☆ 회원 갤러리(그림, 사진, 조각 등)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우편번호 : 137-070)
전화 : 587-8504(직), 581-5711~4(교) FAX : 586-8823

2-6. 棟

棟 其名有九：一曰 棟，二曰 檻，三曰 檻，四曰 築，五曰 蔊，六曰 極，七曰 樹，八曰 檻，九曰 檻。

兩際附。

用榑之制：若殿閣榑徑 一材一槧 或加材一倍，廳堂榑徑 加材三分^o至一槧，餘屋榑徑 加材一分^o至二分^o。長隨間廣。

凡正屋用榑，若心間及西間者 皆頭東而尾西，如東間者 頭西而尾東。

其廊屋 面東西者 皆頭南而尾北。

凡出際之制：榑至兩梢間兩際 各出柱頭，又謂之屋廢。如兩椽屋 出二尺至二尺五寸，四椽屋 出三尺至三尺五寸，六椽屋 出三尺五寸至四尺，八椽至十椽屋 出四尺五寸至五尺。

若殿閣轉角造 卽出際長 隱架，於丁樑上：隨架 立次際柱子，以柱榑梢 或更於丁樑背土上添閣頭樑。

凡橑檐方 更不用橑鳳榑及替木，當心間之廣加材一倍 厚十分，至角 隨宜取圓，貼生頭木 令裏外齊平。

凡兩頭梢間 榴背上 幷安生頭木，廣厚并如材，長隨梢間 斜殺向裏 令生

勢圜和，與前後橑檐方 相應。其轉角者 高與角梁背平，或隨宜加高令椽頭背低角梁頭背一椽分。

凡下昂作 第一跳心之上 用榑承椽，以代承椽方，謂之牛脊榑。安於草枕之上，至角 卽抱角梁，下用矮柱敷栱，如七鋪作以上 其牛脊榑 於前跳內 更加一縫。

동(棟)²⁾

양제(兩際)부(附)

棟의 명칭으로는 아홉가지가 있다. : 첫째 동(棟)，둘째 부(榑)，세째 은(檻)，네째 분(棼)，다섯째 맹(甃)，여섯째 극(極)，일곱째 단(榑)，여덟째 틈(檩)，아홉째 면(榜)이다.

榑을 사용하는 제도³⁾ : 殿閣에 사용되는 도리는 직경을 1材1槧 또는 2材로 한다. 廳堂에 사용되는 도리는 직경을 1材 3分^o내지 1材1槧로 한다. 기타 건물에 사용되는 도리는 직경을 1材 1分^o 내지 1材 2分^o으로 한다. [도리의] 길이는 칸의 너비(간살)를 따른다.

1) 원문에는 '方'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匕'의 誤記임이 분명하므로 '匕'으로 고쳐 적었다.

2) '楗'은 '마루도리'나 '용마루'를 뜻하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도리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捺은 原文에도 언급된 것처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3) '榑'은 그兩端部를 보머리나 宗樑의 동자주 위에 결구시키는 원형단면의 부재로 서까래를 받아 지붕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清代에는 주로 '榜'이나 '榜'이라는 용어로 불렸다.

도리는 단면을 원형으로 하는 경우와 방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檻椽方이나 承椽方과 같은 일부의 예를 제외하면 도리의 단면을 방형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원형단면으로 한다. 따라서 '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리의 총칭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 번역문에서는榑을 '도리'로 번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原文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도리는 가구상에서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脊榑', '平榑', '牛脊榑'(방형단면의 경우 承椽力), '橑鳳榑'(방형단면의 경우 檻梢力) 등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脊榑'은 도리 중에서 가장 상부에 위치한 도리, 즉 우리나라의 '宗도리(마루도리, 마룻대)'에 해당한다. 摐鳳榑은 외진주(檻柱)상에 위치한 공포의 가장 바깥 출목선상에 위치한 도리로 우리나라의 '처마도리(의목도리)'에 해당된다. '平榑'은 脊榑(종도리)과 牛脊榑(牛脊榑)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檓鳳榑 사이에 위치한 도리의 총칭이다. 즉 주심선상이나 그 내부에서 종도리 바로 아래까지의 사이에 위치한 도리의 총칭이다. 平榑은 다시 그 위치에 따라 上平榑, 中平榑, 下平榑 등으로 세분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종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에 위치한 도리를 모두 종도리라 하고 이를 다시 上中도리, 中中도리, 下中도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같은 種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下平榑의 위치이다. 下平榑은 平榑중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도리로 檓鳳榑, 牛脊榑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주심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의 2-4. 講馬條에서 보이는 "大角梁自下平榑至下梁撓頭"라는 규정에서의 下平榑은 우리나라에서의 내목도리 또는 주심도리 바로 안쪽에 위치한 도리로 해석된다. 따라서 本『營造法式』에서 下平榑의 위치는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樞思

正屋⁴⁾의 경우 어칸이나 서쪽 칸에 사용된 도리는 머리(頭)가 東쪽을 향하게 하고 후미(尾)가 西쪽을 향하도록 한다. 東쪽 칸에 사용된 경우에는 머리가 西쪽

을, 후미가 東쪽을 향하도록 한다. 그 鳥屋이 東西로 面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도리의 머리가 南쪽을, 후미가 北쪽을 향하도록 한다⁵⁾

成도『營造法式註釋卷上』의 각종 도면에서 下平槽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주심도리에 해당하는 부재로 図示하기도 하고 주심도리 바로 안쪽의 도리로 図示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図示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규칙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本條의 牛脊榑이나 檻風博(또는 檻風構) 등의 도리 등에 대한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下平槽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주심도리에 해당하는 부재로 볼 수 있으며, 주심도리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심도리 바로 안쪽에 위치한 도리(이 도리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의 내목도리에 해당한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1>은 宋『營造法式』에 있어서의 각종 도리의 명칭과 위치를 卷第三十一「殿堂等七鋪作(副者五鋪作)雙槽草架側樣第十二」의 도면을 예를 들어 나타낸 것이며, 이와의 비교를 위해 <도2>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내부가구의 예(開心寺 大雄殿 : 1484년)를 게재하였다. <도3>은 架構의 횡단면도로써 卷第三十 <大木作制度圖樣上>條에 그려진 「禪筵櫈間第八」의 도면 일부에 架構材의 명칭을 기입한 것이다. 이 외에 <도4>는 도리와 도리를 결구시키는 방법으로 卷第三十 <大木作制度圖樣上>條에 「蟬頭頭口」라는 이름으로 게재되어 있는 도면이다. 각종 도리 중 牛脊榑과 檻風博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또한 한 건물에서 사용된 도리의 수는 가구의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즉, 『營造式』에서는 도리 사이의 거리에 따라 건물을 2緣架, 4緣架, 6緣架, 8緣架, 10緣架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2-1. 檻條의 특기(特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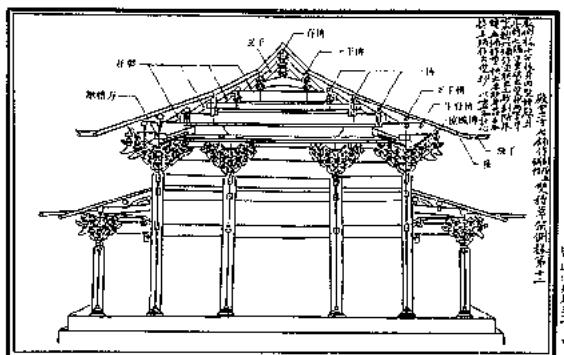
본 학률에서는 도리를 건물의 유형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도리의 진경을 규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1-1에 정리하였다.

(표 1) 도리의 크기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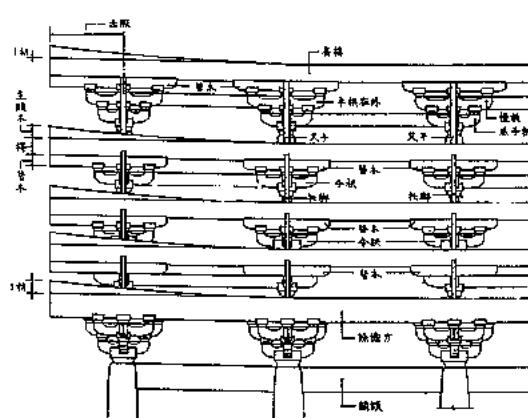
전통유형	도리의 직경	도리의 길이
殿閣	1材1契(21分°) 또는 2材(30分°)	간의 너비를 따른다.
廳堂	1材3分°(18分°)~1材1契(21分°)	
餘屋	1材1分°(16分°)~1材2分(17分°)	

- 4) 「正屋」은 여러 채의 건축물을 배치함에 있어서 배치의 中心軸線上에 위치한 중심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南向하여 배치한다. 此屋의 남쪽 중정의 東西에 부속건물을 마주보도록 하여 正屋를 중심으로 한 中庭을 구성하는데, 이 東西에 서로 마주보도록 위치한 부속건물을 麵舍(廊舍)이라 한다. 이와 같이 중국건축에 있어서는 중심축에 주요건물을 南向하여 배치하고 그 東西에 부속건물을 마주보도록 놓아 중정을 형성하는 대칭적인 배치방식이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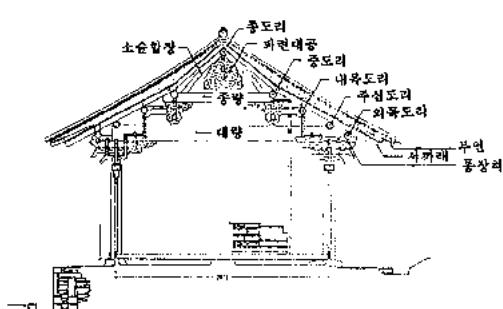
5) 이상의 내용은 건물의 향과 종류, 그리고 한 건축물내에서 도리가 사용된 위치에 따라 도리를 놓는 방향에 대한 규정인데, 왜 이러한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요구된다.



〈도. 1〉 도리 및 가구재의 명칭(종단면)
(卷第三十一 欽堂等土鋪作副階五鋪作雙槽草架側樣第十二)



〈도 3〉 도리 및 가구재의 명칭(횡단면)
(출처 : 梁思成, 「營造法式註釋卷上」, p. 262)



〈도 2〉 開心寺 大雄殿의 内部架構(종단면)



(五) 間接蟑螂頭口
(卷第三十 樂類等叩口數第六)

출제(出際)의 제도⁶⁾ : 도리는 양 梢間의 兩際⁷⁾에서 각각의 기둥머리 외부로 돌출하는데, 이를 일컬어 屋廢라고도 한다. 兩椽屋⁸⁾인 경우에 [도리를 기둥머리에서] 2尺 내지 2尺5寸 돌출시키고, 四椽屋⁹⁾인 경우에는 3尺 내지 3尺5寸을 돌출시키고, 六椽屋¹⁰⁾인 경우에는 3尺5寸~4尺을 돌출시키고, 八椽¹¹⁾ 내

지 10椽屋¹²⁾인 경우 4尺5寸~내지 5尺을 돌출시킨다. 轉角造¹³⁾인 경우의 出際하는 길이는 架를 따른다¹⁴⁾. 丁椽위에 架를 따라 轉角柱子¹⁵⁾를 세우고, 이 기둥으로 도리의 끝을 받도록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丁椽 상부에 다시 계두복(闕頭樑)¹⁶⁾을 첨가한다.

6) 出際는 間¹⁰⁾ 부분, 즉 지붕의 양측면에서 도리가 기둥 중심선 외부로 돌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말로 '屋廢(屋廢)'라고도 하며, 清代에는 '현선(懸山)' 또는 '도산(挑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도3>. 본문의 내용에서는 기둥중심에서 돌출시키는 도리의 길이, 즉 出際의 길이를 架數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出際의 길이가 상대치수인 檻分¹¹⁾이 아닌 절대치수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2〉 架數에 따른 出際 길이

架數	出際 길이(단위: 절대치수)
2椽屋	2尺 ~ 2尺5寸
4椽屋	3尺 ~ 3尺5寸
6椽屋	3尺5寸 ~ 4尺
8椽屋과 10椽屋	4尺 ~ 4尺5寸

여기에서 間¹⁰⁾은 건물 지붕의 양측면으로, 상부가 뾰족하게 되어 삼각형을 형상하는 부분을 말한다. 즉 맞배지붕에 있어서의 박공부분이나, 팔작지붕에 있어서의 합각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우진각지붕이나 사모, 육모, 팔모지붕 등에서는 間¹⁰⁾가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本 出際의 제도는 맞배지붕이나 팔작지붕에 비해 해당하는 제도와 할 수 있다. 다만 우진각지붕(四阿殿閣)에서는 “8椽5寸에서 10椽7寸의 건물에서는 모두 양측면에서 도리를 3尺 돌출시킨다.”라고 하는 규정, 즉 清代의 推山에 해당하는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出際 외 다른 것이다. 出際부분에 있어서 도리의 단부는 摄風版으로 가린다. 摄風版에 대해서는 뒤의 2-7. 摄風版條을 참조.

7) 앞의 計6) 참조.

8) '兩椽屋'는 도리사이의 간이 2개인 가장 간단한 형식의 가구구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3椽구조이다. 2-1. 檻 條의 計21) 참조.

9) 4椽은 우리나라의 5椽구조이다.

10) 6椽은 우리나라의 7椽구조이다.

11) 8椽은 우리나라의 9椽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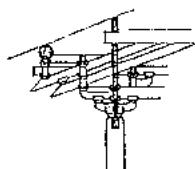
12) 10椽은 우리나라의 11椽구조이다.

13) '轉角'은 모서리를 돌아간다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건물의 지붕이 90°로 꺾여져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즉 '轉角造'는 지붕이 90°로 꺾여져 돌아간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九脊殿(팔작지붕)과 四阿殿(우진각지붕)을 합쳐서 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여기에서는 九脊殿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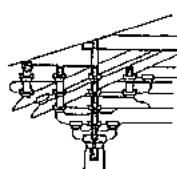
14) 山際高는 길이를 架數에 따른다는 것으로, 轉角造인 경우의 出際하는 길이를 여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앞에서의 出際길이에 대한 규정이 맞배지붕인 경우의 규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架數에 따른 出際의 길이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위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火際柱子'는 梢間에서 기둥선 외부로 돌출한 도리의 단부를 받기 위해 丁椽 상면에 세우는 짧은 기둥을 말한다. <도5>는 河南 登封縣 少林寺 初祖庵 大殿에 사용된 火際柱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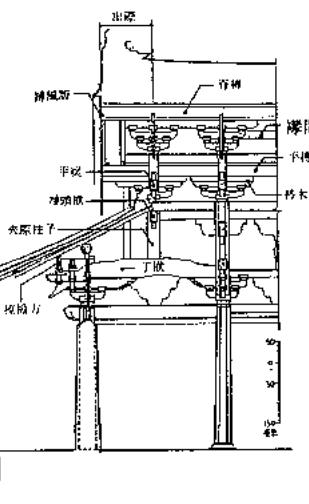
16) '계두복(闕頭樑)'은 팔작지붕으로 된 건물의 양측면 梢間에 있는 丁椽위에 놓여 서까래와 양측면의 下梁(종보)를 받도록 하는 보를 말하는 것으로 清代건축 段山房에서의 '踩步金梁'과 유사한 부재이다<도5>. 팔작지붕의 측면을 막아둔다는 의미에서 그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서 '계'의 음은 '系'와 같은데, '막아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徐伯安, 鄭肇列, 『宋¹⁷⁾營造法式』述語註釋, p.57).



〈도.7〉 天津 縱樂寺 觀音閣
(출처: 「中國古代建築技術史」, p. 81)



〈도.6〉 山西 五臺 佛光寺 大殿
(출처: 「中國古代建築技術史」, p. 72)



〈도.5〉 河南 登封 少林寺 初祖庵 大殿
(출처: 梁思成, 『營造法式註釋卷上』, p. 163)

요첨방(櫟檜方)17)을 사용하는 경우 요풍단(櫟風槽)18)과 체목(替木)19)은 사용하지 않는다. 어간에 사용되는 檜檜方은 단면의 높이를 2材로 하고, 너비를 10分^o으로 하며, 건물의 모서리(角)에서는 적당히 取圜²⁰⁾하며, 여기에 생두목(牛頭木)21)을 덧대어 내외²²⁾를 가지런히 한다.

양 梢間의 도리 상면에는 모두 生頭木²³⁾을 올려 놓는데, 단면의 크기는 모두 1材이며, 길이는 梢間의 너비를 따른다. [生頭木]은 안쪽을 향하여 경사지게

깎아내는데, 그 형세를 부드럽게 하며, 앞뒤에 위치한 檜檜方과 적당히 어울리도록 한다. 轉角에 [生頭木을] 사용하는 경우²⁴⁾에는 生頭木의 높이를 角梁의 상면과 수평이 되게 하거나, 높이를 적당히 높여 서 서까래 외단부의 上面이 角梁 외단부의 상면보다 1椽分 정도 낮게 한다.

下昂作에서는 第I出目線[1]에 横(원형단면의 도리)을 사용하여 서까래를 받도록 하는데, 이 도리를 일컬어 우척단(牛脊榑)²⁵⁾이라 하며, 이로써 承椽方을 대신

17) '櫟檜方'은 斜楔의 출목선상에 놓여 상부의 서까래를 받도록 하는 방형단면의 부재로 그 아래에는 替木을 사용하지 않는다<도.1>. 이에 반하여 檜檜方과 같은 기능을 하는 부재로 단면을 원형으로 한 것을 櫟風槽(消式으로는 '挑櫟槻'이라 함)이라 하는데, 櫟風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檜風槽과 斜楔과의 결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 櫟風槽 아래에 替木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檜檜方과 櫟風槽은 단면의 형태만이 다를 뿐 그 사용위치와 기능이 동일한 부재로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의 '외목도리'에 해당하는 부재라 할 수 있다.

本『營造法式』에서는 檜檜方을 사용하는 제도를 설명하면서 檜風槽과 替木을 사용하는 제도를 小註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로 보아 檜檜方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인 제도로 삼고, 櫟風槽과 替木을 사용하는 방법을 부차적인 제도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宋遼金代의 건축물은 대부분 櫟風槽과 替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檜檜方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므로, 本『營造法式』의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현존하는 중국건축 중에서 櫟風槽을 사용한 건물과 檜檜方+替木을 사용한 건물의 일부 예를 <표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도.5~도.9> 및 <사진1~사진5> 참조). 참고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목조건축에서는 외목도리를 원형단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完州 化岩寺 極樂殿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下昂式 목조건축으로 전면에 방형단면의 외목도리를 사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표.3> 「櫟風槽」, 「櫟檜方+替木」의 사용 예

외목도리	건물명	건축연대	비고
櫟風槽	山西 五臺 南禪寺 大殿	唐 建中3년(782)	<사진.1>
	山西 五臺 佛光寺 大殿	唐 大中11년(857)	<도.6>,<사진.2>
	天津 蓟縣 獨樂寺 觀音閣	遼 統和2년(984)	<도.7>
	天津 蓟縣 獨樂寺 山門	遼 統和2년(984)	<도.8>
	山西 鎮次 永壽寺 西花宮	宋 大中祥符元년(1008)	
	山西 大同 華嚴寺 薄伽教藏殿	遼 重熙7년(1038)	<사진.3>
	山西 大同 華嚴寺 大雄寶殿	遼 清寧8년(1062)	<사진.4>
	山西 大同 善化寺 大雄寶殿	遼代 중엽(1060년 경?)	
	山西 大同 善化寺 普賢閣	遼代 중엽(1060년 경?)	
	山西 大同 善化寺 三聖殿	金 天會皇統間(1130~43)	
	山西 五臺 佛光寺 文殊殿	金 天會15년(1137)	<사진.5>
	山東 仙阜 孔廟 金碑亭	金 明昌6년(1195)	
櫟檜方+替木	河南 登封縣 少林寺 初祖庵 大殿	宋 宣和7년(1125)	<도.5>
	山西 應縣 佛宮寺 木塔	遼 清寧2년(1056)	<도.9>
	浙江 寧波 保國寺 大殿	宋 淳熙6년(1179)	<도.10>

18) 앞의 注17) 참조.

19) '替木'은 원형단면으로 된 도리의 아래에 사용하는 방형단면의 짧은 부재로, 우리나라의 '장척', 특히 '단장척'에 해당하는 부재라 할 수 있다 <도.3>. 替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2-8. 构條을 참조.

20) 이는 檜檜方 단부의 단면을 원형으로 한다는 것이다.

21) 뒤의 注23) 참조.

22) 정면에서 보았을 때의 좌우를 말한다.

23) 梢間(梢間)의 도리(櫟檜方, 桟頭方 등도 포함) 상면에 덧대어 사용하는 方形단면의 부재로, 상면을 곡선으로 하여 여기에 서까래를 올려 놓도록 함으로써 용마루와 지붕면이 건물의 측면 끝 부분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게 함으로써 지붕선을 양끝이 위로 치켜 올라간 곡선을 이루도록 해 주는 부재이다<도.3>. 生頭木은 清代에는 '枕頭木'이라 불렸으며,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의 '갈모산방'과 비슷한 부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모산방이 외진주의 기둥 중심선상에 위치한 도리, 즉 주심도리에만 사용됨에 반하여, 生頭木은 모든 도리에 확밀적으로 사용되는 점이 다르다.

24) 즉 팔작지붕이나 우진각 지붕에 生頭木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5) '牛脊榑'은 本『營造法式』의 규정에 의하면 下昂을 사용하는 경우 외1출목선상의 草袱위에 올려놓아 서까래를 받도록 하는 원형단면의 긴 부재이다<도.1>. 이 牛脊榑과 동일한 위치,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부재로써 단면이 方形으로 된 부재를 '承椽方'이라 하여 牛脊榑과 구분하여 부른다. ?鋪作 이상의 공포에서는 1출목 외측의 출목선상에 牛脊榑을 하나 더 사용한다.

본문중에서 "牛脊榑은 …… 承椽方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本『營造法式』에서는 일반적으로 承椽方을 사용하고, 牛脊榑은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남아 있는 건물 중에서 牛脊榑을 사용하고 있는 예는 찾아볼 수 없고, 외출목선상에 承椽方을 사용하고 있는 몇 예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山西 五臺 佛光寺 大殿(唐 大中11년 857년 - 7

한다. [牛脊榑은] 草牀위에 얹어서 사용하는데, 건물의 모서리에서는 角梁을 감싸고, 그 아래에 矮柱를 사용한다. 7鋪作 이상인 경우에는 前跳에 다시 牛脊榑 1縫을 더한다²⁶⁾.

2-7. 搏風版

搏風版 其名有二：一曰 榻，二曰 搏風

造搏風版之制：於屋兩際 出搏頭之外 安搏風版，廣兩材
至三材 厚三分°至四分° 長隨架。道中上架兩面 各斜
出搭擡，長二尺五寸至三尺。下架隨椽 與瓦頭齊。轉角
者至曲脊內。

박풍판(搏風版) 이름은 둘이 있다. : 첫째 英(榮), 둘째 박풍(搏風)이다.
搏風版을 만드는 제도²⁷⁾ : 건물의兩際에서 돌출한 도리의 단부 외측에搏風版을 설치한다. 높이는 2材내지 3材로 하며, 두께는 3分° 내지 4分°으로 하고, 길이는 架²⁸⁾를 따른다. 中上의 架兩面에서는 [搏風版에] 비스듬히 탑장(搭掌)²⁹⁾을 만드는데, 搭掌의 길이는 2尺5寸 내지 3尺으로 한다. 下架에서는搏風版을 서까래의 경사에 따라 기와와 단부와 가지런히 맞춘다. 轉角³⁰⁾인 경우에는 [搏風版이] 曲脊³¹⁾의 내부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鋪作雙下昂)에서는 제2출목선상에 承椽力を 사용하고 있고<도6/사진2>, 遼寧 義縣 奉國寺 大殿(遼開泰9년:1020 - 7鋪作雙下昂)에서도 역시 제2출목선상에 承椽力を 사용하고 있다<도11>. 그런데 本『營造法式』의 卷第三十一 <大木作制度圖樣下>에서는 본문의 규정에서처럼 제1출목선상에 牛脊榑을 사용하고 있는 예는 없고, 8鋪作3下昂造에서 제3출목선상의 草牀 상부에 牛脊榑을 사용하고 있는 예와 7鋪作雙下昂造에 제2출목선상의 草牀 위에 牛脊榑을 사용하고 있는 예<도1>가 있을 뿐이어서 본문의 내용과 모순이 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牛脊榑은 下昂을 사용하는 경우 외전주(檀柱)의 주심선상 外側, 공포의 最外側 출목선상(撩檐方, 撩風榑의 위치) 内側에 위치하는 도리인 것은 확실하나 본문의 규정처럼 공포의 외1출목선상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그 실례는 찾을 수 없다.

牛脊榑은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의 외목도리와 비슷한 부재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목도리는 공포의 가장 바깥 출목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통례이므로<도2> 牛脊榑보다는 앞에서 설명한 撩檐方 또는 撩風榑이 외목도리에 해당하는 부재로 볼 수 있다.

26) 여기에서 '前跳'가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알 수 없다. 7鋪作 이상의 공포는 4출목 이상의 출목을 형성하는데, 가장 바깥의 출목선상을 제외한 제2출목 이상의 출목선상 중 前跳가 제2출목선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출목 外側의 출목선상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더욱이 여기에서는 牛脊榑을 2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인데, 공포의 鋪作數는 앞의 규정에 의하면 최대 8鋪作, 즉 최대 5출목까지이며, 원문과는 달리 大木作制度에 계재된 도면에서처럼 牛脊榑은 외2출목 또는 3출목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와 같이 牛脊榑을 2개 사용한다고 하는 규정은 이러한 점에서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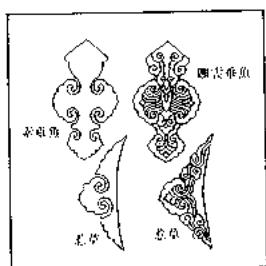
27) 搏風版은 補間頭造(九脊殿)나 兩坡頂의兩際, 즉 팔작지붕의 합각부나 맞배지붕의 박공부분에서 대림마루의 경사에 따라 도리의 단부에 뜻으로 박아 고정시킨 人字形으로 길게 덧붙여 땐 괘제로 우리나라에서의 '박공널'에 해당하는 부재이다<도12>.搏風版에는 垂魚(즉 우리나라에서의 懸魚), 慈草 등의 조각물을 늘어뜨려 장식하는데, 이 垂魚와 慈草에 대해서는 本書의 卷第七「小木作制度二」의 <垂魚慈草>條에 설명되어 있으며, 卷第三十二「小木作制度圖樣」에 도면이 계재되어 있다<도13>. 여기에서 설명되어 있는 합각부(또는 박공부)의 구성은 한준하는 우리나라의 목조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日本 西福寺에 소장되어 있는 欄經序品變相圖(1312년 제작)의 전각도에 보이는 합각부의 구성<도14>이 本『營造法式』의 규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8) '架'는 이웃한 도리와 도리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도리가 3개 사용된 가구에서는 도리 사이의 칸의 수가 두개가 되므로 이를 '2架'라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架의 수는 건물의 종방향으로 사용된 서까래의 수와 같은데, 2架로 뒤 경우 종방향으로 사용된 서까래의 수는 2개가 되므로, 이를 '2架様'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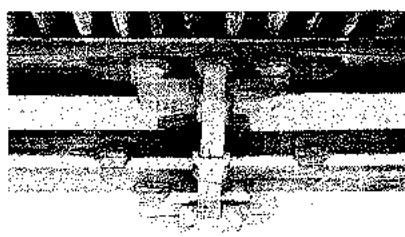
29) '搭掌(搭掌)'은 긴 부재를 길이방향으로 결구할 때 사용하는 이용방법의 일종으로, 두 부재가 서로 맞닿게 될 때 그 머리를 경사면으로 꽉아서 두 부재가 서로 얹히도록 함으로서 두 부재를 결구하는 수법이다. 本書 본문의 내용에서는 搭掌에 대한 규정이 없고, 卷第三十一「大木作制度圖樣上」의 <梁額等卯口第六>에 이 결구법이 開示되어 있다<도15>. 이에 의하면 搭掌에는 '우비탑행(鷲批搭掌)'과 '구두탑행(勾頭搭掌)'의 두 가지 수법이 있는데, 鷲批搭掌은 우리나라에서의 '빗턱이음'과 비슷하고, 勾頭搭掌은 우리나라에서의 '걸이이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搏風版에서는 中上架에서 搭掌을 만들며, 搭掌의 길이는 2尺5寸 내지 3尺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0) 여기에서의 '轉角'은 補間頭造(九脊殿: 팔작지붕)으로 된 전물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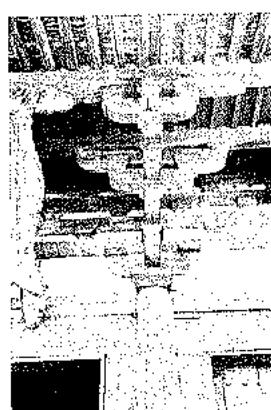
31) 팔작지붕에서 합각부의 삼각형에서 아래 변에 해당하는 수평마루를 말한다.



(도13) 垂魚, 慈草
(卷第三十二 小木作制度圖樣)



山西 五臺 南禪寺 大殿의 공포대



山西 五臺 佛光寺 大殿의 공포대

2-8. 柵

柵 其名有三：一曰 样，二曰 複棟，三曰 替木
造替木之制：其厚十分° 高一十二分°。

單料上用者 其長九十六分°，

令栱上用者 其長一百四分°，

重栱上用者 其長一百二十六分°，

凡替木兩頭 各下殺四分° 上留八分° 以三瓣卷殺 每瓣長四分° 若至出際 長與博齊 隨博齊處 更不卷殺 其栱上替木如補間鋪作相近者 即相連用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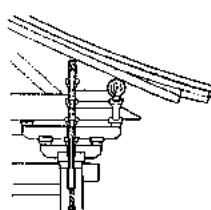
부(柵)32) 이름은 세가지가 있다. : 첫째 부(柵), 둘째 복동(複棟), 세째 체목(替木)이다.

替木을 만드는 제도33) : 단면 폭은 10분°, 높이는 1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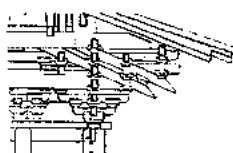
32) '부(柵)'는 複棟, 替木이라고도 하는데 본문중에서는 替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33) '체목(替木)'은 外陳柱(樋柱)위에 있는 공포의 가장 바깥 출목선상에서 檻風檻을 받거나, 각 架의 도리가 하부의 공포재와 결구되는 부분에서 도리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方形단면의 짙은 부재이다(<도.3> 및 <사진1~3>) 替木은 원형단면의 도리가 방형단면의 공포부재와 결구되는 부분에서 그 결구를 원활히 해 주고, 도리와 도리의 결구부분에 생기는 구조적 약점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한다. 도리의 단면이 원형인 경우에만 사용하고, 도리의 단면이 方形으로 된 경우(예를 들어 檻檻方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替木의 양 端部는 卷殺하여 첨차와 비슷한 형태로 하지만 첨차보다는 단면의 높이가 낮고 이 위에 소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첨차와 구별된다. 이상 替木은 우리나라의 '단장력'에 해당하는 부재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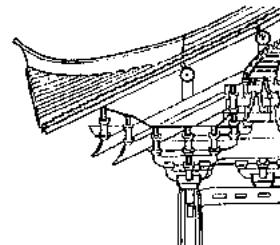
본 「營造法式」에서는 替木 아래에 구성되는 공포재의 유형에 따라 替木의 크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표.4>와 <도.16>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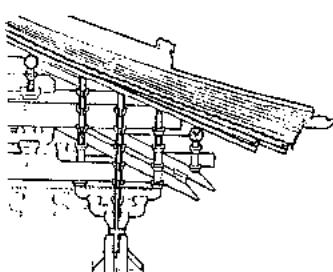
(도.8) 天津 縣 獨樂寺 山門
(출처 :『中國古代建築技術史』, p.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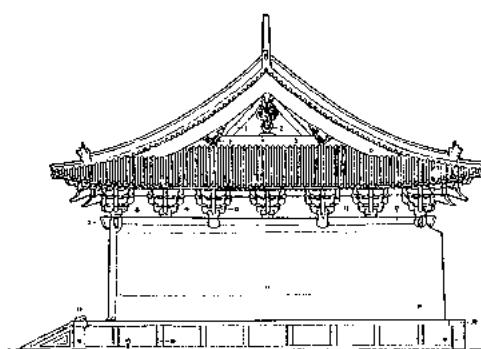
(도.9) 山西 應縣 佛宮寺 木塔
(출처 :『中國古代建築技術史』, p.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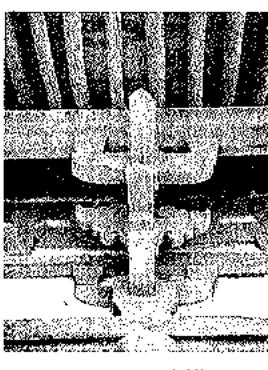
(도.10) 浙江 寧波 保國寺 大殿
(출처 :『中國古代建築技術史』, p.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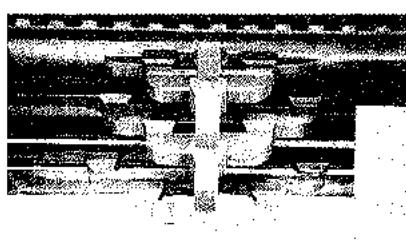
(도.11) 遼寧 義縣 幸國寺 大殿
(출처 :『中國古代建築技術史』, p. 79)



1. 托脚 2. 斗栱 3. 互草 4. 台檻 5. 平梁 6. 檻檻版 7. 牛腿 8. 離角鋪作
9. 補間鋪作 10. 拱頭鋪作 11. 枕頭草 12. 傷頭 13. 斜梁 14. 金眼 15. 上檻板
16. 框身板柱 17. 分上檻 18. 繩索 19. 斜柱石 20. 角石



산서 오대 불광사 문수전의 공포대



산서 대동 화엄사 박가교장전의 공포대



산서 대동 화엄사 대웅보전의 공포대

으로 한다.

單料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길이를 96分°으로 하 고³⁴⁾,

승棋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길이를 104分°으로 하 며³⁵⁾,

重棋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길이를 126分°으로 한 다³⁶⁾.

替木은 아래쪽 4分°을 깎아내고 윗쪽 8分°을 남겨두는 데, 아랫부분은 3瓣卷殺하며, 每瓣의 길이는 4分° 으로 한다³⁷⁾.

出際한 곳에서는 [替木의] 길이를 도리와 가지런히 한다. - 도리에 맞추어 [替木의 단부를] 가지런히 한 경우에는 替木의 하부를 卷殺하지 않는다³⁸⁾. 첨자 위에 替木을 사용하는 경우, 주간포(補間鋪作)가 서로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替木을 서로 連하여 사용한다³⁹⁾.

2-9. 檻

椽 其名有四：一曰 楠, 二曰 檻, 三曰 檻, 四曰 檻.

短椽 其名有二：一曰 檻, 二曰 禁樋.

用椽之劑：椽每架不不過六尺。若殿閣 或加五寸至一尺五寸，徑九分°至十分°。若廳堂椽徑 七分°至八分°，餘屋徑 六分°至七分°。長隨架斜 至下架 卽加長出樋。每榑上爲縫 斜批相搭釘之。凡用椽 皆令椽頭向下而尾在上。

凡布椽：令一間當間心，若有補間鋪作者 令一間當要頭心。若四裴回轉角者 幷隨角梁分布 令椽頭疏密得所 過角歸間 至次角補間鋪作心，並隨上中架取直。其稀密 以兩椽心相去之廣 為法。殿閣廣 九寸五分至九寸，副階廣 九寸至八寸五分，廳堂廣八寸五分至八寸，廊庫屋廣 八寸至七寸五分。

若屋內有平棊者 卽隨椽長短 令一頭取齊 一頭放過上架，當榑針之 不用裁截，謂之 檻脚針。

연(椽) 이 름은 네개가 있다. : 첫째 각(桷), 둘째 연(椽), 세째 죄(檻), 네째 요(樋)이다.

短椽의 이름은 두개가 있다. : 첫째 속(棟), 둘째 금편(禁樋)이다.

〈표 4〉 替木의 크기 규정

사용위치	단면		길이	단부처리
	높이	폭		
單料上	12 分°	10 分°	96 分°	下殺4分°, 上留8分°
			104 分°	하부 3瓣卷殺
			126 分°	每瓣長 4分°

34) 주두만 있는 위에 替木을 사용하는 경우이다<도.16-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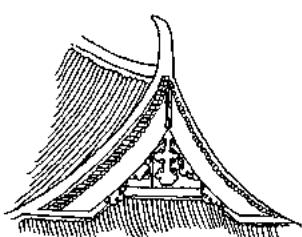
35) 單棋을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 사용되는 첨자는 승棋이 되는데, 이 승棋위에 替木을 사용하는 경우이다<도.16-나>.

36) 重棋, 즉 첨자를 2重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부에 위치한 첨자(일반적으로 梯棋) 위에 替木을 사용하는 경우이다<도.16-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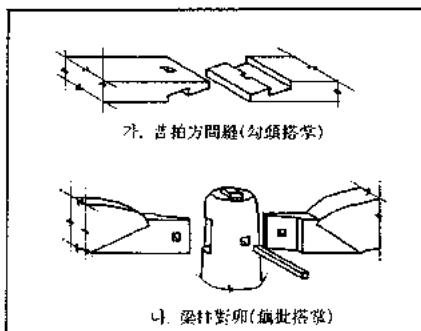
37) 替木의 단부를 卷殺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도.16-라>는 이를 노시한 것이다.

38) 梢脚에 위치한 도리의 외단부 아래에 놓인 替木에 대한 규정으로 替木의 외단부를 도리의 외단부에 맞추어 直列하고 그 하부를 卷殺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단 替木의 전물 내부쪽 단부는 앞의 규정대로 卷殺한다<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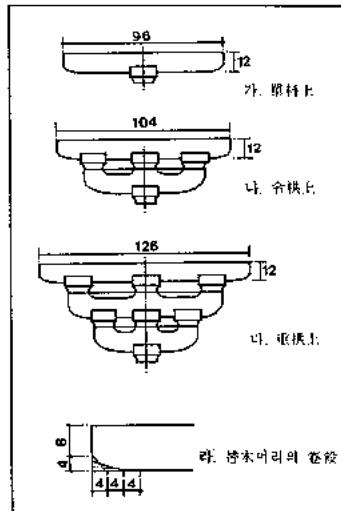
39) 주간포를 사용하는 경우 공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규정된 차수의 替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인접한 替木을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替木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의 '통상혁'가 된다.



〈도. 14〉 日本 西福寺소장
高麗觀經序品變相圖의 전각도 합각부



〈도. 15〉 卷第三十 梁額等卯口第六



〈도. 16〉 替木(장하)

서까래를 사용하는 제도40) : 서까래는 每架⁴¹⁾의 수평 거리가 6尺을 넘지 못한다⁴²⁾. 殿閣인 경우 架의 수평거리는 [앞의 6尺에] 5寸내지 1尺5寸을 더하기도 하며, 서까래의 직경은 9分° 내지 10分°으로 한다. 廳堂인 경우 서까래의 직경은 7分° 내지 8分°으로 하며, 이 외의 건물에서는 서까래 직경을 6分°내지 7分°으로 한다. 서까래의 길이는 架의 길이와 그 경사에 따르는데, 아래의 架에서는 出檐한 길이를 더 한다⁴³⁾. 서까래는 각 도리의 중심선상에서 결구하는데, 이 때에는 서까래를 경사지게 쥐어 봉을 박아

서로 결구한다. 서까래를 걸 때에는 서까래 머리가 아래를 향하고 후미가 위를 향하도록 한다.
서까래의 배열 : 인접한 두 서까래 사이의 중심이 매 칸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하며, 주간포가 있는 경우에는 서까래 사이의 중심이 쇠두의 中心線上에 오도록 한다⁴⁴⁾. 四裴回轉角에서는 모두 角梁에 맞추어 서까래를 배열하는데, 이웃한 서까래 외단부끼리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시키며, 귀부분을 지나 칸으로 가면서는 - 귀포 바로 옆에 위치한 주간포의 중심에 이르도록 하며- 上中架의 서까래 배열에 따라

- 40) '椽'은 지붕을 형성하기 위해 도리와 도리 사이에 경사지게 걸어 사용하는 나무부재로 우리나라의 '서까래'에 해당한다. 이하 번역문에서는 '椽'을 '서까래'로 번역하도록 한다.

本書에 의하면 서까래 자체의 길이와 서까래가 건물의 종방향으로 사용된 갯수는 보의 길이와 건물의 종방향 깊이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즉 보는 그 수평면상에서 받게 되는 서까래의 수에 따라 '×椽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처럼 그 위에 사용된 서까래의 길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건물의 架構은 종방향으로 사용된 서까래의 수에 따라 '×架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건물에 종방향으로 사용된 서까래의 수가 건물의 종방향 깊이와 밀접한 관계를 지님을 의미한다(앞의 2-1. 梁註 檻註 21) 참조). 本書에서는 건물의 종류에 따라 서까래에 관련된 각종 크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표5>와 <도.17~도.18>에 정리하였다.

(표.5) 서까래의 크기 및 배열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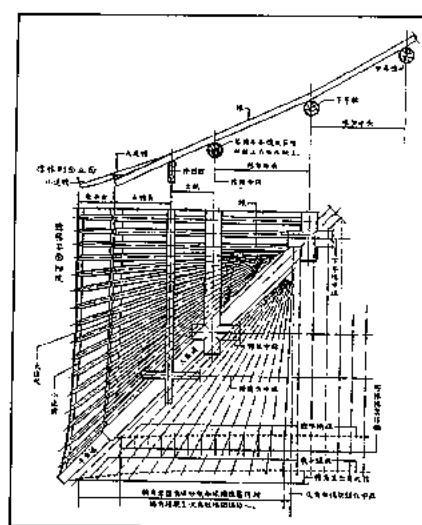
건물 종류	每架의 수평길이	서까래 직경	건물 종류	서까래간의 중심거리
殿閣	6尺이하 殿閣인 경우 5寸~1尺5寸을 더하기도 한다.	9分°~10分° 7分°~8分° 6分°~7分°	殿閣	9寸5分 ~ 9寸
			副階	9寸 ~ 8寸5分
廳堂			廳堂	8寸5分 ~ 8寸
餘屋			廊庫屋	8寸 ~ 7寸5分

- 41) '架'는 이웃한 도리와 도리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도.18>. '架'에 대해서는 앞의 2-7. 捷風版 檻의 註²⁸⁾에서 설명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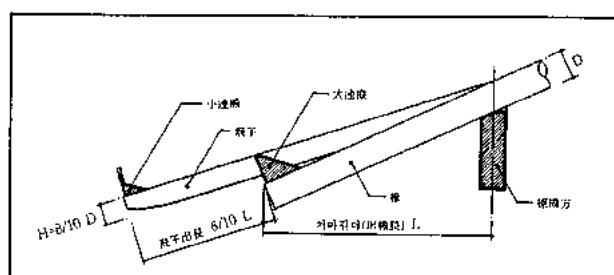
42) 每 架의 수평거리는 즉 인접한 두 도리 사이의 수평거리를 의미한다<도.18>. 따라서 여기에서의 규정은 도리 사이의 수평거리가 6尺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殿閣의 경우에는 그 거리를 6尺5寸~7尺5寸으로 길게 하기도 한다. 서까래의 길이는 여기에서 규정된 架의 수평거리에 架의 경사도를 고려한 거리로써 산정될 수 있다.

43) 서까래의 길이는 架의 수평길이와 그 경사도에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아래의 架에서는 出檐한 길이를 더한다."는 것은 최외곽의 도리, 즉 檻頭槽(또는 檻槽力)위에 걸치는 서까래에 대한 규정으로 이때 처마가 檻槽方 외부로 더 돌출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檻槽方 밖으로 돌출한 처마의 길이만을 서까래의 길이를 길게 한다는 것이다.<도.18>

44) 서까래를 배열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서까래 자체의 중심이 아닌 이웃한 서까래 사이의 중심선을 매 칸의 중심, 즉 기둥과 기둥 사이의 중심선과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주간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웃한 서까래 사이의 중심을 쇠두의 中心를 중심과 일치시킨다는 것이다<도.18>.



(도.18) 서까래와 부연의 배열
(출처: 梁思成, 「營造法式註釋卷上」, p.264)



(도.17) 서까래와 부연

51). 치마는 귀포 바로 옆에 위치한 柱間包의 중심에서부터 서까래 머리가 외부쪽으로 生出하도록 하여, 점차 角梁에 이르도록 한다⁵²⁾. 生出하는 길이는 건물이 1칸인 경우에는 4寸, 3칸인 경우에는 5寸, 5칸인 경우에는 7寸으로 하며, 5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도를 생각하여 적당히 가감한다. 角柱 안쪽의 치마 또한 안쪽을 향하여 약간 깎아내는데, 치마가 곡선으로 되어 直線이 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듯이 한다.

飛子(부연)⁵³⁾ : 서까래의 직경이 10分°인 경우, 부연의 단면높이는 8分°, 너비는 7分°으로 한다⁵⁴⁾.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이 法을 기준으로 하여 적당히 가감한다. 부연의 높이와 폭을 각각 5等分하여, 양 측면은 각각 1分씩을 경사지게 깎아내고, 아래면은 상부의 3분을 남기고 하부의 2분을 깎아낸다. 이들은 모

두 3瓣卷殺하는데 上1瓣의 길이는 5分으로 하고, 다음의 2瓣은 그 길이를 각각 4분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瓣分은 단면의 높이와 폭을 각각 5等分하여 얻은 分이다⁵⁵⁾. 부연 후미의 길이는 경사지게 치마를 따른다⁵⁶⁾. 飛子는 兩條通造로 하는데, 우선 飛翹안에서 돌출해 나온 兩頭를 제외한 후에 身內를 헤아려 치마의 길이에 맞추어 結角解開하도록 한다⁵⁷⁾. 만약 부연이 건물의 모서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위로 올라간 지붕곡선에 맞추어, 飛子의 上面을 小連檐⁵⁸⁾과 수평이 되도록 한다.

비교(飛翹)⁵⁹⁾ : 大連檐이라고도 한다. 飛翹은 단면의 높이와 폭이 모두 材를 넘지 못한다. 小連檐의 단면높이는 梁에 2分° 내지 3分°을 더하고⁶⁰⁾, 너비는 材의 너비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이들은 모두 交斜解造⁶¹⁾로 한다.

51) '飛子'는 접처마를 형성하기 위해 서까래에 덧대어 서까래 외부로 돌출시키는 부재로 우리나라에의 '부연'에 해당하는 부재이며, '飛檐'은 飛子에 의해 형성되는 치마, 즉 우리나라에서의 '부연치마'에 해당한다(張起仁, 『한국건축대계IV-한국건축사전』, p.102)<도.17~도.18>. 이하 본 번역문에서는 '飛檐'을 '부연치마', '飛子'를 '부연'으로 번역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치마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 즉 겹처마로 하는 경우 부연치마의 돌출길이를 서까래 외단부에서부터 돌출한 부연의 길이로써 규정하고 있다. 이 길이는 치마의 돌출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인 치수, 즉 「치마의 길이 : 서까래 외단부에서 돌출한 부연의 길이 = 10 : 6」의 비례로 규정하고 있다.

52) 이는 지붕의 모서리 부분에 있어서 치마의 수평곡선을 잡은 것에 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치마는 귀포 바로 옆에 위치한 주간포의 중심선에서부터 그 외부, 즉 지붕 모서리쪽으로 곡선을 이루면서 외부로 돌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돌출하는 길이는 건물의 칸수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도.18>.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후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마의 수직곡선 즉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조로'에 해당하는 기법은 앞의 2-6. <棟>條 '生頭木'의 규정에서 설명한 바 있다.

53) 여기에서는 부연의 단면크기와 단부의 가공방법, 길이 및 角材를 가공하여 부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도.17~도.19>.

54) 부연의 단면크기를 서까래의 직경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실례를 들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부연의 단면높이는 서까래 직경의 8/10으로 하고, 너비는 서까래 직경의 7/10으로 한다는 것이다<도.17, 도.19>.

55) 여기에서의 分은 材分⁶²⁾의 分⁶³⁾도 아니고 절대치수단위인 分(푼)도 아닌 부연의 단면높이와 폭을 각각 5等分하여 얻은 分이다. <도.19>에 부연의 단부를 卷殺하는 방법을 圖示하였다.

56) 여기에서 '후미의 길이'는 부연의 후미가 서까래의 외단부에서 치마속으로 들어간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수평길이는 치마의 길이와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부연 전체의 길이는 서까래 외단부를 중심으로 외부로 돌출한 길이와 치마속으로 들어간 길이(즉 앞에서 규정한 치마길이)에 치마의 경사도를 생각한 길이의 합이 된다. 즉 부연의 길이는 치마길이의 6/10에 치마의 경사도를 고려한 치마길이가 된다<도.17>.

57) 여기에서 "兩透通造"는 하나의 角材로 두개의 부연을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結角解開'는 방형단면의 긴 부재를 훑으로 잘라 모양이 똑같은 두개의 부재, 즉 한쪽은 방형단면이 되고 다른 한쪽은 경사지게 잘려진 부재로 만드는 방법이다<도.20>. 이 '結角解開'의 방법에 대해 梁想成은 '文斜解造'(이에 대해서는 뒤의 註) 참조.)와 더불어 재료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梁想成, 『營造法式釋卷上』, p.182).

따라서 이 문장은 하나의 角材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두개의 부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우선 부연의 단면크기와 동일한 단면크기를 지닌 角材를 이용하여 飛翹의 외부로 돌출하게 되는 부연의 길이 만큼은 원래의 角材를 그대로 두고, 飛翹 내부로 들어가는 부연의 후미에 해당하는 길이를 치마의 길이에 맞추어 대각선으로 잘라내면 두개의 부연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58) 다음의 註⁵⁸⁾ 참조.

59) '비교(飛翹)'는 '대연침(大連檐)'이라고도 하는데, 서까래 외단부 상부에 수평으로 놓은 긴 부재로 부연 위에 놓인 것을 '小連檐'이라 한다. 또한 서까래 위에 놓인 連檐을 小連檐과 구분하여 '大連檐'이라 부른다. 大連檐과 小連檐은 각각 우리나라에서의 '평고대(초매기)'와 '부연고대(이매기)'에 해당하는 부재이다<도.17>.

60) 즉 8分° 내지 9分°으로 한다는 것이다.

61) '交斜解造'는 방형단면의 긴 부재를 길이방향으로 잘라 단면이 동일한 두개의 부재를 만드는 방법이다<도.20>. 즉 앞에서 설명한 結角解開의 방법과 더불어 하나의 角材를 이용하여 두개의 부재를 만들어내는 방법의 하나이다.

1. 개요

몽 쟁 미셸(le Mont-Saint-Michel)은 오늘날 유럽의 중요한 관광지 중의 한곳으로 프랑스에서는 파리(Paris)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여든다. 이곳을 다녀가는 관광객은 중세기에 이곳에 왔던 순례객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도원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 양 옆은 여행객들의 차량으로 가득 차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 갯벌은 바닷물이 아닌 초지로 조성되어 있어 수많은 양떼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기 그지 없다. 수도원이 있는 지역에 거의 다다랐을 때 먼발치에서 보는 수도원의 아름다움과 호기심은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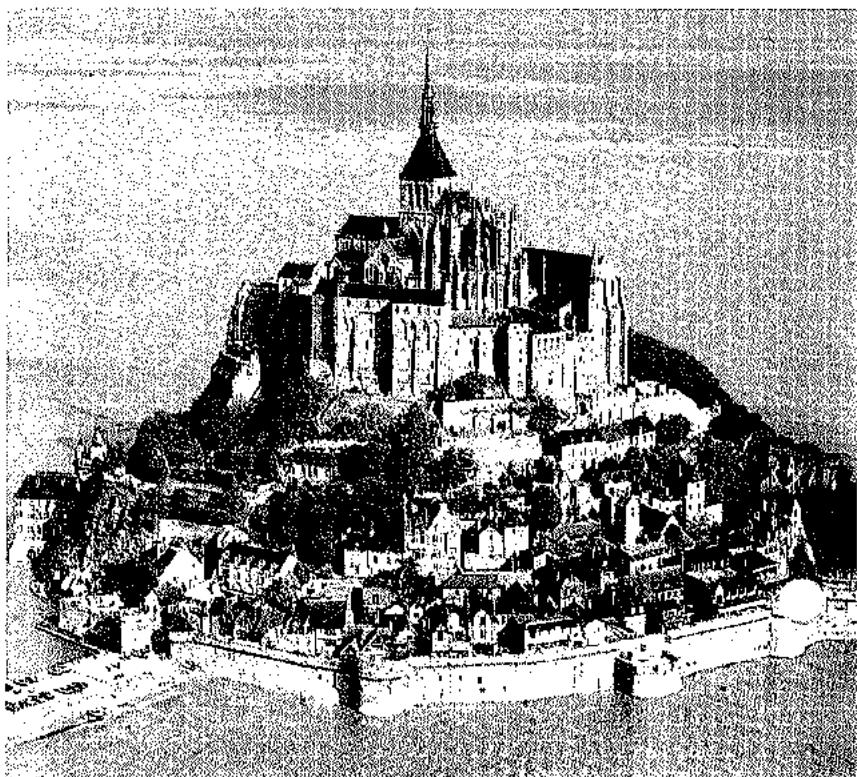
접근해 갈수록 그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어 절로 찬탄을 자아내게 한다. 그 옛날 기계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정상에까지 무거운 석재를 운반하여 건설을 하였을까를 생각하노라면 신비스럽기만 할 뿐이다. 이와 같이 큰 바위와 마을, 수도원이 형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은 몽 쟁 미셸(le Mont Saintmichel)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여기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곳에서 옛사람들의 문화와 신비에 대한 동경을 엿볼 수 있으며, 눈으로 보는 즐거움

또한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이한 지형, 대천사에 대한 숭배, 중세기 건축가의 재능이 삼위일체가 되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수도원을 돌아보는 외중에서 하나뿐인 마을길이 리시아위의 지하철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고 기념품 상점의 다양한 진열장이 옛날 주택을 음미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4)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 Le Mont Saint-Michel 수도원 -

朴孝洵/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만조시 몽 쟁미셸 수도원 전경

2. 역사적 배경

옛날에는 진흙 모래와 유사로 이루어진 모래밭이 펼쳐진 이 곳에 시씨(Scissy)나 코크愠드(Quokelunde)의 광대한 숲이 있었다. 이 곳의 빽빽한 식물들과 고분들은 신비스럽고도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죽은 이들을 제사지내는 이교도들의 신앙 결정에 유리한 역할을 했다. 원래 무덤산이라고 불리던 몽 뚩브(le Mont-Tombe)와 작은 흙 무덤이라는 뜻의 뚩브렌느(Tombelaine)는 켈트족의 신화에 따르면 죽은 이들의 영혼의 피난처인 “바다의 무덤”이었다. 또한 이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이들의 영혼은 바닷가에 있는 높은 지대로 옮겨지며 산(le Mont)의 바위는 죽은 이들의 공동묘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을 “몽 뚩브(le Mont-Tombe)” 즉, 무덤산이라고 불렀다. 기독교화하면서 무덤산은 은자들의 은신처가 되었고 후일 수도원으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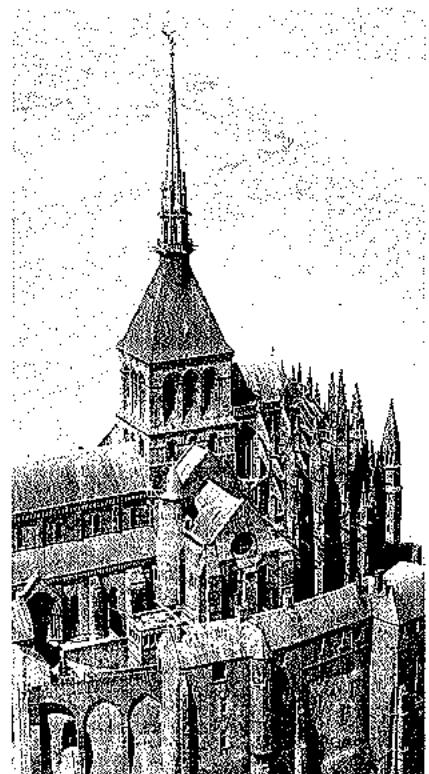
바다는 무덤산(Le Mont-Tombe)을 비롯한 주위의 연안 지방을 계속 침식했으며 해안의 침강과 709년에 있었던 해일로 인해 그 때부터 큰 바위는 작은 섬으로 바뀌는 상황에 처했지만 바위의 높이는 해발 80m를 유지하였으며 수도원 성당의 종루는 해발 150m나 된다.

그 옛날 프랑스 la Gaule의 종교인 드루이드교의 예배장소는 초기 기독교시대 은자와 수도자들이 자주 드나들던 곳으로 에티엔느(Etienne)성인과 생포리앙(Symphorien)성인에게 봉헌된 보잘것 없는 성전이 들 있었다. 그러나 중세기의 수도원장들이 자연적인 배경을 잘 살려서 성전을 건립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수도원 전물로서 보기 드문 걸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꾸에스농(Couesnon)연안에 속하지만 브르타뉴 지방과 노르망디 지방의 경계에 있으며, 광대한 모래톱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친 바위와 각은 돌로 된 함대 같은 건물이 소금기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이 노니는 목장에서부

터 기대한 조화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전경은 매우 아름답다. 때로는 태양아래서 반짝이기도 하고, 때로는 날빛 안개로 덮이기도 하는 이 경치는 해발 150m 정상에 전설의 용 테라스가 있는 피라미드식 건축을 더욱 더 웅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브랑슈(avranches)의 주교인 오베르(Aubert)의 전설로 시작되는 산의 기독교적인 역사의 근원은 대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구약 성서에서 천국의 용사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 선택받고, 콘스탄틴 황제의 보호자이며, 이탈리아의 행정 구역으로 아드리아해에 뿐이유(les Pouilles)에 있는 가르가노(gargano)산의 순례여행 고취자는 오베르에게 주보 성인으로서 바다의 위험에 대처하는 미셀성인(Saint-Michel-au-Peril-de-la-Mer)을 위한 성전을 건립할 장소로 무덤산(Le Mont Tomber)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때부터 미사는 12명의 교회참사회원들이 맡게 되었다. 몇가지 기적과 성유골의 운반으로 발미암아 초기 순례객들은 이곳에 관심을 갖게되었으며 순례객 중에는 메로빙 왕가의 셀드페르(Childebert)도 있었다. 카를링 왕조에서는 대천사가 황실깃발에 사를대제와 함께 묘사되었다. 노르만족이 침입했을 때 큰 바위는 피난처가 되었고 이곳에 작은 공동체들이 모였으며 이 공동체는 현재 마을의 시초가 되었다. 911년에는 생 클레르 쉬르엘트(Saint-Clair-sur-Epte)조약으로 노르망디 공국이 생겼고 가톨릭으로 개종을 한 공국의 첫번째 군주인 롤롱 르 다누아(Rollon le Danois)는 수도원이 있는 산(le Mont)을 보호했으며 아울러 롤롱 르 다누아의 계승자들의 시여로 수도원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면서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었다. 노르망디 공국의 세번째 군주인 리샤르(Richard)1세는 교회 참사회원단을 30명의 베네딕트회 수도사들로 교체했는데 이 당시 속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수도원장이 이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을 선발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이들을 교체하게 된 것이다. 수도



성벽과 가옥



위에서 본 둑 생 미셸 수도원의 전경

원장들 가운데 첫번째 수도원장인 쟁 방드리유(Saint-Wandrille)의 선임 수도원장 메이나르(Maynard)는 학자들과 문인들을 위한 양성소를 세웠다.

뇌스트리가 노르만족의 지배 하에 들어갔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몽 쟁 미셀의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한 롤로니드 리샤드(Rollonide Richard)2세는 산을 기부하고 수도원 성당에서 브르띠뉴의 줘딧(Judith)과의 결혼식을 거행하였고 수도원장 일드베르(Hilldebert)2세와 협력하여 더 넓은 베네딕트파 수도원을 1017년부터 1023년까지 건설했으며 또한 수도원장의 선택권리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건설된 건물 중 현재는 중앙회중석과 좌우익부만 남아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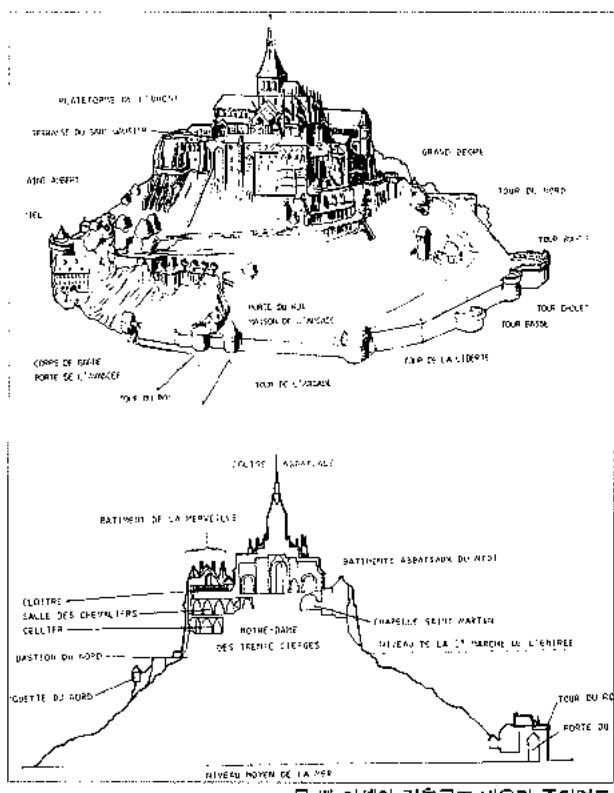
원칙적으로 교황이 아닌 대천사에게 속한 수도원은 노르망디 공국의 영지가 되었는데(966년) 공작들은 몽센 미셀의 명성에 대해 염려를 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그들은 성스러운 이곳을 순례객들에게는 강한 인상을 주고 쟁 미셀에게 어울리는 장소로 만들 것을 결정했다. 옛 성당을 파괴시킨 992년의 화재이후 수도원장 일드베르(Hildebert)2세 치하에서 전대미문의 과감한 설계를 구상했다. 즉 바위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대형성당을 건립하기로 한 것이다.

그 당시의 참고 자료상에는 999년 성방 기독교도들이 세상의 종말을 걱정한 혼적이 별로 없으므로 오늘날 “천년의 공포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중세기 내내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재림의 소문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천년을 엄청난 희망이나 구원으로 맞고 있었다. 종말론의 공포에 사로잡힌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모두 성전으로 놀려들었고 그 중에서도 몽쌩 미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수 없이 많은 기증으로 몽쌩 미셸은 부유해졌고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에서 죽거나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친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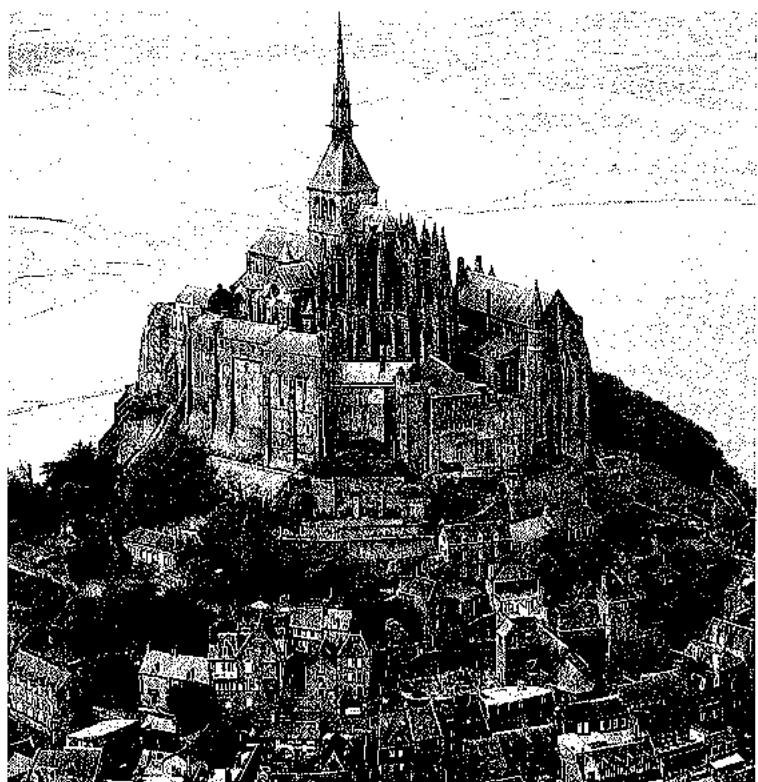
이곳에 묻기 원했으며 자리가 없었던 관계로 기부를 많이 한 공로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청자는 거절을 당했다. 이로인해 수도원은 거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1000년에 성당은 반쯤 타버린 벽만 있었으나 대건축물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대건축물은 건설시 대천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바위는 파손하지 않은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것과 건물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강한 석토대와 테라스가 있는 건물로 길이는 80m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르만족 공작들의 시여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창한 사업이었다. 바위는 생긴 형태가 피라미드 모양이고 동쪽에 있는 성당의 후진과 서쪽에 있는 네개의 트라베(Travée)는 땅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덧붙인 건축물인 지하묘소, 지하독방과 부속건물 등의 위에 건립되어 있다. 테라스와 후진은 1023년 일드베르(Hildebert)가 생존해 있을 때 건립되었고 로마네스크식 중앙회중석은 11세기 말경에 건립되었다. 이 중앙회중석을 건립하기 위해 서쪽면의 옛날 수도원 건물을 허물고 다시 건립하기도 하였다. 1020년부터 몽쌩 미셀은 공사장으로 변했으나 운집하는 순례객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왕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쇄도했으며 이들은 대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 기부할 수 있는 모든것을 내놓았다. 몽쌩 미셀 수도원의 도서관은 프랑스에서 가장 훌륭한 곳이었으며 양질의 수사본이 있는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다.

건물에 사용한 돌을 해안의 채석장에서 채굴하여 그 자리에서 잘라 썰물 때 모래밭으로 운반한 다음 황소들이 고는 흔양기나 지례를 이용하여 비탈로 끌어올렸다. 돌 불럭을 끌어올리고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 고도의 능력 있는 기사들이 필요했었고 기사들과 건축가들의 어려운 그룹이 발전된 공법을 계승하며 공사를 이끌었으나 그들의 이름은 이쉽게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노르망니지



몽 쌩 미셸의 건축구조 내용과 주단면도



몽 쟁 미셀 수도원 전경

방은 건축에 있어서 골(Gaule : 옛 프랑스)의 다른 지방보다 앞서 있었다.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도배를 타고 또는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산(le Mont)으로 왔다. 순례객들은 조수의 한가운데 바다 위쪽으로 중앙회중석이 서서히 건립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리샤르(Richard)3세와 기욤 르 꽁께랑(Guillaume-le-Conquerant) 치하에서 수도원은 계속 발전했으며 생마셀(Saint-Michel)의 깃발은 깔레 해협에 있는 영국의 항구이며 기욤 르 꽁께랑이 해롤드 2세에 승리했던 곳으로 유명한 아스팅(Hastings)에 있게 되었다.

이후 꽁께랑의 친구였던 수도원장 라넬프 드 베이외(Ranulphe-de Bayeux)가 성당의 북쪽 일층에는 북풍의 지하실, 2층에는 산책장, 3층에는 침실이 있는 3층건물을 지으려고 시작했다. 1112년에 있었던 낙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다 발전된 건축기술을 이용하여 수도원장 로제2세가 재공사를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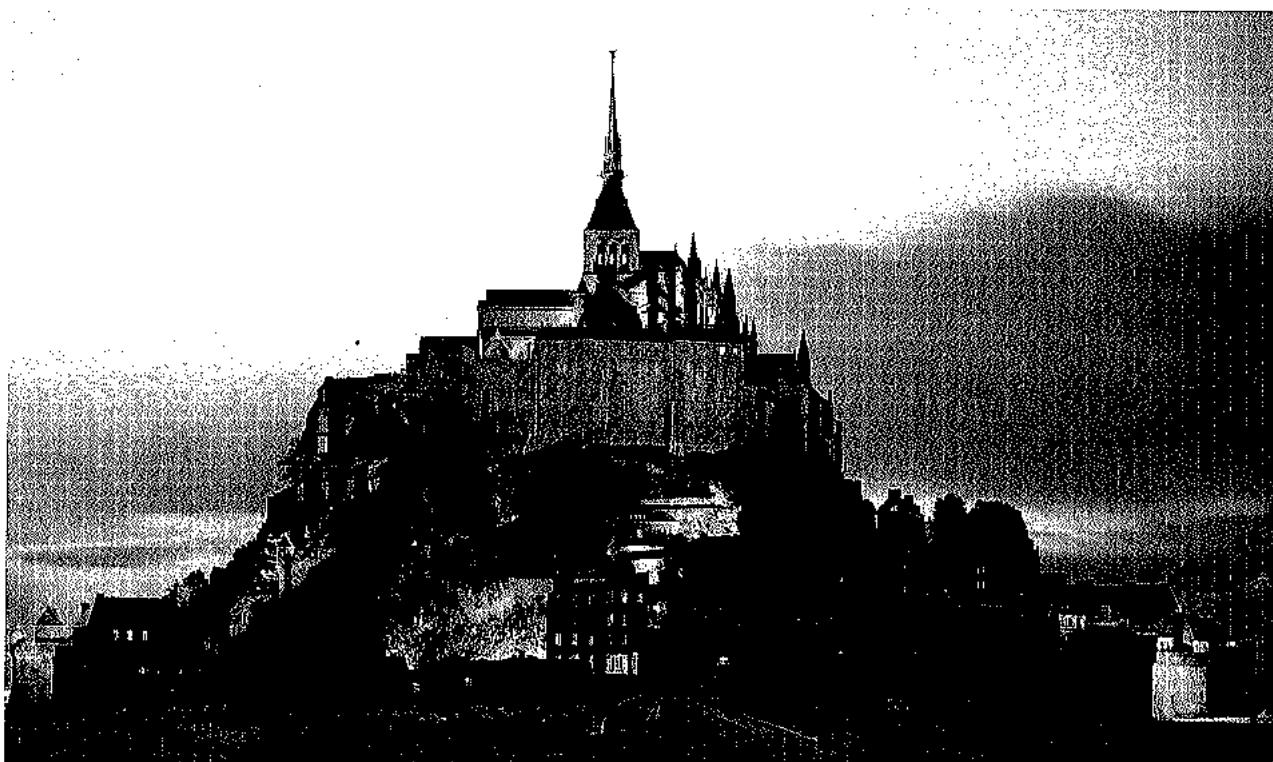
이어서 수도원장 베르나르 뒤 베(Bernard-du Bec)은 좌우익랑의 교차점 위에 첫번째 석종루를 건립하고 1131년부터 1149년까지 성당공사를 계속했다.

베네딕트회의 수도사인 로베르 드 토리니(Robert de Thorigni)가 주교가 되어 수도사들의 지적 예술적 활동을 장려하고 할력을 불어넣기도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수사본과 채색삽화의 제작, 고대 작품들의 연구와 스콜라 학파의 연구 등에 대해 체계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동체가 약 60명으로 증가하였으므로 남쪽에 여관과 의무실을 증축하고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 정문앞인 서쪽에는 현관문과 두 탑을 건립했다. 현재는 탑의 토대만 남아 있어 아쉬울 뿐이다.

80세로 로베르 드 토리니(Robert de Thorigni)가 생을 마감할 때 수도원은 중세의 명상과 학문의 금자탑으로 추종을 불허하는 크나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필립 오귀스트(Philippe-Auguste)가 노르망디를 재정복할

때인 1204년 필립 오귀스트의 인척인 브르마뉴 사람 귀드 투아르(Guy de Thouars)가 산에 불을 질렀으나 왕은 수도사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보상해주고 훌륭한 대건축물을 건립하도록 배려를 했다. 후일 이곳에는 네 명의 수도원장이 재임하게 되었는데 네 명의 수도원장과 함께 몽셍 미셸(le Mont Saint-Michel)은 건축적 개념에서 뿐만 아니라 왕권의 방어 측면에서도 완전히 프랑스식이었다. 몽셍 미셸의 건축에 도입한 새로운 양식은 일 드 프랑스(Ile-de-France)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고딕예술이었다. 13세기 노르망디 건축의 이 결작품을 올바로 감상하려면 북쪽면에서 보아야 한다. 대건축물은 먼저 부속사제의 사제관, 응접실, 수도원 식당이 포함된 오른쪽 건물과 저장창고, 기사들의 방과 수도원 경내 회랑이 있는 왼쪽 건물로 나뉘어 건립되었다. 독실한 신자였던 생 루이(Saint Louis)왕이 집권했을 때 고위 성직자였던 리샤르 투스탱(Richard Tusten)과 마음이 맞아 왕은 이곳에 순례여행을 오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 때부터 수도원은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화려한 대건축물을 잘 보전되지 못하여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 건물의 아름다움을 최대로 고려하면서 도피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공사를 하게되었다. 왕이 재정적 지원을 하여 마을과 수도원의 높이에 이미 있었던 방어적인 취약부분을 북쪽 절벽에 보루의 부속건물을 짓으므로써 보강시켰다. 이와 같은 보수 및 보강 공사를 하였음에도 사람들은 산이 비락을 유인한다고 말할 정도로 산은 낙뢰로 인해 여러번 화재를 입어 많은 손상이 있었다.

1300년에는 낙뢰로 인해 종루가 파괴되었으나 프랑스의 왕 필립 르 벨(Philippe le Bel)이 재건축 비용을 부담하여 1311년 재단이 복구되었다. 수도원은 확장되고 튼튼한 벽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1350년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마을과 수도원이 황폐하게 되었고 수도



몽 생 미셸 수도원의 일몰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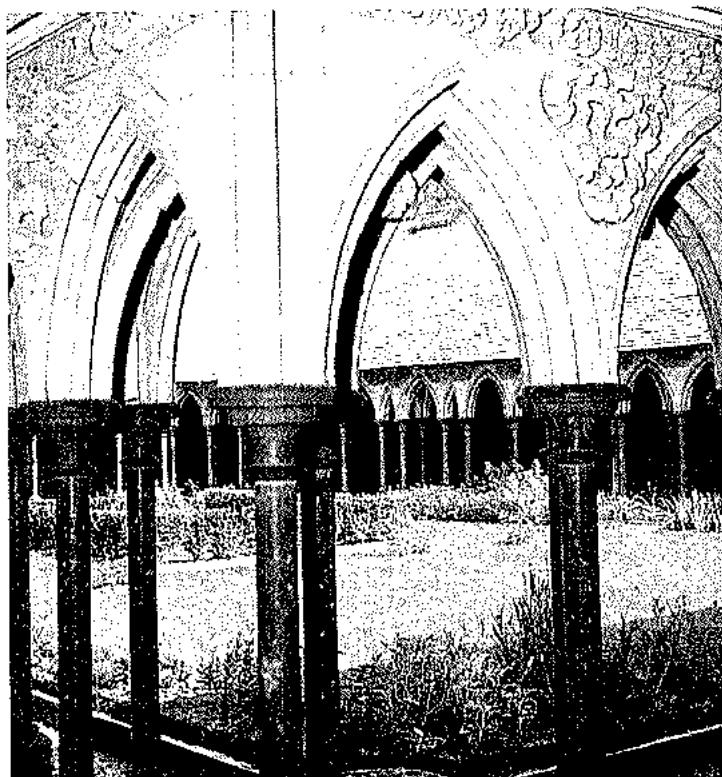
원장 니꼴라 르 비트리에(Nicolas le Vitrier)가 수도원을 아름다운 색유리로 아름답게 꾸미고 성벽을 보강했다. 백년전쟁이 예측될 때 방어시설을 보충하고 의병을 조직하므로서 필립 르 벨과 그의 세 아들 치하에서 몽 쟁 미셸의 군사적 역할은 뚜렷이 입증되었다. 영국인들은 뚩브렌노에 매복하고 있었고 군인이 된 수도원장들은 여러 곳의 공격지에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포가 벌날 함께 따라 성벽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수도원에는 거대한 저수조를 만들었으며 입구와 탑 앞에 외보를 건축하는 등 방어시설의 시스템도 개선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몽 쟁 미셸은 백년전쟁 동안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하여 수도원은 보루로 바뀌었으나 군사작전의 와중에도 순례객들은 계속 몰려와 운집하였다. 1421년 성당의 내진이 붕괴하여 초대 수도원장이며 추기경이었던 기욤(Guillaume)이 재건축을 시도했고 기욤 드 랑(Guillaume-de-Lamp) 수도원장이 뒤를 이어 건축을 계속했다. 순례여행은 계속 되었고 루이(Louis)11세는 1469년 왕의 칙령에 의해 쟁 미셸의 훈작 사단을 설립하면서 확고부동한 프랑스의 왕권을 위해 이곳의 산(le Mont)을 찬양했다. 그러나 수도원장의 직록보다 수입에 관심이 많았던 수도원장들은 더 이상 건축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보존 유지공사를 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산(le Mont)은 칼빈파의 우두머리인 몽고메리(montgomery)가 개입했던 종교전쟁동안 잘 견디어냈으나 그것은 조락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 1622년 수도사들은 쟁 모르(Saint-Maure)의 베네딕트회 수도사들로 대체했다. 절대군주하에서 산(le Mont)은 무기력 했으나 산(le Mont)을 매우 오만하다고 생각했던 세비네(Sevigne: 서한가, 풍부하고도 개성있는 언어를 사용함) 부인의 방문도 받게되었다. 산(le Mont)은 본의 아니게 봉인장의 희생자들을 유숙시키는 정치적인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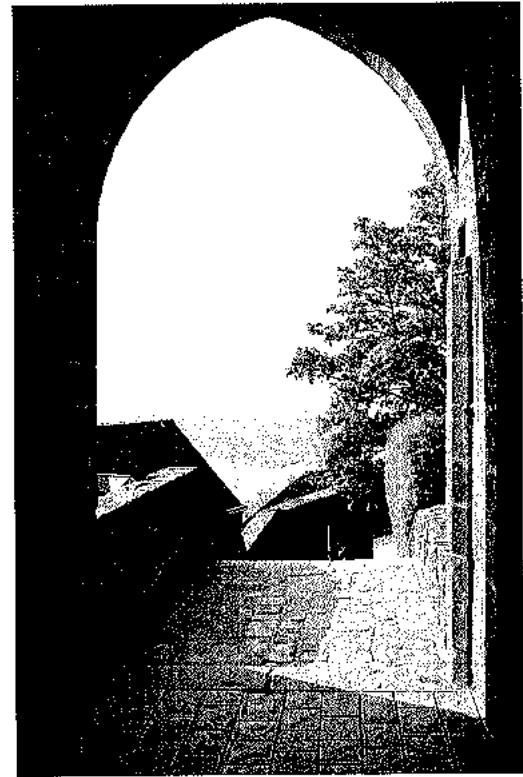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루이(Louis)11세에 의해 설치된 금찍한 철창 속에 감금되었고 샤르트르(Chartres)의 공작, 루이 필립(Louis Philippe)은 1777년 죽었다. 한편 혁명가들은 대천사 쟁 미셸(Saint-Michel)을 수도원을 구한 자유의 수호신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 당시 산(le Mont)은 “자유의 산(Mont Libre)”이라는 새로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혁명 당시 성직자 현장에 따라 선서하기를 거부하고 반항하는 300명의 신부들이 이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1863년 나폴레옹(Napoleon)3세 때에야 비로소 감옥은 없어졌지만 수도사들이 다시 산(le Mont)으로 복귀한지 20여년이 지난 후인 1874년 수도원은 역사 기념물 보존위원회(Les Monuments Historiques)의 서비스를 받게되고 새로이 단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1886년 수도원 성당은 속인들에게 개방되었고 1922년에는 수도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었다. 현재는 1세기전부터 미술학교(des Beaux Arts)의 건축가들이 강화 복원사업에 그들의 재능을 할애하고 있다.

3. 대천사 쟁 미셸

약 5세기경에 한 수도회가 창립되어 애브뢰(Evreux)의 주교 고(Gaud)와 6세기의 빼르(Pair)를 성인으로 배출한 몽 쟁 미셸은 이미 성지로서, 8세기에 무덤 산은 대천사 쟁 미셸을 숭배하기 위한 장소로 선택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대천사는 아브랑슈(Avranches)의 주교 오베르(Aubert)에게 발현하여 산(le Mont)을 자신을 위한 예배장소로 조성되도록 명령했다. 의심많고 고집센 주교에게 대천사 쟁 미셸은 손가락으로 그의 머리를 쳤다고 한다. 대천사의 손가락이 만든 구멍이 오베르(Aubert)의 두개골에 남아 있으며 성유골 함 속에 이 두 개골이 보관되어 있다.



수도원 경내 회랑



출입구에서 바라 본 외부전경

주교 오베르(Aubert)는 산(Le Mont) 위에 성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대천사의 성유골을 찾아오도록 수도사들을 뿌이유(Ies Pouilles)에 있는 가르가노(Gargano)산으로 보냈다. 709년 10월 16일 기적의 성유골이 있는 가운데 무덤 산은 쟁 미셸에게 봉헌되었다. 무형인 대천사가 뼈가 있었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자주색 배일 조각, 그의 발자국이 찍힌 대리석 판과 독일 남부지방인 바이에른에 있는 미셸스베르그(Michelsberg)에서 보니파스(Boniface)성인이 수집한 대천사 날개의 깃털이 아직 남아 있었다. 중세기에는 물질과 정신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의 신비한 신체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날개와 망또를 갖추고 유형적인 악마를 칠 수 있는 창을 지닌, 죽지할 수 있는 신체를 가졌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면 쟁 미셸은 누구인가? 카톨릭교에서 그는 가장 존경받는 성인들 가운데 속하며 전례양식에서는 성모마리아 다음에 위치하며 하느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유태교와 이슬람교에는 그들의 천사 “미카엘(Michael)”이 있다. 하느님과 닮았다는 뜻의 미카엘은 히브리교에서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책임진 선의 힘을 의미한다. 기독교가 생긴 이후 쟁 미셸은 신의 위치에 놓여있게 된 것이다.

쟁 미셸은 보통의 성인들과는 다르다. 그는 온통 무시무시하고 불잡을 수 없는 빛으로 이루어져 놓은 곳에 멀어지는 번개와 같은 존재로 요란한 폭풍우 속에서 악마와 싸우며 승리의 신으로 악을 근절시키는 천사,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초자연적인 빛의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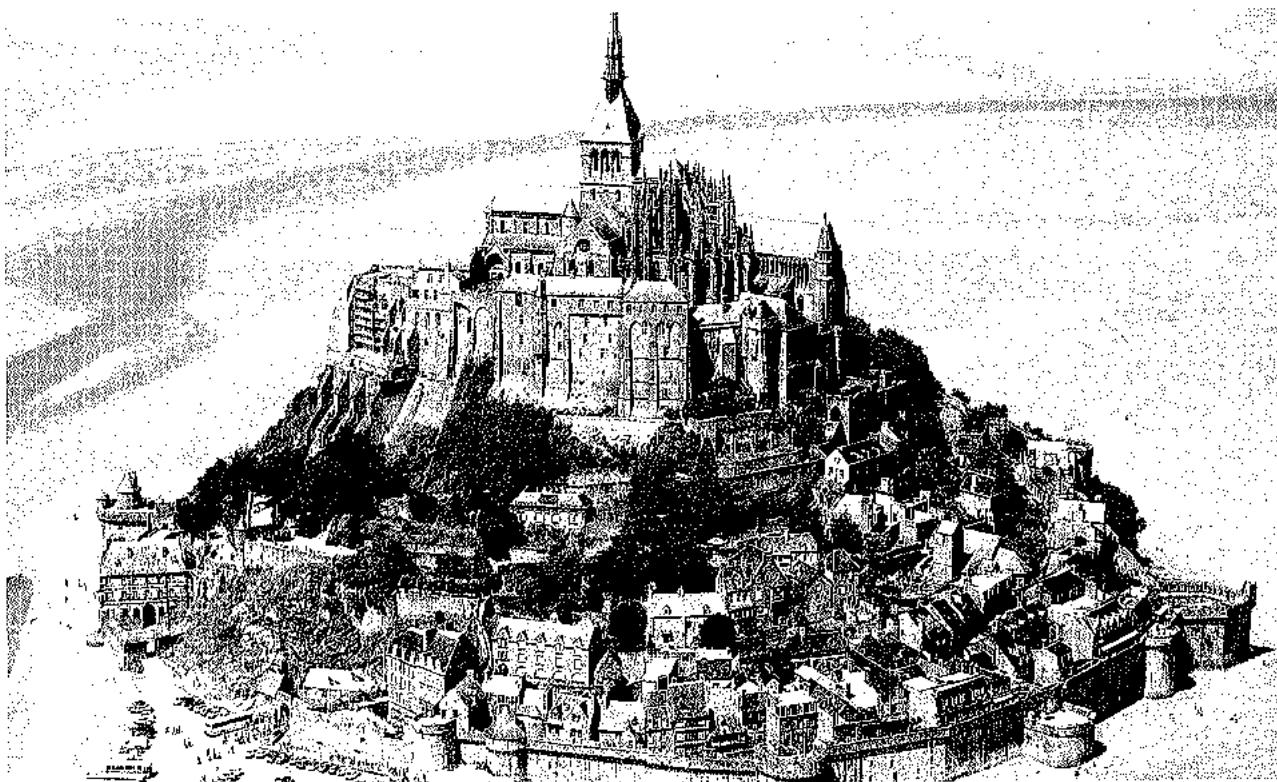
후일 고딕 양식의 대성당 합각벽에 손에는 저울을 든 거대하고도 평온한 모습의 쟁 미셸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으나 13세기에는 안심한 표정의 미소띤 얼굴을 한 쟁 미셸로 표현했다. 민중들은 이 천국의 무사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일 잔 다르크는 초인적인 미의 형상을

한 “승리의 예고자” 쟁 미셸을 보기도 하였다. 8세기에는 쟁 미셸이 지나간 흔적을 오베르(Aubert)의 구멍뚫린 두 개골, 자주색 베일, 흰 깃털 발자국 등 눈으로 볼 수 있었으나 15세기에 이르러서는 남아있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도원의 연대기 작자들에 의하면 대천사에게 바치는 첫번째 성전을 건립했을 때 지진과 해일을 동반한 폭풍우가 갑작스럽게 몰아쳐 바위는 해안과 연결이 되면서 나무가 우거진 평원은 물에 잠기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리하여 무덤산(Le Mont-Tombe)은 섬이 되었다.

무덤산은 몽 쟁 미셸(Le Mont-Saint-Michel : 쟁 미셸의 산)이 되었으며 전설적이고 기적적인 분위기속에서 죽은 이들의 장엄하고 고독한 섬인 대천사의 바위는 매우 빨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으로 바뀌었다. 710년 교황은 산의 수도사들에게 귀중한 성유물을 선물로 줄 정도로 명성이 높아졌고 네스트리(neustrie : 프랑크 왕국의 서부)의 왕 칠드베르(Childebert)는 이곳에 기도를 하려와서 쟁 미셸에게 많은 선물을 했다. 가장 유명한 순례객들이 승리의 신에게 기도를 하려 이곳에 왔으며 샤를대제는 공식적으로 쟁 미셸의 보호아래 그의 왕국을 밟겼다. 그 당시 쟁 미셸의 보호를 방패로 삼은 성전은 아일랜드에서 백해까지, 칼라브리아(이탈리아의 서남지방)에서 피레네까지 전 유럽에 걸쳐 약 백 여개나 되었다. 10세기에는 쟁 미셸에게 봉헌된 수도원이 180군데나 되었다. 992년에는 하늘에서 혜성이 나타나 몽 쟁 미셸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그 때까지 노르만족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았던 몽 쟁 미셸은 하느님을 믿지 않던 북유럽인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했다.

4. 마을과 방어시설

제방 위에 건설된 입구의 도로는 성벽에 맞대어 두둑을 만들었고 아케이드 탑(la Tour de l'Arcade)과 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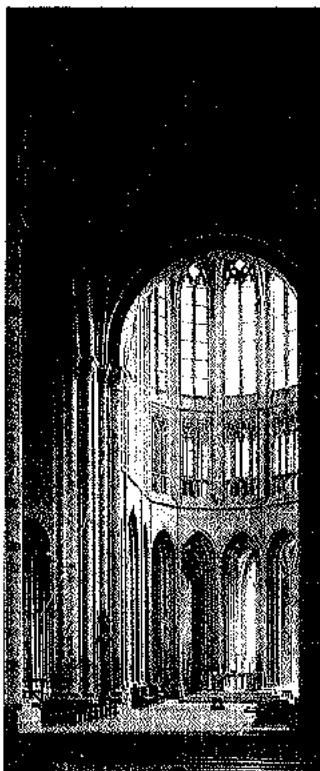
간조시 몽 쟁 미셸 수도원 전경

탑(*la Tour du Roi*)의 토대가 입구의 도로속에 묻혀 있다. 두 탑은 마을 입구를 방어하고 있으며 15세기 수도원장 로베르 줄리베(Robert Jolivet)가 건립한 성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대조 때 유용한 인도교가 성벽을 가로질러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 전진초소는 마을 위병대와 함께 1531년 국왕 대리관에 의해 설립된 보조 방어대에 속한다. 총안 앞부분에 설치되어 우스개 소리로 “작은 미셸”이라는 별명이 붙은 구포 두 대는 백년전쟁 동안 영국군이 버리고 간 것이다. 큰 길(Boulevard)이라고 불리우는 두번째 문은 방어공사를 한, 같은 이름의 마당과 연결되어 있다. 탑 옆에 있는 “왕의 문(*la Porte du Roi*)”은 옛날에는 도개교의 앞에 있던 문으로 내리 달이 창살문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마을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 마을로 이어지는 이 길은 포석을 깎아 거친 길로 이 길을 따라 어부들의 집, 여관, 가게, 민속풍의 레스토랑과 음식점을 겸한 시골풍의 술집 등의 옛날 집들이 안접해 있다. 보루의 내부에 마을이 발달해 있고, 박공과 돌출부, 눈에 띄는 대들보와 창살대가 있는 창문이 갖추어진 집들은 노르망디의 민간 건축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지어진 생 피에르(Saint-Pierre : 성 베드로) 본당의 성당은 봉납물로 장식된 작은제단에 흥갑을 입고 왕관을 썼으며 사나운 시선을 한 미셸 대천사의 은 입상이 보존되어 있다. 그는 악의 상징인 용을 짓밟고 서서 검으로 죽이기 전에 십자가가 번쩍이는 방패를 내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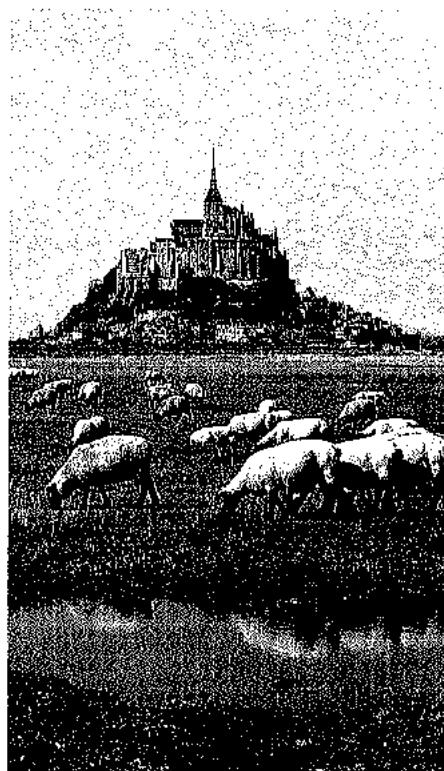
5. 수도원

5-1 수도원의 건축적 개요

수도원은 14세기 수도원장 피에르 르 루아(Pierre le-Roy)때 건설된 크레노가 있는 외보에 의해 방어되었다.



성당내의 중앙회중석과 주제대



수도원과 양데들



대천사 생 마셀 동상

작은 성체와 같은 수도원의 높은 정면과 통하는 문은 하나뿐이다. 옛날에는 내리 달이 창살문으로 막았던 이 문은 이른바 “심연”이라고 불리우는 계단을 통해 보초실과 이어진다. 이 층에 있는 종교 재판실에서는 수도원장이 판결을 내리곤 했는데 이 곳을 화려한 자리라는 의미로 이른바 “아름다운 의자(Belle Chaise)”로 불렸다. 보초실은 13세기에 건립된 아름다운 의자(Belle Chaise)의 일부이다. 궁륭형이며 큰 벽난로가 있는 보초실의 바닥은 바위를 계단으로 만들어 자연적인 경사를 처리했다. 수도원 건물전체는 수도원의 발달상황, 방어적인 기능과 가파른 지형과 같은 자연 등을 고려한 예외적인 설계로에 의거하여 건립된 복잡한 건축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베네딕트회의 수도원들은 수평적으로 건립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대단한 수직적 층첩기술로 10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 공사를 계속했다. 공사시기에 따라 건축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서쪽의 반타원형 부분으로 바위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오래된 부분들이 여기에 속한다. 두번째는 고딕양식으로 바위 동쪽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중앙에는 동쪽방향의 지표가 있는 즉, 내전이 동쪽에 위치해 있고 건물이 동향인 수도원 성당이 우뚝 서 있다. 수도원 성당의 남쪽은 장식이 없는 좁고 두꺼운 성벽으로 북쪽은 놀랍다는 뜻의 메르베이유(Merveille)라는 이름의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다. 90계단으로 된 “그랑 드그레(Grand Degre)”를 올라가면 수도원을 계속 돌아볼 수 있다.

성당과 수도원의 남쪽건물들을 이어주는 방어공사를 한 다리를 지나면 옛날 상태로 복원한 두번째 다리가 있다. 두번째 다리를 지나 역시 복원한 수도원장 저택의 저수조를 지나면 “쏘 고티에(Saut Gautier)”라 불리우는 테라스에 이르게 된다. “쏘 고티에” 테라스는 이곳에서 투신했던 죄수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도원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쏘 고티에 테라스에 이어진 서쪽 테라스에 서면 모래사장 저쪽으로 육지 같기도 하고 바다 같기도 한 독특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수도원 성당은 산의 중심이면서 바위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중앙회중석과 고딕양식의 내진으로 완연히 다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마네스크 중앙회중석의 남쪽면이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라널프(Ranulphe) 수도원장이 재직했던 1054년에서 1084년 사이에 건설되었다. 지주는 정사각형의 기둥으로 되어 있으며 네 귀퉁이에는 벽에 박힌 원주가 있다. 반원형아치는 특별석의 쌍생창과 특별석 위쪽의 높고 좁은 창문보다 더 높이 올려져 있다.

중앙회중석의 북쪽 면은 1103년 성당이 붕괴된 후 12세기에 재건축을 했으며 벽을 더 두껍게 하고 뾰족 아치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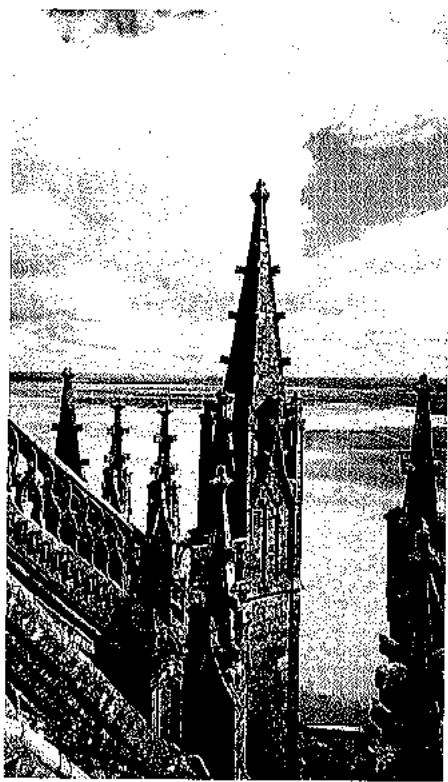
로마네스크 양식의 내진은 완전히 없어져서 수도사들이 1482년에서 1521년까지 화려한 고딕양식인 플랑브와 양 양식으로 전립했다. 빛이 들어오는 트리포리움(측랑 상부의 창)과 높고 가느다란 창, 방사상의 작은 제단이 다섯 있는 후진 주위의 회랑 등은 매우 우아하고도 정묘하게 제작되었다. 부벽 속에 있는 “레이스 계단(‘Escalier de Dentelle’)”이라 불리는 나선층계를 통해 올라가면 외부 테라스에 도달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투조세공을 한 돌 조각들이 위로 높게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종루 꼭대기에 있는 대천사의 발밑에 서면 그랑빌(Granville)에서 깡깔(Cancale)에 이르기까지 23km의 해안선이 보인다.

5-2 지하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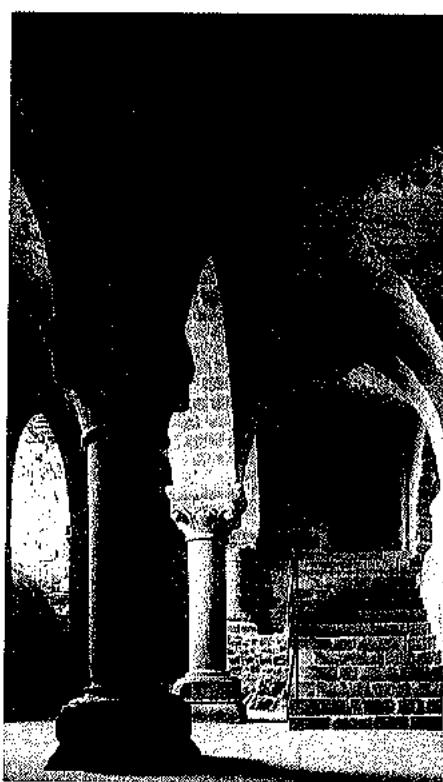
내진과 좌우익랑 빌에는 지하묘소가 있다. 북쪽에 있는 “노트르담 데 트랑트 시에르즈(Notre-Dame des Trente Cierges)”와 남쪽에 있는 “쌩 마뗑(Saint-

Matin)” 지하묘소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며 동쪽에 있는 지하의 묘소는 고딕양식이다. 이 세 지하실은 둘레가 5m인 굽은 기둥 10개로 된 상층의 내진을 받치고 있다. 중앙 회중석 아래에 있는 서쪽 지하묘소는 전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조출한 지하묘소로 초기의 성유골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서쪽 테라스 바로 밑에 있는 이 지하묘소는 중세기에는 땅 밑에 있는 성모마리아의 예배에 사용되었던 곳으로 가운데 기둥에 아케이드를 둘 없어놓은 좁은 공간이다. 이곳은 1908년 발굴작업을 했을 때 발견되었다. 서쪽면에서 북쪽에는 3층으로 된 건물들이 있으며 맨아래층에는 순례객들을 맞이했던 라크립트 드 라킬롱(la Crypte de l'Aquilon)이 있다. 약 30m 정도의 중앙회중석은 12세기 때의 것으로 교차궁륭이며 2층으로 되어있다. 꺼칠꺼칠한 원통형 기둥은 토대부분이 정방형이며 기둥머리는 두터운 당초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바위의 거친 돌이 보이는 복도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수도사들의 산책장(le Promenoir des Moines)”에 이른다. 1138년에 건립된 곳으로 고딕식 궁륭으로 되어있고 순례객들을 맞이했던 곳과 마찬가지로 중앙회중석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 세 번째 층에는 길이의 2/3가 없어진 수도사들의 침실(le Dortoir des Moines)이 있다.

서쪽면에서 남쪽으로 있는 건물들은 로베르 드 토리니(Robert de Thorigni)가 건립하게 한 것으로 특히 “쌩 빼띠엔느(la Saint-Etienne)의 작은 제단”이 여기에 속한다. 쌩 빼띠엔느의 작은 제단은 납골당으로 사용되는 쏘 고티에(Saut Gauthier)의 토대와 연결되어 있다. 이곳에서 쇠로 둘러댄 큰 나무바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9세기의 것으로 몇몇 죄수들이 돌리던 것이다. 포로들의 식사를 위쪽까지 옮기기 위해 사용했던 줄이 권양기로 감겨져 있다. 이 처참한 지하실을 지나 위쪽으로 올라가면 북쪽 측면에 이르는데 이곳이 웅장한 “메르베이



성당의 외부구조



지하묘소



포로들의 식사 운반용 권양기

유(*la Merveille* : 놀라운 곳이라는 뜻)"이다.

5-3 사제의 저택

13세기 초기 베네딕트회의 수도사들에 의해 건립된 고딕양식의 건물로 필립 오귀스트(Philippe-Auguste)가 그 후원자로서 건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하늘을 향하고 있는 이 건축물은 접근할 수록 위를 향해 높이 빨어있는 느낌이 더든다. 각 층은 세로방향으로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맨 아래층에 있는 부속 사제의 저택은 보통의 순례객과 극빈자들은 이곳에서 맞이 했으며 내부가 교차궁륭으로 되었고 6개의 원통형 원주로 나뉘어져 있다. 부속 사제의 저택 위쪽에는 유명한 방문객들만 맞이하던 "귀빈실(*la Salle des Hotes*)"이 있으며 같은 층에는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저장창고가 있다. 첨두형 궁륭으로 된 중앙회중석은 기둥머리를 나뭇잎 장식으로 처리한 가느다란 원주들에 의해 두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35m에 이르는 넓은 내부, 높고 밝은 창, 서구식 박공이 있는 한쌍의 큰 벽난로 등은 아래층의 내부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5-4 기사들의 방과 기록실

귀빈실 옆에는 "기사들의 방(*la Salle des Chevaliers*)"이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는데 18세기에 루이(Louis) 11세가 창립한 수도회의 집회가 이곳에서 열렸다고 하여 기사들의 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옛날에는 수도원의 건물속에 "기록실(*le Scriptorium*)"이 있었다. 이곳에서 수도사들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사본 제작과 같은 지적 수작업에 종사를 했는데 이 수도원의 기록실에서는 채색 수사본을 제작했다. 그 규모가 26m×18m인 큰 직사각형 기록실은 세줄의 원주에 의해 내부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식물장식의 기둥머리 위로 첨두형 아치의 리브와 내들보가 이어져 있다.

맨 위층은 초기 고딕양식의 작품으로 밝고 우아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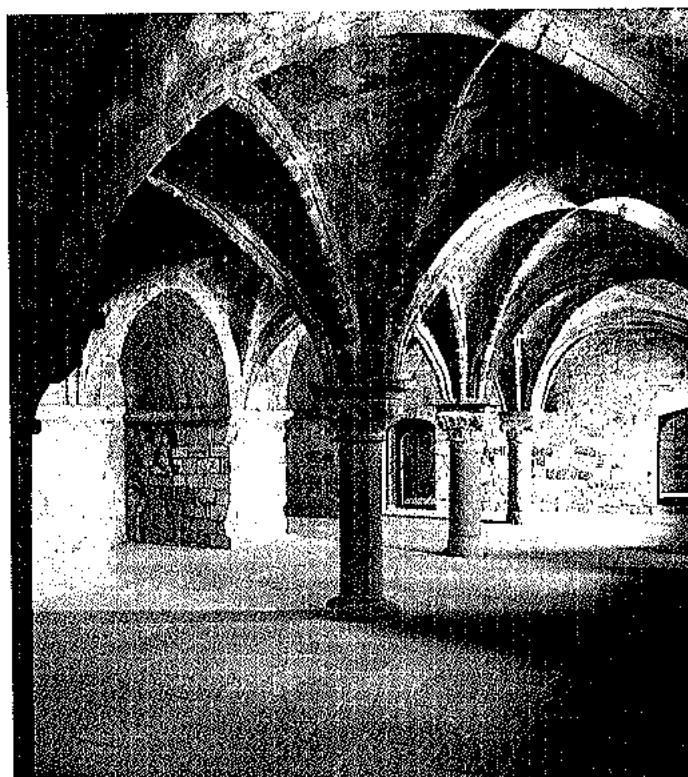
5-5 수도원 식당

동쪽면에 있는 수도원 식당은 19세기에 복원한 넓은 직사각형의 공간으로 기둥이 없고 나무로된 궁륭으로 천장을 처리했다. 벽 깊숙히 있는 쉰 아홉개의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내부를 밝게 하고 있다. 남쪽 벽위에 있는 돌로 된 실교단은 저장실에서부터 편양기로 올라온 음식을 수도사들이 먹는동안 성서를 독송할 때 사용되었다. 수도원 식당은 수도원 경내 회랑과 수평으로 이어져 있다. 테라스로된 수도원 경내 회랑은 가로 25m 세로 14m의 수수한 공간으로 회색 편암으로 덮여 있으며 측벽은 90개의 작은 원주에 얹혀있는 아케이드 모양의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주색 역암의 작은 원주들은 우아한 느낌이 더 들도록 오점형으로 배열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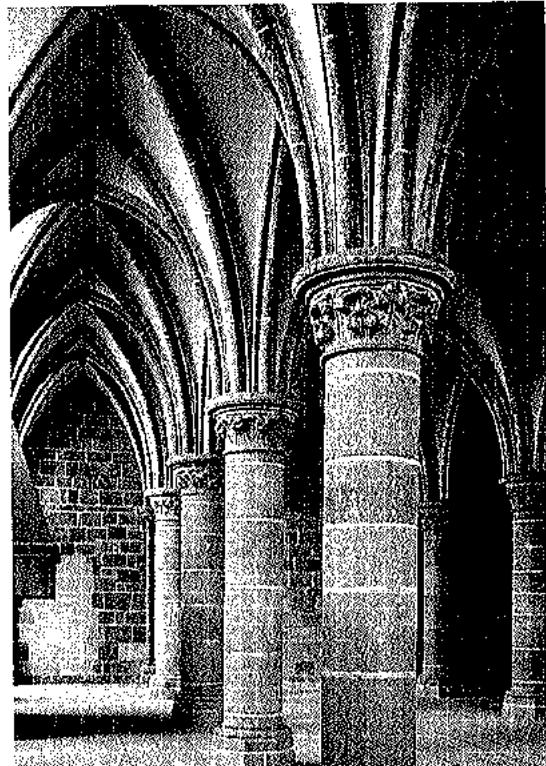
아케이드 사이의 귀돌은 흰색의 석회암으로 이 지역의 식물 모티브가 조각되어 있다. 이 수도원의 정원과 경내 회랑은 하늘과 바다 사이에 완전히 고립된 수도사들이 대천사의 보호하에서 명상에 잠기던 장소로 사용되었다.

6. 성벽

작은 성채의 외보 출구에 있는 몇계단을 지나면 "메르베이유(Merveille)"의 토대와 연결된 "클로딘 탑(*la Tour Claudine*)"에 이르게 된다. 이 탑은 산의 경사를 따라 망루와 북쪽탑(*la Tour Nord*)까지 이어진 훌륭한 방어벽의 일부이다. 순찰로를 따라가면 멀리 수평선과 약 30km 떨어진 쇼제이(Chausey)군도가 눈에 들어온다. 뼈에르 르 루아(Pierre-le-Roy)의 작품인 클로딘 탑



식당 저장창고의 내부



부속사제의 저택의 내부

과 수도원장 튜르스탱(Turstin)의 작품인 북쪽탑을 연결하는 이 순찰로는 15세기 로베르 줄리베(Robert Jolivet)가 마을을 포함한 아랫쪽 부분을 둘러싸는 방어 시설을 할 때 건립되었다.

돌출 총안이 있으며 꼭대기를 크레노로 처리한 화강암의 이 성벽에는 토대가 바다속에 잠겨 있는 “고리탑(la Tour de Boucle)”, 18세기에 개조한 “낮은 탑(la Tour Basse)”, “자유의 탑(la Tour de la Liberte)”과 보초를 염폐하고 뾰족지붕이 특징인 “아케이드의 탑(la Tour de l'Arcade)”이 포함된다.

7. 맷음말

몽 생 미셸(le Mont Saint-Michel)은 8세기에 대천사 쟁 미셸을 승배하기 위한 장소로 선택되어 이곳에 수도원이 건립되면서 많은 전설과 일화가 있는 그리고 건축적으로도 특징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 옛날 십자군은 1333년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산(le Mont)을 우회하며 대천사 쟁 미셸(Saint Michel)에게 그들의 영혼을 의탁하려 오기도 하였으며 수 천의 순례객들이 이 수도원 성당에서 밤을 지내거나 할 수만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의 성당은 오늘날의 수도원 성당보다 규모가 더 컸는데 18세기 말 성당 정면과 내부, 전체 길이의 1/3 이상을 없애는 공사로 현재의 성당은 규모가 축소된 상태이지만 그 용장함이나 거대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는 찬탄을 금할 수가 없다. 산(le Mont)의 북쪽면에 위치한 부속사제의 저택, 귀빈실(la Salle des Hotes), 수도원 식당 기사들의 방(la Salle des Hotes), 수도원 식당 기사들의 방(la Salle des Chavaliers)과 저장실이 포함된 건물군은 건축 당시부터 “놀랍고 아름답다”는 말인 “메르베이유(Merveille)”라고 불렀는데 특히 수도원의 성당은 이 당시의 고딕 양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건축술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수차례에 걸친 낙败로 인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건축과 보수로 그리고 입지적 조건에 의한 성벽의 방어적 구조물로 변경 측정되기도 하였지만 이 당시 신앙에 대한 열정과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간절하였는가를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보기도 문 수도원의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 말 뚜렷한 이유없이 쟁 미셸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 그때부터 산(le Mont)은 엄청난 규모의 순례지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종교가 점점 인본주의로, 이성적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대천사를 위한 자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물론 그 후 봉 쟁 미셸은 유력하고 부유한 수도원장들에 의해 운영되는 수도원 성채로, 그리고 루이(Louis)11세가 창립한 쟁 미셸의 매우 귀족적인 수도회 모임의 장소로 남게 되었지만 여러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수도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순찰로

봉천지구 아파트

Pongcheon Apartment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택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무주택 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필요한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녕과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코자 이번 봉천지구 아파트 건립현상 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4월 12일 발표했다.

총 17개사무소에서 참여한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이로재(민현식) 건축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고, 인터플랜(조대희) 건축안이 우수작으로, 우원(문정일) 건축과 영풍·명(박명화) 건축안이 각각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이번 현상설계경기의 심사과정, 심사평을 함께 게재한다.

■ 건축개요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봉천 181번지 택지개발 지구 내
- 대지면적 : 11,691.5m²(3,536.66평)
- 용도지구 : 택지개발지구
- 사업비 : 195억원(추정)
- 사업기간 : '95. 5 ~ '97. 1

■ 추진경위

- '95. 1. 23 : 현상공모 공고
- '95. 1. 25 : 응모자 접수마감 (67개소)
- '95. 3. 24 : 작품접수 마감 (17개소)
- '95. 3. 27 : 응모작 예비검토
- '95. 4. 7 : 작품심사
- '95. 4. 12 : 입상작 발표
- '95. 4. 14 : 입상작 상장, 상폐수여 및 상금지급

■ 심사결과

- 일시 : '95. 4. 7(금) 14:00 - 17:30
-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1층 대강당
- 입상작 내용
 - 최우수작 : (주) 종합 건축사 사무소 이로재(대표 민현식)(116번)
 - 우수작 : 종합 건축사 사무소 인터플랜(대표 조대희)(109번)
 - 입선작 : (주) 우원 종합 건축사 사무소(대표 문정일)(103번)
 - 입선작 : (주) 종합건축사 사무소 영풍, 명(대표 박명화)(112번)

■ 심사위원

- 위원장 : 김성국 (홍익대학교 교수)
- 학계 : 김창석 (사립대학교 교수), 양윤재 (서울대학교 교수), 이강업 (한양대학교 교수)
- 전문인 단체 : 이명호 (건축학회장), 최관영(건축가 협회 설계 분과 위원장), 김영수 (건축국 종합건축, 전 건축사협회 서울시 지회장), 이성관 (한울건축, 설계전문인)
- 공무원 : 변영진 (도시개발공사 시설이사)

■ 심사방법

- 선정방법 : 전 단계 기명투표와 공개토론
- 심사 단계별 구분
 - 1단계 : 틸락작품 7점선정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작품 틸락)
 - 2단계 : 틸락작품 3점선정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작품 틸락)
 - 3단계 : 우수작품 3점선정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선정)
 - 4단계 : 우수작품 1점선정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선정)
 - 5단계 : 우수작품 2점선정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선정)
 - 6단계 : 최우우상 1점선정(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최우수작으로 차첨작을 우수작으로 선정)

■ 심사평 (가나다 순)

- 김성국/홍익대학교 교수

아파트 단지에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집합 주거의 공동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타워형은 여유 있는 Lobby 공간, 각종의 엘리베이터 홀, 기타 공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향에 대한 견해가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향(동, 서)도 현대의 난방, 조명기술로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그보다 못지않게 고려하여야 할 것은 조망(View), 아파트의 내, 외부 공간도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사실이란 것이다. 116번은 15층 타워형과 저층 부분을 조화있게 배치한 안이다. 대지 경사의 적극적인 이용, 저층과 고층부에 따른 적절한 외부공간 설계, 경사를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제공 하므로서 지면에 높이 공간, 보행자 전용 공간을 만들었다. 타워형의 고층은 단지내에 주민뿐만 아니라 단지외에 시민들에게도 뒤산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116번을 권한다.

- 김영수/건축국 종합건축

103번도 재미있고 109, 116번 모두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109번은 모형 보다는 투시도 오픈 스페이스가 다소 넓게 표현되어 있지만 배치 감각이나 형태 표현이 아주 현실적이고 세련되어 있다. 116번은 스카이 라인구성이나 콘타 처리 그리고 보차분리 등 계획적 측면에서

작품성이 보다 돋보인다. 서울시가 짓는 서민아파트라는 현실적 측면에서 일반 선호도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109번도 무난하나 이상적인 측면에서의 작품성을 고려한다면 116번도 괜찮다고 본다.

- 김상석/시립대학교 교수

최후까지 올라온 109, 116번 모두 홀륭한 작품이지만 본인은 세가지 이유로 116번에 조금더 높은 점수를 주고싶다. 첫째는 계획부지 아래쪽의 단독 주택에서 저층아파트, 그리고 인동간격의 확보를 통해 뒷산의 자연 경관과 향을 최대한 살려 배치한 타워형 고층 부분으로 이어지는 그레인의 점진적인 변화가 자연스럽다. 둘째는 아파트의 규모가 소규모 평형임을 감안할때 입주대상은 주로 어린자녀를 둔 젊은세대 일것으로 예상되며 이점에서 볼때 116번은 Oscar Newman이 말하는 Defensible Space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그리고 세째로 이와 관련된 것이지만 단지내 보차분리 체계가 명쾌하여 주민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많이 고려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 변영진/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시설이사

단지를 들여다 보면 세가지의 패턴을 정리케 된다. 단지 뒤 를 병풍처럼 둘러싸주는 관악산의 낙성대를 능선 쪽으로의 경관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우선이고, 이층이나 삼층의 주변 주거용 건축물에 미칠 중, 고층 아파트의 영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두번째이며, 이어서 남북으로 길면서 꽤 심한 고저차를 이루는 북사면의 경사 지형을 어떻게 다룰것인가의 문제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두 작품은 위 문제들을 같은 맥락으로 해결한 셈이다. 낙성대 능선쪽으로는 타워형을 배치하고 주변의 주택지와 인접해서는 건물 높이를 많이 낮추었다. 그러나 당선인이 외곽에서 차량소통을 처리하고 내부는 거주자들이 유보하거나 이웃사귐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는 다분히 교과서적인 설명한 배치의도를 보인 반면, 차석 작은 차량을 단지 가운데로 허용한 대신 건물 동간의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과시하여 큰 대조를 이룬다. 결국 외부공간의 질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남는다.

도시개발공사의 공공주택은 소형인 만큼 거주자들 집 밖생활이 매우 활발할 것이며 그러한 근린활동을 수용할 외부 공간은 명확하게 구획되고 위요되며 각각의 주호와의 연계성이 긴밀하고 친밀한 것이어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당선작에게 더 큰 관심이 쏠린다. 같이 제출한 당선작의 모형은 공간이 세심히 계획될 것임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었다. 더욱이 경사지형을 활용한 동네골목 같은 단(段)이 전 외부공간의 조형적연출을 기대하게끔 세련되게 손이 가 있었다.

- 양윤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09번은 가운데 도로가 너무 넓고 중앙에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후면산으로 개방감을 주고자 했으나 접근 도로에서의 경관은 전체적으로 막힌 기분이 든다. 또한 오픈 스페이스의 위요감이 없이 모든 주민이 가운데 크게 조성된 오픈 스페이스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실은 너무 스케일이 큰 오픈 스페이스는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않다는 것이 주거단지에서의 현상이다. 도로가 주 진입로에서 직접 건물로 연결되어 보행동선이 단절되고 있다. 특히 단지의 동선이나 오픈 스페이스의 구성개념이 분명한것 같지않다. 116번은 타워형 아파트를 45도 기울여 배치 하였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향에 많은 신경을 썼고 단지외부의 저층 단독 단지내의 5층, 또 고층으로의 점진적 매스 처리가 뒷쪽 산까지 연결되

는 개념이 좋아 보인다. 파로티로 보행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보차 분리로 단지내 주민의 안전과 작은 규모의 보행 공간구성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 이강업/한양대학교 교수

109번은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뒷 부분 자연경관을 가로막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단지내의 외부 공간이 녹지공간과 연결되어 있어 시원스러운 분위기를 주고 있으며, 적은수의 동수로 간결하게 처리했다. 116번은 실험적인 작품이기는 하나 인동간의 거리가 짧은 결과 오픈스페이스가 비좁아 답답한 느낌을 줄것 같다. 타워 간의 거리도 짧아 타워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109번의 표현방법은 약간 미숙하다고 여겨지지만 문제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해결한 것 같다.

- 이명호/중앙대학교 교수

자연경관을 고려한 외부 공간계획과 경관 축을 중심으로 한 개방, 투시감 등이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109번의 배치가 시원스럽게 처리되어 있어 호감을 준다. 116번은 외부공간 형태와 배치 및 주동 계획이 뭔가 색다른 점이 있어 작품성이 높이 평가되나 건물의 향이 동향, 동남 빛 서북향으로 되어 있어 입주자 측면에서 보면 일조, 일사 등 자연 환경 조건 상 어딘가 거부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109번이 현실적으로 무난할 것 같다.

- 이성관/한울건축

109번은 기존의 아파트 배치 방법을 활용하여 단지 내 개방감을 최대한 찾으려 했고 또한 인근 지역에서 건너편 녹지로의 시선트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다만 애써 확보된 단지내의 넓은 공간도 그 쓰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주고있고 전체적으로는 106번의 공간구성에 비해 보다 평면적이라 느껴진다. 106번은 건물 배치의 원론적 내용들을 현실에 과감히 적용함으로서 전체적 Diagram이 다른 어느안 보다 돋보이며 참신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면의 저층 판상형은 지면에서의 부분적 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부터 근거리 시선은 차단하고 있으나 원거리에서는 탑상형을 도입함으로서 이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건물간의 마당들은 이곳이 고밀도 저소득층을 위한 곳이란걸 감안한다면 실제로도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아파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제안으로서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고 본다.

- 최관영/건축가협회 설계분과 위원장

중복되는 얘기는 가능한 피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최종 두작품을 고르는데 있어서 103번과 109번 둘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고민스러웠다.

결국 103번은 116번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배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고 109번은 앞에 두작품과는 다른 방법이라고 보아 109번과 116번을 최종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결국 두 작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109번 배치방법에 통속적이기는 하나 외부공간에 있어 가능한 넓게 확보 하였으며 기능적으로 효과적인 배려가 돋보이는 작품이지만 116번이 교과서적이면서도 참신하게 보이며 대지의 경사를 적절히 흡수하고 지원시설인 상가를 경사를 이용 주거동 지하를 쓰게됨으로 배치 계획이 깔끔하게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며, 특히 보행자 공간과 자동차 공간을 근본적으로 분리한 것이 큰 장점으로 보인다. 남향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남향일변도의 배치가 외부공간 구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동향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116번이 당선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최우수작

이로재건축(민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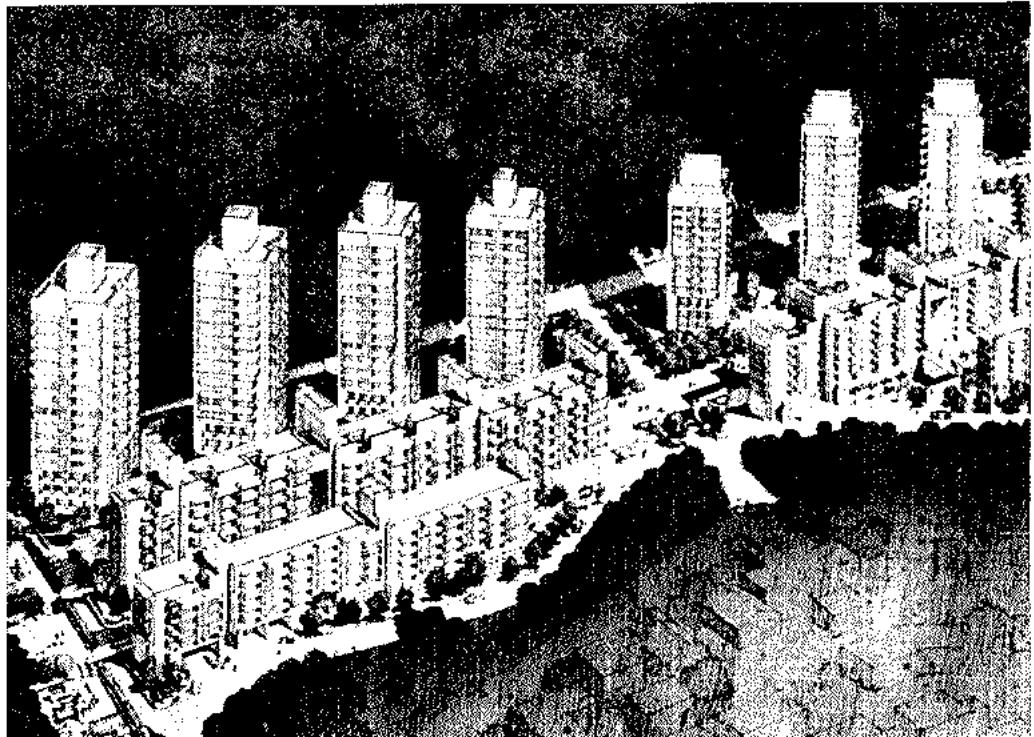
대지면적 / 11,891.50㎡
 건축면적 / 4,171.20㎡
 연면적 / 38,246.76㎡
 건폐율 / 35.73%
 용적률 / 240.27%
 호수 / 12평형 - 79세대(11평형 1세대)
 15평형 - 14세대
 18평형 - 20세대
 총계 - 412세대

□ 공동체의 거실(LIVING ROOM)로서의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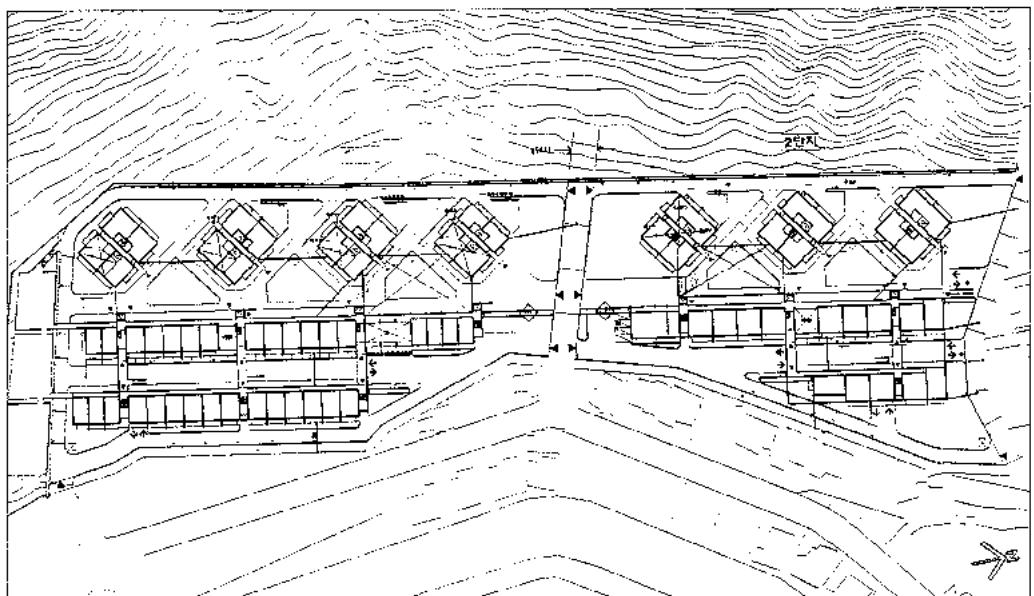
- 지형에 따라 각기 다른 레벨의 소단위 마당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세대들은 그룹핑 되고 각각의 마당은 고유한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을 부여하여 장소적 귀속감을 가진다.
- 각각의 마당은 계단으로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단지 전체로 통합되고 공원과 숲으로 점진적으로 이행된다.
- 보행동선은 마당을 중심으로 3차원적으로 둘러싸게 조직되어 마당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성화 한다.
- 각 마당의 형상과 스케일은 정형(定型)을 지향하여 장방형 또는 이형(異形)으로 계획하고 완전 폐쇄공간이 아닌 일부 자연으로 열린 개방감을 동시에 부여하여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적 장소로 조성한다.

□ 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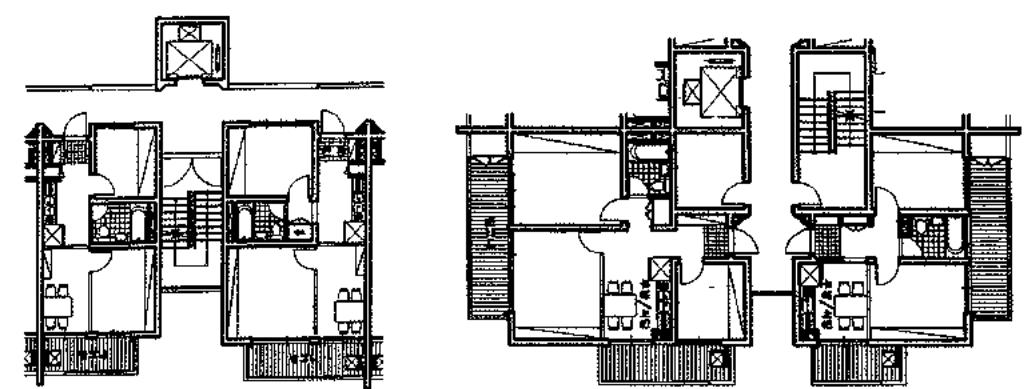
- 볼륨과 매스의 다양화, 분절화 저층 판상형으로 수평성이 강조되나 코아(EV+계단)에 의해 수직적으로 분절하며 고층 탑상형으로 수직성이 강조되나 테라스 디자인의 다양화 등으로 입면을 수평적으로 분절한다.
- 선형과 점형의 조합/공간과 장소의 리듬감 부여
저층 판상형으로 기본적 시계를 강하게 유도하고 고층 탑상형으로 동선과 볼륨과 공간의 리듬감을 부여한다.
- 다양한 건축어휘를 사용하여 풍부한 공간감 형성
피로티, 벽, 옥외계단, 오버브릿지, 옥외가구, 식재수증, 색채 등 다양한 건축어휘를 사용하여 풍부한 공간감 조성과 장소감 제고를 돋는다.



조감도



종합계획도



15평형

18평형

우수작

인더풀랜건축(조대희)

1단지-

대지면적 / 11,691.5m²

건축면적 / 2,103.02m²

연면적 / 34,528.21m²

간폐율 / 17.98%

용적률 / 229.15%

호수 / 12평형 - 78세대

15평형 - 127세대

18평형 - 199세대

계 - 196세대

2단지-

대지면적 / 9,141.2m²

건축면적 / 1,311.73m²

연면적 / 25,450.88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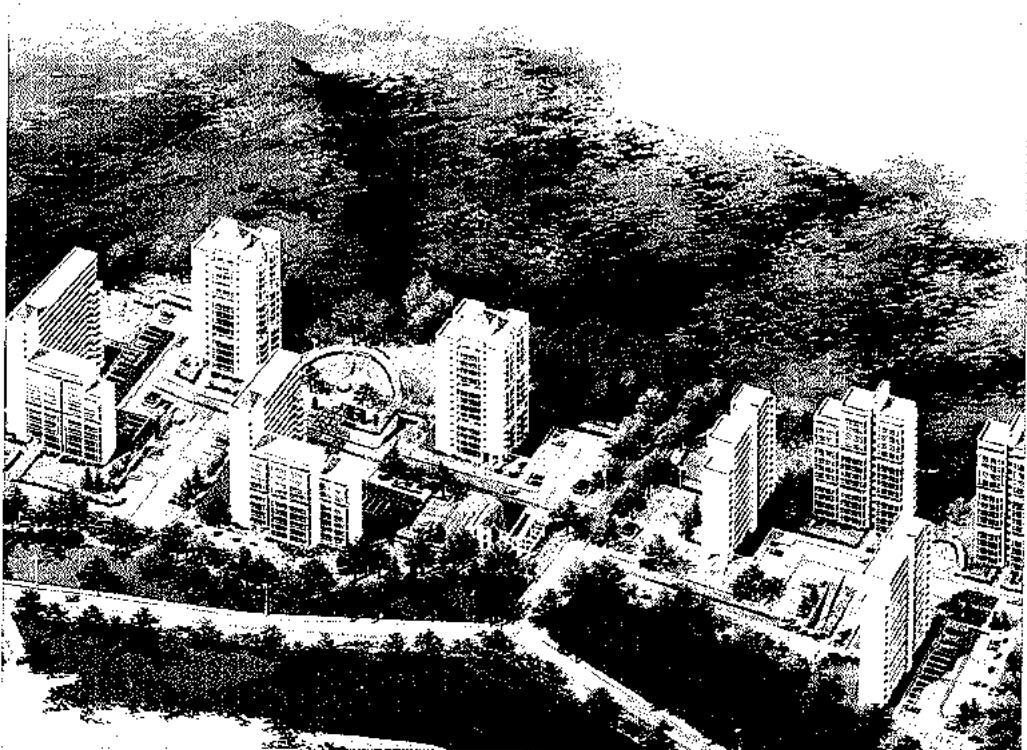
간폐율 / 14.3%

용적률 / 201.9%

호수 / 24평형(A) - 120세대

24평형(B) - 76세대

계 - 196세대



조감도

- 지역성

- 인접지역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Community 형성

- 주변야산과의 연계 및 환경적 접근

- 단지체계의 개방화와 명료성을 추구하고 지역고유의 특성 부여

- 주거의 기능성

- 건축적 해석으로 시대적인 생활요구 반영

- 프리이버시 보장 및 균린의식과 연대감의 조성

- 가족 공동 공간인 거실과 주방의 기능 확대

- 조형성

- 리듬감 있는 배치로 단조로움 탈피

- 창의적인 형태유출로 새로운 조형성추구

- 주거환경의 쾌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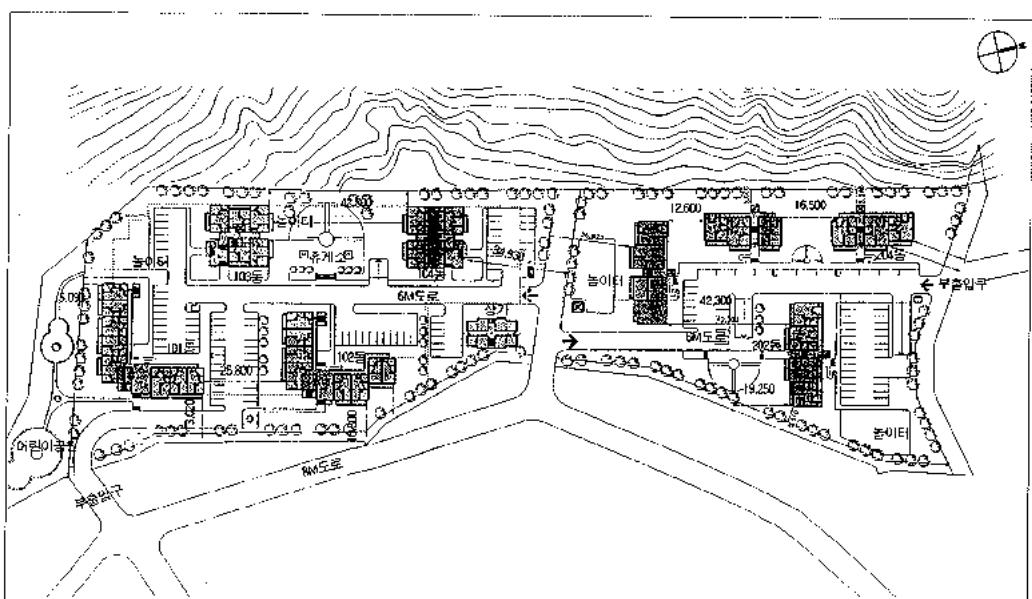
- 충분한 일조 및 조망을 위한 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오픈스페이스의 최대한 확보 및 주동별로 분산 배치하여 효과적인 주민이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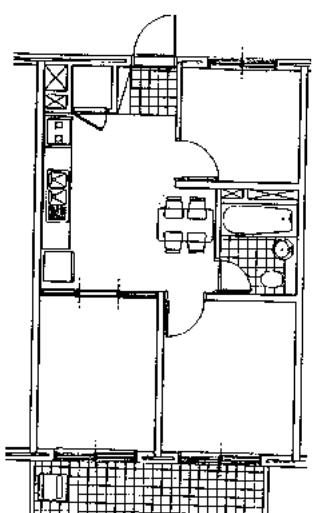
- 부대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적정한 배분

- 주차공간의 최대한 확보 및 보차분리의 명확한 교통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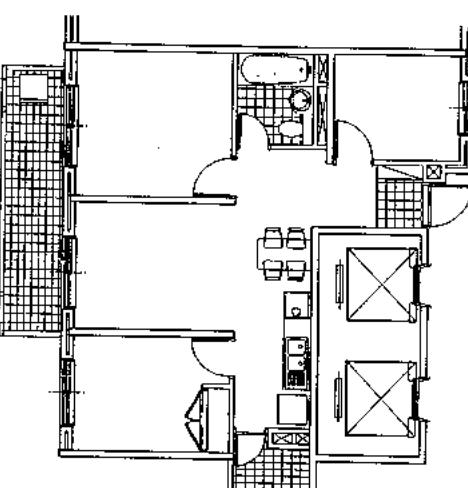
- 단지외곽의 녹지에 산책로와 휴게공간 설치



종합계획도



15평형



18평형

입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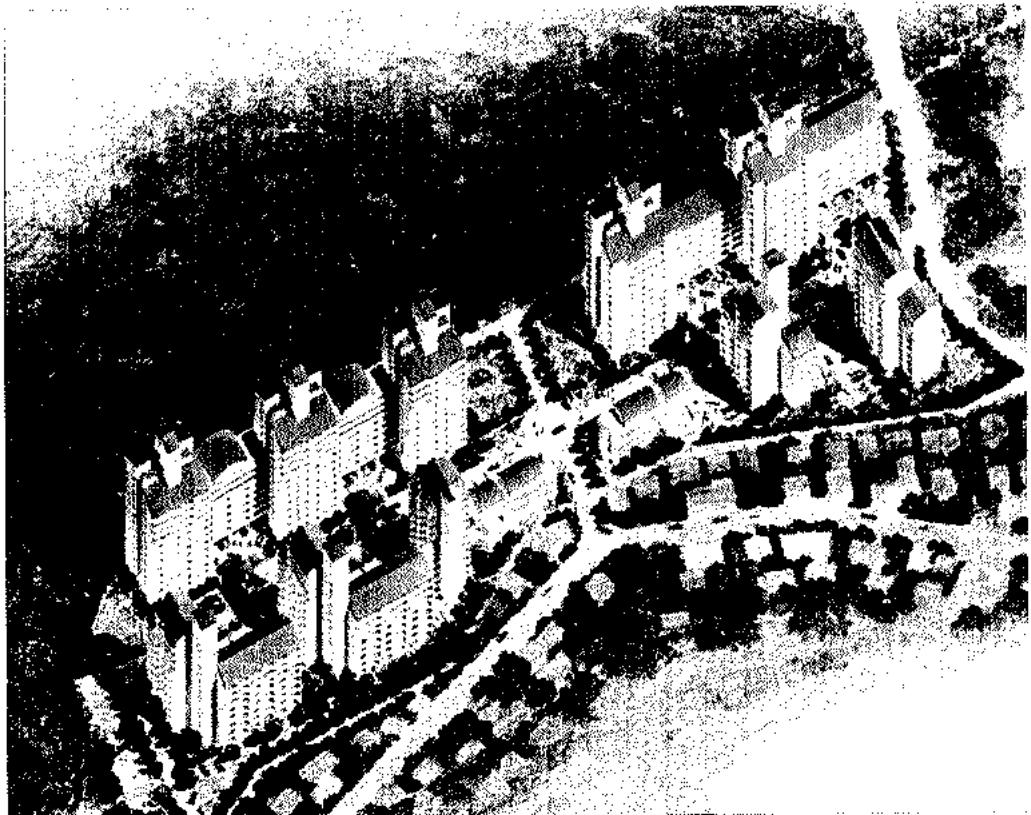
우원건축(문정일)

1단지

대지면적 / 11,691.5m²
건축면적 / 3,033.62m²
연면적 / 37,765.23m²
건폐율 / 25.69%
용적률 / 290.49%
호수 / 12평형 - 84세대
 15평형 - 115세대
 18평형 - 212세대
 ※계 - 411세대

2단지

대지면적 / 9,141.2m²
건축면적 / 2,306.2m²
연면적 / 29,603.9m²
건폐율 / 25.20%
용적률 / 293.8%
호수 / 21평형 - 112세대
 25평형 - 115세대
 ※계 - 227세대



조감도

□기본계획

- 도시생활권 지역에서의 서민주거에 부흥하는 양질의 분양 및 근로복지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고 주변지역과 균형있는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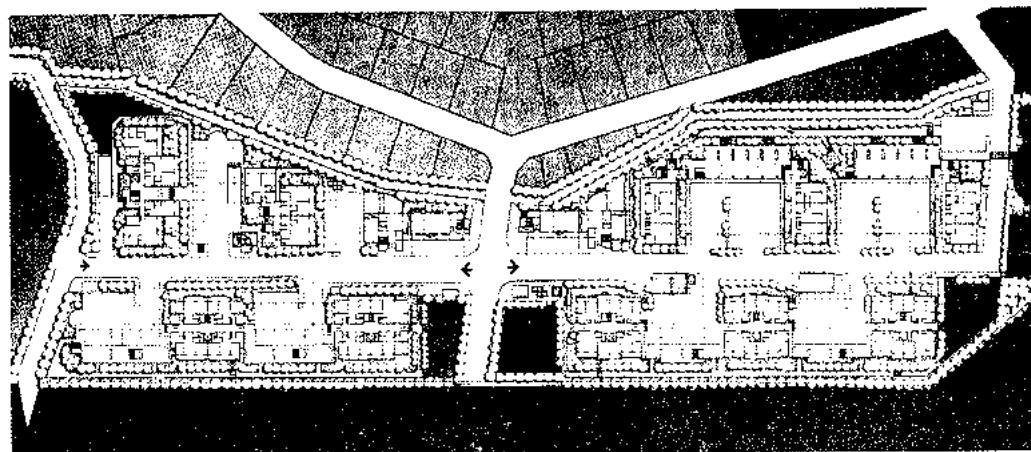
- 타워형 아파트의 도입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로 고지가 시대의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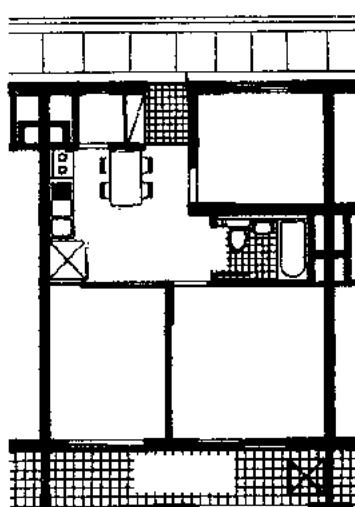
- 주거부분의 지하층 이용을 지양하고 외부공간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설치, 지하 - 셔터 - 외부공간을 연결하여 공사비 절감효과 기대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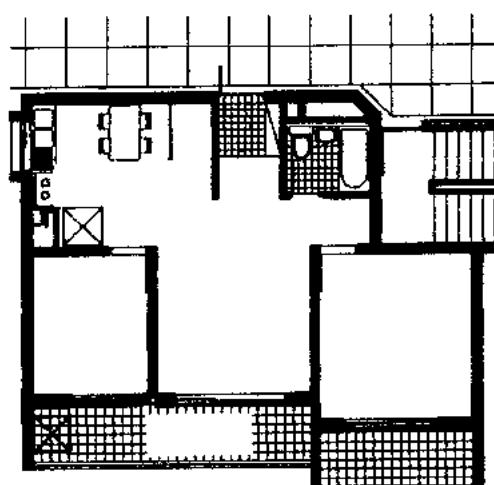
- 주거동별 층수의 변화로 외부로의 가시성 확보
- 단지 외곽의 녹지에 산책로와 휴게공간 설치
- 주거동 1층 피로티 설치 등 공동 공간 확보와 차경공간으로 폐쇄감 감소



종합계획도



12평형



15평형

입선작

영풍·명건축(박명화)

대지면적 / 11,631.50㎡
 건축면적 / 2,629.15㎡
 연면적 / 36,847.97㎡
 건폐율 / 22.49%
 용적률 / 246.01%
 호수 / 12명령·108세대
 15평형·103세대
 18평형·105세대
 총계·403세대

□다양성

- 단조롭고 획일적인 병렬형 배치에서 오는 비인간적 이미지 탈피.
- 도시 경관 및 자연 환경에 부합되는 개성있는 단지 조성.

□COMMUNITY

-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도시 주거 환경에서 오는 인간성 상실에 대한 제고.
- 주민 상호간의 공동체의식 유도 할 수 있는 공간구성.

□거주성

- 자연환경(일조, 체광, 통풍, 조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축적 배려
- 변화있는 공간구성으로 좁은 단위세대와 주거밀도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양질화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개성있는 단지설계로 입주자에게 주거의 인자성 제고.

□경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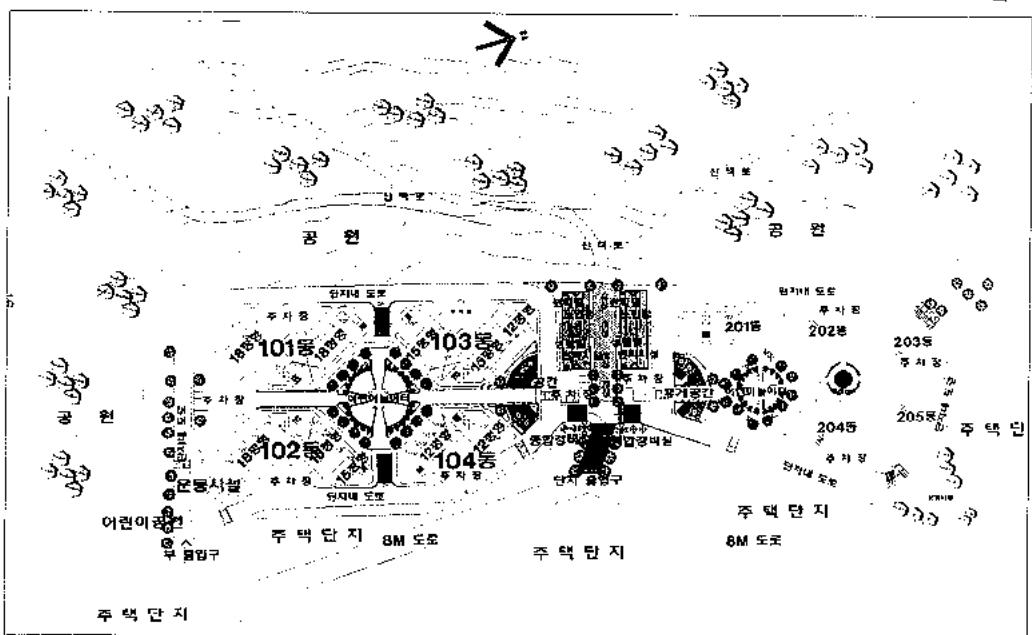
-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 공용면적비의 최소화
- 단위세대의 경제적, 합리적 계획

□기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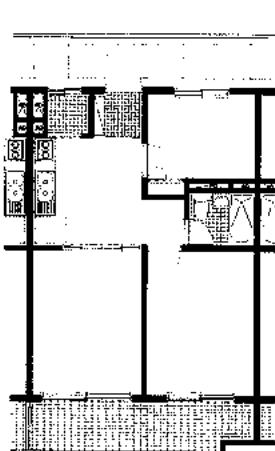
- 보행자와 차량동선의 합리적 계획으로 명확하고 기능적인 동선 체계 확립
- 토지 각 동선의 특성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단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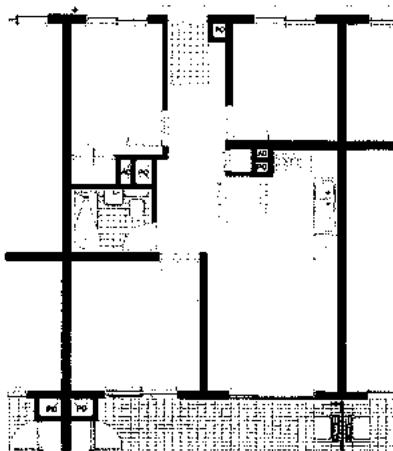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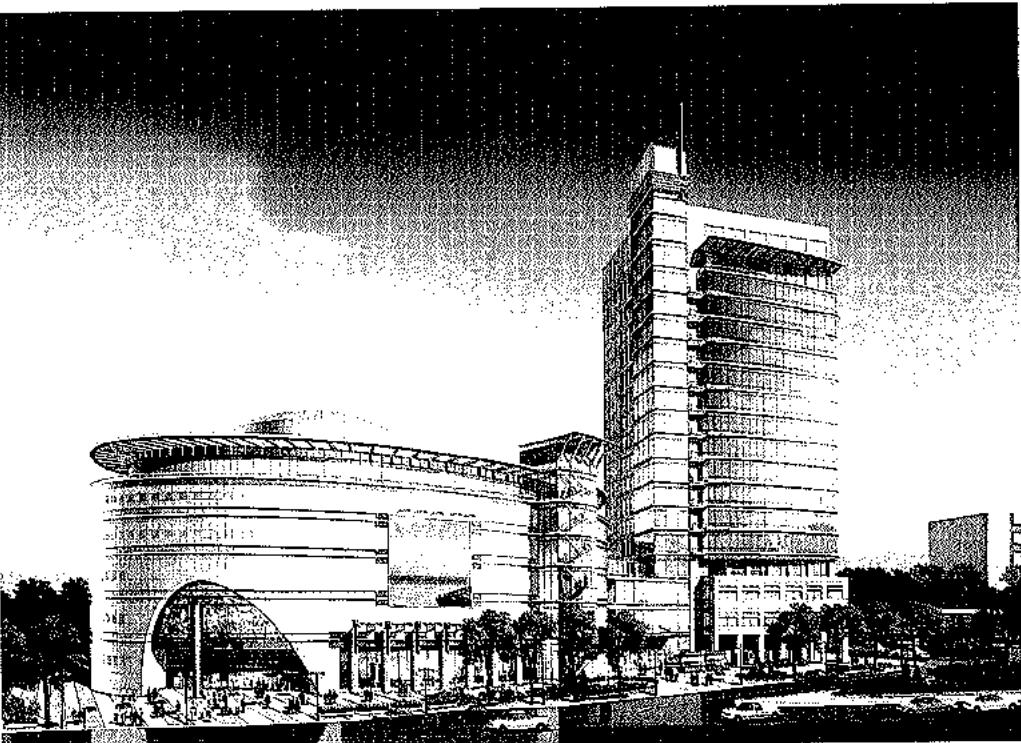
종합계획도



15평형



18평형



투시도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

Department Stor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소비재 뿐 아니라 중간재와 부품류도 판매하며, 공장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므로 써 싸고 질 좋은 물건을 공급하게 될 전용백화점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 이미지가 독창적이고 내부공간의 기능성을 잘 살린 점이 평가받은 범건축(강기세)안을 지난 3월 31일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지명설계로 치뤄진 이번 설계경기에는 총5개 사무소가 참여했으며, 우수작으로 예건축(박춘명)안이 선정됐다.

당선작

범건축 (강기세)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6
대지면적 / 9,866㎡
건축면적 / 4,870㎡
연면적 / 75,410㎡
건폐율 / 49%
용적률 / 350%
규모 / 지하5층, 지상17층
외장마감 / 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에로해결 및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시설제공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공공사업으로 지명현상 설계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건물수용기능은 백화점과 사무실로 복합용도성격을 띠고 있다.

계획대지는 목동중심상업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도시설계구역으로 도시설계 상위개념의 해석적 적용을 통한 차량동선 및 건물배치와 일반백화점과의 시장경쟁력 확보 차원에서의 차별화된 이미지의 표현이 계획의 주된 목표였다.

도시설계의 특징적 내용은 중심 상업지역의 주변으로 양축 주도로와 간선도로 연결의 일방통행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및 보행광장을 두어 건물의 벽면을 이에 1/2 이상

지정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차량의 균형적 대지내 유입을 위해서는 주도로 및 간선도로 2면에서의 진입구를 간선도로측으로 출구를 두어 대지의 모서리 측으로 Open Space를 형성하고 건물은 자연히 보행자 전용도로 측으로 두어 백화점 기능을 보행광장 및 주 보행 접근로 측으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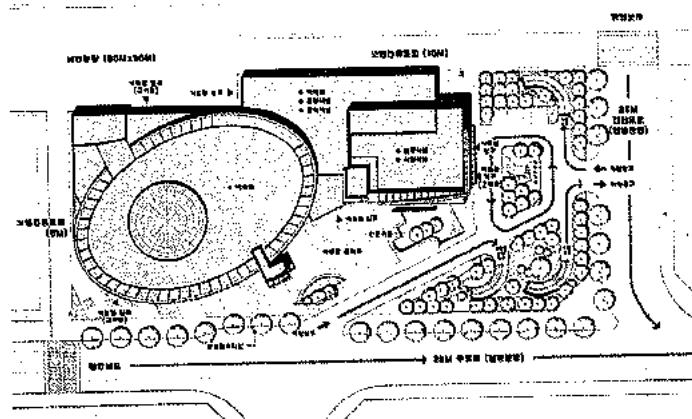
건물의 형태는 1차적으로 도시체계상의 교통흐름에 순응하여 모서리 대지의 시각적 완화 및 보행자의 접근성에 순응하는 벽면의 방향성을 반영하였으며 2차적으로 이를 단순화, 상징화하면서 변화, 성장 및 신뢰, 화합을 의미하는 타원형으로 구성하였다.

사무실측은 평면효율상 박스형태를 취하고 백화점의 타원곡면을 Layer를 달리하면서 중첩반복 사용하였으며 전체를 수평띠로 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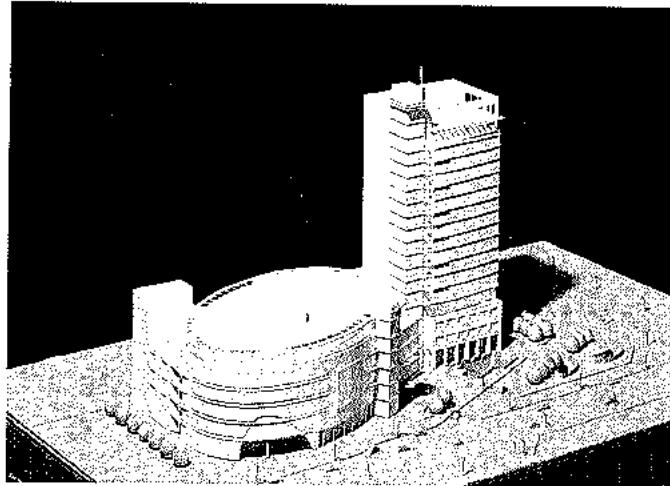
다양한 Mass에 통일감을 부여하였다.

매장내부는 매층 크기를 달리하는 타원 Open을 두어 전망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접하게 하고 Top Light를 통한 자연채광유입을 통해 극적 공간적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이는 외부형태와 함께 건물의 Identity를 강화시키는 유인적 요소로서 상업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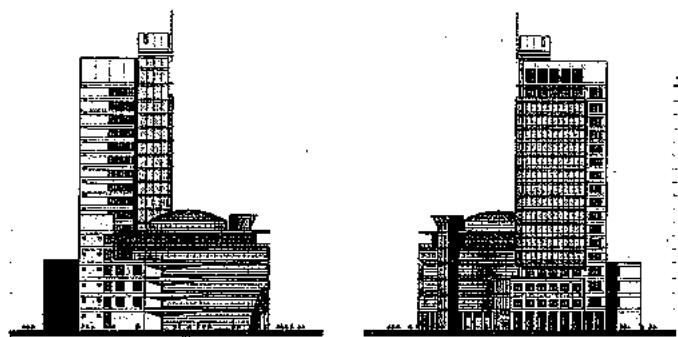
이 건물의 특정기능의 특별한 백화점이기 보다는 백화점 건축이 도심의 배경속에서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의 가능성을 탄진하는 기회라 생각하며 초기 설계개념이 남은 설계과정 및 시공과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진행 및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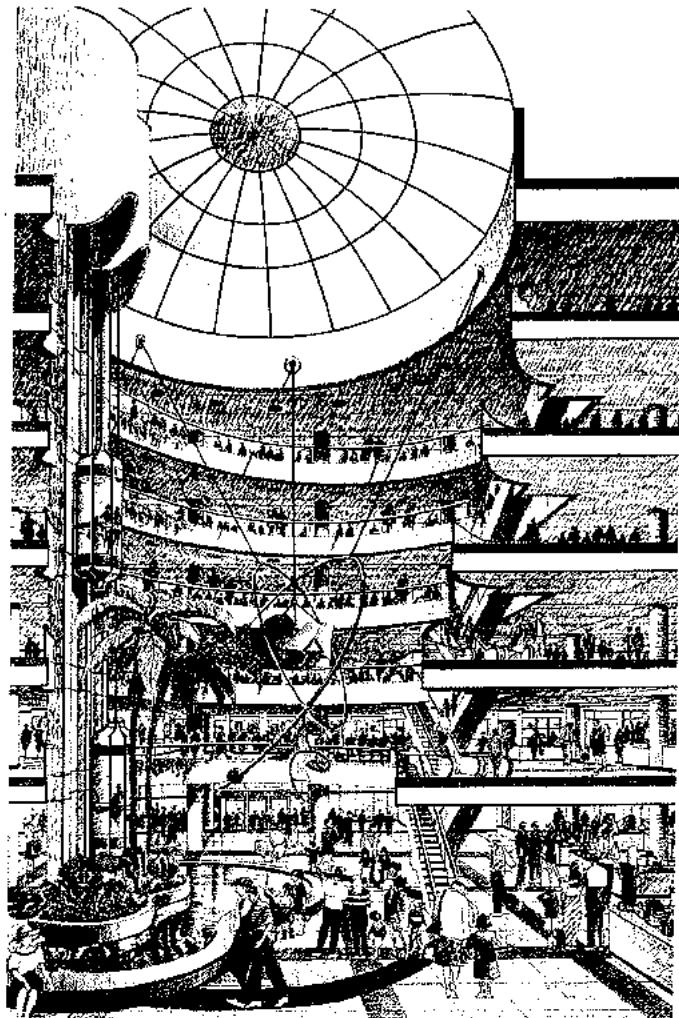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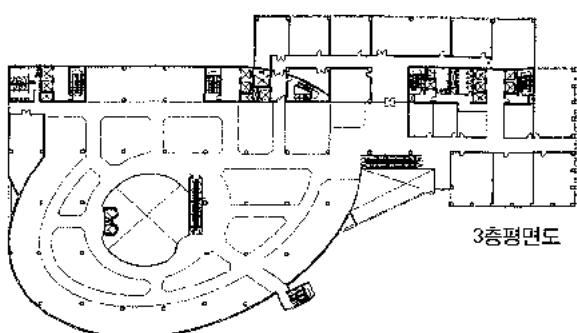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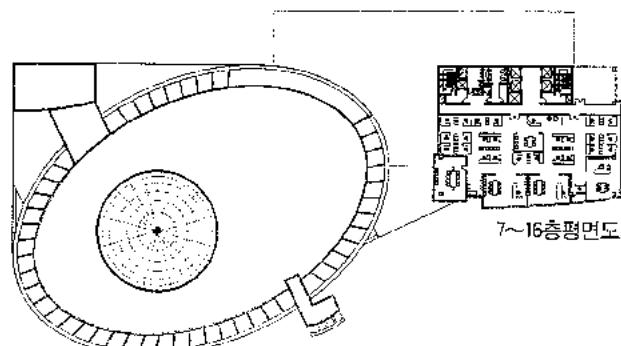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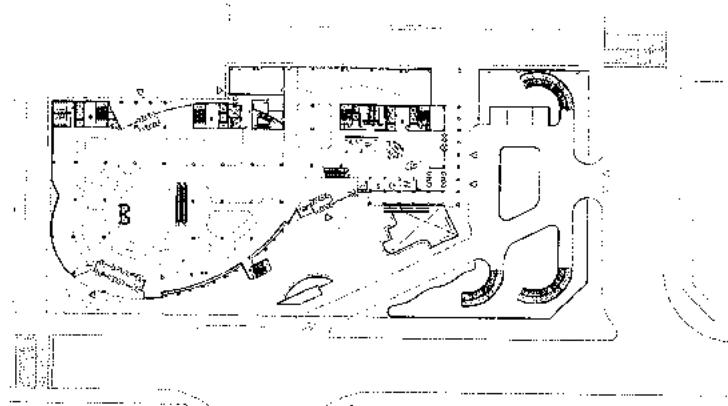
내부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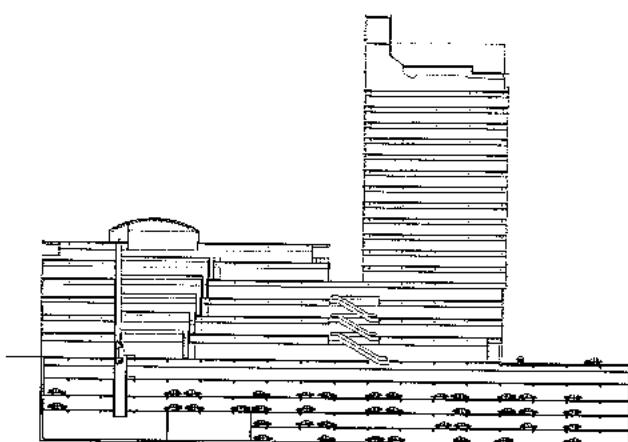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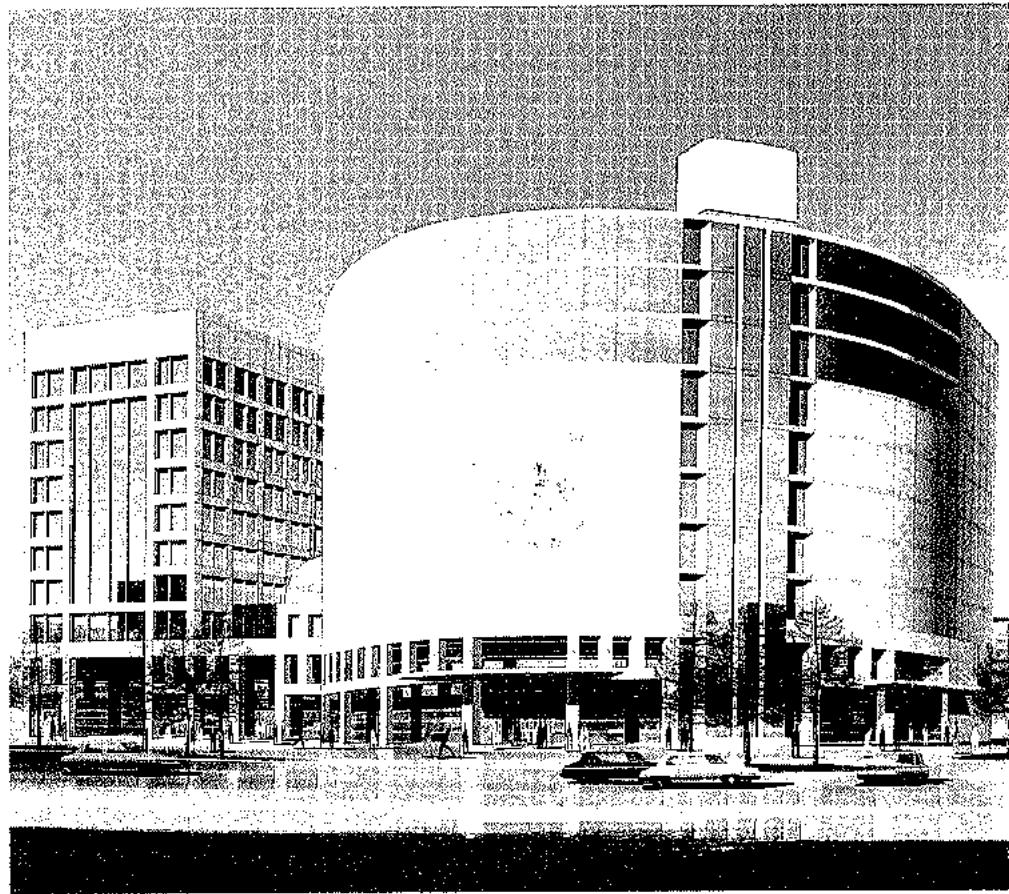
7~16층평면도



1층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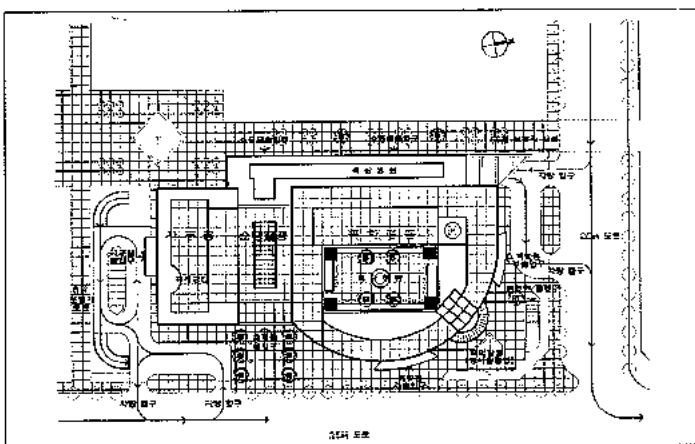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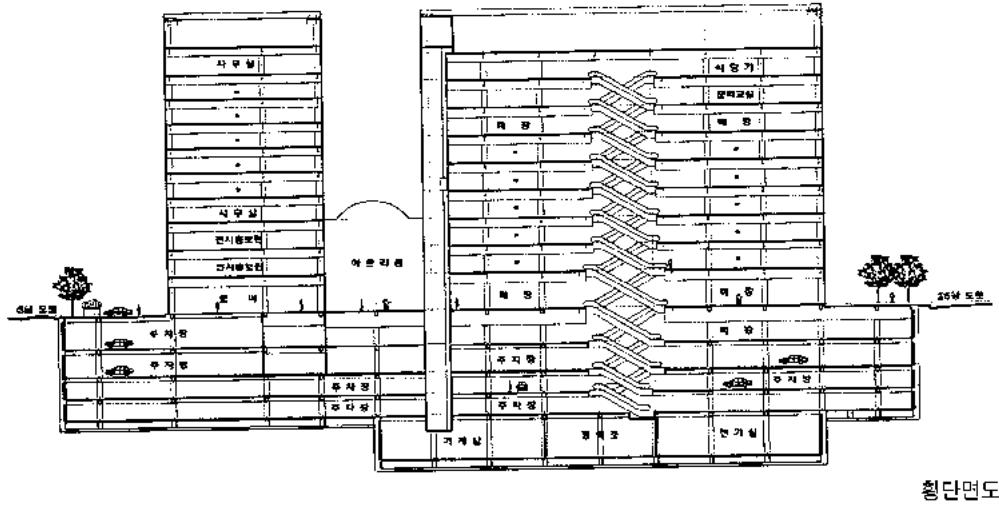
우수작

예건축(박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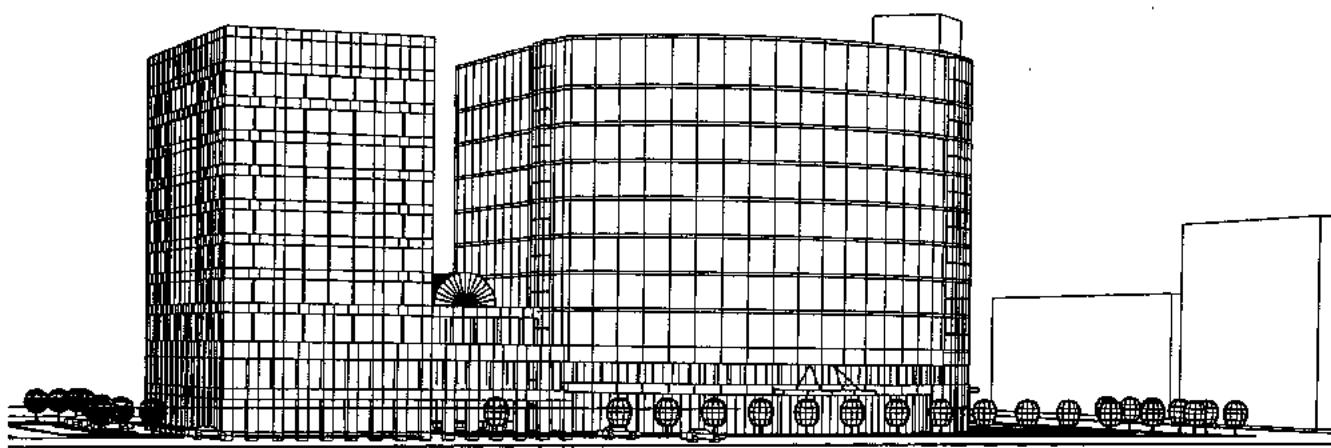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6
지역 / 일반상업
대지면적 / 9,886.9m²
건축면적 / 5,659.4m²
연면적 / 78,922.5m²
간폐율 / 57.4%
용적률 / 414.6%
규모 / 지상 10층, 옥탑 1층, 지하 5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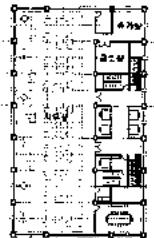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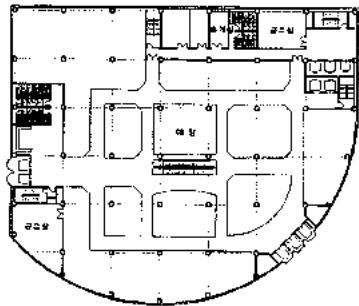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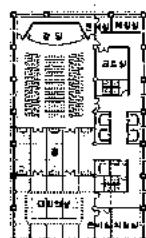
컴퓨터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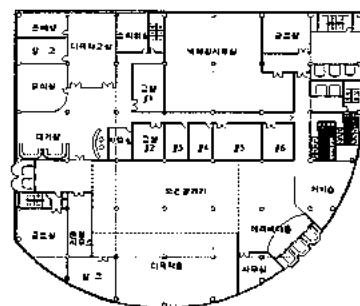
5~8층 사무동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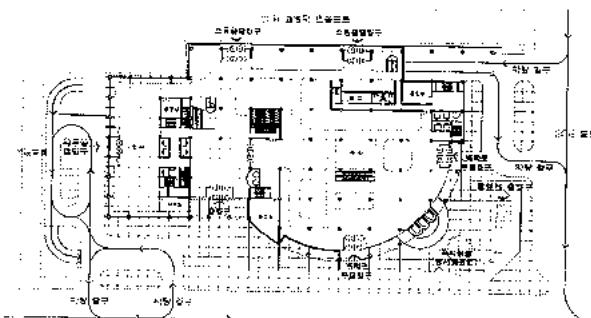
5~7층 백화점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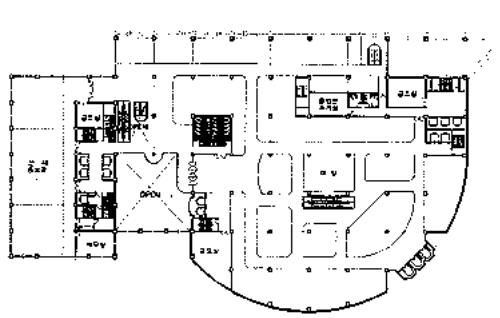
10층 사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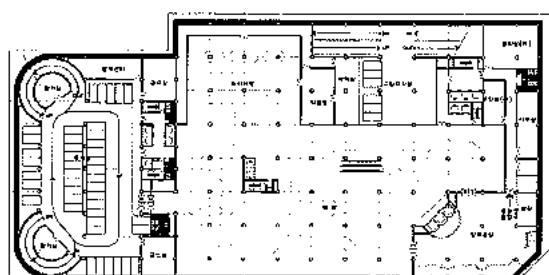
9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 배치계획

- 목동 도시 개발 계획의 축에
순응하는 배치계획
- 가로망 체계의 교차점에 위치
한 특성을 고려 결절점에 전면성
부여로 인식성 확보

- 공간 구성에 있어 기능별, 시
설별로 명쾌한 구분을 함으로서
동선의 혼재 방지 및 효율적 이용
에 있어서의 융통성 부여
- 사무동과 백화점 사이에 완충
적 매개 공간으로서 아트리움을

설정

■ 평면계획

-전체 계획

- 전체를 업무영역과 판매영역
으로 구분, 중간에 ATRIUM을 설정
원충적, 매개공간으로 활용

- 전시~판매의 유기적 연계로
중소 기업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도록 함.

-백화점 계획

- 도로의 결절점을 전면성을 강
조하여 시각적인 인식성을 부각

- 남·북측에 각기 옥내와 옥외
를 전망 할 수 있는 전망용 앤레
베이터를 설치하여 소핑객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

-사무실 계획

- 북측에 코어를 배치하여 공간
의 활용성을 높이고 업무공간을
최대 확보

- 6x15M SPAN의 부주공간으로
계획하여 사무기능의 디변화에 대
응

- EV. HALL에 ATRIUM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두어 다양하
고 흥미로운 전망을 제공

-쇼핑몰 계획

- 보행자 전용도로와 백화점 광
장과의 연계

- 3층 층고의 오픈으로 개방감
· 완충적 매개공간으로서 다양
한 행위의 수용

1995년도 4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4월분 9백5십7만8천9백70m²보다 27.2% (2백6십만6천9백47m²) 증가한 1천2백1십8만5천1백17m²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4월누계 5천8만5천7백70m² 보다 13.0% (6백4십9

만5천5백49m²)감소한 4천3백5십9만2백21m²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3월분 1천6백3십7만5백11m² 보다 25.6% (4백1십8만5천3백94m²)감소한 1천2백1십8만5천1백17m²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m ²)		
구 分		1994년도	1995년도	증 감
증가지역	서 울	1,119,497	1,776,414	656,917 58.7%
	부 산	881,543	1,032,298	150,755 17.1%
	대 전	232,157	948,851	716,694 308.7%
	경 기	2,156,848	3,119,431	962,583 44.6%
	강 원	269,587	527,626	258,039 95.7%
	충 북	249,261	269,127	19,866 8.0%
	충 남	394,014	541,607	147,593 37.5%
	전 북	372,915	458,012	85,097 22.8%
	경 북	597,735	613,550	15,815 2.6%
	경 남	825,705	1,180,839	357,134 43.4%
감소지역	제 주	78,182	105,965	27,783 35.5%
	대 구	499,907	499,461	(446) -0.0%
	인 천	647,649	546,318	(101,331) -15.6%
	광 주	519,769	239,327	(280,442) -54.0%
합 계	전 날	735,401	326,291	(409,110) -55.6%
	합 계	9,578,170	12,185,117	2,606,947 27.2%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m ²)		
구 分		1월분	2월분	증 감
단 독 주 택		1,411,606	1,185,524	(226,082) -16.0%
다 세 대 주 택		359,633	416,972	57,339 15.9%
연 립 주 택		156,786	156,785	(1) -0.0%
아 파 트		5,617,532	4,469,967	(1,147,565) -20.4%
근린생활시설		2,252,985	1,917,524	(335,461) -14.9%
종 교 시 설		100,106	66,978	(33,128) -33.1%
의 료 시 설		82,211	174,583	92,372 112.4%
교육연구시설		305,406	408,812	103,406 33.9%
업 무 시 설		1,621,895	566,452	(1,055,443) -65.1%
속 박 시 설		281,986	160,744	(121,242) -43.0%
공 장		1,759,311	1,188,547	(570,764) -32.4%
기 타		2,421,054	1,472,229	(948,825) -39.2%
계		16,370,511	12,185,117	(4,185,394) -25.6%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4월분)

구 분 용도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4,022	4,113	1,001,720	4,572	4,668	1,185,524	550	555	183,804	18.3	
다 세 대 주 택	643	678	316,156	838	1,407	416,972	195	729	100,816	31.9	
연 립 주 택	115	122	206,755	122	123	156,785	7	1	(49,970)	-24.2	
아 파 트	168	636	3,526,202	188	599	4,469,967	20	(37)	943,765	26.8	
근린생활지역	4,099	4,202	1,744,098	4,149	4,268	1,917,524	50	66	173,426	9.9	
종 교 시 설	133	141	99,613	128	146	66,978	(5)	5	(32,635)	-32.8	
의 료 시 설	29	30	38,241	41	41	174,583	12	11	136,342	356.5	
교육연구시설	113	125	274,457	142	174	408,812	29	49	134,355	49.0	
업 무 시 설	117	125	385,783	129	131	566,452	12	6	180,669	46.8	
속 박 시 설	203	204	169,387	131	142	160,744	(72)	(62)	(8,643)	-5.1	
공 장	741	1,099	897,055	956	1,253	1,188,547	215	154	291,492	32.5	
기 타	1,273	1,563	918,703	1,099	1,295	1,472,229	(174)	(268)	563,526	60.3	
합 계	11,656	13,038	9,578,170	12,495	14,247	12,185,117	839	1,209	2,606,947	27.2	0=마이너스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4월분)

구분	1994년			1995년			대비			연면적 비율 (%)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18,787	19,147	4,582,067	16,403	16,679	4,246,980	(2,384)	(2,468)	(335,087)	-7.3	
다세대주택	3,068	3,330	1,563,159	2,842	3,522	1,414,868	(226)	192	(148,291)	-9.5	
연립주택	401	569	861,397	404	432	549,165	3	(137)	(312,232)	-36.2	
아파트	705	2,864	14,179,440	619	2,218	14,769,446	(86)	(646)	590,006	4.2	
근린생활시설	18,508	19,016	8,840,587	14,633	15,020	6,865,416	(3,875)	(3,996)	(1,975,171)	-22.3	
종교시설	591	672	593,548	423	480	307,164	(168)	(192)	(286,384)	-48.2	
의료시설	92	100	207,899	108	114	364,420	16	14	156,521	75.3	
교육연구시설	433	530	1,415,939	433	489	1,213,298	0	(41)	(202,641)	-14.3	
업무시설	444	483	1,487,551	425	427	2,699,211	(19)	(56)	1,211,660	81.5	
숙박시설	760	788	938,368	490	539	719,376	(270)	(249)	(218,992)	-23.3	
공장	3,727	5,742	5,859,276	3,214	4,536	5,145,950	(513)	(1,206)	(713,326)	-12.2	
기타	5,236	6,852	9,556,539	3,777	4,643	5,294,927	(1,459)	(2,209)	(4,261,612)	-44.6	
합계	52,752	60,093	50,085,770	43,771	49,099	43,590,221	(9,981)	(10,994)	(6,495,549)	-13.0	0=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4월분)

구분	1994년			1995년			대비			연면적 비율 (%)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721	1,743	1,119,497	1,864	1,875	1,776,414	143	132	656,917	58.7	
부산	941	1,107	881,543	1,033	1,686	1,032,298	92	579	150,755	17.1	
대구	1,278	1,302	499,907	1,336	1,367	499,461	57	65	(446)	-0.1	
인천	436	465	647,649	476	486	546,318	40	21	(101,331)	-15.6	
광주	282	335	519,769	313	364	239,327	31	29	(280,442)	-54.0	
대전	270	298	232,157	325	415	948,851	55	117	716,694	308.7	
경기	1,612	1,942	2,156,848	2,441	2,666	3,119,431	829	724	962,583	44.6	
강원	643	717	269,587	727	848	527,626	84	131	258,039	95.7	
충북	582	648	249,261	569	610	269,127	(13)	(38)	19,866	8.0	
충남	466	491	394,014	565	583	541,607	99	92	147,593	37.5	
전북	329	358	372,915	296	356	458,012	(33)	(2)	85,097	22.8	
전남	1,122	1,327	735,401	466	549	326,291	(656)	(778)	(409,110)	-55.6	
경북	672	843	597,735	715	880	613,550	43	37	15,815	2.6	
경남	1,069	1,212	823,705	1,119	1,293	1,180,839	50	81	357,134	43.4	
제주	233	250	78,182	251	269	105,965	18	19	27,783	35.5	
합계	11,656	13,038	9,578,170	12,495	14,247	12,185,117	839	1,209	2,606,947	27.2	0=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4월분)

구분	1994년			1995년			대비			연면적 비율 (%)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7,401	7,707	5,918,808	6,742	6,783	6,197,112	(659)	(924)	278,304	4.7	
부산	4,321	4,723	3,350,336	3,393	4,338	3,830,456	(928)	(385)	480,120	14.3	
대구	5,374	5,932	2,724,416	4,841	4,995	2,845,559	(533)	(937)	121,143	4.4	
인천	1,942	1,986	1,782,564	1,608	1,720	2,774,431	(334)	(266)	991,867	55.6	
광주	1,943	2,434	3,023,676	1,258	1,633	1,691,649	(685)	(801)	(1,332,027)	-44.1	
대전	2,016	2,135	1,251,696	1,111	1,263	1,703,263	(905)	(872)	451,567	36.1	
경기	9,251	10,896	10,182,500	8,547	9,647	9,619,290	(704)	(1,249)	(563,210)	-5.5	
강원	2,209	2,486	1,215,040	2,238	2,666	1,808,534	29	180	593,494	48.8	
충북	2,848	3,407	2,045,466	1,979	2,219	1,260,897	(869)	(1,188)	(784,569)	-38.4	
충남	2,356	2,478	7,150,356	1,707	1,865	3,003,229	(649)	(613)	(4,147,127)	-58.0	
전북	1,575	1,847	2,004,791	1,039	1,086	1,438,383	(536)	(761)	(566,408)	-28.3	
전남	2,518	3,011	1,503,742	1,594	1,863	1,025,217	(924)	(1,148)	(478,525)	-31.8	
경북	3,220	4,249	3,227,969	2,812	3,561	2,539,500	(408)	(688)	(688,469)	-21.3	
경남	4,830	5,777	4,299,095	4,114	4,642	3,556,383	(716)	(1,135)	(742,712)	-17.3	
제주	948	1,025	405,315	788	818	296,318	(160)	(207)	(108,997)	-26.9	
합계	52,752	60,093	50,085,770	43,771	49,099	43,590,221	(8,981)	(10,994)	(6,495,549)	-13.0	0=마이너스

이사회 개최



우리 협회의 주요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김규태 회장 주재로 지난 4월 12일(제7회), 4월 28일(제8회), 5월 10일(제9회)에 각각 개최되어, 협회 업무보고에 이어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7회

- 개혁추진 전담기구 운영에 따른 예산 사용 승인의 건
- 다음 이사회에 세부사용 계획서(명세)를 첨부하여 재상정 하기로 하고 유보함.
- 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사용 승인의 건
- 다음 이사회에 세부사용계획서(명세)를 첨부하여 재상정 하기로 하고 유보함.
- 사용년한 경과비품처분 승인의 건
- 감사에게 확인한 후 처분도록 승인함.
- 직원 가호봉 부여 승인의 건
- 운길용 직원에게 일반기능 1급 가1호봉을 부여하기로 원안대로 승인함.
- 회관사무실 사용 조정(안)에 대한 협의
- 회관사무실 사용 조정(안)(1층: 서울건축사법 협동조합, 2층: 서울건축사회, 3,4층: 본부)대로 시행하기로 협의함.
- 협회 이미지 광고문(안)에 대한 협의
- 부회장과 홍보위원회장이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고문(안) 제 1,2안을 참고로 제3안을 작성하기로 협의함.
- 건축자재업계 및 협회공로자에 대한 명예회원 영입계획(안)에 대한 협의
- 정관의 명예회원과 상이한점이 있으므로, 명예회원을 친조회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영입하기로 협의함.

● 제8회

- 개혁추진전담기구 운영에 따른 예산 사용 승인의 건
- 개혁추진전담기구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비에서 1천3백9십2만4천원을 사용하기로 원안대로 승인함.
-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 사용 승인의 건
- 연금제도 개선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비에서 1천2십2만3천2백원을 사용하기로 승인함.
- 경조비 지급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원안 총 제5조 폐업환불금 명칭을 폐업위로금으로 개정하고 지급기준표는

5년 이하 1백만원, 10년이하 1백5십만원, 10년초과 2백만원으로 지급규액을 낮추고, 단순화하는 (안)만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시행일은 '95. 5. 1로 하되, 나머지(안)은 폐기함.

· 본 협회 업무에 대한 정책 자문위원회 위촉의 건

- 서형을 정책고문, 최찬환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되, 임기는 현 회장 재임기간으로 하며, 정책고문에게는 월 2백만원, 정책자문위원에게는 월 1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하기로 결의함.

· 창립30주년기념 전국건축사대회 행사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 '95. 9. 28(목)~29(금)까지 양일간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창립30주년 기념 행사 및 전국건축사대회 행사를 개최하기로 승인하고, 주요계획을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오스트리아 건축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

- 본 협회에서 디스플레이를 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정중하게 거절하기로 협의함.

· 한·농교류 협력에 대한 협의

- 다음 이사회에 부의하여 정식으로 다루기로 협의함.

·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의

- 법제위원회에 위임함.

· 건축설계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세칙(안) 및 건축설계 하도급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협의

- 제출기한이 4월 29일까지로 축약하므로 법제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초안을 제출하기로 협의함.

· 건축개혁(안) 설명회 일정에 대한 협의

- 아직 건축개혁(안)이 미확정이므로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협의함.

● 제9회

· 한·몽교류 협력 및 대표단 구성 승인의 건

- 한·몽교류를 위한 협정서 체결을 위하여 봉고를 방문하기로 하고, 대표단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함. 또한, 봉고방문 3일전에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협의하기로 함.

· 건축개혁(안) 승인의 건

- 건축개혁(안) 중 정관개정(안)은 제도 개선위원회 검토후 다음 이사회에 제출하고, 예산관계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은 이종만, 이종관, 김규태, 임인혁이사 및 개혁추진실부위원장들이 협의하며, 다음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의

- 원안대로 협의함.

· 건축개혁(안) 설명회 일정에 대한 협의

- 설명회를 하지 않기로 협의함.

· 예산심의 방법에 대한 협의

- 이종만, 이종관, 김규태, 임인혁이사와